

연구보고서 2018-37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이소영 · 김은정 · 박종서 · 변수정 · 오미애 · 이상림 · 이지혜

【책임연구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8-37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발 행 일 2018년 12월

저 자 이 소 영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한 국가의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며,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국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관한 실태 파악은 현재 인구 변동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964년 최초로 수행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그동안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법률혼 및 사실혼을 포함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행태와 가치관(인식)을 조사하였고, 미혼 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번 2018년 조사에서는 24번째 조사로 국가 승인통계를 생산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 출산, 양육 행태 변화 등에 관한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책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이소영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에서는 김은정 부연구위원, 박종서 연구위원, 변수정 연구위원, 이상립 연구위원, 오미애 연구위원, 이지혜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조사를 위해 본원의 사회조사팀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 문항 선정부터 결과의 해석과 조사의 개선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준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회

를 통해 자문에 응해 주신 경희대학교 김현식 교수와 본원의 이현주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조사 참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 둔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3절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의의	19
제2장 표본 설계 및 추정 방법	27
제1절 표본 설계	27
제2절 가중치	41

제2부 기혼 여성 대상 조사 결과

제3장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45
제1절 기혼 여성의 일반 특성	45
제2절 기혼 여성의 경제 상황	47
제3절 기혼 여성의 주거 실태	54
제4장 결혼	65
제1절 결혼 전 주거 독립 경험	65
제2절 결혼에 관한 태도	70
제3절 결혼 과정 및 결혼 이력	89
제4절 결혼비용과 주거비 부담	95

제5장 임신 및 출산 103

제1절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103

제2절 임신 124

제3절 자녀 출산 149

제6장 산전·산후관리 165

제1절 산전관리 165

제2절 분만 169

제3절 산후관리 174

제4절 수유 181

제7장 자녀 양육 187

제1절 육아가사 부담과 성 역할 인식 187

제2절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돌봄 203

제3절 초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돌봄 217

제4절 자녀 양육비 230

제8장 일·가정양립 237

제1절 경력단절 237

제2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246

제3절 일·가정양립 관련 태도 254

제4절 취업 의향 265

제5절 일 형태와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270

제9장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273
제1절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필요성	273
제2절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욕구	278
제3절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281

제3부 미혼 남녀 대상 조사 결과

제10장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289
제1절 미혼 남녀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289
제2절 미혼 남녀의 주거 특성	291
제3절 미혼 남녀의 경제적 특성	295
제11장 이성교제 및 결혼	301
제1절 이성교제	301
제2절 결혼에 대한 태도	313
제12장 자녀 및 가족에 대한 태도	331
제1절 자녀에 대한 태도	331
제2절 가족에 대한 태도	351
제13장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387
제1절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필요성	387
제2절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욕구	395

제4부 결론부

제14장 결론 431

 제1절 요약 431

 제2절 제언 442

참고문헌 451

부 록 453

표 목차

〈표 1-1〉 선행 조사	14
〈표 1-2〉 주요 조사 내용	18
〈표 1-3〉 2015년과 2018년 주요 조사 내용 변화(기혼 여성 조사)	22
〈표 1-4〉 2015년과 2018년 주요 조사 내용 변화(미혼 남녀 조사)	24
〈표 2-1〉 최종 표본 조사구 결과	28
〈표 2-2〉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주요 항목 CV값	29
〈표 2-3〉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월평균 가구소득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	29
〈표 2-4〉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월평균 가구지출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	29
〈표 2-5〉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출생아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30
〈표 2-6〉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이상자녀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30
〈표 2-7〉 2015년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 가구소득 CV값	31
〈표 2-8〉 2015년, 2018년 CV값	31
〈표 2-9〉 2015년 조사 주요 항목의 집락 내 상관계수	33
〈표 2-10〉 2015년 조사 주요 항목의 설계효과(deff)	34
〈표 2-11〉 2015년 조사와 2018년 조사 가구소득 CV	35
〈표 2-12〉 지역별 가구 수 분포(2016년 인구총조사 기준)	36
〈표 2-13〉 지역별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2010년, 2016년 인구총조사)	37
〈표 2-14〉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최종 시·도별 층별 표본 배정 결과	39
〈표 3-1〉 기혼 여성(15~49세)의 일반 특성	46
〈표 3-2〉 기혼 여성(15~49세)의 월평균 가구소득	48
〈표 3-3〉 기혼 여성(15~49세)의 월평균 가구지출	50
〈표 3-4〉 기혼 여성(15~49세)의 가구재산	52
〈표 3-5〉 기혼 여성(15~49세)의 가구부채	54
〈표 3-6〉 기혼 여성(15~49세)의 주택 유형	55
〈표 3-7〉 기혼 여성(15~49세)의 거주 주택 점유 형태	57

〈표 3-8〉 기혼 여성(15~49세) 거주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여부	58
〈표 3-9〉 자가 거주 기혼 여성(15~49세)의 주택 시기	59
〈표 3-10〉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거주 기혼 여성(15~49세)의 임대보증금	60
〈표 3-11〉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사글세 거주 기혼 여성(15~49세)의 월세(사글세) 비용 ..	61
〈표 3-12〉 기혼 여성(15~49세) 거주 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한 융자 여부	63
〈표 3-13〉 기혼 여성(15~49세) 가구원 중 다른 주택 소유 여부	64
〈표 4-1〉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전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경험 여부	66
〈표 4-2〉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전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시작 연령	67
〈표 4-3〉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전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장소	68
〈표 4-4〉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전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이유	69
〈표 4-5〉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72
〈표 4-6〉 기혼 여성(15~49세)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73
〈표 4-7〉 기혼 여성(15~49세)의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75
〈표 4-8〉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76
〈표 4-9〉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	78
〈표 4-10〉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80
〈표 4-11〉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81
〈표 4-12〉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82
〈표 4-13〉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	84
〈표 4-14〉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85
〈표 4-15〉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87

〈표 4-16〉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88
〈표 4-17〉 유배우 여성(15~49세)의 현재 남편과의 혼인신고 여부	89
〈표 4-18〉 유배우 여성(15~49세)의 현재 남편과의 결혼식 여부	91
〈표 4-19〉 유배우 여성(15~49세)의 현재 남편과의 결혼 시작 판단 시점(사건)	93
〈표 4-20〉 기혼 여성(15~49세)의 최근 결혼생활의 진행 순서	95
〈표 4-21〉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비용 부담	96
〈표 4-22〉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거 점유 형태	97
〈표 4-23〉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택 구입 가격(자가 응답자)	98
〈표 4-24〉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택 전세 보증금(전세 응답자)	98
〈표 4-25〉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택 월세 보증금(보증부 월세)	99
〈표 4-26〉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택월세 (보증부 월세/월세/사글세 응답자)	100
〈표 4-27〉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 여부 (본인 및 남편)	100
〈표 4-28〉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모 (본인 및 남편)	101
〈표 5-1〉 기혼 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	104
〈표 5-2〉 기혼 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106
〈표 5-3〉 기혼 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108
〈표 5-4〉 기혼 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110
〈표 5-5〉 기혼 여성(15~49세)의 인생목표에 따른 적정 자녀수에 대한 생각	113
〈표 5-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 (15~49세)의 태도	114
〈표 5-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 (15~49세)의 태도	116
〈표 5-8〉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 (15~49세)의 태도	118

〈표 5-9〉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120
〈표 5-1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 (15~49세)의 태도	122
〈표 5-11〉 자녀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124
〈표 5-12〉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	125
〈표 5-13〉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순위별 임신 방법	127
〈표 5-14〉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결과	128
〈표 5-15〉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	130
〈표 5-16〉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목적	132
〈표 5-17〉 출산 연기를 목적으로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의 출산 연기 이유 ..	134
〈표 5-18〉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중복 응답) ..	137
〈표 5-19〉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 경험 여부	138
〈표 5-20〉 난임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난임 진단 경험 여부	140
〈표 5-21〉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원인	140
〈표 5-22〉 난임의 구체적 원인(중복 응답)	141
〈표 5-23〉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의 치료 여부	142
〈표 5-24〉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의 배우자 치료 여부	142
〈표 5-25〉 난임 치료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치료 장소(중복 응답)	143
〈표 5-26〉 난임 치료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배우자의 치료 장소(중복 응답) ..	143
〈표 5-27〉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 시술 (체외수정, 인공수정) 여부	144
〈표 5-28〉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 결과	145
〈표 5-29〉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시술 시 힘들었던 점 ..	145
〈표 5-30〉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시술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	146
〈표 5-31〉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시술 중단 경험	147
〈표 5-32〉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가 시술받다가 중단한 주된 이유	148

〈표 5-33〉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난임으로 인한 정서·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진료 경험	148
〈표 5-34〉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당시 계획자녀수	150
〈표 5-35〉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수	152
〈표 5-36〉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초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	153
〈표 5-37〉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계획	155
〈표 5-38〉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중단 이유(1순위)	158
〈표 5-39〉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중단 이유(2순위)	159
〈표 5-40〉 유배우 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	161
〈표 5-41〉 유배우 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결혼 당시 계획자녀수,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평균)	163
〈표 6-1〉 기혼 여성(15~49세)의 초진 시기	166
〈표 6-2〉 기혼 여성(15~49세)의 산전 수진 횟수	168
〈표 6-3〉 기혼 여성(15~49세)의 분만 장소	170
〈표 6-4〉 기혼 여성(15~49세)의 분만 방법	171
〈표 6-5〉 기혼 여성(15~49세)의 출산 당시 평균 임신주수	173
〈표 6-6〉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 수진 경험	175
〈표 6-7〉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176
〈표 6-8〉 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을 받은 기혼 여성(15~49세)의 진단 혹은 상담 장소 ..	177
〈표 6-9〉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조리 장소(중복 응답)	179
〈표 6-10〉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조리 비용	180
〈표 6-11〉 기혼 여성(15~49세)의 모유수유 경험 여부	182
〈표 6-12〉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및 실제 중단 시기	184
〈표 6-13〉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 양상	186
〈표 7-1〉 유배우 여성(15~49세)의 가사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	188
〈표 7-2〉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1일 평균 가사시간	190
〈표 7-3〉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15~49세)의 육아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 ..	192

〈표 7-4〉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1일 평균 육아시간 ..	194
〈표 7-5〉 유배우 여성(15~49세)의 부부 역할에 대한 인식	196
〈표 7-6〉 ‘아내는 자신의 경력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의 태도	197
〈표 7-7〉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의 태도	199
〈표 7-8〉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의 태도	201
〈표 7-9〉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 여성 (15~49세)의 태도	202
〈표 7-10〉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 희망 주간 돌봄 유형	204
〈표 7-11〉 0~2세 자녀의 희망 주간 돌봄 유형	205
〈표 7-12〉 3세~취학 전 자녀의 희망 주간 돌봄 유형	207
〈표 7-13〉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 실제 주간 돌봄 유형	208
〈표 7-14〉 0~2세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	209
〈표 7-15〉 3세~취학 전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	210
〈표 7-16〉 0~2세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212
〈표 7-17〉 3세~취학 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212
〈표 7-18〉 0~2세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213
〈표 7-19〉 3세~취학 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215
〈표 7-20〉 0~2세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216
〈표 7-21〉 3세~취학 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217
〈표 7-22〉 초등학교 자녀의 학년별 희망 주간 돌봄 유형	218
〈표 7-23〉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희망 주간 돌봄 유형	219
〈표 7-24〉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희망 주간 돌봄 유형	220
〈표 7-25〉 초등학교 자녀의 학년별 실제 주간 돌봄 유형	221
〈표 7-26〉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	222
〈표 7-27〉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	223

〈표 7-28〉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	224
〈표 7-29〉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	225
〈표 7-30〉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226
〈표 7-31〉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227
〈표 7-32〉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228
〈표 7-33〉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229
〈표 7-34〉 기혼 여성(15~49세)의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에 대한 태도	231
〈표 7-35〉 1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233
〈표 7-36〉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234
〈표 7-37〉 3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235
〈표 8-1〉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둘째 자녀 임신 전 까지 경력단절 경험	238
〈표 8-2〉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239
〈표 8-3〉 첫째 자녀 임신 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15~49세) 의 경제활동 특성별, 현존 자녀수별 경력단절 시기	241
〈표 8-4〉 첫째 자녀 임신 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15~49세) 의 경제활동 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242
〈표 8-5〉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243
〈표 8-6〉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244
〈표 8-7〉 둘째 자녀 임신 후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15~49세) 의 경제활동 특성 및 현존 자녀수별 경력단절 시기	245
〈표 8-8〉 둘째 자녀 임신 후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15~49세) 의 경제활동 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246
〈표 8-9〉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첫째 자녀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	247

〈표 8-10〉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첫째 자녀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2011. 1. 1. 이후 출생아 대상) 248	
〈표 8-11〉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둘째 자녀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 249	
〈표 8-12〉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둘째 자녀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2011. 1. 1. 이후 출생아 대상) ... 250	
〈표 8-13〉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첫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경험 251	
〈표 8-14〉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첫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경험(2011. 1. 1. 이후 출생아 대상) 252	
〈표 8-15〉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경험 253	
〈표 8-16〉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경험(2011. 1. 1. 이후 출생아 대상) 254	
〈표 8-17〉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주당 40시간 근로 여부 255	
〈표 8-18〉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기혼 여성(15~49세)의 전일제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 256	
〈표 8-19〉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258	
〈표 8-20〉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 259	
〈표 8-21〉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기간 261	
〈표 8-22〉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기간 ... 262	
〈표 8-23〉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일에 대한 만족도 263	
〈표 8-24〉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일에 대한 만족도 264	
〈표 8-25〉 비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266	
〈표 8-26〉 비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향후 취업 의향 267	
〈표 8-27〉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15~49세)의 취업 희망 이유 ... 268	
〈표 8-28〉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15~49세)의 취업 희망 시기 ... 269	
〈표 8-29〉 기혼 여성(15~49세)의 이상적인 직장 형태와 적정 자녀수 271	

〈표 9-1〉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생각 ..	274
〈표 9-2〉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	275
〈표 9-3〉 국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	277
〈표 9-4〉 가장 필요한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생각	278
〈표 9-5〉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의견(1순위)	280
〈표 9-6〉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282
〈표 9-7〉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	283
〈표 9-8〉 보육교육 및 초등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285
〈표 9-9〉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286
〈표 10-1〉 미혼 남녀(20~44세)의 일반 특성	290
〈표 10-2〉 미혼 남녀(20~44세)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291
〈표 10-3〉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 남녀(20~44세)의 주택 유형	292
〈표 10-4〉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 남녀(20~44세)의 주택 점유 형태	292
〈표 10-5〉 미혼 남녀(20~44세)의 부모와 3개월 이상 떨어져 살아 본 경험(군복무 제외) ..	293
〈표 10-6〉 미혼 남녀(20~44세)가 처음으로 부모와 3개월 이상 떨어져 살기 시작한 연령 ..	294
〈표 10-7〉 미혼 남녀(20~44세)가 처음으로 부모와 3개월 이상 떨어져 살게 된 이유 ..	295
〈표 10-8〉 미혼 남녀(20~44세)의 월평균 소득	296
〈표 10-9〉 미혼 남녀(20~44세)의 월평균 지출	297
〈표 10-10〉 미혼 남녀(20~44세)의 재산 규모	298
〈표 10-11〉 미혼 남녀(20~44세)의 부채 규모	299
〈표 10-12〉 미혼 남녀(20~44세)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여부	300
〈표 11-1〉 미혼 남녀(20~44세)의 이성교제 여부	302
〈표 11-2〉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20~44세)의 교제 상대 알게 된 계기	304
〈표 11-3〉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20~44세)의 교제 상대 알게 된 계기(두 집단)	306

〈표 11-4〉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20~44세)의 교제 상대와의 결혼에 대한 생각	308
〈표 11-5〉 교제 상대 없는 미혼 남녀(20~44세)가 이성교제 안 하는 주된 이유	310
〈표 11-6〉 교제 상대 없는 미혼 남녀(20~44세)의 이성교제 안 하는 주된 이유(두 집단) ..	312
〈표 11-7〉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315
〈표 11-8〉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317
〈표 11-9〉 미혼 남녀(20~44세)의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318
〈표 11-10〉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	321
〈표 11-11〉 미혼 남녀(20~44세)의 배우자 조건에 대한 태도 (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 응답률)	323
〈표 11-12〉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325
〈표 11-13〉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327
〈표 11-14〉 ‘혼인신고는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329
〈표 12-1〉 미혼 남녀(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333
〈표 12-2〉 미혼 남녀(20~44세)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35
〈표 12-3〉 미혼 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이상자녀수	337
〈표 12-4〉 미혼 남녀(20~44세)의 여건을 고려한 희망자녀수	340
〈표 12-5〉 자녀를 두고 싶다고 응답한 미혼 남녀(20~44세)의 딸·아들 구분 선호 여부 ...	342
〈표 12-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344
〈표 12-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347
〈표 12-8〉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349
〈표 12-9〉 자녀 관련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51
〈표 12-10〉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53

〈표 12-11〉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55
〈표 12-12〉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358
〈표 12-13〉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360
〈표 12-14〉 가족 내 부부의 역할 관련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62
〈표 12-15〉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63
〈표 12-16〉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66
〈표 12-17〉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68
〈표 12-18〉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70
〈표 12-19〉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72
〈표 12-20〉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374
〈표 12-21〉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76
〈표 12-22〉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78
〈표 12-2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80
〈표 12-24〉 가족 관련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82
〈표 12-25〉 이상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생각	384
〈표 13-1〉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생각 ...	388
〈표 13-2〉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390

〈표 13-3〉 가장 필요한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생각	392
〈표 13-4〉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394
〈표 13-5〉 미혼 남녀(20~44세)의 신혼부부 대상 자금 대출 방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395
〈표 13-6〉 미혼 남녀(20~44세)의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방식 주거 지원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397
〈표 13-7〉 미혼 남녀(20~44세)의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주택 공급 방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398
〈표 13-8〉 미혼 남녀(20~44세)의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주택 공급 방식 주거 지원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400
〈표 13-9〉 미혼 남녀(20~44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402
〈표 13-10〉 미혼 남녀(20~44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403
〈표 13-11〉 미혼 남녀(20~44세)의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405
〈표 13-12〉 미혼 남녀(20~44세)의 출산전후휴가제도 중요도에 대한 태도	406
〈표 13-13〉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407
〈표 13-14〉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중요도에 대한 태도 ..	409
〈표 13-15〉 미혼 남녀(20~44세)의 여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411
〈표 13-16〉 미혼 남녀(20~44세)의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중요도에 대한 태도	412
〈표 13-17〉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414
〈표 13-18〉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중요도에 대한 태도	415
〈표 13-19〉 미혼 남녀(20~44세)의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417
〈표 13-20〉 미혼 남녀(20~44세)의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418
〈표 13-21〉 미혼 남녀(20~44세)의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	420
〈표 13-22〉 미혼 남녀(20~44세)의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	422

- 〈표 13-23〉 미혼 남녀(20~44세)의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 423
- 〈표 13-24〉 미혼 남녀(20~44세)의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 425
- 〈표 13-2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 426
- 〈표 13-26〉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태도 ... 427

Abstract <<

The 2018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Project Head: Lee, So-Young

Since the early 1970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has conducted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every three years . The 2018 Survey was conducted of about 11,200 ever-married women aged 15~49 and 2,500 never-married men and women aged 20~44 residing households in the enumeration districts for 2016 Register-based Census(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survey items were focused on behaviors, personal value, and thought regarding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child care of different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was negative among single men and, to a greater extent, among single women. Seventeen percent of ever-married women showed indifferent attitude about having a child. Such attitude was more pervasive in single persons: 30 percent for single men and 48 percent for single women. The reasons answered by the

Co-Researchers: Kim, Eunjung·Park, Jong Seo·Byoun, Soojung·Oh, Miae
Lee, Sang-lim·Yi, Jihye

ever-married women for wanting no child were “no hope for future society”, “burden for education of child”, “in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life”, etc. The average ideal number of children among married women was 2.16, and the planned number of children was 2.00. However, the average expected number of children was 1.92, and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was 1.75. The difference among the average ideal number, expected number,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has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expected to be of use not only for academic purposes but also in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related policie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가치관 및 행태와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생각(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다. 2018년도 조사는 24번째(1979년부터 3년 주기) 조사로 정부지정통계 제331001호를 생산한다. 조사 결과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한국 지표를 생산하고, 과거 인구정책을 평가하며 향후 정책의 개선과 관련 학술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결혼

기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경험을 묻는 다양한 조사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형식이나 규범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혼 때의 주거 마련 등 결혼비용 부담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20~44세)는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규범의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혼 여성들이 미혼 남성보다 더 강

한 부정의 경향을 보였다. 여성들이 전통적 혼인관계에서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혼 남녀는 결혼관계가 아닌 이성교제 관계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의 필요성 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미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통적인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가족관 및 가족유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자녀나 가족 관련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또는 과거부터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져 오던 결혼 관계 밖에서의 자녀 출산에 대한 편견 등은 여전히 남아 있기도 했다. 미혼 남녀, 특히 미혼 여성의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태도와 함께 특정한 부분에 대해 아직 남아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공존하면서 변화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나. 자녀 가치관

기혼 여성 중 약 17%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의 28.9%와 미혼 여성의 48%가 이러한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25.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혼 여성은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적인 규모보다는 자녀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녀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배우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평균 2.16명이나 기대자녀수는 1.92명으로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 임신과 출산

유배우 여성의 12.1%는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나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난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유배우 여성 중 난임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52.1%로 나타났다.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가 힘들었던 점을 조사한 결과,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36.1%)이 가장 컸고,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주된 이유는 신체적으로 힘들어서(24.1%)와 심리적 부담감(18.3%)이 가장 큰 이유였음에도 6.2%만이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모든 기혼 여성은 임신을 하면 출산 전 검진을 받고 있는 반면, 출산 후 관리에 있어서 산후 기간에 진찰(검진)을 받은 비율(산후수진율)은 94.7%로 산전 수진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라. 자녀 양육

남편과의 가사, 육아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48.0%, 61.1%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실제 가사와 육아참여 시간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경우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성역할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양육에 대한 책임, 특히 영아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이 해

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에 여성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돌봄 유형의 일치도 분석 결과, 국공립 시설 이용에 대한 일치도는 0~2세 영아기와 3세~미취학 유아기에 각각 16.7%, 36.5%로 조사되었으며, 초등돌봄·방과후에 대한 일치도는 초등학교 1~3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 각각 75.6%, 66.2%로 조사되었다. 돌봄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8%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영아기의 경우 장시간 본인 돌봄이 조사되었으며 유아기에는 이와 함께 짧은 시설 돌봄 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서비스 비용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은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 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1자녀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73만 3000원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 교육비는 전체 양육비 총액의 약 48%로 자녀가 1명인 경우(3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돌봄비용 및 교육비용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마. 기혼 여성의 일·가정양립

첫째 자녀 임신 당시 취업 중이던 기혼 여성의 65.8%가 첫째 자녀 출산 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46.1%로 줄어든다. 이미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들이 상당수 빠졌

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시기는 임신 후 출산 전까지가 가장 많았다. 출산 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고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자녀의 이용 비율이 높다. 경력단절 경험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취업한 기혼 여성의 당시 직종별, 종사상지위별, 직장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바. 정책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 모두 국가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기혼 여성은 결혼 정책에 대해서는 신혼집 마련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이나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자녀 양육 비용 부담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의 경우 모두 인지도와 도움 정도, 중요도가 높았으며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중요도가 특히 높았다. 미혼 남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편이고 이러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사회의 빠른 환경 변화는 과거에 당연시되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행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미혼남녀의 비혼화와 만혼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혼이라는 개인 생애사적인 사건(event)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적어도 비자발적인 만혼과 비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이라는 태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만혼화와 비혼화는 결국 저출산이라는 현상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자녀 출산과 양육은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상자녀수는 2.16명으로 2015년 조사 결과(2.25명)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조사 결과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는 이상자녀수에 0.41명이 미치지 못했으며, 향후 출산까지 고려(기대자녀수)하여도 이상자녀수에 0.24명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청년층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고용, 주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더 나아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 성평등적 문화, 가족친화적이면서 양성평등적인 직장문화의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8년 조사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산력’이라는 조사 명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통적인 가치관 문항, 가구면접조사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었다. 한국 사회의 인식과 태도의 빠른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학술적 목적 외에도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 산출이라는 실용적인 목적,

현실적으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조사의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차기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결혼, 출산, 양육, 일·가정 양립

제 1 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2장 표본 설계 및 추정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국가의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세 가지 주된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변동에 국가는 인구정책으로 대응해왔다. 인구정책을 ‘개인의 인구행태에 영향을 주어 적정인구를 실현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행하는 의도적 노력’이라고 봤을 때(구성열, 1996), 이러한 인구정책이 추진된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억제 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1996-2003)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기(2004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이삼식 외, 2013). 인구억제 정책시기는 고출생으로 인구증가 현상에 대응해 온 시기였고,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기에는 저출생으로 인해 미래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저출생과 저사망은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부양비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등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국가의 존속이라는 근본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출생과 저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사회현상에서 사회문제로, 더 나아가 사회위기로써도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생과 저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인구현상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구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현상은 단시간 내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요인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1960년대 초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당시 인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며 1964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1-1〉 선행 조사

년도	조사 명칭	담당 기관 및 보고서명
1964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가족계획」
1965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66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67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68	전국출산력조사	국립가족계획연구소, 「한국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71	전국출산력 및 인공임신중절조사	가족계획연구원, 「출산력과 가족계획, 1971년 출산력 및 인공임신중절조사보고」
1973	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전국가족계획 및 출산력」
1974	한국출산력조사	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 「한국출산력조사:1차보고서」
1976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1978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페임보급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82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8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표 1-1〉 계속

년도	조사 명칭	담당 기관 및 보고서명
199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4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7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0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3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00년대 이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저출산대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1차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05년, 2009년, 2012년, 2015년에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2년 조사부터 통계청의 유사조사 통합 권고에 따라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본 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또는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여기에 더해 인구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8년도 조사는 24번째(1979년부터 3년 주기) 조사로 정부지정통계 제331001호를 생산한다. 조사 결과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한국 지표를 생산하고, 과거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의 개선과 관련 학술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도입부(제1부), 기혼 여성 대상 조사 결과(제2부), 미혼 남녀 대상 조사 결과(제3부), 결론부(제4부)로 구성된다. 제1부 도입부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 방법론으로서 표본 설계 및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부 기혼 여성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본 조사에 포함된 가구와 응답자인 기혼 여성(15~49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 행태, 인식, 관련 정책 체감도 등을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결혼 전 상황으로서 거주 독립,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관한 사항, 결혼 당시 소요된 비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만족도·중요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혼 여성의 임신, 피임, 난임, 출산 등과 관련한 실태와 태도를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산전관리, 분만, 산 후관리, 수유 등에 관한 실태와 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만족도·중요도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 가구의 자녀 양육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간 육아·가사 분담 정도, 취학 전 및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실태, 자녀 양육비 등을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임신 시 경력단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일·가정양립 행태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인지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였다.

제3부에 미혼 남녀 조사 결과에서는 본 조사에 포함된 응답 미혼 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한 후 미혼 남녀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 인식,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미혼 남녀의 이성교제,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결혼 의향, 본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와 태도도 분석하였다. 또한 미혼 남녀의 자녀와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본인의 향후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미혼 남녀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였다.

제4부 결론부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설문 문항은 연구진이 개발한 후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되었다. 또한 조사의 대상인 기혼 여성, 미혼 남성,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수행한 후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설문지를 가지고 통계청 승인(제331001호)과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제2018-30호)을 완료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적인 특성,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일·가정양립에 관한 사항, 미혼 남녀(20~44세)의 이성교제 현황, 결혼 및 출산 관련 태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는 주요 조사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도록 한다.

〈표 1-2〉 주요 조사 내용

공통 사항	기혼 여성 조사표	미혼 남녀 조사표
- 가구원 및 비동거 가구원 사항 - 가구 및 개인의 일반 특성	- 결혼에 관한 사항 •결혼 전 거주지 관련 사항 •결혼에 관한 태도 •본인의 결혼 실태 •본인의 결혼비용 -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피임에 관한 사항 •난임에 관한 사항 - 산전·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수유에 관한 사항 -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부부의 육아가사 분담 •취학 전 자녀의 돌봄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자녀 양육비 - 일·가정양립에 관한 사항 -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이성교제 및 결혼에 관한 사항 -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 -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본 조사는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원은 총 26개 조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체로 조사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원들은 통계청의 2016

년 등록센서스 표본추출틀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표본추출한 700개 조사구 내의 약 1만 2000가구와 이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여성(15~49세) 및 미혼 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7월 6일 시작하여 9월 22일에 완료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에러 체크 및 에디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가중치 산출 및 에러 체크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3절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의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인구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인구 정책이 변화하면서 조사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 왔다. 본 절에서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와 유사한 조사들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통해 본 조사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 조사와 비교해서 2018년 수행된 본 조사와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조사와 유사한 패널조사로는 아동패널조사, 청소년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있다. 기본적으로 패널조사는 실태조사와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패널은 특정한 주제(영역)와 특정 인구 집단에 중점을 두어 동일 대상에 대한 동적인 분석을 하는 종단면적인 조사이다. 반면 실태조사는 한 시점의 전체 인구(가구)를 대표하는 횡단면적인 조사로 차이가 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본 조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전국 9068가구 내 만 19~6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된 조사로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등 변화 실태

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재선 외, 2017). 구체적으로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 조화 실상을 파악하고, 둘째, 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며, 셋째,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등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여성 및 가족정책 수립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재선 외, 2017). 조사 내용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가족, 주거상태,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며, 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결혼 경험, 결혼과 부부생활, 가사노동, 남편 일자리, 임신 및 출산 경험과 자녀계획, 자녀교육, 성인자녀와의 관계(미혼/기혼), 부모님과 관계(본인/남편), 형제자매(본인/남편), 가족관련 가치관, 건강, 지역안전의식(부가조사)을 조사하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활동, 구직경험, 일 만족도, 교육 및 훈련, 사회보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차별사항, 모성보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주재선 외, 2017).

여성가족패널조사와 본 조사의 차이는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9~64세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조사인 것에 비해 본 조사는 가임기(15~49세) 기혼(법률혼, 사실혼) 여성과 20~44세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실태와 가치를 파악하여 인구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라는 점이다. 즉, 조사 방식(패널조사 대 실태조사), 조사 대상자, 조사 목적이 다르다. 본 조사의 핵심이 되는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event)은 패널조사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와 유사한 실태조사로는 가족실태조사,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사회조사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유사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2년 조사부터 통계청의 유사조사

통합 권고에 따라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본 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사한 조사는 가족실태조사이다. 가족실태조사는 약 5000 가구를 대상으로 만 12세 이상의 모든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5년의 주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의 핵심목적은 젠더, 세대, 계층을 고려하여 가족구성원들 간의 역할관계와 자원의 분배를 파악하여 한국가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가족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장혜경 등, 2014; 장혜경 등, 2015, p.5).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3차 가족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은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 가족의 경제상태, 가족 가치관, 가족행태(가족 형성 및 변화), 일과 돌봄(가족원의 가사참여, 아동 돌봄, 노인 및 가족원 돌봄),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청소년 자녀관계, 부모-성인자녀관계), 가정생활양식(생애설계, 식생활, 가족여가, 지역사회 활동 등)과 노후준비, 가족 갈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작은결혼식, 이웃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한다(장혜경 등, 2015). 따라서 가족실태조사와 본 조사는 조사 대상, 조사 주기, 조사 내용, 조사의 주된 정책 활용도(가족정책 대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각 시대 인구정책의 특성에 따라 초점과 내용이 달라져 왔는데, 우선 196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 평가를 목적으로 피임에 관한 지식·태도·실천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으며, 197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고, 1980년대 조사는 모자보건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1990년대 조사는 인구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고, 2000년대 조사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내용과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화하였다(김승권 등, 2009; 오영희 등, 2016).

이전 조사인 2015년 조사는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평가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만혼이 지적됨에 따라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정교화하였다. 이전의 조사와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즉, 2018년 조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 이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이성교제와 거주 독립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고, 저출산 정책 중 일·가정양립정책이 우선 순위가 높다는 점에서(김상우, 2016; 김상호 등, 2017) 관련 문항을 정교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의 경우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2015년 설문 내용을 가능한 한 유지하되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조사와 중복되는 설문 문항은 삭제하였다. 기혼 여성 조사의 경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남아선호사상 등 출산억제정책과 관련된 문항은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1-3〉 2015년과 2018년 주요 조사 내용 변화(기혼 여성 조사)

구분	주요 조사 내용	2015년 대비 2018년 주요 변화
동거가구원, 비동거가족 사항	- 가구원의 일반 특성 - 비동거 가족의 비동거 관련사항	- 가구원의 직종 삭제 - 미혼모 여부를 별도로 조사(2015년에는 혼인상태에서 미혼모를 포함시켜 조사)
가구의 일반 특성	- 주거 관련 사항 - 가구소득, 가구지출, 재산, 부채 관련 사항	- 2015년에는 주택 점유 형태가 임차인 경우에만 임차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자가인 경우 시가를 추가하여 조사 - 가구소득 관련 문항을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결혼에 관한 사항	- 결혼 전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 관련 사항 - 결혼에 관한 태도 - 결혼 관련 사항 - 결혼 비용 - 결혼 정책 관련 사항	- 결혼 전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 관련 사항 추가 - 결혼비용 중 일부 항목 삭제(결혼비용 중 부담이 컸던 항목, 주택비용 부담자) - 결혼 정책 관련 사항 추가

〈표 1-3〉 계속

구분	주요 조사 내용	2015년 대비 2018년 주요 변화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 피임에 관한 사항 - 난임에 관한 사항	-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중 태아 성감별 실시 여부 문항 삭제, 남아 출산을 위한 노력 여부 및 구체적인 노력 관련 문항 삭제 -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항목 중 결혼 당시 자녀에 대한 선호 성별 추가(남아선호가 아닌 성선호), 아들의 필요성과 아들이 필요한 이유 문항 삭제 - 난임치료 관련 문항은 아내와 남편으로 구분하여 세분, 난임 시술 횟수 추가, 난 임 지원 정책 관련 문항 삭제
산전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 수유에 관한 사항 - 임신·출산 정책 관련 사항	- 미숙아 의료 지원 정책 관련 문항 삭제 -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기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 자녀와 같은 방에서 지낸 시간 문항 삭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문항을 산후조리 전체 비용으로 변경 - 수유실태의 항목 세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 부부의 육아가사 분담 -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돌봄 -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 자녀 양육비 - 보육·교육 정책 관련 사항	- 부모 및 친인척 지원 관련 문항 삭제 - 자녀 돌봄 관련 문항 중 야간 돌봄 문항 삭제, 육아지원시설/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및 미이용 사유 문항 삭제, 돌봄상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문항 추가
일가정양립에 관한 사항	- 아내와 남편의 취업상태 - 일가정양립 관련 태도 - 취업 의향 - 임신·출산 전후 근로상황 - 일가정양립 정책 관련 사항	- 지금까지의 취업경험 및 이직횟수 관련 문항 삭제, 현 취업상태 문항 중 일부 문항 삭제 - 일하는 이유 문항 삭제, 일·가정양립 어려운 이유 문항 삭제 - 일에 대한 만족도 문항 추가 - 임신·출산 전후 근로상황에 대한 문항 수정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저출산 현상의 영향력 - 국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태도 등	-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의견, 직장에서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의견, 세금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의견, 자녀 출산·양육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 문항 삭제 - 각 영역의 정책 관련 사항에 “중요도” 항목 추가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혼 남녀 조사의 경우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이성교제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자녀에 관한 구체적인 문항은 미혼자가 응답하기에

무리가 있거나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표 1-4〉 2015년과 2018년 주요 조사 내용 변화(미혼 남녀 조사)

구분	주요 조사 내용	2015년 대비 2018년 주요 변화
동거가구원, 비동거가족 사항	- 가구원의 일반 특성 - 비동거 가족의 비동거 관련사항	- 가구원의 직종 삭제 - 미혼모 여부를 별도로 조사(2015년에는 혼인상태에서 미혼모를 포함시켜 조사)
일반 특성	- 주거 관련 사항 - 부모와의 주거독립 관련 사항 - 소득, 지출, 재산, 부채 관련 사항	- 2015년에는 주택 점유 형태가 임차인 경우에만 임차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자가인 경우 시가를 추가하여 조사 - 임대주택 여부, 주택 관련 용자 관련 문항은 삭제하고 주택의 명의자, 살고있는 집 외에 본인 소유 주택 관련 문항 추가 - 부모와의 주거독립 관련 문항 수정 - 소득 관련 문항을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결혼에 관한 사항	- 결혼 전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 관련 사항 - 결혼에 관한 태도 - 결혼 관련 사항 - 결혼 비용 - 결혼 정책 관련 사항	- 결혼 전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 관련 사항 추가 - 결혼비용 중 일부 항목 삭제(결혼비용 중 부담이 컸던 항목, 주택비용 부담자) - 결혼 정책 관련 사항 추가
교육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 관련 사항 - 경제활동 관련 사항	- 근로형태 문항 삭제 - 직업(직장) 선택 시 고려사항 문항 추가
이성교제 및 결혼에 관한 사항	- 이성교제 관련 사항 - 결혼 관련 사항	- 이성교제 관련 문항 추가 - 결혼에 대한 견해 문항 일부 축소 - 적정 결혼비용 문항 삭제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	- 자녀에 대한 태도 - 가족에 대한 태도	- 이상자녀수에 대한 성별 구분 문항 삭제, 혼전 임신 시 대처방안 문항 삭제 - 자녀에 대한 태도 문항 일부 축소 - 일과 자녀 출산 관련 이상적 여성의 삶 문항 추가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저출산 현상의 영향력 - 결혼 관련 정책 - 국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태도 -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및 중요도 등	-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의견, 직장에서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의견, 세금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의견, 자녀 출산·양육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 문항 삭제 -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 선택 문항을 주요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와 중요도 질문으로 변경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구의 수를 기존의 600개에서 700개로 확대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원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문서번호 제2018-30호)을 받고, 조사 문항의 정교화를 위해 사전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표본 설계 및 추정 방법 <<

제1절 표본 설계

1. 표본 설계 개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가구의 출산 및 결혼과 관련된 실태 및 의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장단기 인구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혼 여성의 임신, 출산, 피임 행태 변화와 부부의 취업 및 자녀 양육, 그리고 미혼 남녀의 가족형성 의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며 이러한 자료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 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선정하였다.

층화 기준은 17개 시·도, 동부/읍·면부별로 층화하였으며, 추출방법은 층화 2단 집락추출이다. 조사구 추출(1단)은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조사구 특성, 여성의 수, 가구원 수)로 정렬한 후, 가구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로 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가구추출(2단)은 조사구 내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통 추출하였다.

이 조사의 목표 표본 규모는 표본 조사구 700개, 1만 가구로 조사구별 14~15가구를 조사 완료 목표로 하였다. 목표 조사 성공률을 83%로 고려

하여 20% 과대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 표본 규모는 1만 2000가구이다. 본 조사의 지역별 표본 조사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1〉 최종 표본 조사구 결과

(단위: 개)

표본 조사구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전국	700	548	152
서울	97	97	-
부산	46	46	-
대구	35	35	-
인천	40	40	-
광주	29	29	-
대전	18	18	-
울산	17	17	-
세종	8	4	4
경기	120	96	24
강원	26	15	11
충북	34	20	14
충남	57	25	32
전북	43	31	12
전남	22	10	12
경북	36	19	17
경남	62	39	23
제주	10	7	3

2. 2018년 표본 규모 결정을 위한 2015년 조사 결과 분석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표본 설계에서는 적정 표본 규모 산정 작업 전에, 우선적으로 2015년 조사의 주요 항목(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지출 등)에 대한 CV(상대표준오차)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층화집락효과를 고려한 CV값을 산출해 보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2-2〉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주요 항목 CV값

(단위: 가구, %)

항목		전체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표본	CV	표본	CV	표본	CV	표본	CV
주요 항목	월평균 가구소득 (만 원)	11,005	1.60	4,277	2.78	4,339	2.14	2,389	2.34
	월평균 가구지출 (만 원)	11,006	1.36	4,278	2.25	4,338	2.01	2,390	2.01
	출생아수 (명)	11,009	0.68	4,278	1.07	4,340	1.09	2,391	1.42
	이상자녀수(명)	10,878	0.43	4,228	0.61	4,288	0.72	2,362	1.02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각 지역 구분별 항목들의 표준오차와 95% 신뢰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2-3〉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월평균 가구소득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만 원)

지역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7.81	471.55	502.24
대도시	14.32	486.78	543.24
중소도시	10.33	461.74	502.45
농어촌	9.77	397.91	436.58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2-4〉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월평균 가구지출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만 원)

지역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5.16	367.03	387.33
대도시	8.93	378.22	413.41
중소도시	7.53	358.96	388.66
농어촌	6.65	318.36	344.71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2-5〉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출생아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명)

지역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012	1.729	1.776
대도시	0.018	1.702	1.775
중소도시	0.019	1.725	1.800
농어촌	0.025	1.717	1.816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2-6〉 2015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이상자녀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명)

지역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009	2.227	2.265
대도시	0.013	2.189	2.243
중소도시	0.016	2.221	2.285
농어촌	0.023	2.268	2.362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적정 조사구 규모 산정을 위해 2015년 조사의 16개 시·도별 조사구 수와 가구소득의 CV 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대구, 충북의 가구소득 CV 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 경남의 CV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7〉 2015년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 가구소득 CV값

(단위: 개, 가구, %)

지역	2015년 조사		
	조사구	가구	CV(가구소득)
전국	604	11,005	1.60
서울	68	1,191	5.04
부산	33	625	4.47
대구	31	577	9.23
인천	33	616	6.20
광주	24	452	7.77
대전	27	482	5.60
울산	20	334	6.94
경기	93	1,662	3.33
강원	32	575	5.57
충북	33	581	8.06
충남	36	639	5.35
전북	33	617	5.12
전남	32	603	5.52
경북	42	789	5.33
경남	48	903	3.99
제주	19	341	4.96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018년 조사에서 표본 가구를 1만 가구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 2015년 결과를 분석하여 표본 수를 달리했을 때의 CV값을 비교해 보았다.

2015년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완료 수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2015년, 2018년 CV값

(단위: 가구, %)

항목	2015년		2018년	
	표본	CV	표본	목표 CV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11,005	1.60	12,000	1.53
			10,000	1.67
			8,000	1.87
월평균 가구지출(만 원)	11,006	1.36	12,000	1.30
			10,000	1.42
			8,000	1.59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N_1 CV_1^2 = N_2 CV_2^2$$

N_1 : 2015년 조사 표본 규모(완료 수 기준)

CV_1^2 : 2015년 조사 결과 상대표준오차

N_2 : 2018년 조사 산출된 표본 규모(완료 수 기준)

CV_2^2 : 2018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본 수에 따른 목표 CV값을 살펴보면 1만 가구 이상(완료 기준)이면 2%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및 조사 일정을 고려하여 2018년 적정 표본 수(완료 기준)는 1만 가구로 결정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조사구별 20가구를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집락 내 상관계수를 산출해 보았다. 집락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집락(조사구) 내 단위(가구)들의 동질적인 정도의 척도를 나타낸다. 2015년 조사의 주요 항목 시·도별 집락 내 상관계수(ρ)를 살펴봄으로써 조사구별 조사 대상 가구 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ρ 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조사는 조사구당 20가구를 조사함에 따라 $M=20$ 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rho = 1 - \frac{M}{M-1} \frac{SSW}{SST}$$

SSW (sum of squares within): 집락 내 변동

SST (total sum of squares): 총변동

〈표 2-9〉 2015년 조사 주요 항목의 집락 내 상관계수

지역	출생아수	자녀의 필요성
	조사구별 20가구	조사구별 20가구
전국	0.085	0.038
서울	0.112	0.021
부산	0.048	0.005
대구	0.051	0.016
인천	0.042	-0.001
광주	0.066	0.024
대전	0.028	0.028
울산	0.061	0.067
경기	0.060	0.023
강원	0.068	0.030
충북	0.084	0.034
충남	0.112	0.017
전북	0.108	0.009
전남	0.040	0.034
경북	0.046	0.064
경남	0.073	0.039
제주	0.039	0.004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구 집락 내 상관계수 범위는 $-\frac{1}{M-1} \leq \rho \leq 1$ 이다. 집락 내 조사 단위가 서로 동질적이고, 집락들이 서로 이질적이면 집락 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지므로, 이 경우 조사구의 표본 가구 수는 작게 하고 조사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가 20일 때의 집락 내 상관계수가 0.1 내외임을 알 수 있다.

집락추출 시의 표본 크기(n_{clu})는 단순임의추출 시의 표본 크기(n_{srs})에 설계효과(design effect, deff)를 고려해야 한다. 집락 내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설계효과(deff) 산정 산식은 다음과 같다.

$$n_{du} \geq n_{srs} \times deff$$

$$deff = 1 + (M-1)\rho$$

M: 조사구당 표본 가구 수

〈표 2-10〉 2015년 조사 주요 항목의 설계효과(deff)

지역	출생아수	자녀의 필요성
	조사구별 20가구	조사구별 20가구
전국	2.611	1.729
서울	3.124	1.401
부산	1.905	1.100
대구	1.978	1.312
인천	1.799	0.980
광주	2.260	1.460
대전	1.525	1.525
울산	2.161	2.267
경기	2.142	1.437
강원	2.292	1.570
충북	2.605	1.647
충남	3.129	1.318
전북	3.049	1.166
전남	1.761	1.643
경북	1.866	2.215
경남	2.379	1.737
제주	1.736	1.082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대체로 deff값이 3이 넘어가면 표본 설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석 되는데, 분석 결과 3 이내의 값이 산출되었고, 2015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과 실현 가능한 정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조사구 수를 700개, 1개 조사구당 15가구(완료 기준)로 산정하였다.

2018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17개 시·도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1〉 2015년 조사와 2018년 조사 가구소득 CV

(단위: 개, 가구, %)

지역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조사구	가구	CV (가구소득)	조사구	가구	CV (가구소득)
전국	604	11,005	1.60	700	10,500	1.64
서울	68	1,191	5.04	97	1,455	4.56
부산	33	625	4.47	46	690	4.25
대구	31	577	9.23	35	525	9.68
인천	33	616	6.20	40	600	6.28
광주	24	452	7.77	29	435	7.92
대전	27	482	5.60	18	270	7.48
울산	20	334	6.94	17	255	7.94
세종	-	-	-	8	120	-
경기	93	1,662	3.33	120	1,800	3.20
강원	32	575	5.57	26	390	6.76
충북	33	581	8.06	34	510	8.60
충남	36	639	5.35	57	855	4.63
전북	33	617	5.12	43	645	5.01
전남	32	603	5.52	22	330	7.46
경북	42	789	5.33	36	540	6.44
경남	48	903	3.99	62	930	3.93
제주	19	341	4.96	10	150	7.48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표본 설계 세부 내용

가. 모집단

목표모집단은 조사 대상 전체 집합적 개념으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18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조사모집단은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조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모집단이다. 조사모집단은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특성번호 “아파트(A)”, “보통(1)”에 해당하는 조사구의 가구를 표본틀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모집단인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 등은 제외하였다. 표본추출틀이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자료이므로 2018년의 상황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조사모집단에서는 조사의 현실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가 있다.

지역별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가구 수 모집단 분포는 17개 시·도별로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 지역별 가구 수 분포(2016년 인구총조사 기준)

(단위: 가구, %)

가구 수						
지역	계	비율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전국	19,837,665	100	16,028,945	80.80	3,808,720	19.20
서울	3,915,023	19.74	3,915,023	19.74	-	-
부산	1,357,230	6.84	1,299,868	6.55	57,362	0.29
대구	945,483	4.77	868,037	4.38	77,446	0.39
인천	1,085,407	5.47	1,050,472	5.30	34,935	0.18
광주	575,918	2.90	575,918	2.90	-	-
대전	596,752	3.01	596,752	3.01	-	-
울산	435,829	2.20	353,647	1.78	82,182	0.41
세종	91,854	0.46	47,111	0.24	44,743	0.23
경기	4,647,205	23.43	3,840,593	19.36	806,612	4.07
강원	621,943	3.14	370,526	1.87	251,417	1.27
충북	630,578	3.18	365,653	1.84	264,925	1.34
충남	836,296	4.22	367,533	1.85	468,763	2.36
전북	734,037	3.70	504,774	2.54	229,263	1.16
전남	737,423	3.72	305,802	1.54	431,621	2.18
경북	1,093,211	5.51	568,009	2.86	525,202	2.65
경남	1,299,027	6.55	829,280	4.18	469,747	2.37
제주	234,449	1.18	169,947	0.86	64,502	0.33

자료: 통계청. (2016). 2016년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1&conn_path=I2에서 2018. 5. 1. 인출.

나. 모집단 총화 기준

본 조사에서는 가구 수에 따라 표본을 비례 배분할 경우 읍·면지역의 표본 규모가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의 목적에 적합한 가임여성의 규모에 따라 표본 조사구를 배분하고자 한다. 2016년 인구총조사 결과 지역별로 15~49세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 분포는 2010년 인구총조사 가임기 여성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동부의 경우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읍·면부의 경우 충북, 전남이 2010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지역별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2010년, 2016년 인구총조사)

(단위: 명, %)

지역	2010년 인구총조사				2016년 인구총조사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전국	10,973,501	100	1,550,642	100	10,463,975	100	1,600,828	100
서울	2,789,562	25.42	-	-	3,251,969	24.08	-	-
부산	854,018	7.78	-	-	761,088	7.27	-	-
대구	610,362	5.56	-	-	543,463	5.19	-	-
인천	731,327	6.66	-	-	708,653	6.77	-	-
광주	404,972	3.69	-	-	385,325	3.68	-	-
대전	410,989	3.75	-	-	392,204	3.75	-	-
울산	244,845	2.23	-	-	229,984	2.20	-	-
세종	-	-	-	-	39,666	0.38	22,944	1.43
경기	2,684,484	24.46	454,946	29.34	2,682,586	25.64	455,628	28.46
강원	228,583	2.08	97,884	6.31	217,071	2.07	104,349	6.52
충북	252,263	2.30	107,274	6.92	241,352	2.31	118,252	7.39
충남	222,211	2.02	227,857	14.69	249,915	2.39	213,850	13.36
전북	327,235	2.98	73,335	4.73	316,055	3.02	78,706	4.92
전남	203,574	1.86	134,953	8.70	185,361	1.77	161,969	10.12
경북	361,971	3.30	207,940	13.41	348,085	3.33	206,591	12.91
경남	541,770	4.94	222,018	14.32	532,289	5.09	208,234	13.01
제주	105,335	0.96	24,435	1.58	111,185	1.06	30,305	1.89

자료: 1) 통계청. (2010). 2010년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01&conn_path=I2에서 2018. 5. 1. 인출.

2) 통계청. (2016). 2016년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1&conn_path=I2에서 2018. 5. 1. 인출.

다. 시·도별 표본 규모

2015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표본 규모는 비례배분 및 설계효과비를 고려하여 CV 목표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2-11〉 참고). 2016 인구총조사 가임여성 수 표집틀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에 따른 제곱근비례배분으로 1차 층화하고, 지역 및 동부/읍·면부로 나누어 비례배분 및 설계효과비를 고려하여 표본 규모를 산출하였다.

설계효과는 출생아수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고, 세종시는 지난 조사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3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설계효과와 비례배분 비(ratio)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설계효과 값을 1로 보정하여 계산하였다. 2015년 조사에 비해 서울의 조사구가 증가한 이유는 2015년 조사에서는 16개 시·도별로 가임 여성수에 따라 제곱근비례배분 하였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1차 층화로 권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나누어 제곱근비례배분, 2차 층화로 지역별 가임여성 분포 및 설계효과를 고려하여 비례배분 하였기 때문이다.

라. 층별 표본 배정

2018년 조사에서는 3개 권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1차 층화한 다음, 지역 및 동부/읍·면부로 나누어 비례배분 및 설계효과를 고려하여 2차 층화하고, 최종 확정된 표본 규모를 조사구별로 15가구 배정하였다. 추출 단위와 조사 단위로는 1차 추출 단위는 표본 조사구이며, 2차 추출 단위는 조사구 내의 가구, 최종 조사 단위는 가구 내 거주하는 15~49

세 기혼 여성 및 미혼 남녀이다.

〈표 2-14〉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최종 시·도별 층별 표본 배정
결과

(단위: 가구)

표본 가구 수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전국	10,500	8,220	2,280
서울	1,455	1,455	-
부산	690	690	-
대구	525	525	-
인천	600	600	-
광주	435	435	-
대전	270	270	-
울산	255	255	-
세종	120	60	60
경기	1,800	1,440	360
강원	390	225	165
충북	510	300	210
충남	855	375	480
전북	645	465	180
전남	330	150	180
경북	540	285	255
경남	930	585	345
제주	150	105	45

층별 할당 결과는 목표 표본 규모로 작성하였으며, 표본 조사구당 14~15가구를 조사 완료하는 것으로 표본 가구 수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2018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표본 조사구 배정 결과는 조사구 내 목표 가구 수는 15가구, 전체 표본 조사구 수는 700개(동부 548개, 읍·면부 152개)이다.

마. 표본 조사구 추출

표본 조사구 선정을 위하여 2016년 인구총조사의 항목 중 활용 가능한 변수인 조사구 특성, 점유 형태, 혼인상태, 여성 비율, 거처 종류를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로 선정하였다.

층별 조사구 특성, 여성 비율, 혼인상태, 거처 종류 순으로 정렬한 후, 가구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표본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바. 표본 가구 선정

본 조사를 위해 추출된 700개의 표본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선정하기 위해 표본 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에서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가구를 선택하고 방문하여 적격 조사 대상 가구를 조사한다. 조사구당 15가구를 조사 완료 목표로 하였다. 가구명부에는 가구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구명부 순서에 따라 계통 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 가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 대체

2016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가구 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접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표본 가구 선정은 표본 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에서 계통추출법으로 선택하고 방문하여 적격 조사 대상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며, 재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층 내에서 예비조사구(표본 조사구의 20%)로 대체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표본 내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제2절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가중치는 가중표본 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한다.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 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한다. 가중치 부여는 조사구 추출이 1단계, 추출된 조사구에서 가구 추출이 2단계이다. 각 조사구 내 가구들은 동일한 가중값(설계 가중치)을 가지며, 조사 완료 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가중값을 부여하였다.

L : 층의 수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 착수 가구 수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조사 완료 가구 수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무응답 조정은 최초 표본 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 크기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최초 표본 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사후층화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가구가중치는 2010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별·광역시, 9개 도의 동부, 9개 도의 읍·면부), 연령(5세 단위), 혼인상태별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조정외삽법(adjusted extrapolation technique)을 적용하여 2018년 15~49세 여성의 기혼율과 20~44세 남녀의 미혼율을 각각 추정하여 모집단 분포를 구하였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제 2 부

기혼 여성 대상 조사 결과

제3장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제4장 결혼

제5장 임신 및 출산

제6장 산전산후관리

제7장 자녀 양육

제8장 일·가정양립

제9장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3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

제1절 기혼 여성의 일반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15~49세 기혼 여성은 총 1만 1207명으로 대도시(이하에서 대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7개 특별·광역시를 의미함)와 중소도시(이하에서 중소도시는 9개 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동부 지역을 의미함) 각각 42.9%, 농촌(이하에서 농촌은 9개 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을 의미함) 14.3%였다. 연령대는 15~19세 0.0%(전체 1만 1207명 중 4명), 20~24세 0.7%, 25~29세 4.4%, 30~34세 13.7%, 35~39세 23.6%, 40~44세 25.5%, 45~49세 32.0%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은 대졸(전문대 포함)이 5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고졸이 35.3%였다. 대학원졸업 이상(석사학위 이상)과 중졸 이하는 각각 4.8%, 2.0%로 매우 적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94.9%, 이혼·별거·미혼모가 4.2%, 사별이 1.0%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인 개신교 21.4%, 불교 12.4%, 천주교 6.7%,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가구소득 계층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인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53만 510원(통계청, 2018)을 기준으로 60% 미만이 10.0%, 60%~80% 미만이 16.4%, 80%~100% 미만이 18.5%, 100%~120% 미만이 16.7%, 120%~140% 미만이 13.1%, 140%~160% 미만이 8.9%, 160% 이상이 16.4%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

의 국적은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97.8%로 대부분이었으며, 귀화나 수반, 인지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1.3%, 외국 국적인 경우가 0.9%였다.

취업 중인 기혼 여성은 58.5%이며 41.5%는 비취업(실업, 비경제활동 포함) 상태였다. 취업한 기혼 여성의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9.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사무 종사자 25.4%, 서비스 종사자 17.8%, 판매 종사자 11.2%, 단순노무 종사자 8.9% 등의 순이었다.

〈표 3-1〉 기혼 여성(15~49세)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5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기혼 여성 전체	42.9	42.9	14.3	100.0	43.6	41.7	14.7	100.0
(명)	(4,802)	(4,802)	(1,602)	(11,207)	(4,798)	(4,589)	(1,622)	(11,0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15~19세	0.0	0.0	0.1	0.0	0.1	0.1	0.1	0.1
20~24세	0.4	0.7	1.6	0.7	0.2	0.4	1.0	0.4
25~29세	4.0	4.3	5.6	4.4	3.6	4.6	6.2	4.4
30~34세	14.3	13.1	13.9	13.7	15.1	15.9	16.8	15.7
35~39세	24.6	22.3	24.3	23.6	22.1	22.5	22.1	22.3
40~44세	24.7	26.9	24.1	25.5	28.2	27.9	25.6	27.7
45~49세	31.9	32.7	30.4	32.0	30.7	28.6	28.2	29.5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	1.9	5.0	2.0	2.2	3.6	4.4	3.1
고졸	28.4	38.2	47.4	35.3	37.2	43.1	48.8	41.4
대졸	64.1	55.8	45.5	57.9	55.7	49.7	44.3	51.5
대학원졸	6.3	4.1	2.1	4.8	4.9	3.6	2.5	4.0
혼인상태								
유배우	95.1	94.4	95.4	94.9	93.1	94.3	94.3	93.8
사별	1.0	1.0	1.0	1.0	1.5	1.1	1.2	1.3
이혼·별거·미혼모	3.9	4.6	3.6	4.2	5.4	4.6	4.5	5.0
종교								
없음	57.6	60.4	59.2	59.0	53.3	52.6	53.5	53.1
불교	12.3	11.7	14.7	12.4	15.6	16.6	16.9	16.2
개신교	21.7	21.1	21.1	21.4	22.1	22.5	22.9	22.4
천주교	8.0	6.4	4.2	6.7	8.3	7.7	6.2	7.7
기타	0.5	0.4	0.9	0.5	0.6	0.6	0.5	0.6

〈표 3-1〉 계속

구분	2018년				2015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가구소득								
60% 미만	8.9	9.8	14.2	10.0	12.6	13.3	18.6	13.8
60~80% 미만	14.7	16.6	20.4	16.4	14.5	15.0	20.5	15.6
80~100% 미만	16.7	19.2	21.9	18.5	18.3	19.7	20.9	19.2
100~120% 미만	17.0	16.7	16.2	16.7	17.1	18.1	16.8	17.5
120~140% 미만	13.5	13.1	12.0	13.1	9.5	10.0	7.4	9.4
140~160% 미만	9.3	9.3	6.2	8.9	8.8	8.8	7.5	8.6
160% 이상	19.9	15.3	9.2	16.4	19.3	15.1	8.3	15.9
국적								
한국(출생)	98.5	98.2	94.6	97.8	98.5	98.0	97.7	98.1
한국(귀화 등)	0.7	1.1	3.2	1.3	1.0	1.6	1.4	1.3
외국	0.7	0.7	2.1	0.9	0.6	0.5	0.9	0.6
취업 여부								
취업	57.6	58.3	61.9	58.5	55.7	57.5	56.1	56.5
비취업	42.4	41.7	38.1	41.5	44.3	42.5	43.9	43.5
취업 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종								
관리자	1.3	1.5	1.3	1.4	1.6	1.2	1.9	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1	29.4	22.2	29.8	29.1	28.7	24.0	28.2
사무 종사자	28.9	23.4	21.5	25.4	26.8	22.8	19.0	24.0
서비스 종사자	16.1	19.5	17.7	17.8	17.2	17.9	22.1	18.2
판매 종사자	10.8	12.1	9.7	11.2	12.6	13.0	11.8	1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	0.2	9.9	1.6	0.1	0.6	3.7	0.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0	2.5	2.3	2.3	2.9	2.5	2.9	2.7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	1.6	1.8	1.4	1.2	1.8	2.6	1.7
단순노무 종사자	6.4	9.9	13.4	8.9	8.5	11.3	11.6	10.1
군인	0.1	0.0	0.2	0.1	-	0.1	0.4	0.1

주: 1) 가구소득은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2018년은 453만 510원(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9H002&conn_path=3에서 2018.9.13. 인출), 2015년은 427만 원이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기혼 여성의 경제 상황

1. 가구소득

기혼 여성의 가구소득은 300만 원~400만 원 미만, 4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600만 원 미만, 600만 원~800만 원 미만이 각각

18.5~19.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800만 원 이상이 13.1%, 300만 원 미만은 12.1%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300만 원 미만이나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은 줄어들고 500만 원~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 기혼 여성(15~49세)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 분	300만 원 미만	300만~ 400만 원 미만	400만~ 500만 원 미만	500만~ 600만 원 미만	600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계	(명)
전체(2015)	18.5	21.1	19.1	16.8	24.5		100.0	(11,004)
전체(2018)	12.1	18.5	19.1	18.6	18.7	13.1	100.0	(11,205)
거주지($\chi^2=200.4^{***}$)								
대도시	10.6	16.3	17.8	19.0	19.9	16.3	100.0	(4,801)
중소도시	12.0	19.1	19.5	18.5	19.0	11.9	100.0	(4,801)
농촌	16.8	23.2	21.9	17.4	13.8	6.8	100.0	(1,602)
연령($\chi^2=461.6^{***}$)								
25세 미만	41.5	27.5	21.2	7.1	1.0	1.7	100.0	(81)
25~29세	23.8	29.4	17.9	13.0	9.4	6.5	100.0	(490)
30~34세	12.3	26.1	18.7	18.3	15.1	9.4	100.0	(1,541)
35~39세	11.2	20.9	21.3	18.5	17.3	10.8	100.0	(2,642)
40~44세	10.5	16.9	18.6	20.0	19.8	14.2	100.0	(2,861)
45~49세	11.6	13.1	18.2	18.7	21.9	16.6	100.0	(3,590)
교육수준($\chi^2=1,092.0^{***}$)								
중졸 이하	43.7	25.4	15.4	8.2	5.9	1.3	100.0	(230)
고졸	18.3	22.6	21.2	17.0	14.6	6.2	100.0	(3,960)
대졸	7.9	16.6	18.6	20.1	21.0	15.8	100.0	(6,483)
대학원졸	2.7	8.2	11.3	16.2	25.7	35.9	100.0	(533)
혼인상태($\chi^2=1,736.8^{***}$)								
유배우	9.1	18.5	19.7	19.4	19.5	13.8	100.0	(10,629)
사별	60.0	22.8	7.0	5.0	5.1	-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67.3	18.4	9.2	3.0	1.6	0.5	100.0	(465)
취업 여부($\chi^2=1,100.8^{***}$)								
취업	8.1	11.6	18.6	20.5	24.4	16.8	100.0	(6,559)
비취업	17.6	28.3	19.9	15.9	10.5	7.8	100.0	(4,646)
가구원 수($\chi^2=477.7^{***}$)								
2명 이하	27.9	17.9	17.0	15.7	13.8	7.6	100.0	(1,370)
3명	13.1	20.2	18.7	17.8	17.5	12.6	100.0	(3,429)
4명	8.0	18.0	20.0	20.1	19.9	14.0	100.0	(4,931)
5명 이상	8.5	16.6	18.9	18.0	21.6	16.4	100.0	(1,47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혼 여성의 특성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촌지역보다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많았으며 300만 원 미만이나 300만 원~400만 원 미만, 400만 원~500만 원 미만과 같은 가구소득이 적은 집단이 적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았다. 또 기혼 여성이 고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가구소득이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사별하거나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60% 이상이 300만 원 미만에 집중되어 가구소득이 낮았다. 기혼 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 비취업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가구원 수별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2. 가구지출

기혼 여성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300만 원 미만이 21.6%,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이 27.9%, 400만 원~500만 원 미만이 23.3%, 500만 원 이상이 27.2%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가구지출이 300만 원 미만은 줄어든 반면 400만 원~500만 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은 늘어 전반적으로 가구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지출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1.0%로 농촌(16.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고,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농촌이 29.2%로 대도시 19.6%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가구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지출이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가구지출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가구지출이 300만 원 미만이

77.3%로 매우 집중되어 있다. 사별한 경우에도 가구지출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7.8%로 많았으나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31.1%로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보다는 집중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3〉 기혼 여성(15~49세)의 월평균 가구지출

(단위: %, 명)

구 분	300만 원 미만	300만~ 400만 원 미만	400만~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계	(명)
전체(2015)	31.1	27.7	19.7	21.5	100.0	(11,006)
전체(2018)	21.6	27.9	23.3	27.2	100.0	(11,205)
거주지($\chi^2=166.7^{***}$)						
대도시	19.6	25.7	23.6	31.0	100.0	(4,801)
중소도시	21.1	28.8	23.1	27.0	100.0	(4,801)
농촌	29.2	31.5	23.0	16.2	100.0	(1,602)
연령($\chi^2=796.8^{***}$)						
25세 미만	57.6	30.7	7.3	4.4	100.0	(81)
25~29세	44.8	34.2	13.2	7.8	100.0	(489)
30~34세	31.5	34.3	19.2	15.0	100.0	(1,541)
35~39세	21.9	32.7	23.9	21.6	100.0	(2,642)
40~44세	17.3	25.8	26.5	30.4	100.0	(2,861)
45~49세	16.6	22.3	23.9	37.2	100.0	(3,592)
교육수준($\chi^2=591.1^{***}$)						
중졸 이하	57.1	26.1	11.5	5.4	100.0	(230)
고졸	27.9	30.1	22.2	19.9	100.0	(3,960)
대졸	17.6	27.4	24.5	30.6	100.0	(6,483)
대학원졸	9.3	17.5	23.2	50.0	100.0	(533)
혼인상태($\chi^2=1015.7^{***}$)						
유배우	18.8	28.4	24.3	28.5	100.0	(10,628)
사별	57.8	31.1	7.7	3.4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77.3	14.9	5.0	2.8	100.0	(466)
취업 여부($\chi^2=623.2^{***}$)						
취업	15.1	25.4	26.1	33.4	100.0	(6,559)
비취업	30.9	31.3	19.4	18.5	100.0	(4,646)
가구원 수($\chi^2=915.0^{***}$)						
2명 이하	46.5	26.1	14.0	13.4	100.0	(1,371)
3명	25.7	30.3	21.4	22.5	100.0	(3,429)
4명	14.8	27.3	27.2	30.7	100.0	(4,931)
5명 이상	11.8	25.8	23.3	39.1	100.0	(1,47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업상태별로는 비취업인 경우 취업한 경우에 비해 월평균 가구지출이 3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고, 400만 원~500만 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적어 가구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별로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지출 300만 원 미만이 줄어들고 500만 원 이상은 늘어나 가구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혼 여성의 특성별 가구지출의 차이는 기혼 여성의 특성별 가구소득의 차이와도 일치한다. 즉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가구지출도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 가구재산

기혼 여성의 가구재산은 1억 원 미만이 17.4%, 1억 원~2억 원 미만이 22.4%, 2억 원~3억 원 미만이 19.3%, 3억 원~5억 원 미만이 21.8%, 5억 원 이상이 19.1%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2018년에 가구재산이 1억 원 미만인 집단이 줄어들고 3억 원 이상인 집단이 늘어나 가구재산이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인 경우 가구재산이 많은 집단에, 농촌인 경우 가구재산이 적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가구재산이 많았다. 이는 자산 중 상당수가 주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재산이 많은 집단에 많이 분포해 있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사별이나 이혼·별거·미혼모에 비해 가구재산이 많은 집단에 많이 분포해 있었다.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에는 유배우

1) 본 조사에서 자산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자산 중 부동산이 69.8%, 전·월세 보증금이 6.6%로 76.4% 정도가 주택 관련 자산임(통계청, 2018).

인 경우에 비해 가구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4배 이상 많았다. 취업 여부별로 가구재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기혼 여성(15~49세)의 가구재산

(단위: %, 명)

구 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계	(명)
전체(2015)	23.8	23.7	19.7	32.8		100.0	(11,005)
전체(2018)	17.4	22.4	19.3	21.8	19.1	100.0	(11,173)
거주지($\chi^2=816.3^{***}$)							
대도시	13.2	15.0	18.4	25.9	27.5	100.0	(4,790)
중소도시	17.8	27.0	20.5	20.5	14.2	100.0	(4,789)
농촌	29.0	30.6	18.6	13.6	8.3	100.0	(1,595)
연령($\chi^2=316.4^{***}$)							
25세 미만	57.5	22.0	10.5	6.2	3.7	100.0	(81)
25~29세	29.5	28.4	18.9	15.5	7.7	100.0	(487)
30~34세	18.2	27.1	22.5	19.5	12.7	100.0	(1,535)
35~39세	16.0	22.2	19.9	24.3	17.5	100.0	(2,633)
40~44세	15.7	21.1	18.6	22.9	21.6	100.0	(2,856)
45~49세	16.8	20.6	18.3	21.4	22.8	100.0	(3,581)
교육수준($\chi^2=1415.6^{***}$)							
중졸 이하	49.7	27.2	11.2	8.1	3.8	100.0	(230)
고졸	28.1	27.9	19.3	15.5	9.2	100.0	(3,950)
대졸	10.7	19.8	20.2	26.1	23.2	100.0	(6,463)
대학원졸	5.3	10.6	12.8	22.7	48.6	100.0	(531)
혼인상태($\chi^2=819.3^{***}$)							
유배우	15.1	22.6	19.8	22.7	19.9	100.0	(10,598)
사별	48.9	15.8	17.1	7.3	10.9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62.9	18.9	9.1	6.0	3.1	100.0	(465)
취업 여부($\chi^2=3.6$)							
취업	17.0	22.3	19.4	22.4	19.0	100.0	(6,537)
비취업	18.0	22.4	19.2	21.1	19.2	100.0	(4,63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가구부채

기혼 여성 가구의 37.4%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부채 규모는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25.6%로 가장 많았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0.1%,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집단은 증가했으나 부채가 5000만 원 미만인 집단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가구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농촌보다 많았고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채가 없다는 응답과 부채가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도시에 비해 많아 전반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부채가 많았다. 이는 부채 중 상당수가 주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인 기혼 여성이 부채가 없다는 응답과 부채가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으며 전반적인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가 증가하다가 40세 이상이 되면서 다시 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채가 없거나 부채가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가 많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사별이나 이혼·별거·미혼모에 비해 부채가 없거나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적고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경우 부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조사에서 자산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2017년 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부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주택과 관련한 부채가 48.65%로 가장 많았음(김태완 외, 2017).

〈표 3-5〉 기혼 여성(15~49세)의 가구부채

(단위: %, 명)

구 분	가구부채 없음	5000만 원 미만	5000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계	(명)
전체(2015)	40.7	25.4	16.3	17.6	100.0	(10,985)
전체(2018)	37.4	20.1	16.8	25.6	100.0	(11,177)
거주지($\chi^2=218.1^{***}$)						
대도시	36.0	16.4	16.2	31.4	100.0	(4,795)
중소도시	37.2	21.9	17.8	23.1	100.0	(4,785)
농촌	42.3	25.9	15.9	15.9	100.0	(1,598)
연령($\chi^2=94.8^{**}$)						
25세 미만	48.6	29.8	14.8	6.8	100.0	(81)
25~29세	42.4	17.5	17.3	22.9	100.0	(488)
30~34세	34.2	18.1	18.2	29.5	100.0	(1,536)
35~39세	34.4	19.0	18.5	28.1	100.0	(2,632)
40~44세	36.6	20.5	17.1	25.9	100.0	(2,855)
45~49세	40.7	21.6	14.8	22.8	100.0	(3,586)
교육수준($\chi^2=312.7^{***}$)						
중졸 이하	52.6	28.3	10.0	9.2	100.0	(230)
고졸	39.1	25.5	16.5	18.9	100.0	(3,954)
대졸	36.1	17.3	17.5	29.1	100.0	(6,462)
대학원졸	34.4	10.8	14.7	40.2	100.0	(532)
혼인상태($\chi^2=139.4^{***}$)						
유배우	36.6	19.7	17.1	26.6	100.0	(10,600)
사별	52.9	24.2	8.1	14.7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52.7	28.5	11.4	7.4	100.0	(466)
취업 여부($\chi^2=13.7^{**}$)						
취업	36.4	20.2	16.6	26.8	100.0	(6,542)
비취업	38.9	20.1	17.1	23.9	100.0	(4,63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절 기혼 여성의 주거 실태

기혼 여성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9.3%, 연립주택 2.0%, 기타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고 나머지 주택유형은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기혼 여성(15~49세)의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¹⁾	계	(명)
전체(2015)	11.2	74.1	3.3	10.5	0.9	100.0	(11,009)
전체(2018)	9.3	78.6	2.0	9.3	0.9	100.0	(11,207)
거주지($\chi^2=536.2^{***}$)							
대도시	6.3	79.7	1.3	12.0	0.7	100.0	(4,802)
중소도시	7.7	82.2	2.0	7.1	0.9	100.0	(4,802)
농촌	22.7	64.6	4.0	7.6	1.1	100.0	(1,602)
연령($\chi^2=181.5^{***}$)							
25세 미만	28.5	45.8	5.1	15.2	5.3	100.0	(81)
25~29세	14.3	70.8	1.7	12.3	1.0	100.0	(490)
30~34세	6.8	79.7	2.3	9.8	1.4	100.0	(1,541)
35~39세	7.1	80.9	1.8	9.7	0.5	100.0	(2,643)
40~44세	8.1	82.2	1.4	7.7	0.5	100.0	(2,861)
45~49세	11.7	75.5	2.4	9.4	1.0	100.0	(3,592)
교육수준							
중졸 이하	33.5	49.8	3.8	12.3	0.6	100.0	(230)
고졸	13.8	68.8	2.9	13.2	1.3	100.0	(3,960)
대졸	6.1	84.6	1.5	7.2	0.6	100.0	(6,485)
대학원졸	3.9	91.1	0.7	3.9	0.4	100.0	(533)
혼인상태							
유배우	8.7	79.8	1.9	8.8	0.8	100.0	(10,630)
사별	18.1	72.6	-	8.1	1.2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21.1	54.1	3.6	19.3	2.0	100.0	(466)
취업 여부($\chi^2=60.3^{***}$)							
취업	10.8	76.3	2.2	9.7	1.0	100.0	(6,559)
비취업	7.1	81.9	1.7	8.6	0.7	100.0	(4,648)
가구소득($\chi^2=476.1^{***}$)							
60% 미만	21.6	58.7	3.2	15.3	1.1	100.0	(1,123)
60~80% 미만	10.5	74.8	2.0	11.1	1.6	100.0	(1,834)
80~100% 미만	9.0	79.4	2.2	9.0	0.4	100.0	(2,073)
100~120% 미만	7.8	79.0	2.6	9.4	1.1	100.0	(1,878)
120~140% 미만	6.1	82.0	1.6	9.7	0.5	100.0	(1,468)
140~160% 미만	5.9	83.9	2.0	7.6	0.6	100.0	(992)
160%이상	6.6	87.8	0.6	4.4	0.7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가 포함되나 2018년 결과에서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이 22.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대신 아파트 비율이 다소 낮았다.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았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중인 경우 비취업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약간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세 17.0%, 보증부 월세 13.2%, 무상 3.7%, 기타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2018년 자가 거주자가 조금 증가하였고 전세와 보증부 월세 거주자는 약간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자가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대도시인 경우 농촌에 비해 전세 거주 비율이 높고 보증부 월세 비율이 낮았다. 기혼 여성의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자가 비율이 높았고 25세 미만인 경우 보증부 월세나 무상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낮고 보증부 월세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은 전체와 비슷하나 보증부 월세 거주 비율이 매우 낮고 전세 거주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거주 비율이 대체로 높았으며 보증부 월세 비율이 낮았다.

〈표 3-7〉 기혼 여성(15~49세)의 거주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상	기타 ¹⁾	계	(명)
전체(2015)	60.5	20.0	15.3	3.3	0.8	100.0	(11,009)
전체(2018)	65.6	17.0	13.2	3.7	0.4	100.0	(11,207)
거주지($\chi^2=117.4^{***}$)							
대도시	65.1	19.8	11.6	3.3	0.2	100.0	(4,802)
중소도시	66.3	16.1	13.8	3.3	0.6	100.0	(4,802)
농촌	65.3	11.5	16.5	5.9	0.9	100.0	(1,602)
연령($\chi^2=407.2^{***}$)							
25세 미만	29.7	23.5	34.3	11.5	1.0	100.0	(81)
25~29세	45.4	29.3	17.0	7.4	0.9	100.0	(490)
30~34세	54.5	26.0	13.0	5.9	0.5	100.0	(1,541)
35~39세	64.2	18.6	12.5	4.4	0.4	100.0	(2,643)
40~44세	69.4	14.4	13.0	2.7	0.4	100.0	(2,861)
45~49세	72.1	12.3	13.1	2.2	0.4	100.0	(3,592)
교육수준($\chi^2=370.4^{***}$)							
중졸 이하	53.2	13.3	29.7	3.0	0.8	100.0	(230)
고졸	63.7	12.7	19.4	3.4	0.8	100.0	(3,960)
대졸	67.4	19.1	9.5	3.8	0.2	100.0	(6,485)
대학원졸	64.3	25.6	5.9	4.2	-	100.0	(533)
혼인상태							
유배우	67.3	17.1	11.6	3.6	0.4	100.0	(10,630)
사별	48.6	11.1	33.1	6.3	0.9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32.2	17.3	44.9	4.4	1.3	100.0	(466)
취업 여부($\chi^2=15.3^{**}$)							
취업	66.0	16.5	13.8	3.2	0.5	100.0	(6,559)
비취업	65.1	17.8	12.5	4.3	0.4	100.0	(4,648)
가구소득($\chi^2=865.5^{***}$)							
60% 미만	40.2	16.0	34.7	7.3	1.8	100.0	(1,123)
60~80% 미만	59.0	17.3	17.7	5.6	0.3	100.0	(1,834)
80~100% 미만	66.4	16.9	13.0	3.2	0.4	100.0	(2,073)
100~120% 미만	69.8	17.1	10.1	2.7	0.3	100.0	(1,878)
120~140% 미만	71.1	17.0	9.0	2.5	0.3	100.0	(1,468)
140~160% 미만	73.9	16.3	7.5	2.0	0.3	100.0	(992)
160% 이상	73.9	17.8	5.4	2.7	0.2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가 포함됨.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혼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나 무상이 아닌 경우 21.3%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에 비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최근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위주로, 또는 다자녀 등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연령층인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을 수 있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임대주택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8〉 기혼 여성(15~49세) 거주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여부

(단위: %, 명)

구 분	임대주택	비임대주택	계	(명)
전체	21.3	78.7	100.0	(3,439)
거주지($\chi^2=61.6^{***}$)				
대도시	16.7	83.3	100.0	(1,515)
중소도시	22.2	77.8	100.0	(1,463)
농촌	33.7	66.3	100.0	(462)
연령($\chi^2=23.4^{***}$)				
25세 미만	7.2	92.8	100.0	(48)
25~29세	17.2	82.8	100.0	(231)
30~34세	17.2	82.8	100.0	(610)
35~39세	20.4	79.6	100.0	(830)
40~44세	24.0	76.0	100.0	(796)
45~49세	24.3	75.7	100.0	(925)
가구소득($\chi^2=197.9^{***}$)				
60% 미만	38.0	62.0	100.0	(590)
60~80% 미만	26.4	73.6	100.0	(648)
80~100% 미만	22.1	77.9	100.0	(629)
100~120% 미만	18.0	82.0	100.0	(517)
120~140% 미만	13.8	86.2	100.0	(387)
140~160% 미만	11.6	88.4	100.0	(239)
160% 이상	5.9	94.1	100.0	(429)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 그 주택의 시가는 1억 원~2억 원 미만이 30.9%로 가장 많았고 2억 원~3억 원 미만이 25.4%, 3억 원~5억 원 미만이 20.1%, 1억 원 미만이 12.0%, 5억 원 이상이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 시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주택 시가가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인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 주택의 시가가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 시가가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자가 거주 기혼 여성(15~49세)의 주택 시가

(단위: %, 명)

구 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계	(명)
전체	12.0	30.9	25.4	20.1	11.6	100.0	(7,357)
거주지($\chi^2=1735.1^{***}$)							
대도시	2.8	20.8	27.9	26.7	21.8	100.0	(3,128)
중소도시	12.5	38.5	24.7	19.1	5.1	100.0	(3,183)
농촌	38.1	38.2	19.8	3.1	0.7	100.0	(1,046)
연령($\chi^2=72.3^{***}$)							
25세 미만	19.5	50.8	12.5	11.6	5.6	100.0	(24)
25~29세	14.6	37.8	29.4	14.3	3.9	100.0	(222)
30~34세	10.0	34.5	28.2	17.4	9.9	100.0	(839)
35~39세	9.7	30.0	26.2	22.2	11.9	100.0	(1,697)
40~44세	11.8	29.1	25.4	21.4	12.3	100.0	(1,986)
45~49세	14.0	31.0	23.7	19.2	12.1	100.0	(2,588)
가구소득($\chi^2=1362.4^{***}$)							
60% 미만	31.2	42.9	15.6	6.8	3.6	100.0	(451)
60~80% 미만	17.9	44.9	25.5	9.8	1.8	100.0	(1,083)
80~100% 미만	15.5	36.5	27.1	15.9	5.0	100.0	(1,376)
100~120% 미만	11.0	32.2	27.2	21.5	8.2	100.0	(1,310)
120~140% 미만	8.7	29.5	28.3	23.8	9.8	100.0	(1,044)
140~160% 미만	6.4	21.3	28.1	26.8	17.3	100.0	(733)
160% 이상	3.9	15.3	21.4	29.0	30.4	100.0	(1,357)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전세나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의 임대보증금은 1000만원~5000만원 미만인 25.7%로 가장 많았고 1억 원~2억 원 미만인 22.6%, 2억 원 이상이 22.2%, 5000만원~1억 원 미만인 17.4%, 1000만원 미만인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거주 기혼 여성(15~49세)의 임대보증금

(단위: %, 명)

구 분	1000만 원 미만	1000만~ 5000만 원 미만	5000만~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계	(명)
전체	12.1	25.7	17.4	22.6	22.2	100.0	(3,390)
거주지($\chi^2=369.7^{***}$)							
대도시	8.5	22.7	12.6	21.1	35.1	100.0	(1,506)
중소도시	13.1	24.4	21.8	26.3	14.4	100.0	(1,436)
농촌	21.3	39.7	19.8	15.8	3.4	100.0	(448)
연령($\chi^2=136.6^{***}$)							
25세 미만	36.5	22.8	20.5	17.3	2.9	100.0	(47)
25~29세	15.4	19.4	17.4	33.7	14.2	100.0	(227)
30~34세	10.9	18.1	16.7	28.2	26.1	100.0	(601)
35~39세	9.8	24.7	15.2	23.1	27.3	100.0	(820)
40~44세	10.8	29.1	17.5	20.2	22.5	100.0	(784)
45~49세	14.1	30.3	19.8	18.0	17.7	100.0	(911)
가구소득($\chi^2=952.6^{***}$)							
60%미만	30.4	38.8	18.2	9.4	3.3	100.0	(569)
60~80% 미만	13.4	34.7	21.9	20.4	9.6	100.0	(643)
80~100% 미만	10.0	28.3	20.0	26.0	15.7	100.0	(621)
100~120% 미만	7.8	21.5	18.6	29.1	23.0	100.0	(511)
120~140% 미만	6.8	15.2	18.9	33.1	26.0	100.0	(382)
140~160% 미만	5.2	14.6	11.8	28.1	40.4	100.0	(236)
160% 이상	2.8	11.1	6.3	18.5	61.2	100.0	(426)
주택 점유 형태($\chi^2=1718.4^{**}$)							
전세	2.7	6.2	18.9	34.9	37.4	100.0	(1,908)
보증부 월세	24.3	50.7	15.6	6.7	2.6	100.0	(1,48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임대보증금이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많이 분포한 반면 중간 연령층에서는 임대보증금이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였고 고연령층에서는 다시 임대보증금이 약간 낮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임대보증금이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주택 점유 형태별로 보면 전세인 경우 보증부 월세에 비해 임대보증금이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기혼 여성의 주택 점유 형태가 보증부 월세나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인 경우 월세는 20만 원 미만이 34.8%, 20만 원~40만 원 미만이 35.1%, 40만 원 이상이 30.1%로 나타났다.

〈표 3-11〉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사글세 거주 기혼 여성(15~49세)의 월세(사글세) 비용
(단위: %, 명)

구 분	20만 원 미만	20만~40만 원 미만	40만 원 이상	계	(명)
전체	34.8	35.1	30.1	100.0	(1,530)
거주지($\chi^2=81.8^{***}$)					
대도시	33.5	28.8	37.7	100.0	(565)
중소도시	28.4	42.1	29.5	100.0	(688)
농촌	53.5	30.5	16.1	100.0	(277)
연령($\chi^2=6.2^{**}$)					
25세 미만	19.9	50.0	30.1	100.0	(29)
25~29세	38.2	34.6	27.2	100.0	(87)
30~34세	33.0	34.5	32.5	100.0	(209)
35~39세	33.4	34.7	31.9	100.0	(339)
40~44세	36.8	33.3	29.9	100.0	(384)
45~49세	35.3	36.3	28.4	100.0	(482)
가구소득($\chi^2=147.1^{***}$)					
60% 미만	48.6	35.6	15.8	100.0	(410)
60~80% 미만	37.6	34.3	28.1	100.0	(329)
80~100% 미만	32.9	42.4	24.7	100.0	(279)
100~120% 미만	30.9	33.5	35.6	100.0	(196)
120~140% 미만	23.2	28.8	48.0	100.0	(137)
140~160% 미만	17.8	34.9	47.3	100.0	(77)
160% 이상	11.3	27.7	61.1	100.0	(10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월세가 4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고 중소도시는 20만 원~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으며 농촌은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인 경우 20만 원~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25세 미만인 경우 앞서 임대보증금이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월세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월세가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기혼 여성의 주택 점유 형태가 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52.2%가 용자를 받았고 47.8%가 용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용자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인 경우와 45~49세인 경우 용자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용자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20% 미만인 경우 용자를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았다. 이는 농촌지역인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낮고 자가이더라도 시가가 낮은 경우가 많아 용자를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점유 형태별로는 자가인 경우 용자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나 기타인 경우에는 용자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82.6%, 93.8%로 매우 높았다. 자가나 전세는 월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번에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2〉 기혼 여성(15~49세) 거주 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한 융자 여부

(단위: %, 명)

구 분	융자받음	융자받지 않음	계	(명)
전체	52.2	47.8	100.0	(10,797)
거주지($\chi^2=74.1^{***}$)				
대도시	55.2	44.8	100.0	(4,643)
중소도시	52.3	47.7	100.0	(4,646)
농촌	42.4	57.6	100.0	(1,508)
연령($\chi^2=97.9^{***}$)				
25세 미만	34.5	65.5	100.0	(72)
25~29세	50.5	49.5	100.0	(453)
30~34세	58.6	41.4	100.0	(1,449)
35~39세	56.2	43.8	100.0	(2,527)
40~44세	53.2	46.8	100.0	(2,783)
45~49세	46.4	53.6	100.0	(3,513)
가구소득($\chi^2=164.7^{***}$)				
60%미만	34.6	65.4	100.0	(1,042)
60~80% 미만	50.6	49.4	100.0	(1,731)
80~100% 미만	54.1	45.9	100.0	(2,006)
100~120% 미만	58.0	42.0	100.0	(1,827)
120~140% 미만	55.3	44.7	100.0	(1,431)
140~160% 미만	53.4	46.6	100.0	(972)
160% 이상	52.8	47.2	100.0	(1,786)
주택 점유 형태($\chi^2=1,148.8^{***}$)				
자가	62.3	37.7	100.0	(7,357)
전세	41.5	58.5	100.0	(1,908)
보증금 있는 월세	17.4	82.6	100.0	(1,482)
기타	6.2	93.8	100.0	(49)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가구원 중 누구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3.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주택 소유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연령층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주택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3〉 기혼 여성(15~49세) 가구원 중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단위: %, 명)

구 분	다른 주택 소유	다른 주택 없음	계	(명)
전체	13.5	86.5	100.0	(11,207)
거주지($\chi^2=9.4^{**}$)				
대도시	14.6	85.4	100.0	(4,802)
중소도시	12.8	87.2	100.0	(4,802)
농촌	12.1	87.9	100.0	(1,602)
연령($\chi^2=52.6^{***}$)				
25세 미만	4.0	96.0	100.0	(81)
25~29세	9.1	90.9	100.0	(490)
30~34세	9.7	90.3	100.0	(1,541)
35~39세	12.6	87.4	100.0	(2,643)
40~44세	14.8	85.2	100.0	(2,861)
45~49세	15.5	84.5	100.0	(3,592)
가구소득($\chi^2=413.0^{***}$)				
60% 미만	5.3	94.7	100.0	(1,123)
60~80% 미만	7.6	92.4	100.0	(1,834)
80~100% 미만	10.4	89.6	100.0	(2,073)
100~120% 미만	12.2	87.8	100.0	(1,878)
120~140% 미만	14.3	85.7	100.0	(1,468)
140~160% 미만	17.4	82.6	100.0	(992)
160%이상	26.3	73.7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1절 결혼 전 주거 독립 경험

본 조사에서 기혼 여성이 혼인(초혼) 이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9.1%,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0.9%로 각각 거의 절반씩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로는 거주지와 연령, 그리고 혼인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거주지에서는 농촌 거주자 56.7%, 중소도시 52.5%, 대도시 43.2% 순으로 독립거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이나 중소도시는 청년의 높은 이동성의 맥락에서 높은 독립거주 비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부모와의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독립거주의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학력별로는 중졸 응답자는 54.7%, 고졸은 53.4%, 대졸은 45.6%의 독립거주 경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학업을 일찍 마칠 경우 직업활동 등 사회생활을 더 일찍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경향과는 일치하지 않게 대학원졸 학력의 응답자는 학력집단별 응답에서 가장 높은 독립거주 경험률(58.1%)을 보였다.

〈표 4-1〉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전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그렇다	아니다	계	(명)
전체	49.1	50.9	100.0	(11,207)
거주지($\chi^2=125.0^{***}$)				
대도시	43.2	56.8	100.0	(4,802)
중소도시	52.5	47.5	100.0	(4,802)
농촌	56.7	43.3	100.0	(1,602)
연령($\chi^2=4.5$)				
25세 미만	45.5	54.5	100.0	(81)
25~29세	51.4	48.6	100.0	(490)
30~34세	50.8	49.2	100.0	(1,541)
35~39세	49.5	50.5	100.0	(2,643)
40~44세	48.7	51.3	100.0	(2,861)
45~49세	48.3	51.7	100.0	(3,592)
교육수준($\chi^2=92.5^{***}$)				
중졸 이하	54.7	45.3	100.0	(230)
고졸	53.4	46.6	100.0	(3,960)
대졸	45.6	54.4	100.0	(6,485)
대학원졸	58.1	41.9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혼인 이전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들 중에서 ‘20세 미만’의 비교적 어린 연령에서 독립거주를 시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1.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20~24세’ 36.6%, 25~29세 10.1%, 30~34세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낮은 연령에서 독립거주를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 이러한 분포는 여성의 주거 독립의 시작이 학업과 관련이 높았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일반적인 대학졸업 시기를 넘어선 연령에서부터는 그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다소 응답분포의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너무 적은 사례 수의 응답이 포함되어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에 있어서는 농촌(57.8%)-중소도시(51.8%)-대도시(49.1%)의

순으로 20세 미만의 연령에서 독립거주를 시작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응답분포 차이에 있어서는 학업을 일찍 중단하였을수록 더 어린 연령에서 독립거주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집단들은 모두 20세 미만에 부모와 떨어져 살기 시작한 비율이 50.0%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대 초반부터 주거독립을 시작한 경우가 고졸 41.6%, 대졸 34.7%, 대학원졸 2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전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시작 연령

(단위: %, 명)

구 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	(명)
전체 거주지	51.8	36.6	10.1	1.4	0.2	100.0	(5,507)
대도시	49.1	36.1	12.6	2.0	0.2	100.0	(2,077)
중소도시	51.8	38.0	9.0	1.0	0.2	100.0	(2,522)
농촌	57.8	33.9	7.2	1.0	0.1	100.0	(908)
연령							
25세 미만	80.1	19.9	-	-	-	100.0	(37)
25~29세	51.9	42.3	5.8	-	-	100.0	(252)
30~34세	49.6	36.9	12.3	1.2	-	100.0	(783)
35~39세	46.0	37.3	14.6	2.0	0.0	100.0	(1,308)
40~44세	53.5	34.9	9.9	1.6	0.2	100.0	(1,394)
45~49세	55.1	36.8	6.7	1.0	0.4	100.0	(1,734)
교육수준							
중졸 이하	77.6	20.9	0.4	1.0	-	100.0	(126)
고졸	51.8	41.6	5.6	0.8	0.2	100.0	(2,116)
대졸	50.7	34.7	12.9	1.6	0.1	100.0	(2,956)
대학원졸	51.2	27.6	18.0	2.8	0.4	100.0	(310)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독립생활을 시작한 장소로는 ‘부모(및 보호자)와 다른 시·도’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및 보호자)와 다른 시·군·구’와 ‘부모(및 보호자)와 같은 시·군·구’의 응답은 각각 19.3%와 7.9%로 크게 낮았다. 이는 비교적 먼 거리로 이동하여 독립생활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그러한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해외’ 및 ‘다른 시·도’의 응답이 높았으며, 반면 농촌에서는 ‘같은 시·군·구’ 및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부모와 먼거리(해외 제외)에서 떨어져 독립주거를 시작했을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5~49세 응답자들은 ‘부모(및 보호자)와 다른 시·도’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25세 미만 응답자들 중에서는 ‘부모(및 보호자)와 같은 시·군·구’의 응답 비율이 2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효과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여성 및 청년들의 독립생활, 학업이행 여부 및 장소, 이동성(mobility)의 변동 등이 반영된 코호트적 특성으로 보인다.

〈표 4-3〉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전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장소

(단위: %, 명)

구 분	부모(및 보호자)와 같은 시·군·구	부모(및 보호자)와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부모(및 보호자)와 다른 시·도	부모(및 보호자)와 다른 국가	계	(명)
전체	7.9	19.3	68.1	4.7	100.0	(5,507)
거주지($\chi^2=49.3^{***}$)						
대도시	7.9	16.3	69.1	6.7	100.0	(2,077)
중소도시	7.9	20.7	67.5	4.0	100.0	(2,522)
농촌	8.3	22.3	67.2	2.2	100.0	(908)
연령($\chi^2=56.3^{***}$)						
25세 미만	23.6	17.6	52.9	5.9	100.0	(37)
25~29세	9.1	14.4	68.0	8.4	100.0	(252)
30~34세	8.8	16.7	67.6	6.8	100.0	(783)
35~39세	8.6	18.5	67.6	5.2	100.0	(1,308)
40~44세	7.9	21.4	66.5	4.3	100.0	(1,394)
45~49세	6.5	20.1	70.2	3.2	100.0	(1,734)
교육수준($\chi^2=119.2^{***}$)						
중졸 이하	11.2	17.5	66.2	5.1	100.0	(126)
고졸	9.1	20.8	68.7	1.5	100.0	(2,116)
대졸	7.4	18.9	67.4	6.3	100.0	(2,956)
대학원졸	3.9	13.3	70.8	11.9	100.0	(31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기 시작한 이유에서는 직장생활(45.2%)과 학업(42.1%)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준비(5.7%), 집안사정(3.9%)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생활이라는 응답도 학업을 마친 이후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 시기는 학업이 강한 결정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거지별로는 대도시 응답자들은 학업의 비중이 44.2%로 가장 높고, 직장은 42.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농촌 거주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역으로 직장이라는 이유가 50.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업이라는 응답 비율은 37.8%로 그 두 응답 비율 간의 차이가 가장 컸다.

〈표 4-4〉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전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이유

(단위: %, 명)

구 분	학업	취업준비	직장	결혼준비	자유롭고 싶어서	집안사정	기타	계	(명)
전체	42.1	5.7	45.2	0.6	2.4	3.9	0.2	100.0	(5,507)
거주지($\chi^2=34.1^{**}$)									
대도시	44.2	5.0	42.6	0.6	2.8	4.7	0.2	100.0	(2,077)
중소도시	41.9	6.6	45.6	0.7	2.2	3.0	0.1	100.0	(2,522)
농촌	37.8	4.7	50.0	0.7	2.1	4.5	0.2	100.0	(908)
연령									
25세 미만	46.9	6.2	25.0	2.3	7.6	9.8	2.3	100.0	(37)
25~29세	47.6	5.7	36.1	1.4	5.1	4.0	-	100.0	(252)
30~34세	49.1	4.9	38.5	0.5	3.2	3.7	0.1	100.0	(783)
35~39세	44.0	5.3	42.5	0.3	3.4	4.4	0.1	100.0	(1,308)
40~44세	43.1	5.9	44.6	0.5	2.0	3.6	0.3	100.0	(1,394)
45~49세	35.7	6.1	52.5	0.9	1.1	3.6	0.1	100.0	(1,734)
교육수준									
중졸 이하	8.0	10.3	57.1	2.2	6.1	15.2	1.2	100.0	(126)
고졸	16.7	8.2	65.5	1.0	3.0	5.5	0.2	100.0	(2,116)
대졸	58.5	4.1	32.3	0.4	1.9	2.6	0.1	100.0	(2,956)
대학원졸	72.2	1.7	23.9	-	1.5	0.7	-	100.0	(310)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연령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낮은 연령대에서는 학업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력 별로는 대학원졸과 대졸에서는 학업 이유 비율이 각각 72.2%와 58.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응답의 분포는 소수의 응답 값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응답 특성들은 학력수준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와의 독립거주의 시기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절 결혼에 관한 태도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묻은 이 조사의 결과에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39.4%('반드시 해야한다' 9.0%, '하는 편이 좋다' 30.4%)에 그친 반면, 결혼에 대한 유보 또는 부정적 의견이 60.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다수(53.3%)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정적 응답은 6.8%에 머물렀다. 2015년과 비교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은 매우 늘어났다.

이러한 태도는 거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는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20대 이하의 낮은 연령대에서는 긍정적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부정적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25세 미만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52.6%('반드시 해야 한다' 13.0%, '하는 편이 좋다' 39.6%)였고, 25~29세 연령에

서는 긍정적 응답이 47.0%(9.8%, 37.2%)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 응답집단에서는 모두 긍정적 응답이 40% 미만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는 50%가 넘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보적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정적 응답은 연령에 따라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경향이 전체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들이 기혼자들이며, 특히 25세 미만의 기혼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예외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닌 집단은 미혼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령이 혼인가간과도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력에 있어서는 응답경향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고졸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태도의 비율이 높았다. 대학원졸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48.9%, 대졸은 40.8%, 고졸은 35.7%를 보였다. 그러나 중졸 이하 학력집단에서는 긍정적 태도가 45.0%(‘반드시 해야 한다’ 11.7%, ‘하는 편이 좋다’ 33.3%)로 높았으며, 특히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학원졸(11.1%)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력집단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졸의 경우에는 이 응답 비율(53.7%)이 ‘하는 편이 좋다’(27.4%)의 두 배 수준에 이르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그 경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160% 이상)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43.6%였으나, 80% 미만의 두 집단에서는 35.0%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학력수준에 따른 응답분포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응답자들이 기혼자라는 것을 고려한

다면 혼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경제적 지위 및 결혼생활의 경제적 안정 성과도 상관성이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5〉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2015)	11.5	37.7	44.4	6.0	0.4	100.0	(11,009)
전체(2018)	9.0	30.4	53.3	6.8	0.3	100.0	(11,205)
거주지($\chi^2=15.1$)							
대도시	9.0	30.8	53.3	6.6	0.3	100.0	(4,802)
중소도시	8.8	29.4	54.6	6.8	0.4	100.0	(4,802)
농촌	10.0	32.5	49.6	7.6	0.3	100.0	(1,602)
연령($\chi^2=53.1^{***}$)							
25세 미만	13.0	39.6	42.7	4.8	-	100.0	(81)
25~29세	9.8	37.2	47.7	5.0	0.3	100.0	(490)
30~34세	8.4	31.0	55.1	5.5	0.1	100.0	(1,541)
35~39세	7.7	31.3	54.2	6.4	0.4	100.0	(2,643)
40~44세	9.0	29.5	54.3	6.8	0.5	100.0	(2,861)
45~49세	10.2	29.3	52.3	8.0	0.3	100.0	(3,592)
교육수준($\chi^2=166.5^{***}$)							
중졸 이하	11.7	33.3	42.2	12.5	0.4	100.0	(230)
고졸	8.3	27.4	53.7	10.2	0.4	100.0	(3,960)
대졸	9.2	31.6	53.9	5.0	0.3	100.0	(6,485)
대학원졸	11.1	37.8	48.6	2.1	0.4	100.0	(533)
혼인상태($\chi^2=168.3^{***}$)							
유배우	9.3	31.1	53.2	6.2	0.3	100.0	(10,630)
사별	9.0	21.8	55.4	13.0	0.9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4.4	18.2	57.1	19.7	0.6	100.0	(466)
취업 여부($\chi^2=7.3$)							
취업	9.6	30.1	53.1	7.0	0.3	100.0	(6,559)
비취업	8.3	30.9	53.8	6.6	0.4	100.0	(4,648)
가구소득($\chi^2=124.0^{***}$)							
60% 미만	8.2	27.5	51.0	13.0	0.3	100.0	(1,123)
60~80% 미만	7.8	28.0	55.7	8.0	0.4	100.0	(1,834)
80~100% 미만	9.1	32.1	52.5	5.8	0.4	100.0	(2,073)
100~120% 미만	9.3	28.6	55.2	6.4	0.5	100.0	(1,878)
120~140% 미만	8.5	31.7	54.0	5.6	0.2	100.0	(1,468)
140~160% 미만	10.4	31.0	53.2	5.2	0.2	100.0	(992)
160% 이상	10.3	33.3	51.1	5.3	0.1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혼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혼인 연령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0~34세를 남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으로 응답한 비율은 63.0%에 이르렀다. 이는 2017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인 32.94세와도 근접한 수치이다(통계청, 2018). 한편 3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29.0%에 이르렀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만혼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30~31세라는 응답은 적어지고 3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매우 많아졌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에서 이상적 혼인 연령이 다소 낮았는데, 20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1.6%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5세 이상이라는 비율은 22.9%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혼인 연령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는 현실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통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상적 혼인 연령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학원졸이나 대졸 학력의 응답자들은 3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각각 31.5%, 30.2%)를 넘었지만, 이하 학력에서는 그러한 비율이 고졸 27.2%, 중졸 이하 20.8%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은 역으로도 나타나 저학력 집단에서는 낮은 연령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4-6〉 기혼 여성(15~49세)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전체(2015)	1.7	6.8	38.0	32.3	21.2	100.0	(11,007)
전체(2018)	1.5	6.4	30.8	32.2	29.0	100.0	(11,207)
거주지($\chi^2=125.8^{***}$)							
대도시	1.2	5.2	28.0	33.6	31.9	100.0	(4,802)
중소도시	1.3	6.9	32.2	31.4	28.3	100.0	(4,802)
농촌	3.3	8.3	35.2	30.3	22.9	100.0	(1,602)

〈표 4-6〉 계속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연령($\chi^2=323.6^{***}$)							
25세 미만	10.0	16.2	42.5	19.7	11.6	100.0	(81)
25~29세	2.3	6.5	30.7	39.2	21.3	100.0	(490)
30~34세	1.0	3.9	23.7	40.3	31.0	100.0	(1,541)
35~39세	1.2	5.4	25.6	33.7	34.1	100.0	(2,643)
40~44세	1.8	6.5	31.3	29.3	31.2	100.0	(2,861)
45~49세	1.5	7.8	37.1	29.3	24.3	100.0	(3,592)
교육수준($\chi^2=217.0^{***}$)							
중졸 이하	5.9	13.6	41.5	18.1	20.8	100.0	(230)
고졸	2.2	7.6	35.1	27.8	27.2	100.0	(3,960)
대졸	1.1	5.4	28.3	35.0	30.2	100.0	(6,485)
대학원졸	0.2	6.2	25.2	36.9	31.5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기혼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혼인 연령은 남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보다는 낮았으며, 또한 특정연령대(30~31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30세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여성의 혼인 연령을 30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도 매우 높아졌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도 전반적으로 남성의 혼인 연령에 대한 질문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농촌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을 낮게 응답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졸 이하 학력집단과 2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을 27세 이하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34.3%와 45.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응답자들이 기혼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응답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가장 이상적인 혼인 연령

은 30~31세에 40%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에서 남정보다 낮은 혼인 연령과 30대 초반에서 거의 90% 수준으로 분포한다는 점은 여성에 대한 혼인 연령규범이 남정보다는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7〉 기혼 여성(15~49세)의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전체(2015)	14.4	26.4	44.6	10.3	4.3	100.0	(11,007)
전체(2018)	10.9	18.9	44.1	17.2	8.9	100.0	(11,207)
거주지($\chi^2=147.9^{***}$)							
대도시	8.6	17.1	44.8	19.5	10.0	100.0	(4,802)
중소도시	11.2	19.7	44.1	16.3	8.7	100.0	(4,802)
농촌	17.1	21.3	42.0	13.3	6.2	100.0	(1,602)
연령($\chi^2=366.2^{***}$)							
25세 미만	45.8	20.9	25.4	5.2	2.7	100.0	(81)
25~29세	15.1	22.4	44.1	13.4	5.0	100.0	(490)
30~34세	7.6	15.1	43.8	24.8	8.7	100.0	(1,541)
35~39세	7.9	16.9	43.0	20.8	11.4	100.0	(2,643)
40~44세	11.2	18.9	43.5	16.3	10.1	100.0	(2,861)
45~49세	13.1	21.4	45.8	12.9	6.8	100.0	(3,592)
교육수준($\chi^2=348.9^{***}$)							
중졸 이하	34.3	21.3	30.5	10.2	3.9	100.0	(230)
고졸	14.8	20.8	42.6	13.0	8.7	100.0	(3,960)
대졸	8.2	18.0	45.2	19.6	9.1	100.0	(6,485)
대학원졸	5.3	14.0	47.6	23.2	10.1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혼인을 전제로 한 혼전동거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는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적으로 찬성’이라는 응답이 13.1%, ‘대체로 찬성’ 44.4%, ‘별로 찬성하지 않음’ 31.7%, ‘전혀 찬성하지 않음’ 10.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찬성 경향이 강했지만, 완전한 찬반보다는 대체로 찬성이나,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다소 유보적인

경향도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적 경향은 전체의 76.1%에 이르는데, 이 역시 혼전동거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과 비교하면 혼전동거에 대한 찬성 정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듯이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찬성 경향이 더 강하였다. 25세 미만의 응답자 중에서 찬성 경향은 83.0%(전적으로 찬성 31.5%, '대체로 찬성' 51.5%)로 나타난 반면, 45~49세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경향이 46.8%로 반대 경향 53.2%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 경향이 강하였다는 점이다. 중졸 이하 학력에서는 찬성 의견 63.0%, 고졸 59.9%, 대졸 56.3%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49.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비록 그 수는 크지 않지만 이혼·별거·미혼모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찬성의 비중이 69.1%로, 유배우 응답자의 57.0%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7.8	36.1	40.2	16.0	100.0	(11,009)
전체(2018)	13.1	44.4	31.7	10.9	100.0	(11,207)
거주지($\chi^2=6.9$)						
대도시	12.9	44.0	31.5	11.6	100.0	(4,802)
중소도시	13.1	44.5	32.3	10.2	100.0	(4,802)
농촌	13.6	45.2	30.7	10.5	100.0	(1,602)
연령($\chi^2=355.3^{***}$)						
25세 미만	31.5	51.5	13.2	3.8	100.0	(81)
25~29세	20.9	49.5	22.1	7.6	100.0	(490)
30~34세	15.1	49.5	27.6	7.9	100.0	(1,541)
35~39세	15.2	49.8	27.0	8.0	100.0	(2,643)
40~44세	12.5	44.5	32.0	11.0	100.0	(2,861)
45~49세	9.5	37.3	38.5	14.7	100.0	(3,592)

〈표 4-8〉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86.6^{***}$)						
중졸 이하	13.8	49.2	24.6	12.4	100.0	(230)
고졸	16.4	43.5	29.0	11.2	100.0	(3,960)
대졸	11.2	45.1	33.2	10.5	100.0	(6,485)
대학원졸	9.7	40.1	37.8	12.4	100.0	(533)
혼인상태($\chi^2=39.6^{***}$)						
유배우	12.7	44.3	32.1	10.9	100.0	(10,630)
사별	14.2	37.8	36.5	11.6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20.3	48.8	22.2	8.7	100.0	(46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혼인과 무관한 동거(‘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63.1%로 긍정적 태도 36.8%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전적으로 찬성’이라는 응답 6.9%, ‘대체로 찬성’ 29.9%, ‘별로 찬성하지 않음’ 40.5%, ‘전혀 찬성하지 않음’ 22.6%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과 비교했을 때는 찬성 정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앞서 혼인을 전제로 한 혼전동거보다는 낮았지만 분포면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일관되게 보였다. 앞서 혼전동거 질문에서는 83.0%가 긍정적 태도를 보인 25세 미만 응답자 집단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47.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아직도 남녀의 가족구성의 생애단계에 관하여 혼인 중심의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준다.

〈표 4-9〉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3.9	23.2	44.8	28.0	100.0	(11,009)
전체(2018)	6.9	29.9	40.5	22.6	100.0	(11,207)
거주지($\chi^2=9.7$)						
대도시	6.9	30.1	39.4	23.7	100.0	(4,802)
중소도시	7.0	30.1	41.6	21.3	100.0	(4,802)
농촌	6.9	29.1	40.6	23.4	100.0	(1,602)
연령($\chi^2=243.2^{***}$)						
25세 미만	20.2	27.5	41.4	10.9	100.0	(81)
25~29세	10.5	37.4	33.9	18.1	100.0	(490)
30~34세	7.5	34.7	40.3	17.4	100.0	(1,541)
35~39세	8.5	33.7	39.3	18.5	100.0	(2,643)
40~44세	6.3	29.9	40.9	22.8	100.0	(2,861)
45~49세	5.2	24.1	41.9	28.7	100.0	(3,592)
교육수준($\chi^2=39.8^{***}$)						
중졸 이하	6.7	32.2	43.4	17.7	100.0	(230)
고졸	8.6	30.2	37.9	23.2	100.0	(3,960)
대졸	6.0	29.6	41.8	22.6	100.0	(6,485)
대학원졸	5.6	31.2	42.2	20.9	100.0	(533)
혼인상대($\chi^2=49.7^{***}$)						
유배우	6.8	29.5	40.8	23.0	100.0	(10,630)
사별	6.4	26.7	42.7	24.2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11.2	40.6	33.0	15.2	100.0	(46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하여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를 물었다. 응답결과는 찬성 의견이 61.5%(전적으로 찬성 12.9%, ‘대체로 찬성’ 48.6%)였고, 반대 의견이 38.5%(‘별로 찬성하지 않음’ 29.4%, ‘전혀 찬성하지 않음’ 9.1%)로 나타났다. 전반적 응답분포는 앞서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다’는 혼인 전제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찬성의 경향이 더 높았고, 찬성이나 반대 중에서도 유보적 태도의 비율이 78.0%로 높았다는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무자녀 부부에 대한 태도는 혼인 전제 혼전동거보다 더 긍정적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유보적 태도에서도 찬성의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결혼 이후 자녀가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고 있으며, 혼전동거보다 훨씬 더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도 찬성 정도가 높아졌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분포에서도 앞서 혼전동거에 관한 문항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농촌(긍정 응답 55.3%)보다는 대도시(긍정 응답 62.5%)에서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더 강했고, 연령에서도 전반적으로 나이가 더 어릴수록 '전적으로 찬성'의 추세가 더 많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경향성은 30대 후반에서 25세 미만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긍정 경향을 보이는 등,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만큼 일관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력에 있어서도 고학력 기혼 여성일수록 무자녀 부부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았다. 특히 혼전동거에서처럼 중졸 이하 학력집단이나 25세 미만의 연령 집단에서 보여 준 매우 도드라진 수용성은 이 무자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혼전동거나 무자녀 부부를 모두 똑같이 가족에 대한 전통성의 측면에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활동이나 가족보다는 개인적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전통성이 희석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안과 개인적 삶의 경험에 따라 그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10〉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6.0	40.2	39.3	14.5	100.0	(11,009)
전체(2018)	12.9	48.6	29.4	9.1	100.0	(11,207)
거주지($\chi^2=31.7^{***}$)						
대도시	13.4	49.1	28.6	8.9	100.0	(4,802)
중소도시	12.9	49.7	28.4	9.0	100.0	(4,802)
농촌	11.5	43.8	34.6	10.1	100.0	(1,602)
연령($\chi^2=216.7^{***}$)						
25세 미만	24.6	33.7	36.1	5.6	100.0	(81)
25~29세	19.8	48.4	24.9	6.9	100.0	(490)
30~34세	16.4	53.1	24.4	6.1	100.0	(1,541)
35~39세	14.6	52.1	26.2	7.1	100.0	(2,643)
40~44세	11.6	48.9	29.7	9.7	100.0	(2,861)
45~49세	9.9	44.3	34.0	11.7	100.0	(3,592)
교육수준($\chi^2=88.8^{***}$)						
중졸 이하	8.7	31.3	43.5	16.5	100.0	(230)
고졸	13.2	45.5	30.5	10.7	100.0	(3,960)
대졸	12.9	50.8	28.3	8.0	100.0	(6,485)
대학원졸	12.2	52.2	28.2	7.4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반대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15~49세 기혼 여성들은 부정적 태도를 훨씬 더 강하게 보였다(부정적 의견 78.9%). 특히 ‘전적으로 찬성’의 의견은 3.5%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찬성’의 의견도 17.6%에 그쳤다. 반면 ‘별로 찬성하지 않음’의 의견은 40.7%로 강한 반대를 나타내는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38.2%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약간 찬성 정도가 높아졌을 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서 농촌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의 경향이 약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반대의 경향이 좀 더 약하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25세 미만의 기혼 여성 집단에서 찬성 응답이 36.0%(‘전적으로 찬성’ 11.1%, ‘대체로 찬성’ 24.9%)로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인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연령효과인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한 여성들의 특성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동거 및 무자녀 부부 등 결혼과 가족 등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가운데서도 비혼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치관이나 견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혼인부부라는 틀 없이 출산이 이루어질 경우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이 이러한 응답을 나타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11〉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2.0	16.0	43.2	38.7	100.0	(11,008)
전체(2018)	3.5	17.6	40.7	38.2	100.0	(11,207)
거주지($\chi^2=31.7^{***}$)						
대도시	3.5	17.9	40.2	38.4	100.0	(4,802)
중소도시	3.5	17.6	41.0	37.9	100.0	(4,802)
농촌	3.2	16.8	41.6	38.4	100.0	(1,602)
연령($\chi^2=216.7^{***}$)						
25세 미만	11.1	24.9	37.1	26.9	100.0	(81)
25~29세	5.2	16.1	43.1	35.6	100.0	(490)
30~34세	3.9	18.8	42.3	35.1	100.0	(1,541)
35~39세	4.4	19.9	42.4	33.2	100.0	(2,643)
40~44세	3.1	18.8	41.5	36.7	100.0	(2,861)
45~49세	2.6	14.5	38.0	44.9	100.0	(3,592)
교육수준($\chi^2=88.8^{***}$)						
중졸 이하	3.1	15.4	39.6	41.9	100.0	(230)
고졸	3.8	16.4	39.0	40.9	100.0	(3,960)
대졸	3.2	18.3	41.6	36.9	100.0	(6,485)
대학원졸	4.5	19.6	43.0	32.9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혼에 대한 수용성을 물어보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질문에서는 응답자들이 높은 수준의 찬성 경향을 보였다. 앞서의 가치관을 묻는 문항들과는 달리 찬성의 비율(72.2%)이 크게 높았으며,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의 의견은 불과 4.3%에 그쳤다. 그리고 이러한 찬성 정도는 2015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결과이다.

〈표 4-12〉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12.3	53.3	28.7	5.7	100.0	(11,009)
전체(2018)	18.1	54.1	23.5	4.3	100.0	(11,207)
거주지($\chi^2=34.3^{***}$)						
대도시	19.9	54.2	21.9	4.0	100.0	(4,802)
중소도시	17.5	54.1	24.0	4.4	100.0	(4,802)
농촌	14.8	53.8	26.4	5.0	100.0	(1,602)
연령($\chi^2=24.3$)						
25세 미만	10.1	51.4	31.1	7.5	100.0	(81)
25~29세	17.0	52.4	24.6	5.9	100.0	(490)
30~34세	18.3	52.2	25.7	3.8	100.0	(1,541)
35~39세	17.7	54.9	23.1	4.2	100.0	(2,643)
40~44세	17.2	55.6	22.9	4.4	100.0	(2,861)
45~49세	19.5	53.5	22.9	4.1	100.0	(3,592)
교육수준($\chi^2=45.7^{***}$)						
중졸 이하	18.1	44.8	30.6	6.5	100.0	(230)
고졸	20.7	52.0	22.6	4.7	100.0	(3,960)
대졸	16.8	55.5	23.7	4.0	100.0	(6,485)
대학원졸	14.6	57.3	24.0	4.1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에 대한 보수적이고 전통적 성향이 강한 농촌에서는 찬성의 경향(68.6%)이 대도시(74.1%)나 중소도시(71.6%)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응답결과와는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는 찬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에서 찬성의 비율이 62.9%로 70.0% 이상의 찬성 경향을 보인 다른 집단들과의 차이가 도드라진다.

이상의 결과들은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서 이혼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일반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자녀가 이혼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 응답 분포가 앞서의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보다는 다소 낮은 찬성 경향(67.1%)를 보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특히 ‘대체로 찬성’의 의견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3년 사이에 ‘전적으로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찬성 경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 분포도 앞서 이혼에 관한 문항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25세 미만의 저연령층과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만 찬성의 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그 외의 학력 및 연령 집단들에서 집단 간 차이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이혼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자녀의 존재는 이러한 견해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8.3	52.6	31.7	7.5	100.0	(11,009)
전체(2018)	13.8	53.3	26.7	6.2	100.0	(11,207)
거주지($\chi^2=22.2^{***}$)						
대도시	14.9	53.4	25.8	5.9	100.0	(4,802)
중소도시	13.3	53.9	26.5	6.2	100.0	(4,802)
농촌	11.6	51.5	29.7	7.2	100.0	(1,602)
연령($\chi^2=23.7$)						
25세 미만	13.5	44.7	34.0	7.8	100.0	(81)
25~29세	13.8	51.5	27.4	7.3	100.0	(490)
30~34세	14.1	50.8	29.0	6.1	100.0	(1,541)
35~39세	12.8	54.2	26.5	6.4	100.0	(2,643)
40~44세	12.7	54.6	26.1	6.6	100.0	(2,861)
45~49세	15.1	53.2	26.0	5.7	100.0	(3,592)
교육수준($\chi^2=71.5^{***}$)						
중졸 이하	12.5	43.0	32.8	11.6	100.0	(230)
고졸	16.8	51.8	25.1	6.3	100.0	(3,960)
대졸	12.3	54.3	27.4	6.0	100.0	(6,485)
대학원졸	10.1	57.3	26.6	5.9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재혼과 관련하여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에서는 앞서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와 유사하지만 찬성의 정도가 좀 더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의 경향을 보인 응답이 62.4%(‘전적으로 찬성’ 10.9%, ‘대체로 찬성’ 51.5%)로 과반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의 의견 37.5% 중에서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9.9%으로, ‘전혀 찬성하지 않음’은 불과 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다른 가치관 문항과는 달리 오히려 보수성이 높아져 재혼에 대한 찬성 정도가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11.4	53.3	28.6	6.7	100.0	(11,007)
전체(2018)	10.9	51.5	29.9	7.6	100.0	(11,207)
거주지($\chi^2=53.7^{***}$)						
대도시	12.1	53.1	28.0	6.8	100.0	(4,802)
중소도시	10.5	51.5	30.3	7.7	100.0	(4,802)
농촌	8.7	46.9	34.8	9.6	100.0	(1,602)
연령($\chi^2=177.5^{***}$)						
25세 미만	7.9	53.0	36.9	2.2	100.0	(81)
25~29세	14.2	59.3	22.9	3.5	100.0	(490)
30~34세	14.7	55.5	25.3	4.5	100.0	(1,541)
35~39세	12.0	54.4	27.5	6.1	100.0	(2,643)
40~44세	9.7	49.8	31.7	8.8	100.0	(2,861)
45~49세	9.1	48.0	33.2	9.7	100.0	(3,592)
교육수준($\chi^2=178.8^{***}$)						
중졸 이하	8.7	47.0	33.4	11.0	100.0	(230)
고졸	10.4	45.4	33.5	10.7	100.0	(3,960)
대졸	11.3	54.5	28.3	5.9	100.0	(6,485)
대학원졸	11.4	62.7	22.7	3.3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금까지 질문들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일관적되게 보인 농촌지역은 여기서도 찬성 의견이 55.6%(‘전적으로 찬성’ 8.7%, ‘대체로 찬성’ 46.9%)에 그쳐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낮은 찬성 정도를 보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앞서의 분석들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 비해 25세 미만을 제외한 다소 젊은 연령대의 기혼 여성들은 재혼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20대 후반에서는 73.5%, 30대 초반에서는 70.2%로 70%를 넘는 찬성률을 나타냈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학력일수록 찬성의 경향이 높아졌는데,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 각각 55.7%와 55.8%의 찬성 응답이 나타난 것에 비해, 고학력 집단인 대졸 기혼 여성들은 65.8%, 그리고 대학원 이상에서는 74.1%의 상대적으로 높

은 찬성률을 보였다.

젊은 여성과 고학력 여성들이 보인 이러한 재혼에 대한 높은 긍정적 태도는 이들이 실제 재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 수용보다는 다소 낮은 찬성 정도를 보이지만, 여성의 재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69.6%의 찬성 정도를 보여 이혼에 대한 태도보다는 다소 낮지만, 자녀를 둔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견해보다는 높은 찬성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3%로 가장 낮았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찬성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거주지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의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 기혼 여성에서 찬성의 응답이 70.8%로 가장 높았으나, 대졸의 69.3%나, 대학원졸의 68.5%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에서는 찬성률이 6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여성보다는 사별 또는 이혼·별거·미혼모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고연령이나 무배우의 기혼 여성에서 찬성의 정도가 높은 것은 이들의 실제 자녀 양육의 경험에 의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찬성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반대로 경제력 등에서 독립적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5〉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10.3	56.3	29.7	3.7	100.0	(11,009)
전체(2018)	13.2	56.4	27.0	3.3	100.0	(11,207)
거주지($\chi^2=4.2$)						
대도시	13.8	56.2	26.7	3.3	100.0	(4,802)
중소도시	12.9	56.9	26.9	3.4	100.0	(4,802)
농촌	12.4	56.0	28.4	3.2	100.0	(1,602)
연령($\chi^2=38.9^{**}$)						
25세 미만	13.3	46.0	37.9	2.8	100.0	(81)
25~29세	16.7	51.4	28.5	3.4	100.0	(490)
30~34세	12.7	54.1	29.3	4.0	100.0	(1,541)
35~39세	12.3	56.4	28.3	3.0	100.0	(2,643)
40~44세	13.2	57.7	25.1	4.0	100.0	(2,861)
45~49세	13.7	57.4	26.2	2.7	100.0	(3,592)
교육수준($\chi^2=36.3^{***}$)						
중졸 이하	13.6	49.0	31.8	5.6	100.0	(230)
고졸	15.3	55.5	26.1	3.1	100.0	(3,960)
대졸	11.8	57.5	27.3	3.3	100.0	(6,485)
대학원졸	14.9	53.6	27.9	3.5	100.0	(533)
혼인상태($\chi^2=97.6^{***}$)						
유배우	12.6	56.3	27.6	3.4	100.0	(10,630)
사별	19.1	62.1	17.1	1.7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25.8	57.8	14.9	1.4	100.0	(46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 입양에 대한 태도를 묻는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 비율이 50.5%에 그쳐 비교적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응답 비율도 11.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찬성 정도가 약간 낮아졌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거주지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에 있어서는 고학력일수록 찬성 정도가 높았는데,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43.5%의 찬성 정도를 보인 반면, 대졸에서는 52.7%, 대학원졸에서는 62.8%의 찬성률을 나타내었다.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사별이 53.3%로 나타났고, 유배우의 경우 50.5%로 가장 낮은 찬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입양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혼인상태의 차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응답의 차이가 경험 측면을 반영하였다기보다는 가치관 일반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9.9	43.2	36.8	10.2	100.0	(11,006)
전체(2018)	10.1	40.4	38.1	11.4	100.0	(11,207)
거주지($\chi^2=6.9$)						
대도시	10.1	41.3	37.5	11.1	100.0	(4,802)
중소도시	10.0	40.0	38.0	11.9	100.0	(4,802)
농촌	10.5	38.6	40.1	10.8	100.0	(1,602)
연령($\chi^2=33.0^{**}$)						
25세 미만	10.1	36.8	42.3	10.8	100.0	(81)
25~29세	15.3	39.8	35.4	9.5	100.0	(490)
30~34세	9.2	38.6	39.3	12.9	100.0	(1,541)
35~39세	8.6	41.1	39.0	11.3	100.0	(2,643)
40~44세	10.2	41.1	37.6	11.0	100.0	(2,861)
45~49세	10.9	40.2	37.5	11.4	100.0	(3,592)
교육수준($\chi^2=112.1^{***}$)						
중졸 이하	10.0	33.5	41.1	15.3	100.0	(230)
고졸	10.6	35.1	41.1	13.2	100.0	(3,960)
대졸	9.8	42.9	36.7	10.6	100.0	(6,485)
대학원졸	10.4	52.4	31.1	6.1	100.0	(533)
혼인상태($\chi^2=22.4^{**}$)						
유배우	9.9	40.6	38.2	11.4	100.0	(10,630)
사별	19.0	34.3	37.4	9.4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14.6	37.0	36.1	12.3	100.0	(46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절 결혼 과정 및 결혼 이력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혼인이행 등 실제 가족 구성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우선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98.9%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비혼 동거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특이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집단들로는 25세 미만과 25~29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와 중졸 이하의 학력집단과 가구소득 60% 미만의 저소득 집단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25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5%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젊은 응답자 집단에서 혼인신고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짧은 혼인기간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혼인신고를 혼인 이후에도 상당기간 미루는 경향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저학력 및 저소득 그룹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성이 높아서라기보다는 혼인의 안정성이 낮아 나타난 결과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7〉 유배우 여성(15~49세)의 현재 남편과의 혼인신고 여부

(단위: %, 명)

구 분	혼인신고 하였음	혼인신고 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98.9	1.1	100.0	(10,630)
거주지($\chi^2=3.1$)				
대도시	98.7	1.3	100.0	(4,565)
중소도시	99.0	1.0	100.0	(4,535)
농촌	99.1	0.9	100.0	(1,529)

〈표 4-17〉 계속

구 분	혼인신고 하였음	혼인신고 하지 않았음	계	(명)
연령($\chi^2=91.9^{***}$)				
25세 미만	92.5	7.5	100.0	(77)
25~29세	95.9	4.1	100.0	(483)
30~34세	97.9	2.1	100.0	(1,515)
35~39세	99.3	0.7	100.0	(2,573)
40~44세	99.2	0.8	100.0	(2,714)
45~49세	99.3	0.7	100.0	(3,268)
교육수준($\chi^2=12.8^{**}$)				
중졸 이하	97.5	2.5	100.0	(181)
고졸	98.4	1.6	100.0	(3,615)
대졸	99.1	0.9	100.0	(6,312)
대학원졸	99.2	0.8	100.0	(522)
가구소득($\chi^2=8.0$)				
60% 미만	97.9	2.1	100.0	(770)
60~80% 미만	99.0	1.0	100.0	(1,720)
80~100% 미만	99.0	1.0	100.0	(2,011)
100~120% 미만	98.8	1.2	100.0	(1,852)
120~140% 미만	98.9	1.1	100.0	(1,456)
140~160% 미만	98.7	1.3	100.0	(988)
160% 이상	99.1	0.9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현재 남편과의 결혼식 여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하였다는 응답이 97.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결혼식이 우리나라 가족 구성 과정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앞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집단과 일치하는데, 저연령, 저학력, 저소득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들 집단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를 통해 이들이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은 비혼인 동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이들이 주로 경제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일 가능성은 높는데, 이는 경제적 사정에 의해 비교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8〉 유배우 여성(15~49세)의 현재 남편과의 결혼식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결혼식 하였음	결혼식 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97.2	2.8	100.0	(10,630)
거주지($\chi^2=19.1^{***}$)				
대도시	97.8	2.2	100.0	(4,565)
중소도시	97.0	3.0	100.0	(4,535)
농촌	95.7	4.3	100.0	(1,529)
연령($\chi^2=259.8^{***}$)				
25세 미만	70.2	29.8	100.0	(77)
25~29세	92.2	7.8	100.0	(483)
30~34세	96.9	3.1	100.0	(1,515)
35~39세	98.0	2.0	100.0	(2,573)
40~44세	97.8	2.2	100.0	(2,714)
45~49세	97.5	2.5	100.0	(3,268)
교육수준($\chi^2=391.0^{***}$)				
중졸 이하	79.0	21.0	100.0	(181)
고졸	94.5	5.5	100.0	(3,615)
대졸	99.0	1.0	100.0	(6,312)
대학원졸	98.9	1.1	100.0	(522)
가구소득($\chi^2=202.0^{***}$)				
60% 미만	89.6	10.4	100.0	(770)
60~80% 미만	96.2	3.8	100.0	(1,720)
80~100% 미만	97.2	2.8	100.0	(2,011)
100~120% 미만	97.7	2.3	100.0	(1,852)
120~140% 미만	98.6	1.4	100.0	(1,456)
140~160% 미만	98.6	1.4	100.0	(988)
160% 이상	98.8	1.2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은 어떠한 사건을 혼인 시작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을까? 현재 남편과의 결혼 시작 판단 시점(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은 결혼식(66.7%)이었고, 다음으로

동거 시작(24.6%)과 혼인신고(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결혼식을 혼인생활의 시작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거 시작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높고, 혼인신고의 비율이 낮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혼과 관련된 형식보다는 실제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도 상당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거를 혼인 시작의 판단으로 여기는 응답은 농촌, 저연령, 낮은 학력, 그리고 낮은 소득수준의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집단은 앞서 질문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 집단의 응답분포를 보면 결혼식을 결혼생활의 시작으로 보는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혼인신고를 시작 시점으로 여기는 경향도 강하다는 공통적 특징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동거를 혼인 시작 사건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던 25세 미만(47.6%)과 25~29세 연령집단(36.0%)에서는 혼인신고를 혼인 시작으로 여긴다는 응답도 각각 18.7%와 12.9%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들 집단에서는 결혼식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식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실제 동거를 혼인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비혼 동거가 확산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단지 결혼식을 강조하는 전통적 인식에서 개인의 생활형편에 따라 혼인생활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최근 결혼 이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실제 자기의 생활과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혼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준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개

인화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4-19〉 유배우 여성(15~49세)의 현재 남편과의 결혼 시작 판단 시점(사건)

(단위: %, 명)

구 분	동거 시작	혼인신고	결혼식	계	(명)
전체	24.6	8.7	66.7	100.0	(10,630)
거주지($\chi^2=141.0^{***}$)					
대도시	20.6	7.3	72.1	100.0	(4,565)
중소도시	26.0	9.1	64.9	100.0	(4,535)
농촌	32.2	11.5	56.3	100.0	(1,529)
연령($\chi^2=127.2^{***}$)					
25세 미만	47.6	18.7	33.7	100.0	(77)
25~29세	36.0	12.9	51.1	100.0	(483)
30~34세	27.7	10.2	62.1	100.0	(1,515)
35~39세	24.6	8.6	66.8	100.0	(2,573)
40~44세	23.3	7.6	69.1	100.0	(2,714)
45~49세	21.9	8.1	69.9	100.0	(3,268)
교육수준($\chi^2=400.1^{***}$)					
중졸 이하	48.9	14.6	36.6	100.0	(181)
고졸	33.1	11.0	55.9	100.0	(3,615)
대졸	19.6	7.2	73.2	100.0	(6,312)
대학원졸	17.9	8.4	73.7	100.0	(522)
취업 여부($\chi^2=6.1^*$)					
취업	24.3	8.2	67.5	100.0	(6,095)
비취업	25.0	9.4	65.7	100.0	(4,535)
가구소득($\chi^2=196.3^{***}$)					
60% 미만	37.7	11.4	50.9	100.0	(770)
60~80% 미만	28.1	11.2	60.7	100.0	(1,720)
80~100% 미만	23.8	10.5	65.7	100.0	(2,011)
100~120% 미만	24.6	7.0	68.4	100.0	(1,852)
120~140% 미만	21.9	8.6	69.5	100.0	(1,456)
140~160% 미만	22.6	6.6	70.8	100.0	(988)
160% 이상	19.8	6.1	74.1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혼인이행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실제 동거, 혼인신고 등 일련의 사건 과정들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유배우 여성들의 혼인 이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결혼식 → 함께 삶 → 혼인신고’의 진행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함께 삶 → 결혼식 → 혼인신고’의 비중도 8.5%에 이르렀다. 한편 ‘함께 삶 → 혼인신고 → 결혼식’의 과정으로 혼인과정을 이행한 경우도 7.7%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불과 3.4%에 그쳤다.

이러한 과정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이전부터 함께 사는 것을 먼저 시작한 경우가 23.4%로 ‘결혼식 → 함께 삶 → 혼인신고’의 일반적 과정을 따랐다는 비율(22.5%)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함께 삶 → 혼인신고’로 이어졌다는 응답(22.6%)을 포함하면 이들의 혼인 과정에서는 동거를 먼저 시작했다는 비율이 무려 46.0%에 이른다.

이렇게 동거로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한 경우는 농촌 거주, 저연령, 중졸 이하 학력의 특성을 가진 집단들이었다. 이들은 앞서 분석에서 혼인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결론적으로 혼인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서 결혼식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서는 결혼식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기혼 여성(15~49세)의 최근 결혼생활의 진행 순서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명)
전체	8.5	7.7	72.4	2.3	1.7	4.0	0.2	0.3	2.1	0.2	0.6	100.0	(11,194)
거주지($\chi^2=203.3^{***}$)													
대도시	7.4	5.7	77.3	1.6	1.5	3.9	0.1	0.4	1.3	0.2	0.8	100.0	(4,798)
중소도시	9.6	8.2	70.5	2.5	1.7	3.8	0.2	0.3	2.4	0.2	0.6	100.0	(4,796)
농촌	8.4	12.4	63.2	3.7	2.7	4.8	0.2	0.3	3.7	0.2	0.4	100.0	(1,600)
연령($\chi^2=642.7^{***}$)													
25세 미만	8.3	15.1	22.5	10.7	6.1	6.1	-	-	22.6	1.1	7.4	100.0	(78)
25~29세	11.9	13.3	48.6	3.4	5.2	7.9	0.7	1.6	5.0	0.7	1.8	100.0	(490)
30~34세	9.3	8.3	66.3	2.3	2.8	6.2	0.4	1.0	2.4	0.2	0.8	100.0	(1,538)
35~39세	9.7	7.1	72.1	2.0	1.8	4.7	0.1	0.1	1.7	0.1	0.4	100.0	(2,639)
40~44세	7.9	7.0	75.8	2.3	1.3	3.2	0.0	0.3	1.6	0.1	0.6	100.0	(2,860)
45~49세	7.3	7.6	76.8	2.2	1.0	2.5	0.1	0.0	1.8	0.2	0.5	100.0	(3,590)
교육수준($\chi^2=1142.8^{***}$)													
중졸 이하	8.9	22.7	33.9	7.2	2.6	4.6	0.6	-	16.8	1.0	1.8	100.0	(229)
고졸	12.0	13.8	62.2	1.9	1.7	2.6	0.2	0.1	4.1	0.2	1.1	100.0	(3,951)
대졸	6.5	4.0	79.5	2.2	1.7	4.6	0.1	0.5	0.5	0.1	0.3	100.0	(6,482)
대학원졸	6.6	2.1	77.9	3.8	2.0	6.0	-	0.4	0.4	0.3	0.4	100.0	(533)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함께 살 → 결혼식 → 혼인신고 ② 함께 살 → 혼인신고 → 결혼식 ③ 결혼식 → 함께 살 → 혼인신고 ④ 결혼식 → 혼인신고 → 함께 살 ⑤ 혼인신고 → 함께 살 → 결혼식 ⑥ 혼인신고 → 결혼식 → 함께 살 ⑦ 함께 살 → 결혼식(혼인신고 안 함) ⑧ 결혼식 → 함께 살(혼인신고 안 함) ⑨ 함께 살 → 혼인신고(결혼식 안 함) ⑩ 혼인신고 → 함께 살(결혼식 안 함) ⑪ 함께 살(결혼식, 혼인신고 안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절 결혼비용과 주거비 부담

본 조사에서는 혼인(초혼) 초기 결혼비용 특히 주거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문항들은 과거의 특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은 대부분 과거의 상황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혼인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그 분포의 특성이 달라지는 바를 살펴보았다. 혼인 시작 시점은 일률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신의 혼인의 시작 시점이라고 응답한 사건(동거 시작, 결혼식, 혼인신고)이 일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거비용을 포함한 혼인비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꼈는지를 알아 본 질문에서는 부담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54.5%로 절반을 넘었으나,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도 45.5%(‘매우 부담되었음’ 5.1%, ‘부담되는 편이었음’ 40.4%)로 우리 사회에 혼인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담이 되었다는 응답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이전에 결혼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38.8%에 그쳤으나, 가장 최근 혼인 코호트인 2014~2018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응답자들은 부담이 된다는 응답률이 절반을 넘는 54.4%에 달했다. 특히 2004~2008년 결혼 코호트와 2009~2013년 결혼 코호트에서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44.2% → 51.3%)하는데, 이는 주택비용 상승 특히 전세 보증금 폭등이 일어난 시기와 겹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은 주택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1〉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비용 부담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부담되었음	부담되는 편이었음	부담되지 않았음	전혀 부담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5.1	40.4	49.5	5.0	100.0	(10,630)
초혼연도($\chi^2=54.0^{***}$)						
2014~2018	7.0	47.4	39.8	5.9	100.0	(1,540)
2009~2013	6.9	44.4	44.7	4.0	100.0	(2,387)
2004~2008	4.3	39.9	50.5	5.2	100.0	(2,188)
1999~2003	4.3	37.3	53.7	4.7	100.0	(2,011)
1998 이전	3.7	35.1	55.7	5.5	100.0	(2,50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거와 관련하여 결혼 시작 당시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절반 정도인 48.9%가 전세로 신혼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히려 최근 결혼 코호트로 올수록 자가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여 2014~ 2018년에 혼인한 코호트의 경우에는 자가 시작비율이 34.9%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보증부 월세로 혼인주거를 시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추세들은 신혼부부 청년 사이에서 혼인주거 마련과 관련하여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가 주택가격이 청년의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부모의 주거비 지원이 매우 커지고 있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2〉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부모집 무상	관사 (무상)	기타	계	(명)
전체	23.4	48.9	11.6	1.4	0.5	11.9	2.3	0.0	100.0	(10,630)
초혼연도($\chi^2=54.0^{***}$)										
2014~2018	34.9	36.7	14.5	1.4	0.6	9.9	2.0	0.1	100.0	(1,540)
2009~2013	29.5	44.2	13.0	1.3	0.3	9.8	2.0	-	100.0	(2,387)
2004~2008	23.0	48.6	12.2	1.1	0.4	12.0	2.7	-	100.0	(2,188)
1999~2003	19.6	55.1	9.1	1.1	0.4	12.2	2.5	-	100.0	(2,011)
1998 이전	13.8	56.4	10.0	2.2	0.9	14.6	2.2	-	100.0	(2,50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신혼주거를 자가로 마련한 응답의 경우 그 구입 가격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을 보여주듯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들었다는 응답 비율은 1998년 이전 결혼 코호트에서는 77.6%에 달했지만, 가장 최근 초혼 코호트에서는 10.6%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였다는 경우도 44.4%에 달하였다.

〈표 4-23〉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택 구입 가격(자가 응답자)

(단위: %, 명)

구 분	5000만 원 미만	5000만~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계	(명)
전체	9.6	27.8	38.1	22.3	2.2	100.0	(2,482)
초혼연도($\chi^2=54.0^{***}$)							
2014~2018	1.5	9.1	45.0	40.4	4.0	100.0	(538)
2009~2013	3.5	19.9	47.2	27.2	2.2	100.0	(705)
2004~2008	8.2	35.2	36.7	17.4	2.4	100.0	(501)
1999~2003	13.5	42.9	31.6	10.8	1.2	100.0	(394)
1998 이전	32.5	45.1	17.9	4.5	-	100.0	(34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렇게 신혼주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전세로 신혼주거를 시작했다는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가장 최근의 초혼 코호트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으로 들었다는 비율이 66.4%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되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도 이러한 정도의 전세금을 지불한 경우는 2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이 혼인으로의 생애 과정 이행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24〉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택 전세 보증금(전세 응답자)

(단위: %, 명)

구 분	3000만 원 미만	3000만~ 5000만 원 미만	5000만~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계	(명)
전체	26.1	22.3	29.6	16.1	6.0	100.0	(5,200)
초혼연도($\chi^2=54.0^{***}$)							
2014~2018	4.3	4.9	24.5	43.0	23.4	100.0	(566)
2009~2013	7.0	11.1	38.9	31.0	12.0	100.0	(1,053)
2004~2008	11.8	22.9	46.7	15.3	3.3	100.0	(1,062)
1999~2003	32.1	32.5	28.8	5.7	0.9	100.0	(1,108)
1998 이전	55.0	29.3	12.3	2.9	0.6	100.0	(1,41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신혼주거를 보증부 월세로 시작한 경우의 월세 보증금에서도 그 부담의 상승이 확인되었다. 1000만 원 미만의 보증금을 지불하였다는 응답은 1998년 이전 초혼 코호트의 59.6%에서 2014~2018년 초혼 코호트의 40.5%로 크게 낮아진,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인 경우 1.3%에서 20.9%로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보증금은 자가나 전세에 비해 비용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25〉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택 월세 보증금(보증부 월세)

(단위: %, 명)

구 분	1000만 원 미만	1000만~ 2000만 원 미만	2000만~ 4000만 원 미만	4000만~ 7500만 원 미만	7500만 원 이상	계	(명)
전체	43.5	23.5	22.2	7.7	3.1	100.0	(1,231)
초혼연도($\chi^2=54.0^{***}$)							
2014~2018	40.5	19.4	19.3	10.6	10.3	100.0	(222)
2009~2013	32.8	20.7	29.7	13.1	3.7	100.0	(310)
2004~2008	42.4	24.4	24.8	6.9	1.5	100.0	(268)
1999~2003	44.8	25.6	24.9	4.7	-	100.0	(183)
1998 이전	59.6	28.4	10.7	1.3	-	100.0	(24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매월 주거비를 납부하는 모든 월세 형태의 주거에서도 역시 주택월세 비용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50만 원 이상 고부담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0년대까지 이러한 비율은 10% 미만이었으나, 2009~2013년 코호트에서는 15.6%, 그리고 최근 2014~2018년 코호트에서는 23.1%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월세의 증가와 앞서 월세 보증금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신혼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거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반적인 보증금 및 주택 월세액의 상승과 함께, 소위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증가 등 주택시장의 변동과 관련이 깊다.

〈표 4-26〉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주택월세 (보증부 월세/월세/사글세 응답자)

(단위: %, 명)

구 분	15만 원 미만	15만~30만 원 미만	30만~50만 원 미만	50만~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계	(명)
전체	23.3	32.5	31.4	10.2	2.7	100.0	(1,438)
초혼연도($\chi^2=54.0^{***}$)							
2014~2018	11.7	20.6	44.7	20.8	2.3	100.0	(253)
2009~2013	16.4	27.2	40.8	12.5	3.1	100.0	(347)
2004~2008	21.2	34.5	34.6	8.0	1.7	100.0	(300)
1999~2003	24.1	42.7	23.7	6.1	3.4	100.0	(213)
1998 이전	40.9	38.8	13.3	4.1	2.9	100.0	(32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렇게 신흥초기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자가나 전세의 경우에는 청년의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당연히 신흥 주거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늘어났다. 1998년까지 20% 미만 이었던 신흥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경험 비율은 2014~2018년 초혼 코호트에 이르러서는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표 4-27〉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신흥집 마련을 위한 대출 여부(본인 및 남편)

(단위: %, 명)

구 분	대출 받음	받지 않음	계	(명)
전체	29.6	70.4	100.0	(9,128)
초혼연도($\chi^2=54.0^{***}$)				
2014~2018	50.2	49.8	100.0	(1,357)
2009~2013	36.2	63.8	100.0	(2,106)
2004~2008	28.6	71.4	100.0	(1,866)
1999~2003	22.9	77.1	100.0	(1,716)
1998 이전	16.0	84.0	100.0	(2,08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출은 받은 경우 그 규모를 살펴보았다. 당연히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대출 액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1억 원 이상의 고액 대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에서도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37.7%까지 높아졌으며,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는 75.8%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이러한 대출 부담 증가는 대출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사실까지 더하여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혼주거 마련 대출 부담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세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주거의 증가와 함께 청년들의 혼인으로의 생애과정 이행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주거 부담은 이자납부, 대출상환 및 주거 안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혼부부들의 출산을 가로막는 지속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8〉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초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모(본인 및 남편)

(단위: %, 명)

구 분	3000만 원 미만	3000만~ 5000만 원 미만	5000만~ 1억 원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계	(명)
전체	33.0	22.8	27.4	15.0	1.8	100.0	(2,702)
초혼연도($\chi^2=54.0^{***}$)							
2014~2018	9.4	14.8	38.1	34.7	3.0	100.0	(680)
2009~2013	19.2	26.9	35.5	15.8	2.5	100.0	(762)
2004~2008	36.8	30.9	24.1	7.2	1.0	100.0	(534)
1999~2003	58.7	23.8	14.5	2.1	0.9	100.0	(393)
1998 이전	76.4	15.1	7.8	0.7	-	100.0	(3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1절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1. 자녀 필요성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가치관(자녀의 필요성)에 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32.8%)’, ‘없어도 무관하다(1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자녀의 필요성은 감소하였다. 특히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자녀에 대해 ‘없어도 무관하다’의 경우 6.3%포인트 증가하였다.

기혼 여성의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중소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학력일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대졸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와 대학원졸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 기혼 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

(단위: %, 명)

구 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2015)	60.2	29.0	10.6	0.1	100.0	(11,009)
전체(2018)	49.9	32.8	16.9	0.4	100.0	(11,207)
거주지($\chi^2=22.5^{***}$)						
대도시	48.5	32.7	18.4	0.4	100.0	(4,802)
중소도시	50.0	33.4	16.2	0.4	100.0	(4,802)
농촌	54.0	31.0	14.7	0.3	100.0	(1,602)
연령($\chi^2=27.4^*$)						
25세 미만	59.8	24.4	15.8	-	100.0	(81)
25~29세	50.0	32.0	17.9	0.1	100.0	(490)
30~34세	47.2	33.5	18.7	0.5	100.0	(1,541)
35~39세	48.4	33.0	18.3	0.4	100.0	(2,643)
40~44세	51.3	31.2	17.0	0.5	100.0	(2,861)
45~49세	50.8	33.8	15.0	0.4	100.0	(3,592)
교육수준($\chi^2=25.7^{**}$)						
중졸 이하	59.5	27.7	12.2	0.6	100.0	(230)
고졸	51.9	31.1	16.8	0.3	100.0	(3,960)
대졸	48.4	33.8	17.3	0.5	100.0	(6,485)
대학원졸	49.2	34.5	15.6	0.7	100.0	(533)
혼인상태($\chi^2=37.3^{***}$)						
유배우	50.4	32.6	16.6	0.4	100.0	(10,630)
사별	50.2	36.3	13.5	-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38.5	35.3	25.5	0.6	100.0	(466)
취업 여부($\chi^2=1.3$)						
취업	49.9	33.1	16.6	0.4	100.0	(6,559)
비취업	49.9	32.3	17.3	0.4	100.0	(4,648)
가구소득($\chi^2=23.5$)						
60% 미만	47.3	32.1	20.1	0.6	100.0	(1,123)
60~80% 미만	51.6	31.4	16.6	0.4	100.0	(1,834)
80~100% 미만	50.9	31.6	17.3	0.2	100.0	(2,073)
100~120% 미만	49.8	33.1	16.8	0.4	100.0	(1,878)
120~140% 미만	49.1	34.4	16.0	0.5	100.0	(1,468)
140~160% 미만	51.7	32.6	15.3	0.5	100.0	(992)
160% 이상	48.6	34.4	16.5	0.5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미혼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혼·별거·미혼모, 유배우, 사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자녀 양육의 어려웠던 경험 등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적 여건은 자녀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필요성에 관해 긍정적으로 응답('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자녀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들 응답 기혼 여성 중 81.1%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심리적 만족(15.6%)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가문(대)을 잇기 위해(1.2%)', '주변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분위기여서(0.7%)', '노후생활을 위해서(0.5%)', '부모님이 원해서(0.5%)', 기타('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 등 0.4%)의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필요한 이유에 있어서 경제적 혹은 수단적인 이유보다 정서적인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를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60% 미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낮은 반면 '심리적 만족'과 '노후생활을 위해서'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기타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2〉 기혼 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가정(대)을 잇기 위해	부모님이 원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심리적 만족	주변 사람들 분위기	가정의 행복과 조화	기타 ¹⁾	계	(명)
전체	1.2	0.5	0.5	15.6	0.7	81.1	0.4	100.0	(9,265)
거주지($\chi^2=25.8$)									
대도시	1.2	0.6	0.6	14.0	0.7	82.5	0.4	100.0	(3,898)
중소도시	1.1	0.4	0.4	16.1	0.9	80.7	0.4	100.0	(4,005)
농촌	1.3	0.7	0.7	18.3	0.3	78.7	0.1	100.0	(1,362)
연령									
25세 미만	1.2	-	-	21.1	2.1	75.6	-	100.0	(68)
25~29세	2.5	1.9	1.2	12.9	0.7	80.3	0.5	100.0	(402)
30~34세	1.5	1.0	0.7	12.8	0.4	83.4	0.2	100.0	(1,245)
35~39세	.9	0.7	0.3	14.6	0.7	82.3	0.5	100.0	(2,150)
40~44세	1.1	0.5	0.4	14.7	0.8	82.4	0.3	100.0	(2,362)
45~49세	1.1	0.1	0.6	18.3	0.8	78.7	0.4	100.0	(3,039)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	-	1.5	23.9	0.7	69.6	2.1	100.0	(200)
고졸	1.3	0.4	0.5	18.2	0.9	78.2	0.4	100.0	(3,284)
대졸	1.1	0.6	0.5	13.8	0.7	83.0	0.3	100.0	(5,335)
대학원졸	0.4	0.4	-	12.6	0.2	86.1	0.3	100.0	(446)
혼인상태									
유배우	1.2	0.5	0.5	14.7	0.7	82.0	0.3	100.0	(8,825)
사별	1.8	-	-	27.2	-	71.1	-	100.0	(96)
이혼·별거·미혼모	0.6	0.6	1.0	34.1	1.6	61.4	0.7	100.0	(344)
취업 여부($\chi^2=4.5$)									
취업	1.2	0.4	0.5	15.9	0.7	80.8	0.4	100.0	(5,442)
비취업	1.1	0.7	0.5	15.0	0.7	81.6	0.3	100.0	(3,823)
가구소득($\chi^2=90.0^{***}$)									
60% 미만	2.3	0.6	1.3	19.4	0.8	74.6	0.9	100.0	(891)
60~80% 미만	0.9	0.7	0.3	17.5	0.9	79.2	0.5	100.0	(1,523)
80~100% 미만	1.4	0.6	0.6	14.2	0.8	82.2	0.2	100.0	(1,711)
100~120% 미만	1.1	0.4	0.6	14.1	0.3	83.2	0.2	100.0	(1,555)
120~140% 미만	1.1	0.4	0.4	17.1	0.9	80.0	0.0	100.0	(1,226)
140~160% 미만	0.4	0.9	0.3	12.4	0.7	84.8	0.4	100.0	(836)
160% 이상	1.2	0.1	0.3	14.8	0.7	82.5	0.4	100.0	(1,523)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가 해당됨.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25.3%)’,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16.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15.6%)’,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한 주된 이유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대체로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이유(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 곤란)를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유배우 여성은 ‘부부만의 생활 추구’를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기혼 여성들은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과 ‘직장생활 지속’을 응답한 비율이 비취업 기혼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만의 생활 추구’,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 곤란’ 등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취업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상황상 자녀 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부부만의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관의 문제로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거주지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기혼 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 여유롭게 생활	직장 생활 지속 희망	부부만의 생활 추구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경제적 으로 자녀 양육 곤란	불임 등으로 임신 곤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기타 ¹⁾	계	(명)
전체	24.1	2.5	15.6	16.2	11.3	2.4	25.3	2.7	100.0	(1,896)
거주지($\chi^2=9.4$)										
대도시	22.2	2.4	15.8	17.2	10.6	2.4	26.4	3.0	100.0	(884)
중소도시	26.7	2.8	14.9	15.2	12.0	2.4	23.7	2.3	100.0	(777)
농촌	22.3	2.1	16.9	15.8	11.2	2.2	26.6	3.0	100.0	(235)
연령										
25세 미만	49.6	6.5	6.5	24.3	6.5	-	6.5	-	100.0	(13)
25~29세	24.7	4.7	26.2	17.9	12.9	-	12.9	0.7	100.0	(87)
30~34세	22.8	3.5	24.0	20.5	7.3	1.4	19.1	1.4	100.0	(288)
35~39세	24.4	2.1	13.2	19.8	10.0	1.6	27.1	1.8	100.0	(484)
40~44세	24.9	2.1	14.4	13.0	11.9	3.4	27.1	3.1	100.0	(486)
45~49세	23.1	2.3	12.6	13.1	13.8	3.0	27.8	4.2	100.0	(53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9.2	-	8.5	19.9	25.0	7.2	4.0	6.1	100.0	(28)
고졸	29.0	1.4	12.7	12.7	15.7	2.4	22.7	3.2	100.0	(665)
대졸	21.8	3.2	17.4	18.0	8.6	2.1	27.2	1.7	100.0	(1,120)
대학원졸	13.8	3.2	15.8	18.4	6.9	3.8	27.4	10.7	100.0	(83)
혼인상태										
유배우	24.0	2.6	16.6	15.6	10.4	2.5	25.6	2.7	100.0	(1,762)
사별	40.8	-	-	23.6	20.0	-	15.6	-	100.0	(15)
이혼, 별거, 미혼모	22.5	1.1	1.6	25.0	23.3	0.8	22.0	3.8	100.0	(119)
취업 여부($\chi^2=21.3^{**}$)										
취업	26.1	3.5	14.0	16.2	10.8	2.0	24.9	2.5	100.0	(1,091)
비취업	21.4	1.2	17.6	16.2	11.9	2.8	25.9	3.0	100.0	(805)
가구소득($\chi^2=81.1^{***}$)										
60% 미만	25.5	1.0	8.9	18.5	19.5	3.7	19.1	3.8	100.0	(225)
60~80% 미만	23.1	1.8	16.3	18.3	14.2	2.1	20.8	3.4	100.0	(304)
80~100% 미만	23.5	2.1	16.0	14.4	12.3	3.5	26.9	1.3	100.0	(359)
100~120% 미만	28.2	2.7	16.6	13.4	11.5	1.7	23.2	2.6	100.0	(316)
120~140% 미만	26.0	3.5	16.7	15.0	5.3	1.5	28.2	3.7	100.0	(235)
140~160% 미만	21.3	2.8	17.4	17.1	6.0	3.2	31.6	0.6	100.0	(151)
160% 이상	20.6	3.7	16.4	17.6	7.8	1.2	29.6	3.2	100.0	(304)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기타'가 해당됨.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이상자녀수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이상자녀수(ideal number of children)를 질문한 결과 2명(63.6%), 3명(17.0%), 1명(9.9%), 4명 이상(4.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이상자녀수는 2.16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 이상자녀수는 2명(65.9%), 3명(19.9%), 1명(7.0%), 4명 이상(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상자녀수는 2.25명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즉, 2018년 조사 결과는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0명과 1명을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반면 2명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평균 이상자녀수도 감소한 수준이다.

기혼 여성의 거주지별 이상자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1~2명의 자녀를 응답한 비율이, 그리고 농촌에서는 3~4명 이상의 자녀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이상자녀수는 농촌 2.25명, 중소도시 2.15명, 대도시 2.13명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저연령층일수록 이상자녀수를 2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이상자녀수를 3~4명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이상자녀수는 최근 코호트인 저연령층일수록 적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20대의 이상자녀수는 평균 2.03명, 30대의 이상자녀수는 2.10명, 40대의 이상자녀수는 2.21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별 이상자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고학력층일수록 이상자녀수를 1명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저학력층일수록 이상자녀수를 3명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이상자녀수는 고졸(2.19명), 중졸 이하(2.17명), 대학원졸(2.16명), 대졸(2.13명) 순으로 많았다.

〈표 5-4〉 기혼 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전체(2015)	0.2	7.0	65.9	19.9	5.7	1.3	100.0	(11,009)	2.25
전체(2018)	0.4	9.9	63.6	17.0	4.1	5.0	100.0	(11,207)	2.16
거주지($\chi^2=65.8^{***}$)									
대도시	0.4	10.5	62.9	16.5	3.6	6.1	100.0	(4,802)	2.13
중소도시	0.4	10.2	65.1	16.2	4.2	3.9	100.0	(4,802)	2.15
농촌	0.4	7.4	61.1	21.0	5.3	4.8	100.0	(1,602)	2.25
연령($\chi^2=158.7^{***}$)									
25세 미만	-	15.5	65.8	9.0	-	9.7	100.0	(81)	1.93
25~29세	0.1	11.0	68.5	12.8	1.7	6.0	100.0	(490)	2.05
30~34세	0.3	10.7	68.9	13.4	1.6	5.2	100.0	(1,541)	2.06
35~39세	0.4	10.7	64.1	17.0	2.6	5.2	100.0	(2,643)	2.12
40~44세	0.3	9.2	64.6	16.4	4.9	4.5	100.0	(2,861)	2.18
45~49세	0.5	9.3	59.4	19.8	6.0	4.9	100.0	(3,592)	2.23
교육수준($\chi^2=42.3^{***}$)									
중졸 이하	1.0	9.8	58.6	20.7	3.3	6.7	100.0	(230)	2.17
고졸	0.5	9.8	61.2	18.2	5.1	5.1	100.0	(3,960)	2.19
대졸	0.3	10.1	65.2	16.2	3.5	4.8	100.0	(6,485)	2.13
대학원졸	0.7	9.1	64.0	16.4	4.4	5.3	100.0	(533)	2.16
혼인상태($\chi^2=35.2^{***}$)									
유배우	0.4	9.8	63.8	17.1	4.2	4.8	100.0	(10,630)	2.16
사별	-	7.0	62.3	22.8	2.2	5.7	100.0	(111)	2.23
이혼·별거·미혼모	0.6	12.9	58.7	14.7	3.4	9.7	100.0	(466)	2.08
취업 여부($\chi^2=8.9$)									
취업	0.3	9.7	63.3	17.1	4.4	5.2	100.0	(6,559)	2.17
비취업	0.5	10.2	63.9	16.9	3.7	4.8	100.0	(4,648)	2.14
가구소득($\chi^2=35.1$)									
60% 미만	0.8	10.4	61.5	17.4	3.0	7.0	100.0	(1,123)	2.13
60~80% 미만	0.4	10.2	64.5	16.7	3.4	4.9	100.0	(1,834)	2.14
80~100% 미만	0.5	9.6	63.9	16.4	4.8	4.9	100.0	(2,073)	2.16
100~120% 미만	0.2	11.2	63.0	17.1	4.1	4.4	100.0	(1,878)	2.15
120~140% 미만	0.4	9.1	63.4	18.3	4.2	4.6	100.0	(1,468)	2.18
140~160% 미만	0.3	8.9	65.0	16.6	4.5	4.7	100.0	(992)	2.17
160% 이상	0.3	9.7	63.6	17.0	4.4	5.0	100.0	(1,836)	2.17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평균은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혼 여성의 혼인상태별 이상자녀수는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1명을, 사별 여성인 경우에는 3명을, 유배우 여성인 경우에는 2명과 4명 이

상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이상자녀수는 사별(2.23명), 유배우(2.16명), 이혼·별거·미혼모(2.08명) 순으로 많았다.

평균 이상자녀수는 기혼 여성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취업 여부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추구해 볼 만한 목표의 실현과 자녀수가 관계가 있는지와 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자녀수에 관해 조사하였다.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적절한 자녀수로 1명을 응답한 비율이 38.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0명(27.7%), 2명(20.1%), 관계없음(11.8%), 3명 이상(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체로 적은 수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1명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2015년 조사 결과에서는 그다음으로 관계없음(21.2%), 0명(20.9%), 2명(20.1%), 3명 이상(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지속적으로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대체로 적은 수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이라는 인생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적절한 자녀수로는 2명(30.0%), 관계없음(24.8%), 3명 이상(11.2%), 무자녀(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문화가 약화됨에 따라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과 자녀수는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조사 결과와 유

사한 측면이 있다. 2015년 조사 결과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적정한 자녀수로 관계없음(35.0%), 2명(28.2%), 1명(21.6%), 3명 이상(8.5%), 무자녀(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녀수로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무자녀(25.1%), 2명(18.6%), 관계없음(14.9%), 3자녀 이상(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2015년 조사 결과 역시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36.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관계없음(22.8%), 무자녀 및 2자녀(19.5%), 3자녀 이상(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0명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7.5%). 그다음으로 1명(35.6%), 2명(13.9%), 관계없음(11.8%), 3명 이상(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경력을 쌓기 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조사 결과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적정 자녀수로 1명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32.8%). 그다음으로 0명(28.4%), 관계없음(24.2%), 2명(13.6%), 3명 이상(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

하기 위해 자녀수는 1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명(33.8%), 관계없음(13.4%), 3명 이상(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응답하였고, 그 결과는 2018년 조사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표 5-5〉 기혼 여성(15~49세)의 인생목표에 따른 적정 자녀수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추구하는 인생 목표		인생목표 추구 시 적정 자녀수						(명)
		0명	1명	2명	3명 이상	관계 없음	계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2015년	20.9	36.1	20.1	1.8	21.2	100.0	(11,008)
	2018년	27.7	38.8	20.1	1.5	11.8	100.0	(11,207)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	2015년	6.6	21.6	28.2	8.5	35.0	100.0	(11,009)
	2018년	10.6	23.3	30.0	11.2	24.8	100.0	(11,207)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2015년	19.5	36.6	19.5	1.6	22.8	100.0	(11,008)
	2018년	25.1	39.4	18.6	2.0	14.9	100.0	(11,207)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	2015년	28.4	32.8	13.6	1.1	24.2	100.0	(11,007)
	2018년	37.5	35.6	13.9	1.1	11.8	100.0	(11,207)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 (2018),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2015)	2015년	-	56.5	26.7	1.8	15.0	100.0	(11,004)
	2018년	2.8	43.2	33.8	6.9	13.4	100.0	(11,20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생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자녀는 대체로 2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기혼 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위한 시간 마련, 소득과 재산의 충분한 마련, 자녀에게 좋은 환경 제공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명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무자녀가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2명의 자녀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많은 비용 부담이 소요되고 있으며,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자녀가치관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에 관한 견해에 대해 본인의 태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거의 대부분인 96.8%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였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0.7%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15년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 10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거주지, 연령,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56.0	41.5	2.3	0.2	100.0	(11,009)
전체(2018)	62.6	34.2	2.9	0.3	100.0	(11,207)
거주지($\chi^2=10.2$)						
대도시	63.8	32.9	3.1	0.3	100.0	(4,802)
중소도시	61.8	34.9	3.0	0.3	100.0	(4,802)
농촌	61.3	36.2	2.2	0.2	100.0	(1,602)

〈표 5-6〉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chi^2=16.6^*$)						
25세 미만	50.0	47.2	2.8	-	100.0	(81)
25~29세	60.8	34.8	3.9	0.4	100.0	(490)
30~34세	63.5	33.4	3.0	0.2	100.0	(1,541)
35~39세	63.0	34.4	2.3	0.3	100.0	(2,643)
40~44세	61.7	34.5	3.5	0.3	100.0	(2,861)
45~49세	63.1	33.8	2.8	0.3	100.0	(3,592)
교육수준($\chi^2=71.7^{***}$)						
중졸 이하	53.4	41.1	4.6	0.9	100.0	(230)
고졸	59.5	36.2	3.8	0.5	100.0	(3,960)
대졸	64.1	33.4	2.4	0.1	100.0	(6,485)
대학원졸	71.2	26.5	2.2	0.1	100.0	(533)
혼인상태						
유배우	63.4	33.5	2.8	0.2	100.0	(10,630)
사별	61.2	36.4	2.4	-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44.1	49.2	5.9	0.8	100.0	(466)
취업 여부($\chi^2=5.2$)						
취업	62.8	33.9	3.1	0.2	100.0	(6,559)
비취업	62.3	34.6	2.7	0.4	100.0	(4,648)
가구소득($\chi^2=78.1^{***}$)						
60% 미만	54.2	40.4	5.0	0.3	100.0	(1,123)
60~80% 미만	59.8	36.1	3.6	0.5	100.0	(1,834)
80~100% 미만	64.6	32.4	2.7	0.3	100.0	(2,073)
100~120% 미만	62.5	34.9	2.4	0.3	100.0	(1,878)
120~140% 미만	65.1	32.5	2.2	0.1	100.0	(1,468)
140~160% 미만	63.9	33.2	2.7	0.1	100.0	(992)
160% 이상	65.5	31.8	2.6	0.1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는 견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기혼 여성(91.5%)이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가치에 대하여 2015년 조사 결과(94.3%)와 비교하면 2.8%포인트 감소하였다.

기혼 여성(15~49세)의 특성과 상관 없이 대체로 해당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만, 기혼 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하에서 해당 견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태도가 다소나마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해당 견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경우(15.3%)가 다른 교육수준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이혼·별거·미혼모, 사별 순으로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특히, 이혼·별거·미혼모의 경우 해당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별로 찬성하지 않음+전혀 찬성하지 않음)는 37.2%로 기혼 여성의 특성에 따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이 비취업인 경우는 취업 중인 기혼 여성과 비교해볼 때 해당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학력인 경우, 무배우인 경우, 취업 중인 경우, 저소득인 경우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는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혼 여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녀가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5-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48.3	46.0	5.2	0.4	100.0	(11,009)
전체(2018)	51.8	39.7	7.7	0.7	100.0	(11,207)
거주지($\chi^2=14.4$)						
대도시	52.7	38.9	7.5	0.9	100.0	(4,802)
중소도시	50.9	40.2	8.3	0.7	100.0	(4,802)
농촌	52.1	40.8	6.8	0.2	100.0	(1,602)

〈표 5-7〉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chi^2=7.8$)						
25세 미만	43.5	46.4	10.1	-	100.0	(81)
25~29세	49.5	40.7	8.6	1.2	100.0	(490)
30~34세	51.6	40.0	7.8	0.6	100.0	(1,541)
35~39세	51.4	40.3	7.6	0.7	100.0	(2,643)
40~44세	52.6	39.1	7.6	0.7	100.0	(2,861)
45~49세	52.1	39.4	7.8	0.7	100.0	(3,592)
교육수준($\chi^2=60.9^{***}$)						
중졸 이하	44.5	40.2	14.7	0.6	100.0	(230)
고졸	49.9	39.7	9.5	0.8	100.0	(3,960)
대졸	52.8	39.9	6.7	0.6	100.0	(6,485)
대학원졸	58.0	37.0	4.6	0.4	100.0	(533)
혼인상태($\chi^2=566.1^{***}$)						
유배우	53.2	39.7	6.5	0.6	100.0	(10,630)
사별	45.6	41.7	12.7	-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21.9	40.9	33.9	3.3	100.0	(466)
취업 여부($\chi^2=14.1^{**}$)						
취업	51.2	39.7	8.5	0.6	100.0	(6,559)
비취업	52.7	39.8	6.7	0.8	100.0	(4,648)
가구소득($\chi^2=199.5^{***}$)						
60% 미만	40.4	41.8	16.3	1.5	100.0	(1,123)
60~80% 미만	49.5	40.9	9.0	0.6	100.0	(1,834)
80~100% 미만	53.9	39.0	6.3	0.8	100.0	(2,073)
100~120% 미만	52.2	39.7	7.4	0.7	100.0	(1,878)
120~140% 미만	53.6	40.0	5.9	0.5	100.0	(1,468)
140~160% 미만	53.8	39.8	5.8	0.6	100.0	(992)
160% 이상	56.1	37.9	5.7	0.3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기혼 여성(15~49세)의 81.7%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 또한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관해 2015년 조사 결과(83.5%)와 비교했을 때 찬성하는 비율은 1.8%포인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8〉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34.9	48.6	14.3	2.2	100.0	(11,008)
전체(2018)	37.5	44.2	16.6	1.7	100.0	(11,207)
거주지($\chi^2=12.2$)						
대도시	36.9	43.6	17.4	2.0	100.0	(4,802)
중소도시	37.9	44.3	16.2	1.5	100.0	(4,802)
농촌	38.1	45.5	15.4	1.1	100.0	(1,602)
연령($\chi^2=14.0$)						
25세 미만	34.9	48.2	15.1	1.8	100.0	(81)
25~29세	41.5	41.6	15.1	1.8	100.0	(490)
30~34세	39.5	41.9	17.1	1.5	100.0	(1,541)
35~39세	36.2	45.0	16.8	2.0	100.0	(2,643)
40~44세	37.9	44.2	16.1	1.8	100.0	(2,861)
45~49세	36.8	44.8	17.0	1.4	100.0	(3,592)
교육수준($\chi^2=8.9$)						
중졸 이하	36.6	45.0	17.6	0.8	100.0	(230)
고졸	37.7	43.2	17.4	1.7	100.0	(3,960)
대졸	37.3	44.9	16.1	1.7	100.0	(6,485)
대학원졸	39.8	41.9	17.3	1.0	100.0	(533)
혼인상태($\chi^2=49.6^{***}$)						
유배우	38.1	44.1	16.2	1.7	100.0	(10,630)
사별	39.8	41.0	18.3	0.9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24.8	46.9	26.1	2.2	100.0	(466)
취업 여부($\chi^2=1.6$)						
취업	37.3	44.5	16.6	1.6	100.0	(6,559)
비취업	37.9	43.7	16.6	1.8	100.0	(4,648)
가구소득($\chi^2=34.6^*$)						
60% 미만	33.3	43.7	20.8	2.3	100.0	(1,123)
60~80% 미만	37.0	43.8	17.6	1.6	100.0	(1,834)
80~100% 미만	38.6	43.9	16.0	1.5	100.0	(2,073)
100~120% 미만	37.0	44.5	16.8	1.7	100.0	(1,878)
120~140% 미만	37.0	46.2	15.1	1.7	100.0	(1,468)
140~160% 미만	38.3	44.6	15.1	2.0	100.0	(992)
160% 이상	40.1	43.0	15.6	1.3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혼 여성의 특성별로도 이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초반인 경우, 저학력인 경우, 저소득인 경우,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본인의 노년기와 관련한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 여성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기혼 여성의 24.8%만이 찬성하였고, 나머지 75.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자녀가 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심화된 수준이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2015년 조사 결과 전체 기혼 여성의 74.4%가 반대(별로 찬성하지 않음+전혀 찬성하지 않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경향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기혼 여성의 모든 특성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로 고소득층일수록 이 견해에 대한 반대(별로 찬성하지 않음+전혀 찬성하지 않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점차 자녀가 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혼 여성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20대의 기혼 여성이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별한 경우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에 관해 혼인상태와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4.0	21.6	55.6	18.8	100.0	(11,007)
전체(2018)	4.7	20.1	55.9	19.3	100.0	(11,207)
거주지($\chi^2=21.5^{**}$)						
대도시	4.5	19.0	56.3	20.3	100.0	(4,802)
중소도시	4.6	20.3	56.3	18.9	100.0	(4,802)
농촌	5.9	22.8	53.8	17.5	100.0	(1,602)
연령($\chi^2=51.3^{**}$)						
25세 미만	8.4	37.1	45.4	9.0	100.0	(81)
25~29세	7.0	24.6	49.7	18.6	100.0	(490)
30~34세	4.2	20.5	57.5	17.8	100.0	(1,541)
35~39세	4.3	18.3	57.0	20.5	100.0	(2,643)
40~44세	4.5	19.2	56.1	20.2	100.0	(2,861)
45~49세	5.0	20.9	55.4	18.6	100.0	(3,592)
교육수준($\chi^2=120.7^{***}$)						
중졸 이하	6.3	32.7	52.1	8.9	100.0	(230)
고졸	5.8	23.5	51.9	18.9	100.0	(3,960)
대졸	4.2	18.1	58.0	19.7	100.0	(6,485)
대학원졸	3.1	13.1	61.6	22.1	100.0	(533)
혼인상태($\chi^2=8.1$)						
유배우	4.7	19.9	56.0	19.4	100.0	(10,630)
사별	7.3	26.7	53.7	12.2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4.1	22.0	54.7	19.3	100.0	(466)

〈표 5-9〉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취업 여부($\chi^2=6.6$)						
취업	4.7	19.4	56.8	19.1	100.0	(6,559)
비취업	4.7	21.1	54.7	19.5	100.0	(4,648)
가구소득($\chi^2=92.3^{***}$)						
60% 미만	6.4	24.0	50.2	19.5	100.0	(1,123)
60~80% 미만	5.3	23.6	54.3	16.8	100.0	(1,834)
80~100% 미만	4.7	22.1	55.2	18.0	100.0	(2,073)
100~120% 미만	5.3	19.4	55.6	19.7	100.0	(1,878)
120~140% 미만	4.2	17.4	59.0	19.4	100.0	(1,468)
140~160% 미만	3.8	16.5	59.8	19.9	100.0	(992)
160% 이상	3.7	16.7	57.6	22.0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기혼 여성의 21.1%만이 찬성하였으며, 대다수인 78.9%는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2015년 조사 결과 기혼 여성의 29.5%만이 찬성하였고, 70.5%는 반대하여 8.4%포인트의 변화를 보였다. 즉, 과거 자녀의 중요한 가치였던 ‘집안의 대를 잇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기혼 여성의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촌과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해당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고학력층일수록 현대적 가치관이 강화된 영향으로 과거 가문계승과 관련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대에서 이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혼 직후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20대의 기혼 여성들의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로 인해 해당 가치를 다소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혼인상태와 취업 여부에 따른 이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5.8	23.7	48.0	22.6	100.0	(11,009)
전체(2018)	4.6	16.5	41.7	37.2	100.0	(11,207)
거주지($\chi^2=58.9^{***}$)						
대도시	4.1	15.5	40.8	39.6	100.0	(4,802)
중소도시	4.5	16.4	42.5	36.7	100.0	(4,802)
농촌	6.9	19.8	42.0	31.3	100.0	(1,602)
연령($\chi^2=48.9^{***}$)						
25세 미만	7.9	25.7	32.9	33.5	100.0	(81)
25~29세	6.9	22.6	39.1	31.5	100.0	(490)
30~34세	5.3	16.5	42.7	35.6	100.0	(1,541)
35~39세	4.3	14.7	42.3	38.7	100.0	(2,643)
40~44세	4.2	15.7	40.9	39.3	100.0	(2,861)
45~49세	4.6	17.4	42.0	36.0	100.0	(3,592)
교육수준($\chi^2=122.9^{***}$)						
중졸 이하	10.9	28.3	43.1	17.7	100.0	(230)
고졸	5.9	18.5	41.1	34.6	100.0	(3,960)
대졸	3.7	15.1	42.1	39.1	100.0	(6,485)
대학원졸	3.9	13.5	40.7	41.9	100.0	(533)
혼인상태($\chi^2=11.5$)						
유배우	4.6	16.6	41.7	37.0	100.0	(10,630)
사별	6.9	21.4	36.3	35.4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4.0	12.6	42.1	41.4	100.0	(466)
취업 여부($\chi^2=7.6$)						
취업	4.6	15.8	42.5	37.1	100.0	(6,559)
비취업	4.7	17.5	40.5	37.3	100.0	(4,648)

〈표 5-10〉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가구소득($\chi^2=50.4^{***}$)						
60% 미만	6.7	18.3	38.0	37.1	100.0	(1,123)
60~80% 미만	5.2	17.9	43.5	33.5	100.0	(1,834)
80~100% 미만	4.6	16.8	42.8	35.7	100.0	(2,073)
100~120% 미만	4.8	16.4	41.1	37.7	100.0	(1,878)
120~140% 미만	4.2	16.2	42.0	37.6	100.0	(1,468)
140~160% 미만	3.7	15.8	39.5	41.0	100.0	(992)
160% 이상	3.7	14.3	42.5	39.6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종합적으로 다양한 자녀 가치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자녀 가치와 관련된 견해에 대한 응답을 ‘전적으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인식 점수 2.5점을 기준으로 하여 2.5점을 넘는 경우는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2.5점 미만인 경우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태도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우세하고(3.2~3.6점/4점),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하게(1.9~2.1점/4점)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각 부분의 견해에 대한 평균 점수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는 찬성하는 경향(3.5점)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는 반대하는 경향(2.1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기혼 여성은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적인 규모

보다는 자녀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녀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5-11〉 자녀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점)

견해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평균점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2015	56.0	41.5	2.3	0.2	100.0(11,009)	3.5
	2018	62.6	34.2	2.9	0.3	100.0(11,207)	3.6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	2015	48.3	46.0	5.2	0.4	100.0(11,009)	3.4
	2018	51.8	39.7	7.7	0.7	100.0(11,207)	3.4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015	34.9	48.6	14.3	2.2	100.0(11,008)	3.2
	2018	37.5	44.2	16.6	1.7	100.0(11,207)	3.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5	4.0	21.6	55.6	18.8	100.0(11,007)	2.1
	2018	4.7	20.1	55.9	19.3	100.0(11,207)	2.1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2015	5.8	23.7	48.0	22.6	100.0(11,009)	2.1
	2018	4.6	16.5	41.7	37.2	100.0(11,207)	1.9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찬성하지 않음' 1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 2점, '대체로 찬성' 3점, '전적으로 찬성' 4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임신

1. 임신 횟수와 임신 결과

가. 임신 횟수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는 2회가 41.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회(21.3%)와 1회(21.3%), 4회(8.0%), 0회(4.8%), 5회 이상(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조사 결과인 2회(41.2%), 3회(21.8%), 1회(18.8%), 4회(9.9%), 0회(4.4%), 5회 이상

(3.9%)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균 임신 횟수는 2.2회로 2015년 조사 결과(2.3회)와 비교하면 0.1회 감소한 수준이다.

기혼 여성의 연령별로 평균 임신 횟수를 보면, 저연령층인 경우 평균 임신 횟수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이 거의 완결된 45~49세 기혼 여성의 평균 임신 횟수는 2.5회로 나타났다.

〈표 5-12〉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

(단위: %, 명, 회)									
구 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명)	평균
전체(2015)	4.4	18.8	41.2	21.8	9.9	3.9	100.0	(11,009)	2.3
전체(2018)	4.8	21.3	41.2	21.3	8.0	3.5	100.0	(11,207)	2.2
연령($\chi^2=1275.9^{***}$)									
25세 미만	14.5	58.4	21.6	5.5	-	-	100.0	(81)	1.2
25~29세	15.1	46.6	28.0	8.4	1.6	0.3	100.0	(490)	1.4
30~34세	9.8	37.4	36.1	12.9	2.8	1.0	100.0	(1,541)	1.7
35~39세	4.7	23.3	43.6	20.3	5.8	2.4	100.0	(2,643)	2.0
40~44세	3.1	16.0	44.5	22.9	9.3	4.1	100.0	(2,861)	2.3
45~49세	2.4	12.7	41.3	26.4	11.9	5.3	100.0	(3,592)	2.5
출생아수($\chi^2=16837.7^{***}$)									
0명	69.6	24.3	4.6	1.4	0.2	-	100.0	(771)	0.4
1명	-	70.8	21.4	5.7	1.8	0.3	100.0	(2,963)	1.4
2명	-	1.6	65.0	23.7	7.4	2.2	100.0	(5,969)	2.4
3명 이상	-	0.1	4.5	52.5	26.6	16.4	100.0	(1,505)	3.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생아수별 임신 횟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임신횟수도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임신 경험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출산한 경험이 없는(출생아수가 0명) 기혼 여성 중 임신한 경험이 없는(임신 횟수가 0회) 기혼 여성은 전체의 69.6%이며, 출산한 경험이 없는(출생아수가 0명) 기혼 여성의 30.4%는 임신을 하였으나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한 경험이 1회(출생아수가 1명)인 기혼 여성 중 임신 경험이 1회(임신 횟수가 1회)인 기혼 여성은 70.8%이며, 출산한 경험이 1회(출생아수가 1명)인 기혼 여성의 29.2%는 임신 횟수가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출산한 경험이 2회(출생아수가 2명)인 기혼 여성 중 임신 횟수가 2회 이하인 비율은 66.6%로 나타났다. 참고로 출생아수가 2명이면서 임신 횟수가 1회인 경우는 쌍생아 출생을 의미한다.

나. 임신 방법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순위에 따른 임신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임신 횟수 중 난임 시술에 의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임신 순위에 따른 난임 시술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임신의 2.2%, 두 번째 임신의 1.4%, 세 번째 임신의 1.1%, 네 번째 임신의 1.3%, 다섯 번째 임신의 0.8%가 난임 시술에 의한 출산으로 나타났다. 살펴보면, 초기 임신일수록 난임 시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여섯 번째 임신과 일곱 번째 임신의 경우는 난임 시술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는 난임 시술의 성공 가능성, 난임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임신 순위가 초기일 경우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임신 횟수가 일정 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시술 경험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난임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하여 시술을 했기 때문에 난임 시술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3〉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순위별 임신 방법

(단위: %, 명)

구 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2015 자연 임신	98.5	99.2	99.4	99.6	100.0	100.0	100.0
2015 난임 시술	1.5	0.8	0.6	0.4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22)	(8,455)	(3,925)	(1,520)	(428)	(102)	(30)
2018 자연 임신	97.8	98.6	98.9	98.7	99.2	98.8	97.0
2018 난임 시술	2.2	1.4	1.1	1.3	0.8	1.2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71)	(8,289)	(7,537)	(1,284)	(387)	(90)	(3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종결 형태를 살펴보면, 총 임신 횟수는 평균 2.2회로 이 중 정상출생 1.7회, 자연유산 0.3회, 인공임신중절 0.2회 등으로, 부정적인 임신 결과는 총 0.5회로 현 임신을 제외하면 전체 중 14.3%로 나타났다. 임신 경험 기혼 여성의 연령별로 임신유지율(현재 임신을 제외한 총 임신횟수 중 긍정적 임신 결과의 횟수의 비율을 의미함)은 고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의 기혼 여성인 경우 자연유산 경험이 많거나 자녀를 계획한 대로 모두 출산한 후에 발생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유지율은 저학력층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학력의 기혼 여성인 경우 임신 계획 및 피임 실천의 미흡 등의 가능성이 있고, 고연령층 비중이 높아 고연령층 기혼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초혼 연령별 평균 임신유지율은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혼 연령이 낮

을수록 임신유지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의 미흡과 피임 실천의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기혼 여성의 경우 임신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생식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연유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평균 임신유지율을 살펴보면, 비취업인 기혼 여성에 비해 취업 중인 기혼 여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한 기혼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있어서의 어려움,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인 임신 결과를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수준별 평균 임신유지율은 대체로 84~86% 수준이나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60% 미만)에서 83.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4〉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결과

(단위: 회, %, 명)

구 분	출생 횟수	부정적 임신 결과 평균 횟수				현 임신	총임신 횟수 (평균)	평균 임신 유지율	(명)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 유산	인공 임신 중절				
전체(평균)	1.72	0.00	0.00	0.27	0.16	0.03	2.18	85.7	(11,207)
거주지									
대도시	1.64	0.00	0.00	0.27	0.14	0.03	2.08	85.6	(4,802)
중소도시	1.76	0.00	0.00	0.26	0.17	0.03	2.21	85.9	(4,802)
농촌	1.89	0.00	0.00	0.28	0.18	0.03	2.37	85.3	(1,602)
연령									
25세 미만	0.92	-	-	0.05	0.07	0.14	1.18	93.7	(81)
25~29세	1.09	-	-	0.11	0.04	0.12	1.36	91.2	(490)
30~34세	1.34	0.00	-	0.18	0.05	0.08	1.65	90.1	(1,541)
35~39세	1.70	0.00	0.00	0.25	0.08	0.03	2.07	88.4	(2,643)
40~44세	1.85	0.00	0.00	0.31	0.16	0.00	2.33	84.9	(2,861)
45~49세	1.91	0.00	0.00	0.31	0.27	0.00	2.50	82.0	(3,59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9	0.01	0.01	0.36	0.39	0.01	2.67	78.2	(230)
고졸	1.87	0.00	0.00	0.28	0.24	0.02	2.41	83.4	(3,960)
대졸	1.65	0.00	0.00	0.26	0.11	0.03	2.05	87.2	(6,485)
대학원졸업	1.55	0.00	-	0.26	0.07	0.04	1.93	87.6	(533)

〈표 5-14〉 계속

구 분	출생 횟수	부정적 임신 결과 평균 횟수				현 임신	총임신 횟수 (평균)	평균 임신 유지율	(명)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 유산	인공 임신 중절				
초혼 연령									
24세 이하	2.03	0.00	-	0.29	0.28	0.01	2.62	83.6	(3,265)
25~29세	1.75	0.00	0.00	0.26	0.13	0.03	2.17	87.0	(5,434)
30~34세	1.36	0.00	0.00	0.23	0.07	0.04	1.70	87.3	(2,036)
35세 이상	0.87	0.00	-	0.31	0.05	0.06	1.31	77.0	(455)
취업 여부									
취업	1.73	0.00	0.00	0.27	0.17	0.02	2.19	85.1	(6,559)
비취업	1.72	0.00	0.00	0.26	0.14	0.04	2.17	86.5	(4,648)
출생아수									
0명	-	-	-	0.17	0.04	0.17	0.38	-	(771)
1명	1.00	0.00	0.00	0.25	0.10	0.04	1.40	85.7	(2,963)
2명	1.98	0.00	0.00	0.27	0.19	0.01	2.44	86.8	(5,969)
3명 이상	3.04	0.00	0.00	0.33	0.23	0.00	3.61	87.9	(1,505)
가구소득									
60% 미만	1.62	-	0.00	0.27	0.20	0.04	2.12	83.9	(1,123)
60~80% 미만	1.67	0.00	0.00	0.26	0.13	0.04	2.11	86.1	(1,834)
80~100% 미만	1.71	0.00	0.00	0.28	0.14	0.02	2.16	85.7	(2,073)
100~120% 미만	1.75	0.00	-	0.25	0.17	0.03	2.21	85.7	(1,878)
120~140% 미만	1.74	0.00	0.00	0.27	0.15	0.02	2.19	85.8	(1,468)
140~160% 미만	1.76	0.00	-	0.27	0.16	0.02	2.23	85.6	(992)
160% 이상	1.81	0.00	0.00	0.27	0.17	0.02	2.26	86.3	(1,836)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피임

가. 피임실천율

전체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실천율은 82.3%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79.6%)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45~49세를 제외하고 고연령층일수록, 취업 중인 경우, 출생아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는 향후 출산 계획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경우일 것이

다. 저연령층 기혼 여성인 경우와 출산 경험이 없거나 출생아수가 1명인 기혼 여성인 경우 피임실천은 주로 일시적으로 출산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피임실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달리, 고연령층 기혼 여성이거나 출생아수가 많은 기혼 여성은 향후 출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의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 기혼 여성의 높은 피임실천율은 소득 자체보다는 연령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업 중인 기혼 여성의 경우는 비취업 기혼 여성과 비교하여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직장 생활에 따르는 기회비용 등으로 출산율 자체가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자녀수를 조절하기 위해 피임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의 차이는 중졸 이하의 피임실천율이 고졸 이상보다 낮게 나타난 점을 제외하고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

〈표 5-15〉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

(단위: %, 명)

구 분	현재 피임 중	현재 피임하지 않음		계	(명)
		과거 경험 있음	과거 전혀 경험 없음		
전체(2015)	79.6	11.1	9.3	100.0	(10,324)
전체(2018)	82.3	9.0	8.7	100.0	(10,630)
거주지($\chi^2=13.2'$)					
대도시	81.1	9.1	9.8	100.0	(4,565)
중소도시	83.2	8.9	7.9	100.0	(4,535)
농촌	83.1	9.2	7.7	100.0	(1,529)
연령($\chi^2=476.8'''$)					
25세 미만	59.2	18.8	22.0	100.0	(77)
25~29세	61.9	19.4	18.7	100.0	(483)
30~34세	69.6	16.4	14.0	100.0	(1,515)
35~39세	82.2	8.0	9.8	100.0	(2,573)
40~44세	89.3	4.8	5.9	100.0	(2,714)
45~49세	85.9	8.2	5.9	100.0	(3,268)

〈표 5-15〉 계속

구 분	현재 피임 중	현재 피임하지 않음		계	(명)
		과거 경험 있음	과거 전혀 경험 없음		
교육수준($\chi^2=36.0^{***}$)					
중졸 이하	73.6	16.6	9.8	100.0	(181)
고졸	84.6	8.3	7.1	100.0	(3,615)
대졸	81.4	9.2	9.4	100.0	(6,312)
대학원졸	80.0	9.2	10.8	100.0	(522)
취업 여부($\chi^2=21.2^{***}$)					
취업	83.7	8.2	8.0	100.0	(6,095)
비취업	80.3	10.1	9.6	100.0	(4,535)
출생아수($\chi^2=2050.3^{***}$)					
0명	35.7	22.5	41.8	100.0	(752)
1명	70.2	14.9	14.9	100.0	(2,760)
2명	91.6	5.5	2.9	100.0	(5,694)
3명 이상	93.2	4.5	2.3	100.0	(1,423)
가구소득($\chi^2=87.5^{***}$)					
60% 미만	73.6	13.5	12.9	100.0	(770)
60~80% 미만	78.0	11.4	10.6	100.0	(1,720)
80~100% 미만	82.5	8.5	9.0	100.0	(2,011)
100~120% 미만	83.9	8.1	8.0	100.0	(1,852)
120~140% 미만	84.5	7.2	8.2	100.0	(1,456)
140~160% 미만	84.2	8.3	7.5	100.0	(988)
160% 이상	85.2	8.2	6.6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피임 목적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의 피임 목적은 단산이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7.5%가 출산 연기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출생아수별로 피임의 목적을 살펴보면,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단산의 목적이 많은 반면, 출산 연기의 목적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결혼생활 초기의 피임이 주로 출산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인 데 비해,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계획한 만큼의 자녀 출산이 이루어

저 추가 출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즉 피임이 주로 단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인한다. 특이한 점은 무자녀인 경우에도 피임실천 유배우 여성 중 35.4%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자녀이면서 출산을 연기하기 위하여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5-16〉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목적

(단위: %, 명)

구 분	단산	출산 연기	기타	계	(명)
전체(2015)	92.9	7.0	0.1	100.0	(8,219)
전체(2018)	92.4	7.5	0.1	100.0	(8,746)
출생아수					
0명	35.4	64.2	0.4	100.0	(268)
1명	81.0	18.8	0.2	100.0	(1,937)
2명	97.8	2.1	0.1	100.0	(5,214)
3명 이상	99.2	0.8	-	100.0	(1,327)

주: 1)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 연기를 목적으로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출산 연기의 이유에 관해 질문한 결과, 터울 조절(29.1%), 자녀 양육 비용 부담(15.9%), 부부 중심 생활(12.9%), 소득 부족(12.3%), 사회활동 지장(10.9%),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혼 여성의 거주지별 차이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거주 기혼 여성에 비해 중소도시나 대도시 거주 기혼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 지장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차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취업상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5세 미만의 저연령층 기혼 여성의 출산을 연기하기 위해 피임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터울 조절’,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소득 부족’, ‘부부 중

심 생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적 연령이 낮은 기혼 여성이 출산 계획 시기에 여유가 있고, 가구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으며, 부부 중심의 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출산 연기의 목적으로 피임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태울 조절'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5~49세 연령층의 경우 비록 극소수이지만, 다른 연령 집단과 다르게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와 '부부 중심 생활을 위해서'가 33.7%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비록 사례 수는 매우 적으나 소득 부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0.1%). 따라서 대졸 이상 학력의 기혼 여성은 '태울 조절', '사회활동 지장', '부부 중심 생활' 등을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 학력의 기혼 여성은 '소득 부족', '태울 조절',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교육수준이 소득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적 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취업한 기혼 여성에게서 '사회활동 지장',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등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취업하지 않은 기혼 여성에게서는 '태울 조절', '소득 부족', '양육 비용 부담'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부족'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 100% 미만 가구의 경우 '소득 부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7〉 출산 연기를 목적으로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의 출산 연기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명)
전체	29.1	12.3	1.7	15.9	10.5	1.4	10.9	12.9	1.2	0.3	3.8	100.0	(658)
거주지													
대도시	28.4	8.4	1.9	19.3	10.9	0.6	12.3	13.0	0.9	-	4.3	100.0	(306)
중소도시	27.7	15.0	1.9	12.0	11.1	2.3	10.5	14.0	1.6	0.4	3.5	100.0	(264)
농촌	35.9	18.1	0.6	15.9	7.0	1.3	7.0	9.4	0.6	0.7	3.4	100.0	(88)
연령													
25세 미만	34.0	25.1	-	25.6	-	-	-	9.2	-	-	6.1	100.0	(25)
25~29세	31.8	9.7	1.7	13.3	7.1	1.8	8.5	21.6	1.8	-	2.6	100.0	(115)
30~34세	35.1	11.1	1.0	13.3	12.0	1.8	12.1	10.3	0.7	-	2.7	100.0	(304)
35~39세	21.7	13.7	3.4	22.7	12.4	1.0	10.2	8.3	1.6	-	5.0	100.0	(154)
40~44세	8.9	16.8	2.1	14.7	8.2	-	13.2	21.6	2.0	3.3	9.3	100.0	(54)
45~49세	20.2	-	-	-	12.4	-	33.7	33.7	-	-	-	100.0	(7)
교육수준													
중졸 이하	39.8	40.1	-	20.1	-	-	-	-	-	-	-	100.0	(10)
고졸	30.1	22.3	1.0	14.2	5.4	1.7	5.8	12.4	1.4	0.4	5.2	100.0	(147)
대졸	28.6	8.6	2.1	17.2	11.7	1.4	12.2	13.1	1.2	0.2	3.6	100.0	(463)
대학원졸	28.5	11.6	-	6.4	17.6	-	17.4	15.9	-	-	2.6	100.0	(39)
취업 여부													
취업	23.2	11.2	1.3	14.4	11.9	2.5	15.9	15.2	1.1	0.2	3.2	100.0	(374)
비취업	36.9	13.8	2.2	18.0	8.6	-	4.3	9.9	1.2	0.4	4.7	100.0	(284)
가구소득													
60% 미만	29.0	29.3	4.7	14.9	5.3	-	3.6	8.8	-	-	4.3	100.0	(73)
60~80% 미만	29.2	21.1	3.9	23.4	8.4	-	4.5	6.3	0.9	-	2.4	100.0	(123)
80~100% 미만	33.1	11.8	0.7	16.3	8.5	1.9	10.0	12.3	1.2	-	4.1	100.0	(134)
100~120% 미만	29.2	7.3	-	13.9	13.8	4.3	11.8	12.6	1.8	1.6	3.7	100.0	(108)
120~140% 미만	19.8	9.5	1.1	17.0	9.8	1.2	15.6	18.8	1.2	-	6.0	100.0	(86)
140~160% 미만	31.5	2.1	-	11.1	4.0	-	17.1	32.0	-	-	2.1	100.0	(49)
160% 이상	30.4	1.1	1.3	9.9	21.2	1.1	18.1	10.3	2.3	-	4.2	100.0	(85)

주: 1) ① 터울 조절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④ 자녀 양육 비용 부담 때문에 ⑤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⑥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⑦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⑧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⑨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⑩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수발 때문에 ⑪ 기타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피임 방법

피임 방법은 피임 실천자의 성별과 피임 목적 및 피임 효과의 지속성 등에 따라 다양하다. 피임 방법은 피임을 실천하는 당사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의 피임 방법(정관수술, 콘돔, 질외사정법 등)과 여성의 피임 방법(난관수술, 사전 혹은 사후 경구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피임효과의 지속성에 따라 일시적 피임 방법(콘돔, 경구 피임약 등), 일정 기간 유지되지만 비영구적인 피임 방법(자궁 내 장치와 같은), 영구적인 피임 방법(정관수술, 난관수술)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피임 실천자의 피임 방법 선택은 본인의 성별뿐만 아니라 피임의 목적과 선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여성과 남편이 사용 중인 피임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정관수술 등의 방법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유배우 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특히, 40대 이상의 기혼 여성인 경우) 지속성이 있는 반영구적 피임 방법(자궁내 장치)과 영구적 피임 방법(난관수술, 정관수술)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40세 이상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연령층일수록 일시적 피임 방법인 콘돔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구적 피임 방법인 불임수술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인 경우 추가적인 자녀 출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연령층인 경우는 터울 조절을 목적으로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일한 이유로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영구적인

피임 방법(정관수술) 및 반영구적 피임 방법(자궁 내 장치)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출생아수가 적을수록 출산 연기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 피임 방법(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경구피임약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출생아수가 0명이나 1명인 경우는 일시적 피임 방법 중에서도 월경주기법이나 질외사정법과 같은 효과가 적은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피임을 실천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는 임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시적 피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 자궁 내 장치, 사전경구피임약 등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비교적 효과적인 피임 방법, 여성의 피임 방법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기혼 여성의 취업에 따른 피임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 중인 경우는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피임 방법인 정관수술과 자궁 내 장치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취업인 경우는 일시적인 피임 방법인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취업여성의 경우는 피임의 목적이 단산인 경우가 많고 여성이 주도해 피임을 실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8〉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중복 응답)

(단위: %, 명)

구 분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 내 장치	사전경구 피임약	사후경구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질외 사정법	기타	(대상자수)
전체(2015)	7.6	23.0	12.4	2.9	0.5	30.2	0.4	31.5	24.8	0.2	(8,219)
전체(2018)	4.5	14.7	6.6	1.9	0.5	25.1	0.3	23.9	22.3	0.3	(8,746)
거주지											
대도시	4.8	21.4	8.4	2.6	0.7	38.7	0.4	36.8	35.0	0.4	(3,702)
중소도시	7.3	21.9	9.7	2.8	0.9	37.6	0.4	34.2	32.6	0.4	(3,774)
농촌	9.7	21.5	13.7	3.3	0.6	29.2	0.2	33.6	27.2	0.4	(1,270)
연령											
25세 미만	3.0	3.2	5.5	11.2	-	58.8	-	42.7	37.4	-	(45)
25~29세	0.7	6.7	6.5	6.2	1.4	57.7	0.3	41.6	38.4	0.3	(299)
30~34세	2.3	10.9	5.2	4.8	1.1	52.4	0.4	41.5	40.5	0.9	(1,054)
35~39세	3.7	17.9	6.8	3.1	0.9	43.9	0.2	41.6	36.6	0.3	(2,116)
40~44세	6.9	24.1	11.1	2.6	0.6	33.3	0.2	33.0	32.4	0.2	(2,423)
45~49세	10.8	28.1	12.8	1.4	0.7	26.3	0.7	29.2	26.7	0.4	(2,80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7	11.4	21.4	6.4	0.8	28.9	2.0	21.5	22.1	2.3	(133)
고졸	9.4	23.5	13.5	3.6	1.0	28.6	0.4	29.8	29.6	0.6	(3,058)
대졸	5.0	20.9	7.5	2.3	0.7	41.2	0.4	38.0	34.8	0.2	(5,138)
대학원졸	3.1	19.7	4.9	1.0	0.1	46.4	0.3	45.6	34.9	0.2	(417)
취업 여부											
취업	6.9	22.0	11.4	2.7	0.7	34.5	0.3	34.6	31.6	0.5	(5,104)
비취업	6.1	21.0	7.3	2.9	0.9	40.1	0.4	36.1	34.4	0.2	(3,642)
가구소득											
60% 미만	6.3	13.1	7.7	5.5	1.6	41.4	0.5	40.0	35.5	0.5	(566)
60~80% 미만	5.0	17.4	9.9	4.3	1.0	40.7	0.4	37.4	33.8	0.4	(1,342)
80~100% 미만	8.3	21.0	9.6	2.6	0.8	36.1	0.5	34.4	32.0	0.4	(1,659)
100~120% 미만	7.4	22.5	9.9	2.5	0.9	35.7	0.1	32.5	33.2	0.5	(1,554)
120~140% 미만	5.5	24.3	9.8	2.5	0.7	35.2	0.2	34.7	33.2	0.3	(1,231)
140~160% 미만	7.1	22.9	10.6	1.9	0.8	36.5	0.7	32.3	32.7	0.3	(831)
160% 이상	6.1	25.2	9.6	1.6	0.2	35.3	0.3	37.1	31.3	0.4	(1,562)
출생아수											
0명	-	3.7	6.2	8.2	1.2	63.9	0.5	45.4	39.7	-	(268)
1명	1.7	8.1	8.3	4.7	1.3	48.4	0.4	45.7	40.5	0.5	(1,937)
2명	6.7	25.3	10.0	2.0	0.6	34.2	0.4	33.7	31.5	0.4	(5,214)
3명 이상	14.7	30.5	11.4	2.1	0.6	25.1	0.4	23.8	25.3	0.3	(1,327)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난임

가. 난임 경험 및 진단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난임(불임)이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WHO 홈페이지, 2018). 조사 결과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이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13.2%)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표 5-19〉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2015)	13.2	86.8	100.0	(10,324)
전체(2018)	12.1	87.9	100.0	(10,625)
초혼 연령($\chi^2=135.8^{***}$)				
24세 이하	9.0	91.0	100.0	(2,934)
25~29세	11.2	88.8	100.0	(5,266)
30~34세	16.3	83.7	100.0	(1,981)
35세 이상	25.3	74.7	100.0	(444)
출생아수($\chi^2=609.6^{***}$)				
0명	36.8	63.2	100.0	(752)
1명	16.6	83.4	100.0	(2,760)
2명	8.1	91.9	100.0	(5,694)
3명 이상	6.3	93.7	100.0	(1,42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혼 연령과 유배우 여성의 난임경험률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결혼을 늦게 할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

향을 보여 준다. 또한 조사 당시 출생아수에 따른 유배우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출산의 경험이 없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난임경험률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 16.6%, 출생아수가 2명인 경우 8.1%, 3명 이상인 경우 6.3% 등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 여성의 출생아수에 따라 난임경험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임을 경험한 유배우 여성(15~49세)의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의 난임 진단 경험률은 52.1%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37.1%)와 비교했을 때 15.0%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초혼 연령이 늦은 경우 난임 진단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혼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의 난임 진단 경험률은 42.4%로 가장 낮고, 초혼 연령이 30~34세인 경우의 난임 진단 경험률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산의 경험이 없는 난임 경험 유배우 기혼 여성의 난임 진단 경험률은 52.1%로 나타났다. 즉, 난임을 경험한 유배우 기혼 여성의 과반수가 실제로 난임으로 진단을 받아 아직까지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조사 당시 출산 경험이 있는 난임 경험 유배우 기혼 여성의 경우,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의 난임 진단 경험률은 53.8%, 출생아수가 2명인 경우의 난임 진단 경험률은 48.9%, 출생아수가 3명 이상인 경우의 난임 진단 경험률은 47.9%로 출생아수가 증가할수록 난임 진단 경험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을 원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0〉 난임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난임 진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2015)	37.1	62.9	100.0	(1,364)
전체(2018)	52.1	47.9	100.0	(1,289)
초혼 연령($\chi^2=13.4^*$)				
24세 이하	42.4	57.6	100.0	(264)
25~29세	53.7	46.3	100.0	(589)
30~34세	56.8	43.2	100.0	(324)
35세 이상	52.8	47.2	100.0	(112)
출생아수($\chi^2=4.9$)				
0명	56.1	43.9	100.0	(276)
1명	53.8	46.2	100.0	(459)
2명	48.9	51.1	100.0	(464)
3명 이상	47.9	52.1	100.0	(9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난임 원인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난임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이 원인인 경우가 45.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불명이 39.7%, 남편이 원인인 경우 9.1%, 여성과 남성 모두가 원인인 경우 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1〉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원인

(단위: %, 명)

구 분	비율
여성 원인	45.1
남성 원인	9.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	6.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 불명	39.7
계(명)	100.0(67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원인을 질문한 결과, 배란 장애(33.6%), 나팔관 장애(30.5%), 자궁내막 장애(17.5%)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자무력증(44.3%), 희소정자증(35.6%), 무정자증(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2〉 난임의 구체적 원인(중복 응답)

		(단위: %, 명)	
난임의 원인 (여성)	비율	난임의 원인 (남성)	비율
나팔관 장애	30.5	무정자증	10.3
배란 장애	33.6	희소정자증	35.6
염색체 이상	0.9	정자무력증	44.3
자궁경관 장애	1.8	염색체이상	3.7
자궁내막 장애	17.5	기타	2.9
조기 폐경	0.6	모름	3.2
습관성 유산	4.2		
기타	7.3		
잘 모름	3.6		
(대상자수)	(380)	(대상자수)	(10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다. 난임 치료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의 치료 여부를 질문한 결과, 70.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진단과 달리 난임 치료는 실제 성공(임신과 출산 가능)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당시 난임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출생아수는 과거에 난임 치료를 성공한 결과로도 간주할 수 있겠다. 난임 치료 시기와 출산 시기 간의 전후 관계가 혼재되어 있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조사 당시 출생아가 없는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 중 60.5%가 난임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실제 난임 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유자녀 유배우 여성들의 난임 치료 경험률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표 5-23〉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의 치료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70.9	29.1	100.0	(671)
출생아수($\chi^2=18.4^{***}$)				
0명	60.5	39.5	100.0	(155)
1명	69.6	30.4	100.0	(247)
2명	75.4	24.6	100.0	(227)
3명 이상	91.5	8.5	100.0	(4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의 배우자의 치료 여부를 질문한 결과, 26.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일수도 있으나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남성에게만 있는 경우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도 15.1%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난임 원인에 대해 적은 수의 남성이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4〉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의 배우자 치료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26.7	73.3	100.0	(671)
출생아수($\chi^2=6.6$)				
0명	25.3	74.7	100.0	(155)
1명	31.0	69.0	100.0	(247)
2명	25.0	75.0	100.0	(227)
3명 이상	15.1	84.9	100.0	(4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 여성(15~49세)이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장소로는 중복 응답 결과 양방병원 96.5%, 한방병원 24.8%로 나타났다.

〈표 5-25〉 난임 치료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치료 장소(중복 응답)

(단위: %, 명)

구 분	양방병원	한방병원	기타	(대상자수)
전체	96.5	24.8	0.4	(47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유배우 여성(15~49세)의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관해 중복 응답한 결과 양방병원 95.1%, 한방병원 19.7%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5-26〉 난임 치료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배우자의 치료 장소(중복 응답)

(단위: %, 명)

구 분	양방병원	한방병원	기타	(대상자수)
전체	95.1	19.7	0.6	(17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경험을 질문한 결과, 63.8%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59.9%)와 비교했을 때 3.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난임 시술 시기와 본 조사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조사 응답 가구의 상대적 소득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 유배우 여성의 가구소득 수준별 난임 시술 경험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즉,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의 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경험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당시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가 0명인 경우 난임 시술

경험률은 55.3%이며, 2명인 경우는 62.6%, 3명 이상인 경우는 63.8%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나,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없는 유배우 여성의 난임 시술 경험률이 55.3%로 출생아가 있는 유배우 여성의 난임 시술 경험률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표 5-27〉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 수정)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2015)	59.9	40.1	100.0	(506)
전체(2018)	63.8	36.2	100.0	(671)
가구소득($\chi^2=6.7$)				
60% 미만	55.7	44.3	100.0	(40)
60~80% 미만	64.9	35.1	100.0	(97)
80~100% 미만	64.0	36.0	100.0	(134)
100~120% 미만	56.4	43.6	100.0	(103)
120~140% 미만	62.7	37.3	100.0	(104)
140~160% 미만	67.9	32.1	100.0	(59)
160% 이상	70.2	29.8	100.0	(134)
출생아수($\chi^2=9.5$)				
0명	55.3	44.7	100.0	(155)
1명	70.4	29.6	100.0	(247)
2명	62.6	37.4	100.0	(227)
3명 이상	63.8	36.2	100.0	(4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 시술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신 후 출산(62.1%)과 현재 임신 중인 경우(1.9%)를 합하면 64.0%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 실패는 27.4%, 임신 후 출산 실패는 6.5% 등으로 나타났다.

〈표 5-28〉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 결과

(단위: %, 명)

구 분	비율
임신 후 출산	62.1
현재 임신 중	1.9
임신 후 출산 실패	6.5
임신 실패	27.4
현재 시술 중	2.2
계(명)	100.0(42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을 살펴보면,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36.1%), 신체적 어려움(25.7%), 경제적 부담(2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9〉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시술 시 힘들었던 점

(단위: %, 명)

구 분	비율
경제적 부담	25.6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36.1
남편의 비협조와 무시	2.2
가족의 편견	0.2
사회적 편견	1.9
신체적 어려움	25.7
시간 부족	2.9
직장 관련	3.8
기타	1.6
계(명)	100.0(42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반 정도(49.9%)는 ‘자연임신을 더 시도’하기 위해 시술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치료에 성공해서(14.8%)’,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8.5%)’,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0〉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시술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	비율
자연임신을 더 시도하려고	49.9
치료에 성공해서	14.8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8.5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6.7
(추가)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5.6
가족의 비협조 때문에	4.1
영구불임 판정을 받아서	3.2
심리적 부담 때문에	2.2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2.1
기타	2.8
계(명)	100.0(24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 시술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시술 중단 경험률은 33.8%로 나타났다. 현 가구소득수준별 시술 중단 경험률은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다소 높다는 특징이 있다. 비록 국가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생아수별로는 무자녀인 경우 난임 시술을 중단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에는 32.5%, 출생아수가 2명인 경우에는 24.2%, 출생아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2% 등으로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중단 경험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다가 다시 시술을 받아 자녀 출산이 가능하게 된 경우, 출산 경험 후 난임을 경험하게 되어 추가 출산을 위해 난임 시술을 시도하다가 중단하는 등 여러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표 5-31〉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시술 중단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33.8	66.2	100.0	(429)
가구소득($\chi^2=14.4^*$)				
60% 미만	62.2	37.8	100.0	(22)
60~80% 미만	26.6	73.4	100.0	(63)
80~100% 미만	26.9	73.1	100.0	(86)
100~120% 미만	39.0	61.0	100.0	(58)
120~140% 미만	29.3	70.7	100.0	(65)
140~160% 미만	41.4	58.6	100.0	(40)
160% 이상	34.6	65.4	100.0	(94)
출생아수($\chi^2=27.4^{***}$)				
0명	56.3	43.7	100.0	(86)
1명	32.5	67.5	100.0	(174)
2명	24.2	75.8	100.0	(142)
3명 이상	20.2	79.8	100.0	(27)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 중 난임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중단한 주된 이유를 질문하였다. 난임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주된 이유로 ‘신체적으로 힘들어서’가 24.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18.3%)’, ‘경제적 부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적 문제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난임부부지원사업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도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중단하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5-32〉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가 시술받다가 중단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시술을 중단한 이유	비율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24.1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18.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4.3
시술에 성공해서	12.0
자연임신이 되어서	10.4
직장 때문에	5.4
가족의 비협조 때문에	2.2
시간이 없어서	1.4
(추가)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0.8
영구불임 판정을 받아서	0.7
기타	10.4
계(명)	100.0(14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을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난임으로 인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8.1%)와 비교했을 때 1.9%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표 5-33〉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난임으로 인한 정서·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진료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계	(명)
2015년	91.9	8.1	100.0	(506)
2018년	93.8	6.2	100.0	(67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절 자녀 출산

1. 결혼 시 출산 계획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수에 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기혼 여성 중 계획자녀수가 2명인 경우는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각해보지 않음 21.3%, 1명인 경우 15.6%, 3명이 10.3%, 4명 이상이 2.8%, 무자녀가 0.5%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62.6%가 결혼 당시 2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계획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69.7%)보다 7.1%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기혼 여성의 평균 계획자녀수는 2.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혼 여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촌보다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무자녀와 1명의 자녀를 계획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일수록 결혼 당시의 계획자녀수가 3~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연령에 따른 계획자녀수를 살펴보면, 계획자녀수로 3~4명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2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고연령층일수록 낮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출산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에 가까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자녀수를 고려하여 응답하는 경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층일수록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가 1명 또는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저학력층일수록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계획자녀수가 2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는 결혼 당시의 취업상태가 아닌 현재의 취업상태여서 분석에 한계가 있으

며 실제로 결혼 당시 계획자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5-34〉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당시 계획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음	계	(명)	평균
전체(2015)	0.6	15.2	57.2	9.6	2.9	14.5	100.0	(10,988)	2.00
전체(2018)	0.5	15.6	49.5	10.3	2.8	21.3	100.0	(11,194)	2.00
거주지($\chi^2=41.4^{***}$)									
대도시	0.6	16.5	49.9	10.0	2.4	20.7	100.0	(4,798)	1.97
중소도시	0.5	15.7	50.0	9.6	3.0	21.3	100.0	(4,796)	1.99
농촌	0.3	12.7	46.9	13.0	3.5	23.6	100.0	(1,600)	2.10
연령($\chi^2=105.8^{***}$)									
25세 미만	-	14.8	41.3	16.4	-	27.5	100.0	(78)	2.02
25~29세	0.2	16.2	47.5	15.5	2.0	18.6	100.0	(490)	2.05
30~34세	0.5	17.3	48.6	13.6	2.6	17.3	100.0	(1,538)	2.01
35~39세	0.6	16.6	46.2	11.4	2.6	22.7	100.0	(2,639)	1.99
40~44세	0.5	15.5	50.1	9.3	3.1	21.5	100.0	(2,860)	2.00
45~49세	0.4	14.1	52.2	8.0	3.0	22.2	100.0	(3,590)	2.00
교육수준($\chi^2=102.4^{***}$)									
중졸 이하	-	11.8	38.3	8.7	5.6	35.5	100.0	(229)	2.15
고졸	0.5	14.4	47.1	10.0	3.4	24.5	100.0	(3,951)	2.03
대졸	0.5	16.4	51.2	10.3	2.4	19.3	100.0	(6,482)	1.98
대학원졸	0.2	16.6	51.2	12.6	2.6	16.8	100.0	(533)	2.01
취업 여부($\chi^2=9.3$)									
취업	0.5	15.3	50.1	9.7	3.1	21.4	100.0	(6,557)	2.01
비취업	0.5	16.1	48.7	11.0	2.5	21.2	100.0	(4,638)	1.99
가구소득($\chi^2=63.5^{***}$)									
60% 미만	0.8	15.2	42.5	10.7	3.1	27.7	100.0	(1,114)	2.02
60~80% 미만	0.5	14.3	48.5	11.2	2.8	22.8	100.0	(1,833)	2.03
80~100% 미만	0.4	15.8	49.4	11.2	2.8	20.3	100.0	(2,072)	2.01
100~120% 미만	0.5	16.3	50.4	9.0	2.6	21.1	100.0	(1,878)	1.97
120~140% 미만	0.3	16.1	51.2	9.6	3.1	19.7	100.0	(1,468)	2.00
140~160% 미만	0.6	15.6	50.6	9.9	2.4	20.8	100.0	(991)	1.97
160% 이상	0.4	15.7	52.0	10.1	2.9	19.0	100.0	(1,836)	2.00

* p<0.05, ** p<0.01, *** p<0.001

주: 1) 평균은 '생각해보지 않았음'에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기혼 여성의 출산 수준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수는 2명(53.3%), 1명(26.4%), 3명(12.1%), 0명(6.9%), 4명 이상(1.3%)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그 결과 평균 출생아수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각 비율은 1명과 2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1.0%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015년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수는 2명(55.9%), 1명(24.4%), 3명(11.6%), 0명(7.1%), 4명 이상(1.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출생아수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거주지별로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0명과 1명의 비율은 대도시로 갈수록 그리고 3명과 4명 이상의 비율은 농촌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평균 출생아수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많았다. 기혼 여성 중 고연령층일수록 2, 3명 및 4명 이상의 비율이 높고, 저연령층일수록 0명과 1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4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상대적으로 많아 1.87명(40~44세), 1.93명(45~49세)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0명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3명과 4명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교육수준과 관련된 기혼 여성의 연령 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연령이 높고 기회비용이 낮을수록 보다 많은 출산을 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층과 비교해서 고소득층의 평균 출생아가 더 많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출생아수의 차이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35〉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전체(2015)	7.1	24.4	55.9	11.6	1.0	100.0	(11,009)	1.75
전체(2018)	6.9	26.4	53.3	12.1	1.3	100.0	(11,207)	1.75
거주지($\chi^2=195.3^{***}$)								
대도시	7.6	29.9	52.2	9.5	0.9	100.0	(4,802)	1.66
중소도시	6.5	24.0	55.6	12.8	1.1	100.0	(4,802)	1.78
농촌	5.7	23.4	49.5	17.9	3.5	100.0	(1,602)	1.91
연령($\chi^2=1200.8^{***}$)								
25세 미만	21.6	63.3	15.1	-	-	100.0	(81)	0.93
25~29세	24.3	44.4	28.1	3.2	-	100.0	(490)	1.10
30~34세	14.2	42.9	36.1	6.3	0.5	100.0	(1,541)	1.36
35~39세	6.4	28.5	51.9	12.0	1.2	100.0	(2,643)	1.73
40~44세	4.4	22.3	57.3	14.3	1.8	100.0	(2,861)	1.87
45~49세	3.4	17.9	62.7	14.3	1.7	100.0	(3,592)	1.93
교육수준($\chi^2=265.5^{***}$)								
중졸 이하	4.2	32.5	38.4	19.2	5.7	100.0	(230)	1.93
고졸	5.5	21.1	55.4	15.9	2.1	100.0	(3,960)	1.88
대졸	7.7	29.0	52.8	9.8	0.8	100.0	(6,485)	1.67
대학원졸	8.7	32.6	50.0	8.0	0.7	100.0	(533)	1.59
취업 여부($\chi^2=20.8^{***}$)								
취업	7.4	25.1	54.3	12.0	1.2	100.0	(6,559)	1.75
비취업	6.2	28.3	51.8	12.1	1.5	100.0	(4,648)	1.75
가구소득($\chi^2=169.6^{***}$)								
60% 미만	10.6	32.7	42.8	11.4	2.4	100.0	(1,123)	1.64
60~80% 미만	7.7	30.3	49.9	10.4	1.8	100.0	(1,834)	1.69
80~100% 미만	6.8	27.9	51.2	12.8	1.2	100.0	(2,073)	1.74
100~120% 미만	6.9	23.8	55.9	12.3	1.0	100.0	(1,878)	1.77
120~140% 미만	7.4	23.2	56.1	12.3	1.0	100.0	(1,468)	1.77
140~160% 미만	6.2	24.2	55.4	13.2	1.0	100.0	(992)	1.79
160% 이상	3.8	23.4	59.3	12.3	1.2	100.0	(1,836)	1.84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즉, 출산이 완결된 기혼 여성(15~49세)의 초혼 연령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역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출생아수

가 적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초혼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의 평균 출생아수는 2.12명이나,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의 평균 출생아수는 1.10명으로 1명의 차이가 있다. 즉, 혼외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초혼 연령이 지연될수록 실질적인 가임기간이 단축되어 출생아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36〉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초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전체($\chi^2=1177.7^{**}$)	2.4	21.3	60.8	14.0	1.5	100.0	(9,010)	1.91
25세 미만	1.3	12.3	61.2	22.0	3.3	100.0	(1,868)	2.12
25~29세								
25세	1.5	13.9	61.7	20.8	2.1	100.0	(766)	2.01
26세	0.7	16.3	66.7	14.5	1.6	100.0	(1,030)	1.98
27세	1.3	16.0	67.1	14.6	1.0	100.0	(1,013)	1.93
28세	1.0	18.2	66.9	12.7	1.1	100.0	(995)	1.87
29세	1.9	22.5	65.4	9.8	0.4	100.0	(761)	1.84
30~34세								
30세	2.4	25.2	60.2	11.0	1.1	100.0	(727)	1.72
31세	1.9	31.1	56.4	10.0	0.6	100.0	(527)	1.65
32세	4.3	35.1	52.6	7.2	0.8	100.0	(403)	1.53
33세	5.3	39.8	50.2	4.3	0.4	100.0	(251)	1.52
34세	5.5	36.8	52.7	5.0	-	100.0	(216)	1.52
35세 이상	14.5	52.2	31.1	2.0	0.2	100.0	(453)	1.1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향후 출산 계획

현재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계획을 질문한 결과, 계획 있음 10.4%, 계획 없음 84.8%, 모르겠음 4.8%로 나타났다. 계획이 있는 경우는 2015년 조사의 계획이 있는 경우(12.0%)와 비교했을 때 1.6%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고연령층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각 유배우 여성 특성의 연령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저학력층, 고소득층, 취업 중인 경우, 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구조가 고령화되어 이미 희망하는 출산 수준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44.2%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40~44세의 경우 3.4%, 45~49세의 경우 0.5%로 나타났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비율은 대도시가 11.6%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9.6%, 농촌은 9.7%로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거주지에 따른 차이보다 거주지별 여성의 연령구조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향후 출산 계획 여부의 경우도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연령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향후 출산 계획 비율은 출생아수가 없는 경우 54.6%, 1명인 경우 20.7%인 것과 대조적으로 2명인 경우 2.0%, 3명 이상인 경우 0.9% 등으로 출생아수에 따라 급격하게 낮아졌다. 한편, 유배우 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 여성의 경우 10.0%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것에 비해 비취업 여성의 경우는 11.0%로 취업 여성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5-37〉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계획

(단위: %, 명)

구 분	향후 출산 계획 있음	향후 출산 계획 없음	생각 중(모름)	계	(명)
전체(2015)	12.0	84.0	4.0	100.0	(10,324)
전체(2018)	10.4	84.8	4.8	100.0	(10,630)
거주지($\chi^2=12.4^*$)					
대도시	11.6	83.5	5.0	100.0	(4,565)
중소도시	9.6	85.7	4.8	100.0	(4,535)
농촌	9.7	86.0	4.3	100.0	(1,529)
연령($\chi^2=2368.2^{***}$)					
25세 미만	44.2	45.8	10.0	100.0	(77)
25~29세	41.8	46.3	11.9	100.0	(483)
30~34세	30.2	55.9	13.9	100.0	(1,515)
35~39세	11.9	82.3	5.9	100.0	(2,573)
40~44세	3.4	94.4	2.2	100.0	(2,714)
45~49세	0.5	98.7	0.7	100.0	(3,268)
교육수준($\chi^2=143.3^{***}$)					
중졸 이하	13.8	83.9	2.3	100.0	(181)
고졸	6.7	90.4	2.9	100.0	(3,615)
대졸	12.2	81.9	6.0	100.0	(6,312)
대학원졸	13.9	81.2	4.9	100.0	(522)
취업 여부($\chi^2=9.9^{**}$)					
취업	10.0	85.7	4.3	100.0	(6,095)
비취업	11.0	83.6	5.4	100.0	(4,535)
가구소득($\chi^2=108.5^{***}$)					
60% 미만	16.0	76.7	7.3	100.0	(770)
60~80% 미만	13.3	80.8	5.9	100.0	(1,720)
80~100% 미만	12.1	83.5	4.4	100.0	(2,011)
100~120% 미만	9.1	85.8	5.1	100.0	(1,852)
120~140% 미만	9.2	86.6	4.1	100.0	(1,456)
140~160% 미만	7.6	88.8	3.6	100.0	(988)
160% 이상	7.4	88.6	4.0	100.0	(1,832)
출생아수($\chi^2=3160.7^{***}$)					
0명	54.6	28.9	16.5	100.0	(752)
1명	20.7	69.7	9.6	100.0	(2,760)
2명	2.0	96.2	1.8	100.0	(5,694)
3명 이상	0.9	98.0	1.0	100.0	(1,42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향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출산 중단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순위와 2순위 간 중단 이유의 패턴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향후 출산 중단의 이유 1순위로는 현재 자녀수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계획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를 포함: 20.1%)와 본인의 고연령(20.1%)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자녀교육비 부담(16.8%), 자녀 양육비 부담(14.2%), 소득·고용불안정(7.9%), 일·가정양립 곤란(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향후 출산을 중단한 이유 2순위로는 자녀 교육비 부담(23.0%)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본인의 고연령(16.8%), 현재 자녀수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계획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를 포함: 15.1%), 일·가정양립 곤란(10.8), 자녀 양육비 부담(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산 중단의 주된 1순위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배우 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 ‘본인 고연령’ 이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저연령층에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과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이 향후 출산 중단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의 경우 저학력일수록 본인의 고연령과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을 향후 출산 중단의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저학력층이 대체로 고연령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배우 여성이 비취업인 경우는 저소득,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취업인 경우에는 일·가정양립 곤란,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 등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유배우 여성의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향후 출산 중단의 이유로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비 및 자녀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자녀수와 관련한 가치관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고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이유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출생아수와 향후 출산 중단 이유의 관계를 보면, 무자녀인 경우 '본인의 고연령(21.8%)'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21.3%)'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무자녀인 경우를 제외하면,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출생아수가 적을수록 일·가정양립 곤란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 한편 거주지에 따른 향후 출산 중단 이유의 차이는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향후 출산 중단 이유의 2순위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연령층일수록 본인의 고연령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 이유가 높은 반면, 저연령층에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과 일·가정양립 곤란이 향후 출산 중단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저학력일수록 본인의 고연령과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이, 비취업인 경우에 저소득,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비 및 자녀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5-38〉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중단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	(명)
전체	7.9	1.3	14.2	16.8	6.9	3.1	20.1	0.8	1.4	4.0	20.1	2.8	0.6	100.0	(9,011)
거주지($\chi^2=20.2$)															
대도시	7.1	1.2	13.5	17.1	7.0	3.3	20.9	0.8	1.7	3.9	20.1	2.7	0.6	100.0	(3,810)
중소도시	8.5	1.2	14.7	16.7	7.1	3.0	19.2	0.8	1.2	4.0	19.9	3.0	0.6	100.0	(3,885)
농촌	8.4	1.5	14.4	16.0	6.3	3.0	20.0	0.9	0.9	4.3	20.9	2.7	0.6	100.0	(1,315)
연령($\chi^2=1666.3^{***}$)															
25세 미만	20.7	-	28.6	13.4	12.9	-	12.1	-	-	-	-	4.1	8.2	100.0	(35)
25~29세	13.8	4.1	26.6	13.0	11.2	5.8	15.8	0.9	-	2.8	-	5.3	0.7	100.0	(224)
30~34세	10.1	3.0	22.8	17.6	14.2	4.5	17.7	1.1	0.5	3.0	0.5	3.7	1.2	100.0	(848)
35~39세	9.4	1.7	20.4	20.9	10.6	3.7	18.7	0.9	0.9	3.8	5.0	3.4	0.7	100.0	(2,117)
40~44세	7.5	1.0	13.7	18.9	6.0	2.9	20.8	1.0	1.3	4.2	19.0	3.1	0.5	100.0	(2,562)
45~49세	6.2	0.6	7.1	12.6	2.9	2.4	21.3	0.6	2.1	4.4	37.6	1.8	0.4	100.0	(3,226)
교육수준($\chi^2=371.9^{***}$)															
중졸 이하	15.6	0.4	17.3	10.4	0.8	2.2	17.4	2.3	0.4	9.8	22.8	0.4	0.4	100.0	(152)
고졸	11.4	1.3	13.4	16.1	2.9	2.3	20.0	0.7	1.4	4.7	23.3	2.0	0.4	100.0	(3,269)
대졸	5.8	1.4	14.8	17.9	9.1	3.4	19.9	0.9	1.4	3.4	18.1	3.4	0.7	100.0	(5,167)
대학원졸	4.2	0.5	10.6	11.7	13.8	6.5	23.1	1.2	1.7	4.2	18.5	3.1	0.8	100.0	(424)
취업 여부($\chi^2=167.6^{***}$)															
취업	7.2	1.3	12.5	16.1	9.3	2.8	20.5	0.8	1.5	3.6	21.4	2.6	0.5	100.0	(5,221)
비취업	8.9	1.3	16.5	17.8	3.6	3.6	19.4	0.9	1.3	4.5	18.3	3.1	0.8	100.0	(3,790)
가구소득($\chi^2=765.3^{***}$)															
60% 미만	22.2	1.5	16.7	13.3	1.6	2.4	12.7	1.3	0.9	7.4	17.3	1.5	1.1	100.0	(590)
60~80% 미만	14.7	1.9	19.6	15.2	4.9	1.8	17.3	0.9	1.2	4.0	15.6	2.3	0.6	100.0	(1,390)
80~100% 미만	10.2	1.9	15.6	18.3	4.7	2.6	18.8	0.9	1.9	3.7	17.5	3.2	0.6	100.0	(1,679)
100~120% 미만	6.5	0.9	15.5	19.0	6.4	2.8	19.8	0.5	1.3	3.3	20.6	2.9	0.5	100.0	(1,588)
120~140% 미만	4.3	1.3	13.7	18.1	8.6	3.9	19.9	1.0	1.1	3.3	21.0	3.3	0.6	100.0	(1,262)
140~160% 미만	3.1	0.7	9.7	16.5	8.3	3.0	24.3	0.8	2.1	4.0	24.7	2.4	0.3	100.0	(877)
160% 이상	1.4	0.7	8.5	14.8	11.3	4.8	24.5	0.8	1.1	4.3	24.0	3.0	0.7	100.0	(1,624)
출생아수($\chi^2=1723.3^{***}$)															
0명	3.9	0.9	4.7	5.1	4.9	13.8	0.4	1.0	21.3	13.5	21.8	7.1	1.5	100.0	(217)
1명	9.1	1.8	12.6	15.9	13.4	4.7	5.3	1.1	3.0	7.3	20.3	4.6	0.8	100.0	(1,923)
2명	7.9	1.1	14.9	17.9	5.8	2.7	21.8	0.9	0.3	2.9	20.7	2.4	0.6	100.0	(5,476)
3명 이상	7.0	1.5	14.6	15.5	2.8	0.8	36.7	0.2	0.2	2.2	17.1	1.2	0.3	100.0	(1,395)

* p<0.05, ** p<0.01, *** p<0.001

주: ①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②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③ 자녀 양육비 부담 ④ 자녀교육비 부담 ⑤ 알·가정양립 곤란 ⑥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⑦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 ⑧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⑨ 불임 ⑩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문제 ⑪ 본인의 고연령 ⑫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 ⑬ 기타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39〉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중단 이유(2순위)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	(명)
전체	5.1	1.1	9.6	23.0	10.8	6.9	15.1	1.5	0.7	3.0	16.8	5.4	0.9	100.0	(8,150)
거주지($\chi^2=29.9$)															
대도시	4.3	1.2	9.3	22.3	11.4	7.5	14.5	1.5	0.7	2.8	17.8	5.9	0.8	100.0	(3,453)
중소도시	5.7	1.1	9.6	23.5	10.9	6.4	15.3	1.5	0.7	3.2	16.0	5.2	0.9	100.0	(3,514)
농촌	5.6	0.8	10.3	23.8	8.8	6.9	16.4	1.5	0.6	3.4	16.4	4.6	1.0	100.0	(1,183)
연령($\chi^2=996.6^{***}$)															
25세 미만	9.2	8.9	21.7	7.0	22.9	13.5	5.3	4.6	-	-	-	2.7	4.3	100.0	(31)
25~29세	7.5	1.0	15.5	24.6	18.0	10.6	10.1	2.6	-	1.5	-	7.5	1.1	100.0	(208)
30~34세	3.9	2.5	13.3	22.0	22.3	9.7	12.1	2.2	0.5	1.6	1.4	6.9	1.6	100.0	(801)
35~39세	5.6	1.2	12.8	23.7	14.9	8.0	12.6	2.1	0.3	2.6	7.8	7.8	0.7	100.0	(1,990)
40~44세	4.7	0.8	9.0	24.3	9.7	7.0	13.9	1.1	1.0	2.6	20.0	4.9	1.1	100.0	(2,347)
45~49세	5.2	0.9	6.0	21.9	4.8	4.9	19.4	1.0	0.8	4.3	26.6	3.6	0.6	100.0	(2,773)
교육수준($\chi^2=344.2^{***}$)															
중졸 이하	15.2	1.8	7.1	22.2	5.1	3.2	12.7	2.8	-	6.0	21.3	0.4	2.1	100.0	(136)
고졸	7.2	1.3	8.8	24.9	6.5	5.0	15.5	1.4	0.7	3.0	20.6	4.1	0.9	100.0	(2,929)
대졸	3.7	1.1	10.3	22.3	12.6	8.0	15.2	1.5	0.7	3.1	14.4	6.3	0.9	100.0	(4,706)
대학원졸	2.6	-	6.7	17.4	23.9	9.4	12.1	0.8	1.3	2.3	16.9	5.9	0.7	100.0	(378)
취업 여부($\chi^2=119.4^{***}$)															
취업	4.5	1.1	8.4	22.3	13.5	7.0	15.1	1.5	0.7	2.8	17.7	4.7	0.7	100.0	(4,704)
비취업	5.9	1.1	11.1	24.1	7.1	6.8	15.1	1.5	0.7	3.3	15.7	6.3	1.1	100.0	(3,446)
가구소득($\chi^2=476.4^{***}$)															
60% 미만	13.2	2.8	11.2	21.4	6.8	4.8	9.9	2.8	0.7	5.4	16.7	3.6	0.7	100.0	(542)
60~80% 미만	9.1	1.6	13.1	26.9	8.0	4.7	12.1	1.2	1.1	2.7	12.3	6.3	0.9	100.0	(1,275)
80~100% 미만	5.6	1.5	11.6	24.5	10.1	5.5	14.1	1.4	0.6	2.8	15.4	5.5	1.4	100.0	(1,543)
100~120% 미만	4.6	1.0	9.4	24.5	9.7	6.8	16.6	1.4	0.4	3.0	16.1	5.9	0.6	100.0	(1,429)
120~140% 미만	2.9	0.8	7.7	23.2	12.5	9.7	16.5	1.0	0.9	3.2	16.8	4.1	0.7	100.0	(1,143)
140~160% 미만	2.5	0.4	8.5	21.1	10.9	7.6	16.0	1.5	0.4	2.5	21.5	6.1	1.0	100.0	(780)
160% 이상	1.6	0.5	5.9	18.1	15.3	8.8	17.9	1.7	0.6	3.0	20.6	5.3	0.8	100.0	(1,436)
출생아수($\chi^2=721.8^{***}$)															
0명	6.3	1.2	6.2	4.6	10.1	25.9	0.6	0.8	5.7	11.1	20.6	5.5	1.6	100.0	(174)
1명	5.8	1.4	9.5	19.4	15.3	9.8	4.6	2.0	1.9	4.4	16.4	8.6	1.1	100.0	(1,717)
2명	4.8	1.0	9.3	24.1	10.7	6.3	17.4	1.4	0.2	2.6	16.1	5.1	1.0	100.0	(4,965)
3명 이상	5.3	1.2	11.0	26.3	5.4	3.0	22.1	1.2	0.2	2.0	19.7	2.4	0.3	100.0	(1,294)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②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져서 ③ 자녀 양육비 부담 ④ 자녀교육비부담 ⑤ 알가정양립곤란 ⑥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⑦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 ⑧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⑨ 불임 ⑩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문제 ⑪ 본인의 고연령 ⑫ 아이가 행복하지 힘든 사회여서 ⑬ 기타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대자녀수

기대자녀수는 실제 출생아수에 향후 출산을 계획한 자녀수를 더한 자녀수로, 특히 유배우 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는 완결출산율(complete fertility rate)의 의미가 있다. 전체 기혼 여성의 기대자녀수는 2명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1명(21.2%), 3명(14.2%), 무자녀(2.1%), 4명 이상(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 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2015년 조사 결과 전체 기혼 여성의 기대자녀수는 2명(63.5%), 1명(19.2%), 3명(14.2%), 무자녀(1.7%), 4명 이상(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혼 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2018년 1.92명으로 2015년 조사 결과(1.94명)와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촌(2.07명), 중소도시(1.94명), 대도시(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고연령층일수록 평균 기대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1.9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기대자녀수는 중졸 이하(2.04명), 고등학교 졸업(2.0명), 대졸(1.88명), 대학원졸업(1.80명) 순으로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는데, 이는 고학력층의 경우 높은 기회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 여성의 가구소득별로는 최고소득층(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160% 이상)인 경우 1.9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소득층(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60% 미만)인 경우가 1.83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고소득층과 비교해서 더 크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40〉 유배우 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전체(2015)	1.7	19.2	63.5	14.2	1.4	100.0	(9,913)	1.94
전체(2018)	2.1	21.2	60.9	14.2	1.6	100.0	(10,121)	1.92
거주지($\chi^2=166.9^{***}$)								
대도시	2.5	24.0	61.0	11.5	1.1	100.0	(4,338)	1.85
중소도시	1.9	19.5	62.8	14.6	1.2	100.0	(4,319)	1.94
농촌	1.9	18.2	55.4	20.6	3.9	100.0	(1,464)	2.07
연령($\chi^2=121.1^{***}$)								
25세 미만	8.1	33.0	52.3	6.6	-	100.0	(69)	1.57
25~29세	2.3	29.4	56.8	10.5	1.0	100.0	(426)	1.79
30~34세	1.5	26.3	59.6	11.9	0.7	100.0	(1,305)	1.84
35~39세	1.5	22.5	59.7	14.6	1.7	100.0	(2,422)	1.93
40~44세	2.2	20.9	59.7	15.3	1.9	100.0	(2,655)	1.94
45~49세	2.7	17.1	64.2	14.4	1.6	100.0	(3,244)	1.95
교육수준($\chi^2=157.2^{***}$)								
중졸 이하	3.6	22.4	46.4	22.7	5.0	100.0	(177)	2.04
고졸	2.7	17.7	59.5	17.7	2.3	100.0	(3,512)	2.00
대졸	1.7	22.8	62.3	12.2	1.0	100.0	(5,936)	1.88
대학원졸	2.5	26.7	60.2	9.5	1.2	100.0	(496)	1.80
취업 여부($\chi^2=3.7$)								
취업	2.1	20.9	61.5	14.0	1.4	100.0	(5,830)	1.92
비취업	2.1	21.6	60.2	14.3	1.8	100.0	(4,291)	1.92
가구소득($\chi^2=129.7^{***}$)								
60% 미만	6.2	26.5	49.6	14.6	3.0	100.0	(713)	1.83
60~80% 미만	2.2	23.1	59.4	13.3	2.1	100.0	(1,619)	1.90
80~100% 미만	2.1	21.5	59.7	15.3	1.4	100.0	(1,923)	1.92
100~120% 미만	1.8	19.8	63.3	13.8	1.4	100.0	(1,757)	1.93
120~140% 미만	1.6	20.4	63.3	13.5	1.2	100.0	(1,396)	1.92
140~160% 미만	1.8	22.0	59.9	15.2	1.1	100.0	(952)	1.92
160% 이상	1.5	18.5	64.7	13.9	1.4	100.0	(1,759)	1.95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배우 여성(15~49세)의 평균 이상자녀수, 결혼 당시 평균 계획자녀수, 평균 출생아수 및 평균 기대자녀수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출생아수는 1.75명, 기대자녀수는 1.92명, 이상자녀수는 2.16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는 이상자녀수에 0.41

명이 미치지 못했으며, 향후 출산까지 고려하여도(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에 0.24명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배우 여성 중 25세 미만의 경우 이상자녀수가 1.93명인 데 비해 실제 출생아수는 0.93명, 기대자녀수는 1.57명으로 출생아수는 1.0명, 기대자녀수는 0.36명이 이상자녀수보다 적게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 집단별 이상자녀수와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는 25~29세 여성의 경우 0.95명과 0.26명, 30~34세 여성의 경우 0.7명과 0.22명, 35~39세 여성의 경우 0.39명과 0.19명, 40~44세 여성의 경우 0.31명과 0.24명, 45~49세 여성의 경우 0.3명과 0.28명으로 나타났다. 저연령층일수록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유배우 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유배우 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 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는 각 각 0.42명과 0.25명으로 나타났고, 비취업 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는 각각 0.39명과 0.22명으로 비취업 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가 취업 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유배우 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차이는 0.33~0.49명으로 나타났고,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 간 차이는 0.22~0.30명으로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차이보다 작게 나타났다.

〈표 5-41〉 유배우 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결혼 당시 계획자녀수,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평균)

(단위: 명)

구분	이상자녀수	결혼 시 계획자녀수	출생아수	기대자녀수
전체	2.16	2.00	1.75	1.92
지역				
대도시	2.13	1.97	1.66	1.85
중소도시	2.15	1.99	1.78	1.94
농촌	2.25	2.10	1.91	2.07
연령				
25세 미만	1.93	2.02	0.93	1.57
25~29세	2.05	2.05	1.10	1.79
30~34세	2.06	2.01	1.36	1.84
35~39세	2.12	1.99	1.73	1.93
40~44세	2.18	2.00	1.87	1.94
45~49세	2.23	2.00	1.93	1.95
교육수준				
중졸 이하	2.17	2.15	1.93	2.04
고졸	2.19	2.03	1.88	2.00
대졸	2.13	1.98	1.67	1.88
대학원졸	2.16	2.01	1.59	1.80
취업 여부				
취업	2.17	2.01	1.75	1.92
비취업	2.14	1.99	1.75	1.92
가구소득				
60% 미만	2.13	2.02	1.64	1.83
60~80% 미만	2.14	2.03	1.69	1.90
80~100% 미만	2.16	2.01	1.74	1.92
100~120% 미만	2.15	1.97	1.77	1.93
120~140% 미만	2.18	2.00	1.77	1.92
140~160% 미만	2.17	1.97	1.79	1.92
160% 이상	2.17	2.00	1.84	1.95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1절 산전관리

1. 산전관리 시기

산전관리(prenatal care 또는 antenatal care)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까지의 임신 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분만을 하며 신생아가 건강하게 출생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WHO, 2003). 본 조사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조사 시점까지 자녀를 출산한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 동안의 산전관리에 관해 질문하였다.³⁾ 산전수진율은 100%로 나타났다. 즉, 기혼 여성의 특성에 관계없이 본 조사에 응답한 모든 기혼 여성은 임신 기간에 산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관리는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산전 초진 시기는 모성건강(reproductive health)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16~2018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산전관리를 위해 초진을 받은 시기는 임신 후 평균 5.4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인 5.3주보다 0.1주 늦은 수준이다. 대체로 31.5%가 임신 후 4주 이전에 초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3) 이 기간 중 태어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6-1〉 기혼 여성(15~49세)의 초진 시기

(단위: %, 명, 주)

구 분	~4주	5-8주	9-12주	13주 이후	계	(명)	평균 초진 시기
전체(2015)	33.8	62.7	2.9	0.5	100.0	(1,776)	5.3
전체(2018)	31.5	64.7	3.1	0.7	100.0	(1,784)	5.4
거주지($\chi^2=1.4$)							
대도시	30.9	65.1	3.1	0.9	100.0	(823)	5.4
중소도시	32.3	64.0	3.3	0.4	100.0	(685)	5.4
농촌	31.1	65.3	2.8	0.9	100.0	(275)	5.5
출산 시 모의 연령							
25세 미만	35.6	58.8	3.8	1.8	100.0	(82)	5.4
25~29세	32.3	64.5	3.0	0.3	100.0	(368)	5.3
30~34세	27.7	69.6	2.1	0.7	100.0	(808)	5.4
35~39세	35.4	58.9	4.9	0.8	100.0	(445)	5.5
40~45세	39.1	55.4	4.0	1.6	100.0	(81)	5.7
교육수준							
중졸 이하	38.1	59.3	2.6	-	100.0	(23)	4.9
고졸	33.0	62.0	4.4	0.7	100.0	(375)	5.4
대졸	31.0	65.3	2.9	0.8	100.0	(1,273)	5.4
대학원졸	29.7	68.1	2.3	-	100.0	(112)	5.3
가구소득							
60% 미만	28.3	65.5	3.6	2.6	100.0	(204)	5.8
60~80% 미만	28.6	68.0	2.8	0.5	100.0	(443)	5.4
80~100% 미만	36.7	58.6	4.2	0.5	100.0	(352)	5.3
100~120% 미만	32.8	65.5	1.7	-	100.0	(256)	5.2
120~140% 미만	32.5	61.9	4.6	1.1	100.0	(179)	5.5
140~160% 미만	32.4	64.9	2.7	-	100.0	(103)	5.3
160% 이상	29.2	68.0	2.4	0.4	100.0	(245)	5.4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chi^2=8.8$)							
첫째아	33.9	63.2	2.1	0.8	100.0	(813)	5.3
둘째아 이상	29.5	66.0	4.0	0.6	100.0	(971)	5.5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진 시기는 기혼 여성의 특성 중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둘째아 이상인 경우 임신 후 4주 이전에 초진을 받은 경우는 29.5%로 첫째아의 경우보다 4.4%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 순서가 늦을수록 산전관리를 위

한 초진 시기가 늦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첫째아의 경우 평균 초진 시기는 임신 후 5.3주인 것에 비해 둘째아 이상인 경우의 평균 초진 시기는 임신 후 5.5주로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의 경험을 토대로 둘째아 이상의 경우는 산전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둘째아 이상의 경우 임신부의 연령이 고연령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위험 임신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산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거주지에 따른 초진 시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전관리 횟수

산전관리에 있어서는 초진 시기뿐만 아니라 산전 수진의 횟수도 중요하다. 산전관리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는 산전 초진 시기뿐만 아니라 산전 수진의 횟수를 토대로 산출된다. 전체적으로 5회 이하의 산전 수진을 받은 경우는 0.7%로 낮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특성에 따른 산전 수진 횟수는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산전 수진은 기혼 여성의 다른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서별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 시에는 평균 13.9회의 산전 진찰을 받은 반면, 둘째아 이상 출산 시에는 평균 13.1회의 산전 진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둘째아 이상인 경우 고령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한 출산과 출생을 위한 적절한 산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2〉 기혼 여성(15~49세)의 산전 수진 횟수

(단위: %, 명, 회)

구 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	(명)	평균
전체(2015)	1.9	23.0	55.8	17.2	2.1	100.0	(1,776)	13.3
전체(2018)	0.7	21.6	58.9	17.3	1.5	100.0	(1,784)	13.5
거주지								
대도시	0.7	21.1	59.0	17.1	2.1	100.0	(823)	13.7
중소도시	0.7	21.8	59.1	17.5	0.9	100.0	(685)	13.3
농촌	0.5	22.6	58.3	17.2	1.4	100.0	(275)	13.4
출산 시 모의 연령								
25세 미만	1.0	20.5	60.7	16.8	1.0	100.0	(82)	13.3
25~29세	0.3	20.6	56.8	19.8	2.5	100.0	(368)	13.9
30~34세	0.7	21.4	59.7	17.2	1.0	100.0	(808)	13.5
35~39세	1.1	21.7	60.0	15.1	2.0	100.0	(445)	13.2
40~45세	-	28.8	52.6	18.6	-	100.0	(81)	13.1
교육수준								
중졸 이하	-	28.5	61.1	10.3	-	100.0	(23)	13.1
고졸	0.2	20.1	62.1	15.5	2.1	100.0	(375)	13.4
대졸	0.7	21.8	58.4	17.8	1.3	100.0	(1,273)	13.5
대학원졸	1.8	23.5	53.7	18.5	2.6	100.0	(112)	13.6
가구소득								
60% 미만	0.9	26.6	55.8	14.4	2.3	100.0	(204)	12.9
60~80% 미만	0.4	19.7	61.5	17.1	1.3	100.0	(443)	13.5
80~100% 미만	0.8	20.1	58.6	19.5	1.0	100.0	(352)	13.5
100~120% 미만	0.4	23.8	58.7	16.5	0.6	100.0	(256)	13.3
120~140% 미만	1.6	24.7	55.5	17.3	0.8	100.0	(179)	13.3
140~160% 미만	-	15.5	64.7	15.1	4.8	100.0	(103)	14.2
160% 이상	0.8	21.3	57.5	18.5	2.0	100.0	(245)	13.7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chi^2=13.3$)								
첫째아	0.8	18.1	60.3	19.1	1.7	100.0	(813)	13.9
둘째아 이상	0.6	24.6	57.7	15.8	1.3	100.0	(971)	13.1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분만

1. 분만 장소

조사 대상 기간(2016.1.1.~조사 시점)에 이루어진 분만은 모두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병원 80.7%, 종합병원 10.8%, 의원 8.3%, 조산원 0.2%, 보건의료원 0.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2015년에는 병원 70.6%, 의원 18.0%, 종합병원 10.8%, 보건의료원 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에서의 분만이 약 10.0%포인트 감소하였다.

기혼 여성의 특성에 따른 분만 장소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기혼 여성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기혼 여성 그룹에서 전체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농촌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기혼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고소득층(140% 이상)의 경우, 첫째아 출산의 경우 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인 대도시에서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는 대체로 종합병원은 임신에서 분만까지의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연령의 기혼 여성 등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있어서 건강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3〉 기혼 여성(15~49세)의 분만 장소

(단위: %, 명)

구 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계	(명)
전체(2015)	10.8	70.6	18.0	0.5	0.1	100.0	(1,776)
전체(2018)	10.8	80.7	8.3	0.2	0.1	100.0	(1,784)
거주지							
대도시	11.4	82.2	6.1	0.2	0.1	100.0	(823)
중소도시	10.7	78.6	10.6	0.1	-	100.0	(685)
농촌	9.6	81.4	9.1	-	-	100.0	(275)
출산 시 모의 연령							
25세 미만	7.9	88.0	4.1	-	-	100.0	(82)
25~29세	9.2	79.8	10.7	-	0.3	100.0	(368)
30~34세	10.0	81.6	8.2	0.1	-	100.0	(808)
35~39세	13.2	79.6	6.8	0.4	-	100.0	(445)
40~45세	16.6	73.5	10.0	-	-	100.0	(8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2	83.0	2.8	-	-	100.0	(23)
고졸	9.7	80.7	9.4	0.3	-	100.0	(375)
대졸	11.0	81.0	7.8	0.1	0.1	100.0	(1,273)
대학원졸	12.6	76.5	11.0	-	-	100.0	(112)
가구소득							
60% 미만	11.3	78.5	10.3	-	-	100.0	(204)
60~80% 미만	8.4	83.4	7.9	0.2	-	100.0	(443)
80~100% 미만	10.9	79.5	9.1	0.3	0.3	100.0	(352)
100~120% 미만	8.5	83.9	7.6	-	-	100.0	(256)
120~140% 미만	8.7	83.9	7.4	-	-	100.0	(179)
140~160% 미만	12.9	76.2	10.9	-	-	100.0	(103)
160% 이상	17.9	75.5	6.2	0.4	-	100.0	(245)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							
첫째아	11.9	80.2	7.8	0.1	-	100.0	(813)
둘째아 이상	10.0	81.1	8.6	0.2	0.1	100.0	(97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분만 방법

기혼 여성(15~49세)이 최근(2016. 1. 1.~조사 시점) 출산했을 때의 분만 방법(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은 42.3%로 2015년 조사 결과(39.1%)보다 3.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출산 시 기혼 여성의 연령에 따른 분만 방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 연령이 높을수록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았는데 34세 미만까지 40% 미만의 제왕절개분만율을 보이다가 35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제왕절개분만율은 30~34세 기혼 여성의 경우 39.7%이었던 것이 35~39세의 경우 46.6%로 6.9%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40~45세 기혼 여성의 경우는 64.8%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고령임신과 제왕절개분만 간에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서에 따른 분만 방법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율(48.3%)이 둘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37.2%)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도 분만 방법에 차이가 있었는데, 제왕절개분만율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일수록 임신과 출산 과정에 있어서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출산 시 제왕절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분만 방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기혼 여성(15~49세)의 분만 방법

구 분	(단위: %, 명)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계	(명)
전체(2015)	60.9	39.1	100.0	(1,776)
전체(2018)	57.7	42.3	100.0	(1,784)
거주지($\chi^2=8.4$)				
대도시	61.3	38.7	100.0	(823)
중소도시	55.3	44.7	100.0	(685)
농촌	53.1	46.9	100.0	(275)

〈표 6-4〉 계속

구 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계	(명)
출산 시 모의 연령($\chi^2=24.2^{***}$)				
25세 미만	61.8	38.2	100.0	(82)
25~29세	61.4	38.6	100.0	(368)
30~34세	60.3	39.7	100.0	(808)
35~39세	53.4	46.6	100.0	(445)
40~45세	35.2	64.8	100.0	(81)
교육수준($\chi^2=4.7$)				
중졸 이하	39.5	60.5	100.0	(23)
고졸	55.7	44.3	100.0	(375)
대졸	58.3	41.7	100.0	(1,273)
대학원졸	61.9	38.1	100.0	(112)
가구소득($\chi^2=8.6$)				
60% 미만	59.8	40.2	100.0	(204)
60~80% 미만	56.0	44.0	100.0	(443)
80~100% 미만	54.4	45.6	100.0	(352)
100~120% 미만	59.5	40.5	100.0	(256)
120~140% 미만	55.2	44.8	100.0	(179)
140~160% 미만	55.5	44.5	100.0	(103)
160% 이상	64.8	35.2	100.0	(245)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chi^2=22.6^{***}$)				
첫째아	51.7	48.3	100.0	(813)
둘째아 이상	62.8	37.2	100.0	(971)
분만 장소				
종합병원	44.5	55.5	100.0	(193)
병원	58.9	41.1	100.0	(1,439)
의원	62.7	37.3	100.0	(147)
기타	100.0	-	100.0	(4)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임신주수

분만에 이르는 임신주수 또는 재태주수(gestational age)는 산전관리 적합도와 같은 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출산 결과의 하나인 조산(preterm birth)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조산이란 임신주수가 37주 미만의 출산을 의미한다. 임신부의 건강 상태는

조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조산아는 출생 시 체중과 발달 수준 등에 있어서 미숙하기 때문에 영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기간(2016.1.1.~조사 시점) 동안 출산을 경험한 기혼 여성(15~49세)의 평균 임신주수는 38.7주로 나타났다. 출산 시 기혼 여성의 연령별 평균 임신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평균 임신주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평균 임신주수는 25세 미만에서 38.9주, 20대 후반~30대 전반에서 38.7주, 35~39세에서 38.6주, 40~49세에서 38.3주로 단축되었다.

평균 임신주수는 출생 순서가 늦을수록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초산인 경우 평균 임신주수는 38.9주인 것에 비해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 평균 임신주수는 38.5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출생 순서가 늦을수록 고연령이 되어 상대적으로 조산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임신의 경우 고위험 임신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산전관리 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6-5〉 기혼 여성(15~49세)의 출산 당시 평균 임신주수

(단위: 주, 명)

구 분	평균 주수	명	F/T
출산 시 모의 연령(전체)	38.7	(1,784)	
25세 미만	38.9	(82)	
25~29세	38.7	(368)	F=2.4*
30~34세	38.7	(808)	
35~39세	38.6	(445)	
40~49세	38.3	(81)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전체)	38.7	(1,784)	
첫째아	38.9	(813)	T=4.6***
둘째아 이상	38.5	(9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제3절 산후관리

1. 산후 진찰

산후관리(postnatal care)는 특히 산욕기라고 부르는 분만 후 6주간에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로부터 회복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부의 건강한 분만과 관련이 있는 산전관리(prenatal care)의 경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후조리의 개념을 보건의료적인 산후관리의 개념에 문화적인 요소를 더한 산후조리라는 개념으로 대체해서 인식하기도 한다.

조사 완료 기혼 여성 중 산후 기간에 진찰(검진)을 받은 비율(산후 수진율)은 94.7%로 임신 기간의 산전 수진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며 2015년 조사 결과(94.6%)와 비슷하나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90% 이상의 산모가 산후 수진 경험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 출산 시 기혼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서 등에 따른 산후 수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초산인 경우의 산후 수진율(95.6%)이 경산인 경우의 산후 수진율(93.9%)과 비교했을 때 1.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산인 경우 다음 출산을 고려하여 산후 진찰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비해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에는 다음 출산을 고려하지 않거나 경험에 비추어 산후 기간 건강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후 진찰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6-6〉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 수진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2015)	94.6	5.4	100.0	(1,776)
전체(2018)	94.7	5.3	100.0	(1,784)
거주지($\chi^2=0.7$)				
대도시	94.6	5.4	100.0	(823)
중소도시	95.2	4.8	100.0	(685)
농촌	93.7	6.3	100.0	(275)
출산 시 모의 연령				
25세 미만	92.2	7.8	100.0	(82)
25~29세	94.9	5.1	100.0	(368)
30~34세	94.8	5.2	100.0	(808)
35~39세	95.2	4.8	100.0	(445)
40~45세	92.4	7.6	100.0	(81)
교육수준 ($\chi^2=6.7$)				
중졸 이하	96.0	4.0	100.0	(23)
고졸	92.0	8.0	100.0	(375)
대졸	95.4	4.6	100.0	(1,273)
대학원졸	95.7	4.3	100.0	(112)
가구소득($\chi^2=10.5$)				
60% 미만	90.2	9.8	100.0	(204)
60~80% 미만	95.7	4.3	100.0	(443)
80~100% 미만	95.0	5.0	100.0	(352)
100~120% 미만	94.5	5.5	100.0	(256)
120~140% 미만	95.8	4.2	100.0	(179)
140~160% 미만	97.5	2.5	100.0	(103)
160% 이상	94.3	5.7	100.0	(245)
조산 대상아 출생 순서($\chi^2=2.4$)				
첫째아	95.6	4.4	100.0	(813)
둘째아 이상	93.9	6.1	100.0	(971)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산후우울

산후우울증은 당사자인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와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산후 기

간 동안의 관리가 필요하다.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기혼 여성은 전체의 응답 기혼 여성의 3.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조사 결과(2.6%)와 비교했을 때 다소 증가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6-7〉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2015)	2.6	97.4	100.0	(1,776)
전체(2018)	3.4	96.6	100.0	(1,784)
거주지($\chi^2=0.4$)				
대도시	3.7	96.3	100.0	(823)
중소도시	3.1	96.9	100.0	(685)
농촌	3.2	96.8	100.0	(275)
출산 시 모의 연령				
25세 미만	5.8	94.2	100.0	(82)
25~29세	4.7	95.3	100.0	(368)
30~34세	3.4	96.6	100.0	(808)
35~39세	1.9	98.1	100.0	(445)
40~45세	3.5	96.5	100.0	(81)
교육수준				
중졸 이하	-	100.0	100.0	(23)
고졸	3.3	96.7	100.0	(375)
대졸	3.4	96.6	100.0	(1,273)
대학원졸	4.1	95.9	100.0	(112)
가구소득($\chi^2=7.3$)				
60% 미만	4.2	95.8	100.0	(204)
60~80% 미만	3.8	96.2	100.0	(443)
80~100% 미만	4.4	95.6	100.0	(352)
100~120% 미만	3.8	96.2	100.0	(256)
120~140% 미만	1.9	98.1	100.0	(179)
140~160% 미만	0.9	99.1	100.0	(103)
160% 이상	2.2	97.8	100.0	(245)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chi^2=0.3$)				
첫째아	3.7	96.3	100.0	(813)
둘째아 이상	3.2	96.8	100.0	(971)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혼 여성의 거주지, 가구소득, 조사대상아의 출생 순서 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사 완료 기혼 여성 중 중졸 이하의 경우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25세 미만에 출산한 여성이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5.8%로 다른 기혼 여성의 특성에 따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 혹은 상담을 받은 기혼 여성은 총 6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 기관을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소(26.1%), 산부인과(18.1%), 정신보건센터(7.8%), 한의원(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을 받은 기혼 여성(15~49세)의 진단 혹은 상담 장소
(단위: %, 명)

구 분	보건소	산부 인과	정신건강 의학과	정신보건 센터	한의원	기타	계	(명)
전체	26.1	18.1	37.5	7.8	4.6	5.9	100.0	(6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산후 조리

산후조리는 출산 후 6주간의 산욕기 동안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주의하고 관리하는 산후관리(postnatal care)에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혼 여성은 조사 대상의 73.4%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외에 산후조리의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본인의 집(58.1%), 친정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전체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과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한 기혼 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가 도시(특히 대도시)인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거주 기혼 여성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일 수도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도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대가족 체계가 상대적으로 더 유지되고 있어 가족 지원에 의한 산후조리가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산한 기혼 여성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 시 연령이 30~34세인 연령층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75.9%로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는 초산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산후조리 경험이나 관련 정보의 부족, 다양한 관련 서비스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초산이 아니므로 경험을 통한 관련 지식이 충분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로 인해 산후조리를 본인의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초산인 경우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약 85%인데 비해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약 64%로 20%포인트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9〉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조리 장소(중복 응답)

(단위: %, 명)

구 분	산후 조리원	조산소	산부인과	산부인과 외 병의원	본인 집	친정	시집	기타	(명)
전체	73.4	0.4	0.8	0.4	58.1	15.8	1.8	0.2	(1,784)
거주지									
대도시	79.9	0.1	0.6	0.6	55.4	15.1	1.2	0.2	(823)
중소도시	73.3	0.7	0.7	0.2	60.4	14.3	1.9	0.2	(685)
농촌	54.4	0.6	1.8	0.4	60.7	21.6	3.5	0.2	(275)
출산 시 모의 연령									
25세 미만	53.6	0.7	1.0	-	61.4	12.5	5.4	1.2	(82)
25~29세	73.3	1.3	0.9	0.5	53.3	19.2	3.2	0.3	(368)
30~34세	75.9	0.1	0.5	-	57.6	17.6	1.2	0.2	(808)
35~39세	73.4	0.4	1.1	0.5	61.0	12.4	1.3	-	(445)
40~45세	69.5	-	1.7	3.4	67.0	4.8	1.0	-	(81)
교육수준									
중졸 이하	23.5	-	8.6	-	75.1	7.7	-	4.2	(23)
고졸	58.6	0.4	1.2	0.4	65.4	11.6	4.6	0.7	(375)
대졸	77.5	0.4	0.5	0.4	56.1	17.2	1.1	-	(1,273)
대학원졸	87.6	1.3	1.3	0.9	53.8	14.9	0.5	-	(112)
가구소득									
60% 미만	60.1	0.6	0.7	-	63.1	15.1	4.3	0.5	(204)
60~80% 미만	68.7	0.2	1.0	0.4	61.2	16.3	1.8	0.2	(443)
80~100% 미만	69.7	0.6	1.2	0.5	57.8	14.8	2.2	0.3	(352)
100~120% 미만	79.3	0.2	0.9	-	54.2	14.0	1.1	0.2	(256)
120~140% 미만	79.6	0.5	0.5	1.1	54.7	13.6	1.9	-	(179)
140~160% 미만	80.6	1.0	-	-	52.2	20.7	-	-	(103)
160% 이상	84.9	0.4	0.5	0.7	58.0	18.4	0.7	-	(245)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									
첫째아	84.9	0.6	0.7	0.5	51.5	18.0	2.2	0.2	(813)
둘째아 이상	63.9	0.3	0.9	0.3	63.7	13.9	1.5	0.2	(97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께 드린 돈 등을 모두 포함한 산후조리 비용에 관해 조사하였다.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약 2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출산 기혼 여성의 특성에 따른 산후조리 비용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산후조리 비용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고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초산인 경우 산후조리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0〉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조리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 분	평균 비용	(명)
전체	224.1	(1,784)
거주지(F= 56.9***)		
대도시	261.6	(823)
중소도시	206.5	(685)
농촌	155.7	(275)
출산 시 모의 연령(F= 11.1***)		
25세 미만	120.2	(82)
25~29세	216.6	(368)
30~34세	236.3	(808)
35~39세	230.9	(445)
40~45세	202.7	(81)
교육수준(F= 56.4***)		
중졸 이하	58.9	(23)
고졸	152.6	(375)
대졸	240.0	(1,273)
대학원졸	316.8	(112)
가구소득(F= 60.8***)		
60% 미만	136.7	(204)
60~80% 미만	178.5	(443)
80~100% 미만	199.4	(352)
100~120% 미만	232.5	(256)
120~140% 미만	264.3	(179)
140~160% 미만	271.5	(103)
160% 이상	356.4	(245)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T= 7.7***)		
첫째아	254.9	(813)
둘째아 이상	198.3	(971)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제4절 수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으며 신생아 초기의 완전 모유수유율을 핵심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WHO에서는 특히 출생 후 1시간 이내의 모유수유를 통해 신생아가 초유를 섭취하는 것은 신생아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조사 결과, 응답 기혼 여성 중 5.8%가 조사대상아에게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실시한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유수유를 실시한 비율은 약 2%포인트 감소한 반면, 출생 후 1시간 이내의 모유수유 경험은 1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에서는 생후 6개월 모유수유율을 2020년까지 66.8%로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모유수유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모유수유율은 보편적인 것으로 기혼 여성의 특성별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거주지와 교육수준에 따른 모유수유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모유수유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력일수록 모유수유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경우 중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한 경험은 대체로 20~40%로 나타났다. 출산 시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21.9%)와 초산인 경우(25.3%)는 다른 집단에 비해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한 경험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

서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6-11〉 기혼 여성(15~49세)의 모유수유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모유수유 경험 있음	출생 후 1시간 내 모유수유 여부		모유수유 경험 없음	계	(명)
		모유수유 함	모유수유 안함			
전체(2015)	96.1	18.1	81.9	(1,707)	3.9	100.0 (1,776)
전체(2018)	94.2	31.8	68.2	(1,680)	5.8	100.0 (1,784)
거주지($\chi^2=6.9$)						
대도시	95.6	34.0	66.0	(787)	4.4	100.0 (823)
중소도시	93.6	25.8	74.2	(641)	6.4	100.0 (685)
농촌	91.5	40.0	60.0	(252)	8.5	100.0 (275)
출산 시 모의 연령						
25세 미만	91.0	21.9	78.1	(74)	9.0	100.0 (82)
25~29세	95.2	31.8	68.2	(350)	4.8	100.0 (368)
30~34세	95.1	31.2	68.8	(768)	4.9	100.0 (808)
35~39세	92.4	33.5	66.5	(411)	7.6	100.0 (445)
40~45세	93.6	38.2	61.8	(76)	6.4	100.0 (81)
교육수준($\chi^2=16.2^{**}$)						
중졸 이하	76.8	23.7	76.3	(18)	23.2	100.0 (23)
고졸	92.2	32.0	68.0	(345)	7.8	100.0 (375)
대졸	94.8	31.8	68.2	(1,207)	5.2	100.0 (1,273)
대학원졸	97.5	31.7	68.3	(109)	2.5	100.0 (112)
가구소득 ³⁾ ($\chi^2=6.9$)						
60% 미만	93.2	34.8	65.2	(191)	6.8	100.0 (204)
60~80% 미만	93.8	32.1	67.9	(415)	6.2	100.0 (443)
80~100% 미만	96.0	32.8	67.2	(338)	4.0	100.0 (352)
100~120% 미만	96.0	31.7	68.3	(246)	4.0	100.0 (256)
120~140% 미만	93.7	27.7	72.3	(168)	6.3	100.0 (179)
140~160% 미만	93.7	23.8	76.2	(96)	6.3	100.0 (103)
160% 이상	91.9	33.7	66.3	(226)	8.1	100.0 (245)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chi^2=1.7$)						
첫째아	95.0	25.3	74.7	(772)	5.0	100.0 (813)
둘째아 이상	93.5	37.3	62.7	(908)	6.5	100.0 (971)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χ^2 값은 모유수유 경험 여부(모유수유 함, 모유수유 안 함)에 대한 값임.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모유수유 중인 경우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와 현재 모유수유를 중단한 경우 중단한 시기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기혼 여성이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기간과 실제 중단한 시기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평균 11.4개월이었으나 실제 중단한 시기는 평균 5.4개월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모유수유의 장점을 알고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나, 출산 후 기혼 여성의 신체적인 여건 등을 비롯한 어려움으로 인해 계획대로 실천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조사 결과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시기는 평균 13.2개월, 실제 중단시기는 평균 6.6개월로(이삼식 외, 2015) 6개월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계획 및 실제 모유 중단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모유수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혼 여성의 연령에 따른 모유수유 실제 중단 시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출산 시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제 중단 시기는 늦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혼 여성의 연령이 낮은 경우 초산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경산인 경우보다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위에 따른 모유중단 예정 시기 및 모유수유 실제 중단 시기를 살펴보면, 초산인 경우보다 둘째아 이상 출산일 때 중단 시기가 늦추어 지고 있다. 따라서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초산모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타 기혼 여성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및 실제 중단 시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및 실제 중단 시기

(단위: 개월, 명)

구 분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명)	F(t)	모유수유 실제 중단 시기	(명)	F(t)
전체	11.4	(271)		5.4	(1,409)	
거주지						
대도시	11.6	(139)		5.5	(648)	
중소도시	10.6	(90)	1.2	5.3	(551)	0.4
농촌	12.2	(42)		5.6	(210)	
출산 시 모의 연령						
25세 미만	13.6	(8)		4.9	(66)	
25~29세	9.5	(42)		4.8	(309)	
30~34세	12.0	(120)	2.4	5.5	(649)	2.6*
35~39세	12.2	(78)		5.8	(333)	
40~45세	13.4	(23)		6.4	(5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8	(3)		5.8	(15)	
고졸	11.8	(56)	0.4	5.3	(290)	0.4
대졸	11.3	(188)		5.4	(1,020)	
대학원졸	10.8	(25)		6.0	(85)	
가구소득						
60% 미만	12.4	(29)		5.1	(162)	
60~80% 미만	11.2	(65)		5.8	(351)	
80~100% 미만	11.3	(53)		5.6	(285)	
100~120% 미만	11.8	(38)	0.7	5.6	(208)	1.0
120~140% 미만	9.7	(28)		4.9	(140)	
140~160% 미만	10.3	(17)		4.9	(79)	
160% 이상	12.3	(41)		5.2	(185)	
조사 대상아 출생 순서						
첫째아	10.2	(126)		5.1	(645)	
둘째아 이상	12.5	(144)	(-3.0**)	5.7	(764)	(-2.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월령에 따른 완전모유수유율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1주에 16.1%였다가 생후 2주에는 36.5%, 생후 3주에는 40.3%로 출생아의 월령이 늘어날수록 완전모

유수유율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완전 모유수유율은 생후 4주에 최고점에 이르다가 6개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공유(조제분유 및 우유)를 수유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생후 1주에 9.8%에서 생후 3주부터 증가하여 생후 4개월에 최고점(39.9%)에 이르고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수유하는 경우와 인공유를 수유하는 경우를 합하면 인공유를 수유하는 비율은 생후 1주에 83.9%였으나 4주에는 59.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유수유가 초기에는 쉽지 않아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공유를 함께 수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왕절개 분만이 높아서 의료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산후 기간 동안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신생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짐에 따라 인공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유수유가 안정화되고 신생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공유 수유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체로 본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산후조리를 하는 생후 3주와 4주의 완전 모유수유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완전 모유수유율은 생후 1개월에 36.6%, 생후 2개월에 34.5%, 생후 3개월에 30.5%, 4개월에 26.4% 등 출산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생후 6개월에는 2.3%로 완전 모유수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가 생후 6개월이 되면서 대체로 보충식을 시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후 6개월에 모유와 보충식을 함께하는 경우는 21.3%로 생후 4개월(2.2%)~생후 5개월(11.2%)과 비교해서 급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생후 6개월 시의 수유 양상을 보면, 완전 모유수유 2.3%, 모유+인공유 4.2%, 인공유 5.1%, 모유+보충식 21.3%, 인공유+보충식 50.4%, 모유+인공유+보충식(16.7%) 등으로 나타났다.

〈표 6-13〉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 양상

(단위: %, 명)

구 분	완전 모유	모유 + 인공유	인공유 (우유)	모유 + 보충식	인공유 (우유) +보충식	보충식	모유+ 인공유 (우유)+ 보충식	모유 + 우유	계	(명)
생후1주	16.1	74.1	9.8	-	-	-	-	-	100.0	(1,784)
생후2주	36.5	55.6	8.0	-	-	-	-	-	100.0	(1,784)
생후3주	40.3	49.7	10.0	-	-	-	-	-	100.0	(1,782)
생후4주	40.4	48.4	11.2	-	-	-	-	-	100.0	(1,779)
1개월	36.6	47.2	16.2	-	-	-	-	-	100.0	(1,772)
2개월	34.5	38.1	27.5	-	-	-	-	-	100.0	(1,723)
3개월	30.5	33.4	34.3	0.3	0.7	-	0.8	-	100.0	(1,678)
4개월	26.4	21.0	39.9	2.2	8.1	0.1	2.3	-	100.0	(1,615)
5개월	14.9	14.2	22.9	11.2	29.0	0.0	7.8	-	100.0	(1,575)
6개월	2.3	4.2	5.1	21.3	50.4	0.1	16.7	-	100.0	(1,533)
7개월	0.8	1.6	2.0	21.3	62.6	0.2	11.4	-	100.0	(1,479)
8개월	0.6	1.1	1.0	21.1	66.4	0.3	9.6	-	100.0	(1,423)
9개월	0.5	0.7	0.8	19.8	68.2	0.6	9.4	-	100.0	(1,374)
10개월	0.4	0.7	0.6	19.3	69.6	1.0	8.5	-	100.0	(1,319)
11개월	0.4	0.7	0.1	13.8	54.7	1.1	28.9	0.1	100.0	(1,266)
12개월	0.1	0.3	0.1	7.3	41.1	1.6	49.2	0.3	100.0	(1,212)
13개월	0.1	0.1	-	4.1	54.9	2.8	38.0	0.1	100.0	(1,154)
14개월	-	-	-	3.5	63.7	3.5	29.3	-	100.0	(1,103)
15~17개월	-	-	-	2.2	69.1	4.7	24.0	-	100.0	(1,048)
18~24개월	-	-	-	1.4	78.1	5.3	15.1	-	100.0	(877)

주: 1) 보충식은 이유식과 유아식을 포함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1절 육아가사 분담과 성 역할 인식

1. 가사 분담

유배우 여성의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과 분담 시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편과 가사를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적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2.0%로 높게 나타났다(〈표 7-1〉 참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연령, 교육수준, 현존 자녀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로 연령이 많을수록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와 같은 결과로 고연령 세대에 비해서 젊은 연령 세대에서 더 공평한 가사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존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한 여성일수록 전반적으로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양성평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52.0%에 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가사 분담에 대한 양성평등이 충분

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표 7-1〉 유배우 여성(15~49세)의 가사 분담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매우공평	대체로 공평	별로 공평하지 않음	전혀 공평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7.2	40.5	38.1	14.2	100.0	(10,324)
전체(2018)	10.5	37.5	35.7	16.3	100.0	(10,630)
거주지($\chi^2=9.7$)						
대도시	10.5	38.3	36.0	15.2	100.0	(4,565)
중소도시	10.4	36.5	36.0	17.2	100.0	(4,535)
농촌	10.5	38.4	34.0	17.0	100.0	(1,529)
연령($\chi^2=457.6^{***}$)						
30세 미만	22.4	48.3	22.8	6.5	100.0	(560)
30~34세	15.8	45.5	27.8	10.9	100.0	(1,515)
35~39세	10.8	41.5	33.8	13.8	100.0	(2,573)
40~44세	9.0	33.5	39.7	17.7	100.0	(2,714)
45~49세	6.9	32.2	39.7	21.2	100.0	(3,268)
교육수준($\chi^2=120.0^{***}$)						
고졸 이하	8.7	34.3	36.1	20.9	100.0	(3,796)
대졸	11.2	39.0	35.9	13.9	100.0	(6,312)
대학원졸	14.2	42.9	31.1	11.7	100.0	(522)
현존 자녀수($\chi^2=260.5^{***}$)						
0명	19.4	51.0	21.6	7.9	100.0	(754)
1명	12.2	40.6	33.4	13.8	100.0	(2,771)
2명	8.8	35.1	38.5	17.6	100.0	(5,700)
3명 이상	9.0	34.1	36.8	20.2	100.0	(1,405)
취업 여부($\chi^2=73.8^{***}$)						
취업	12.2	38.8	33.8	15.2	100.0	(6,095)
비취업	8.1	35.8	38.3	17.7	100.0	(4,535)
가구소득($\chi^2=32.1$)						
60% 미만	11.3	37.9	32.3	18.5	100.0	(770)
60~80% 미만	9.6	36.8	37.4	16.2	100.0	(1,720)
80~100% 미만	10.5	39.0	34.8	15.7	100.0	(2,011)
100~120% 미만	9.6	37.3	37.8	15.2	100.0	(1,852)
120~140% 미만	11.2	40.1	32.7	15.9	100.0	(1,456)
140~160% 미만	11.6	36.6	36.5	15.2	100.0	(988)
160% 이상	10.5	35.1	36.4	18.1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사 분담 공평성에 대한 주관적 생각과 함께, 실제의 가사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7-2>와 같다. 가사란 육아를 제외한 집안일을 의미하며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각각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남편과 아내의 가사시간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내는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1일 평균 3시간 이상 가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남편의 경우 평일에는 40분 내외, 주말에는 70분 내외의 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현존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다소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평일 남편의 가사시간이 타 지역 거주자보다 다소 긴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 가사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이 있다. 연령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남편의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또한 주목할 것은 45~49세 여성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가사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편과의 가사 분담 격차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존 자녀가 많을수록,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여성의 가사시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성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분석한 ‘가사시간에 대한 공평성’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그룹일수록 실제로 남편들이 참여하는 가사시간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편들의 가사참여 시간이 아내들의 가사참여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실제 투입시간 기준으로 가사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남편의 가사 분담에 대한 기대수준을 처음부터 50 대 50으로 보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기대수

준을 바탕으로 가사 분담에 대한 공평성을 판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가사 분담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 확산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7-2〉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1일 평균 가사시간

(단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전체	189.4	37.2	216.2	70.2	214.7	74.1
거주지						
대도시	190.9	37.3	216.2	73.2	215.0	77.4
중소도시	188.3	35.7	216.1	67.2	214.1	70.9
농촌	188.4	41.0	216.4	69.9	215.8	74.0
연령						
30세 미만	179.0	54.6	190.2	93.3	186.8	99.0
30~34세	188.3	47.8	204.6	90.8	203.4	95.6
35~39세	197.5	39.8	221.1	79.8	218.2	84.5
40~44세	195.1	34.9	227.7	66.2	226.3	69.2
45~49세	180.7	29.1	212.6	52.3	212.4	55.9
교육수준						
고졸 이하	188.6	34.2	214.8	58.5	214.4	63.4
대졸	191.2	38.5	218.0	75.7	215.9	79.1
대학원졸	174.3	43.5	204.3	87.5	203.1	92.2
현존 자녀수						
0명	140.2	48.4	151.7	80.6	148.4	83.4
1명	182.4	39.8	203.7	76.2	201.9	81.4
2명	194.7	34.1	224.9	66.9	223.4	70.5
3명 이상	208.4	38.1	240.0	65.8	240.5	69.5
취업 여부						
취업	165.0	40.5	205.2	74.0	205.0	77.7
비취업	222.2	32.7	231.0	65.0	227.7	69.4
가구소득						
60% 미만	199.3	44.6	211.6	68.2	208.3	70.8
60~80% 미만	208.2	36.2	224.3	66.6	222.2	70.9
80~100% 미만	196.0	38.5	219.0	70.4	216.8	74.8
100~120% 미만	191.9	35.7	218.9	69.7	218.0	73.8
120~140% 미만	177.8	38.5	211.8	74.2	212.0	77.7
140~160% 미만	178.8	37.4	212.9	71.6	211.1	75.3
160% 이상	172.9	33.7	209.8	70.5	209.0	74.9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2. 육아 분담

유배우 여성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과 분담 시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편과 육아를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가사 분담의 공평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분담이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육아 분담의 공평성은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로 연령이 많을수록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2015년 조사와 같은 결과로 고연령 세대에 비해서 젊은 연령 세대에서 더 공평한 육아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여성일수록 전반적으로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가사참여에 대한 인식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가사 분담보다 육아 분담이 좀 더 공평하게 인식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가사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데 비해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양성평등수준이 높은 것과 함께, 국내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편의 양육참여가 확대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본 조사에서 교육활동도 육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측면에서 남편의 육아참여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돌봄 측면에서 일정

부분 남편이 양육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3〉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15~49세)의 육아 부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매우공평	대체로 공평	별로 공평하지 않음	전혀 공평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9.8	48.9	33.0	8.3	100.0	(6,110)
전체(2018)	12.9	48.2	31.1	7.9	100.0	(6,703)
거주지($\chi^2=10.6$)						
대도시	13.7	49.0	30.1	7.2	100.0	(2,891)
중소도시	12.3	47.1	31.8	8.8	100.0	(2,821)
농촌	12.5	48.7	31.5	7.2	100.0	(991)
연령($\chi^2=137.8^{***}$)						
30세 미만	20.6	50.3	23.8	5.3	100.0	(421)
30~34세	17.2	50.8	25.6	6.3	100.0	(1,296)
35~39세	12.9	50.3	29.4	7.4	100.0	(2,356)
40~44세	10.3	44.3	36.0	9.5	100.0	(1,873)
45~49세	7.8	45.3	37.4	9.5	100.0	(757)
교육수준($\chi^2=58.2^{***}$)						
고졸 이하	11.0	44.6	33.4	11.0	100.0	(1,938)
대졸	13.6	49.5	30.1	6.8	100.0	(4,376)
대학원졸	14.6	51.2	30.1	4.1	100.0	(390)
0세~초등재학 자녀($\chi^2=7.4$)						
1명	12.5	48.2	31.7	7.6	100.0	(3,385)
2명	13.4	48.8	29.9	8.0	100.0	(2,788)
3명 이상	13.3	44.3	33.0	9.4	100.0	(530)
취업 여부($\chi^2=17.5^{**}$)						
취업	14.3	48.3	29.4	8.1	100.0	(3,470)
비취업	11.4	48.0	32.9	7.7	100.0	(3,233)
가구소득($\chi^2=25.6$)						
60% 미만	13.5	45.9	30.7	9.9	100.0	(518)
60~80% 미만	11.9	46.3	33.7	8.1	100.0	(1,267)
80~100% 미만	12.8	47.1	32.9	7.3	100.0	(1,352)
100~120% 미만	12.8	51.0	29.5	6.7	100.0	(1,137)
120~140% 미만	13.0	51.0	28.9	7.2	100.0	(849)
140~160% 미만	15.0	46.0	31.5	7.5	100.0	(522)
160% 이상	13.2	48.7	28.8	9.3	100.0	(1,057)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 분담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생각과 함께, 실제의 육아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7-4>와 같다. 육아란 자녀돌봄, 교육 및 놀이시간을 의미하며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각각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남편과 아내의 육아시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가사시간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남편의 육아참여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육아시간은 가사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육아시간은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많았으나 주말의 경우 남편의 육아시간이 평일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평일 4~5시간의 육아를 하는 반면 남편은 1시간 내외의 육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아내의 육아시간이 약 6시간으로 증가하는 반면 남편의 육아시간은 약 3~4시간으로 평일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여성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다소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평일 남편의 육아시간이 타 지역 거주자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주말 육아시간은 다소 줄어든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사시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연령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남편의 육아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또한 주목할 것은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의 육아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가사시간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증가한 데에 반해 육아시간은 감소하는 상황으로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연령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자녀가 어려서 육아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은 상황일 수도 있으며, 교육활동을 포함한 육아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육아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앞서 분석한 가사시간의 경우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남편의 가사시간에 차이가 다소 있었으나, 육아시간의 경우 그 차이가 3분 내외로 매우 작다는 것이다. 또한, 주말에는 비취업모 가구의 남편의 육아시간이 취업모 가구의 남편보다 오히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여부는 남편의 육아시간보다 가사시간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평일에는 부부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육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주말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내의 육아시간은 길어지는 반면 남편의 육아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말에 남편의 육아참여가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4〉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1일 평균 육아시간
(단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전체	286.7	71.9	376.7	200.9	377.5	219.1
거주지						
대도시	298.2	71.7	386.9	213.6	387.3	235.2
중소도시	276.1	69.9	368.4	192.7	369.1	208.6
농촌	283.0	78.7	370.5	187.4	373.3	201.9
연령						
30세 미만	439.1	100.4	489.1	241.6	485.7	267.1
30~34세	378.4	87.8	463.9	251.7	463.9	272.2
35~39세	291.4	73.9	388.2	210.9	387.8	230.2
40~44세	225.4	61.0	321.8	168.8	324.8	185.1
45~49세	181.6	49.9	265.1	134.0	268.3	151.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64.2	67.2	350.7	165.4	354.1	184.6
대졸	297.2	72.9	387.9	213.4	387.8	231.7
대학원졸	279.9	85.0	380.4	237.1	379.6	248.6
0세~초등학교 자녀수						
1명	273.6	70.3	362.8	196.3	363.6	211.8
2명	294.3	73.1	385.2	208.8	386.5	230.3
3명 이상	330.2	76.8	420.7	189.0	419.9	207.4
취업 여부						
취업	228.5	73.4	342.7	200.2	347.3	217.6
비취업	349.1	70.4	413.2	201.8	410.1	220.7

〈표 7-4〉 계속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가구소득						
60% 미만	339.3	83.8	401.8	187.4	402.8	202.2
60~80% 미만	334.4	70.0	408.8	189.3	406.6	208.1
80~100% 미만	295.6	72.6	383.2	196.3	382.3	215.6
100~120% 미만	271.5	70.4	366.4	204.4	369.5	222.2
120~140% 미만	260.5	72.4	367.1	201.0	367.6	222.8
140~160% 미만	244.6	70.6	341.1	210.3	342.9	225.6
160% 이상	250.5	69.7	353.6	219.0	357.8	235.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3. 부부 성역할 인식

부부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7-5〉에서 제시한 4개의 문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73.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54.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56.3%이며,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9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경향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5년도에 조사된 문항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양육에 대한 책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있으며, 특히 영아 돌봄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큰 것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육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비해서 여성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유배우 여성(15~49세)의 부부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1) 아내는 자신의 경력 쌓기보다 남편 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15 8.7	45.0	40.1	6.2	100.0	(10,322)
	2018 8.0	37.8	44.4	9.8	100.0	(10,630)
(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 보는 것이다	2015 5.1	30.8	53.0	11.1	100.0	(10,322)
	2018 3.7	22.4	54.8	19.1	100.0	(10,630)
(3)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2015 14.2	51.3	31.8	2.7	100.0	(10,322)
	2018 10.1	46.2	36.4	7.3	100.0	(10,630)
(4)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2015 ¹⁾ 49.2	39.2	9.6	2.0	100.0	(11,009)
	2018 51.4	40.7	6.4	1.4	100.0	(10,630)

주: 1) 2015년 문항은 ‘영아(0~2세)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임.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6〉은 앞서 조사된 문항 중 첫 번째 문항 ‘아내는 자신의 경력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45.8%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음으로 나타났다. 동의하는 비율은 2015년 조사결과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현존 자녀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51.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 40대 다음으로 30세 미만의 가장 젊은 세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46.5%로 높게 나타났다.

〈표 7-6〉 '아내는 자신의 경력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8.7	45.0	40.1	6.2	100.0	(10,322)
전체(2018)	8.0	37.8	44.4	9.8	100.0	(10,630)
거주지($\chi^2=31.6^{***}$)						
대도시	7.2	37.0	45.4	10.4	100.0	(4,565)
중소도시	8.3	36.9	44.8	9.9	100.0	(4,535)
농촌	9.3	42.4	40.3	8.0	100.0	(1,529)
연령($\chi^2=31.6^{**}$)						
30세 미만	8.8	37.7	41.1	12.4	100.0	(560)
30~34세	6.2	35.6	47.1	11.1	100.0	(1,515)
35~39세	7.4	39.1	43.7	9.8	100.0	(2,573)
40~44세	8.0	37.0	45.7	9.3	100.0	(2,714)
45~49세	9.1	38.3	43.3	9.3	100.0	(3,268)
교육수준($\chi^2=292.926^{***}$)						
고졸 이하	12.0	42.9	37.8	7.3	100.0	(3,796)
대졸	6.0	35.4	47.9	10.7	100.0	(6,312)
대학원졸	3.1	28.9	50.2	17.9	100.0	(522)
현존 자녀수($\chi^2=69.6^{***}$)						
0명	6.0	30.7	48.2	15.1	100.0	(754)
1명	7.6	36.5	44.5	11.5	100.0	(2,771)
2명	8.2	38.5	44.3	9.1	100.0	(5,700)
3명 이상	9.0	41.1	42.9	7.0	100.0	(1,405)
취업 여부($\chi^2=171.1^{***}$)						
취업	6.9	33.5	48.1	11.5	100.0	(6,095)
비취업	9.4	43.5	39.5	7.6	100.0	(4,535)
가구소득($\chi^2=146.5^{***}$)						
60% 미만	11.9	42.5	38.0	7.5	100.0	(770)
60~80% 미만	9.4	42.3	39.8	8.5	100.0	(1,720)
80~100% 미만	8.0	39.9	43.3	8.7	100.0	(2,011)
100~120% 미만	8.0	39.5	44.2	8.3	100.0	(1,852)
120~140% 미만	6.9	34.8	47.9	10.4	100.0	(1,456)
140~160% 미만	8.1	33.6	46.2	12.1	100.0	(988)
160% 이상	5.7	32.0	49.2	13.1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밖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 여성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경

우 54.9%가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경력을 우선시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학력의 여성일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본인의 경력개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비취업인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문항에 동의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비취업상태일 수도 있으며, 비취업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의 경력을 더욱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비취업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소득수준도 낮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할 경우 가계소득과 연계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에 따르면 여전히 농촌지역 거주자,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서는 남편 경력을 우선시하는 고정관념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7-7〉은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해당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26.1%로 나타나 타 문항에 비해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35.9%에서 약 10%포인트 감소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현존 자녀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30.6%로 대도시(25.6%)나 중소도시(25.1%)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30세 미만 그룹과 40~44세 그룹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5.1	30.8	53.0	11.1	100.0	(10,322)
전체(2018)	3.7	22.4	54.8	19.1	100.0	(10,630)
거주지($\chi^2=29.1^{***}$)						
대도시	3.1	22.5	55.3	19.2	100.0	(4,565)
중소도시	3.8	21.3	55.2	19.6	100.0	(4,535)
농촌	5.2	25.4	52.2	17.2	100.0	(1,529)
연령($\chi^2=84.8^{***}$)						
30세 미만	4.1	21.1	50.3	24.5	100.0	(560)
30~34세	2.4	18.7	55.2	23.7	100.0	(1,515)
35~39세	3.5	22.5	54.4	19.6	100.0	(2,573)
40~44세	3.4	21.3	56.5	18.8	100.0	(2,714)
45~49세	4.6	25.2	54.3	15.9	100.0	(3,268)
교육수준($\chi^2=240.9^{***}$)						
고졸 이하	6.0	26.9	53.0	14.1	100.0	(3,796)
대졸	2.5	20.2	56.0	21.2	100.0	(6,312)
대학원졸	2.1	15.5	52.9	29.5	100.0	(522)
현존 자녀수($\chi^2=74.8^{***}$)						
0명	3.2	15.7	54.7	26.5	100.0	(754)
1명	3.6	21.3	54.4	20.7	100.0	(2,771)
2명	3.5	22.7	55.5	18.3	100.0	(5,700)
3명 이상	4.8	26.8	53.1	15.3	100.0	(1,405)
취업 여부($\chi^2=300.3^{***}$)						
취업	3.0	17.1	57.2	22.6	100.0	(6,095)
비취업	4.6	29.5	51.5	14.4	100.0	(4,535)
가구소득($\chi^2=196.9^{***}$)						
60% 미만	4.9	32.2	48.9	14.0	100.0	(770)
60~80% 미만	4.8	24.8	55.5	14.9	100.0	(1,720)
80~100% 미만	3.9	25.4	52.9	17.8	100.0	(2,011)
100~120% 미만	3.5	24.1	54.3	18.1	100.0	(1,852)
120~140% 미만	3.2	18.5	58.3	19.9	100.0	(1,456)
140~160% 미만	3.6	18.9	55.6	21.9	100.0	(988)
160% 이상	2.6	16.0	55.9	25.5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밖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취업 여성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경우 32.9%가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학력의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본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취업인 경우에는 앞서 조사된 문항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대한 성역할 관념에 동의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비취업상태일 수도 있으며, 비취업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표 7-8〉은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56.3%로 앞서 분석한 문항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현존 자녀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취업 여성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경우 59.4%가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반면, 대학원졸의 경우 4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다른 항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동의하는 비율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타 문항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더욱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러한 인식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7-8〉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 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14.2	51.3	31.8	2.7	100.0	(10,322)
전체(2018)	10.1	46.2	36.4	7.3	100.0	(10,630)
거주지($\chi^2=6.8$)						
대도시	9.6	46.7	36.0	7.7	100.0	(4,565)
중소도시	10.2	45.5	37.2	7.0	100.0	(4,535)
농촌	11.1	46.8	35.3	6.8	100.0	(1,529)
연령($\chi^2=38.4^{***}$)						
30세 미만	10.4	41.7	38.2	9.7	100.0	(560)
30~34세	9.6	43.3	38.3	8.8	100.0	(1,515)
35~39세	11.3	45.2	35.7	7.7	100.0	(2,573)
40~44세	9.1	47.1	36.6	7.2	100.0	(2,714)
45~49세	10.2	48.4	35.6	5.8	100.0	(3,268)
교육수준($\chi^2=62.9^{***}$)						
고졸 이하	12.2	47.2	34.9	5.7	100.0	(3,796)
대졸	9.1	46.0	36.9	7.9	100.0	(6,312)
대학원졸	6.3	41.6	41.6	10.4	100.0	(522)
현존 자녀수($\chi^2=51.7^{***}$)						
0명	7.3	37.9	44.1	10.7	100.0	(754)
1명	10.9	46.1	35.4	7.7	100.0	(2,771)
2명	10.3	47.0	35.8	6.9	100.0	(5,700)
3명 이상	9.5	47.9	36.6	6.0	100.0	(1,405)
취업 여부($\chi^2=48.6^{***}$)						
취업	9.0	44.7	38.2	8.1	100.0	(6,095)
비취업	11.6	48.3	34.0	6.2	100.0	(4,535)
가구소득($\chi^2=50.2^{***}$)						
60% 미만	14.1	45.3	33.9	6.6	100.0	(770)
60~80% 미만	11.4	46.3	36.5	5.8	100.0	(1,720)
80~100% 미만	10.2	47.6	35.3	6.9	100.0	(2,011)
100~120% 미만	10.7	46.3	36.1	6.9	100.0	(1,852)
120~140% 미만	8.5	47.2	36.3	8.0	100.0	(1,456)
140~160% 미만	9.0	46.9	36.4	7.6	100.0	(988)
160% 이상	8.3	43.7	39.0	9.0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9〉는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라는 문
항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이다.

〈표 7-9〉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 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2015) ¹⁾	49.2	39.2	9.6	2.0	100.0	(11,009)
전체(2018)	51.4	40.7	6.4	1.4	100.0	(10,630)
거주지($\chi^2=6.1$)						
대도시	52.0	39.9	6.7	1.5	100.0	(4,565)
중소도시	50.8	41.3	6.4	1.5	100.0	(4,535)
농촌	51.8	41.5	5.8	0.9	100.0	(1,529)
연령($\chi^2=101.6^{***}$)						
30세 미만	40.2	46.7	9.4	3.7	100.0	(560)
30~34세	46.4	42.7	9.0	1.8	100.0	(1,515)
35~39세	51.3	40.6	6.6	1.5	100.0	(2,573)
40~44세	53.0	39.9	5.7	1.3	100.0	(2,714)
45~49세	54.5	39.5	5.2	0.8	100.0	(3,268)
교육수준($\chi^2=56.6^{***}$)						
고졸 이하	55.6	37.9	5.4	1.2	100.0	(3,796)
대졸	49.7	42.0	6.9	1.4	100.0	(6,312)
대학원졸	43.1	45.5	8.6	2.7	100.0	(522)
현존 자녀수($\chi^2=105.7^{***}$)						
0명	35.6	51.2	10.5	2.6	100.0	(754)
1명	50.2	41.1	7.0	1.7	100.0	(2,771)
2명	53.7	39.3	5.8	1.1	100.0	(5,700)
3명 이상	53.2	39.9	5.7	1.2	100.0	(1,405)
취업 여부($\chi^2=55.3^{***}$)						
취업	48.8	42.1	7.5	1.6	100.0	(6,095)
비취업	55.0	38.8	5.1	1.1	100.0	(4,535)
가구소득($\chi^2=25.7$)						
60% 미만	53.4	39.2	5.7	1.7	100.0	(770)
60~80% 미만	54.1	39.0	5.8	1.0	100.0	(1,720)
80~100% 미만	52.6	39.9	6.2	1.3	100.0	(2,011)
100~120% 미만	52.4	40.3	6.2	1.1	100.0	(1,852)
120~140% 미만	48.7	42.5	7.0	1.8	100.0	(1,456)
140~160% 미만	50.3	41.4	7.2	1.1	100.0	(988)
160% 이상	48.7	42.4	7.0	1.9	100.0	(1,832)

* p<0.05, ** p<0.01, *** p<0.001

주: 1) 2015년 문항은 '영아(0~2세)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임.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당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92.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

준, 현존 자녀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취업인 경우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체로 20대, 고학력, 무자녀의 경우만 90% 미만의 동의 수준을 보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2살 미만의 영아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항목과 매우 다른 결과로, 여전히 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 경향이 크고 특히 영아돌봄은 전적으로 엄마의 역할이라는 데에 크게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다만, 해당 문항이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비교하는 단어가 없이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간 성 역할인식에 대한 4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에 관한 성 역할관념보다 자녀 돌봄과 양육에 대한 성 역할 관념이 아직까지는 더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절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돌봄

미취학 자녀가 있는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희망 돌봄 유형, 실제 돌봄 유형,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은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1. 주간 돌봄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곳·사람

〈표 7-10〉은 주간에 돌봄을 위해 이용을 희망하는 곳(사람)을 연령별

로 분석한 결과로, 0세아의 경우 66.9%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15.3%가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아의 경우에는 부모돌봄 희망 비율이 34.9%로 낮아지는 반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속화되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85%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국공립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이외에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며, 친인척 돌봄에는 조부모를 포함한 기타 친인척이 해당되며, 기타에는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방문교육,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이 포함된다.

〈표 7-10〉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 희망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3.9	28.3	19.6	4.4	3.8	100.0	(5,399)
0세	15.3	5.7	66.9	8.8	3.3	100.0	(667)
1세	29.9	23.3	34.9	7.7	4.2	100.0	(716)
2세	43.3	33.4	15.7	4.5	3.1	100.0	(815)
3세	52.2	31.5	9.3	3.5	3.6	100.0	(895)
4세	53.0	32.7	7.7	2.3	4.3	100.0	(868)
5세	54.5	33.2	5.7	2.4	4.3	100.0	(865)
6세 이상	54.5	33.2	5.7	2.4	4.3	100.0	(573)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0~2세 영아와 3세~미취학 유아로 구분하여 가구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11〉, 〈표 7-12〉이다. 영아의 경우 희망하는 돌봄 유형은 거주지,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자녀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희망 비율이 타 지역보다 다소 높으며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민간시설 이용 희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 돌봄 희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타 유형의 돌봄에는 규칙적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민간시설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취업한 경우 시설돌봄과 친인척 돌봄에 대한 희망 비율이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높은 반면 비취업인 경우에는 부모 돌봄 희망 비율이 다소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누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우선으로 희망하지는 않으며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시설의 시설환경,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따른 선호도일 가능성이 있다.

〈표 7-11〉 0~2세 자녀의 희망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0.4	21.7	37.5	6.9	3.5	100.0	(2,199)
거주지($\chi^2=32.5^{***}$)							
대도시	32.6	17.3	38.3	7.4	4.5	100.0	(998)
중소도시	30.1	26.4	34.8	6.1	2.7	100.0	(867)
농촌	25.0	22.6	42.0	7.5	2.8	100.0	(335)
연령							
30세 미만	23.4	26.0	40.9	7.1	2.7	100.0	(369)
30~34세	29.5	20.0	38.5	7.9	4.2	100.0	(889)
35~39세	33.9	20.5	36.2	6.2	3.2	100.0	(736)
40~44세	33.6	26.0	32.2	4.1	4.0	100.0	(195)
45~49세	49.0	19.4	19.4	12.3	-	100.0	(11)
교육수준($\chi^2=22.9^{**}$)							
고졸 이하	30.3	22.4	40.5	4.3	2.5	100.0	(478)
대졸	29.9	22.4	36.5	7.2	3.9	100.0	(1,583)
대학원졸	37.3	10.7	37.7	11.5	2.8	100.0	(138)

〈표 7-11〉 계속

구 분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0세~초등학생 자녀수($\chi^2=29.0^{***}$)							
1명	30.1	19.2	39.5	8.5	2.6	100.0	(925)
2명	32.1	22.5	34.8	6.3	4.3	100.0	(1,035)
3명 이상	24.3	27.8	41.2	2.9	3.8	100.0	(239)
취업 여부($\chi^2=69.0^{***}$)							
취업	32.1	25.1	28.4	10.7	3.7	100.0	(853)
비취업	29.4	19.5	43.2	4.5	3.4	100.0	(1,346)
가구소득($\chi^2=77.7^{***}$)							
60% 미만	29.8	20.7	44.0	3.1	2.4	100.0	(239)
60~80% 미만	30.4	22.1	40.1	4.6	2.9	100.0	(548)
80~100% 미만	29.4	24.9	37.0	6.1	2.5	100.0	(445)
100~120% 미만	33.6	24.0	32.0	7.0	3.2	100.0	(324)
120~140% 미만	30.8	21.6	39.5	5.0	3.1	100.0	(227)
140~160% 미만	35.2	17.4	29.8	12.5	5.1	100.0	(125)
160% 이상	26.6	16.1	35.8	14.3	7.3	100.0	(291)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7-12〉는 3세 이상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로 교육수준,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희망 주간 돌봄 유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국공립 희망 비율이 높고 취업모일수록 민간시설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공립 이용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상위그룹에서는 친인척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0-2세 영아와 마찬가지로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국공립 희망 경향이 높은 이용자 특성은 영아기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영아의 경우 취업모가 국공립 희망 비율이 높았다면 유아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3세 이상의 유아기에는 유아교

육적인 욕구에 따라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민간시설에 포함됨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된다.

〈표 7-12〉 3세~취학 전 자녀의 희망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53.1	32.9	7.3	2.6	4.1	100.0	(3,201)
거주지($\chi^2=14.3$)							
대도시	54.7	31.8	6.5	2.2	4.9	100.0	(1,317)
중소도시	50.8	34.6	7.8	2.9	3.9	100.0	(1,349)
농촌	55.2	31.0	8.0	3.2	2.5	100.0	(536)
연령($\chi^2=21.0$)							
30세 미만	49.0	41.1	4.4	1.9	3.6	100.0	(180)
30~34세	55.0	32.4	6.7	2.3	3.6	100.0	(792)
35~39세	53.1	31.8	7.9	2.8	4.3	100.0	(1,549)
40~44세	52.9	32.3	6.8	3.3	4.6	100.0	(587)
45~49세	46.5	41.5	10.6	-	1.4	100.0	(94)
교육수준($\chi^2=22.8^{**}$)							
고졸 이하	55.1	32.7	7.5	2.5	2.2	100.0	(853)
대졸	52.8	33.0	7.2	2.4	4.6	100.0	(2,157)
대학원졸	48.0	32.3	7.2	6.0	6.4	100.0	(192)
0세~초등학교 자녀수($\chi^2=8.8$)							
1명	52.8	31.2	8.3	3.5	4.3	100.0	(738)
2명	52.6	33.8	7.3	2.2	4.1	100.0	(1,928)
3명 이상	55.5	31.8	5.9	3.1	3.6	100.0	(536)
취업 여부($\chi^2=21.1^{***}$)							
취업	52.2	33.1	6.7	3.9	4.1	100.0	(1,597)
비취업	54.0	32.7	7.9	1.4	4.1	100.0	(1,606)
가구소득($\chi^2=93.6^{***}$)							
60% 미만	60.9	29.5	5.6	0.6	3.5	100.0	(243)
60~80% 미만	58.2	28.8	9.8	1.3	1.9	100.0	(675)
80~100% 미만	55.3	33.4	6.6	1.4	3.4	100.0	(657)
100~120% 미만	49.6	36.9	5.9	4.0	3.6	100.0	(551)
120~140% 미만	49.6	37.5	6.9	3.2	2.9	100.0	(377)
140~160% 미만	47.7	35.0	7.3	3.6	6.4	100.0	(230)
160% 이상	48.5	30.3	7.7	4.7	8.8	100.0	(469)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간 돌봄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주간 돌봄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곳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13>과 같다. 0세아의 경우 88.5%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시설 이용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앞서 분석한 희망 시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희망 시설과 실제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영역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7-13>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 실제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16.3	59.5	20.1	1.9	2.2	100.0	(5,403)
0세	0.3	4.9	88.5	4.9	1.3	100.0	(667)
1세	6.4	36.5	48.1	6.8	2.1	100.0	(717)
2세	11.5	72.2	12.9	2.0	1.5	100.0	(816)
3세	17.6	77.0	3.2	0.6	1.7	100.0	(894)
4세	21.0	75.5	0.9	0.1	2.4	100.0	(870)
5세	26.2	69.6	0.5	-	3.7	100.0	(866)
6세 이상	29.7	66.8	0.5	-	3.0	100.0	(573)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가구 특성에 따라 0~2세 유아의 주간 실제 돌봄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7-14>와 같다. 거주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가구소득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민간시설 이용 비율이 다소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 돌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0~2세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사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6.5	40.2	47.3	4.5	1.6	100.0	(2,199)
거주지($\chi^2=39.0^{***}$)							
대도시	8.0	35.7	47.9	6.0	2.4	100.0	(998)
중소도시	4.3	45.3	46.3	3.0	1.1	100.0	(867)
농촌	7.4	40.2	48.2	3.7	0.5	100.0	(335)
연령							
30세 미만	2.8	39.7	53.8	3.1	0.5	100.0	(369)
30~34세	5.6	37.8	48.9	5.3	2.4	100.0	(889)
35~39세	8.6	41.2	44.5	4.2	1.5	100.0	(736)
40~44세	9.1	46.4	39.8	3.8	0.9	100.0	(195)
45~49세	-	61.2	26.5	12.3	-	100.0	(11)
교육수준($\chi^2=29.4^{***}$)							
고졸 이하	6.6	38.2	52.3	2.1	0.8	100.0	(478)
대졸	6.1	41.5	46.0	4.7	1.7	100.0	(1,583)
대학원졸	10.1	31.8	44.3	9.8	4.0	100.0	(138)
0세~초등 재학 재취($\chi^2=18.7^*$)							
1명	5.3	37.2	50.2	5.2	2.1	100.0	(925)
2명	7.2	43.4	43.8	4.2	1.4	100.0	(1,035)
3명 이상	7.5	37.8	51.1	2.9	0.6	100.0	(239)
취업 여부($\chi^2=244.0^{***}$)							
취업	9.1	49.0	29.4	10.2	2.4	100.0	(853)
비취업	4.8	34.6	58.7	0.8	1.1	100.0	(1,346)
가구소득($\chi^2=148.2^{***}$)							
60% 미만	3.6	37.0	59.4	-	-	100.0	(239)
60~80% 미만	4.9	41.1	52.1	1.1	0.7	100.0	(548)
80~100% 미만	7.0	40.8	47.9	3.6	0.8	100.0	(445)
100~120% 미만	8.5	42.1	41.9	5.8	1.7	100.0	(324)
120~140% 미만	7.5	43.7	41.2	5.8	1.7	100.0	(227)
140~160% 미만	5.4	45.2	34.4	14.4	0.5	100.0	(125)
160% 이상	8.2	32.9	43.7	8.9	6.2	100.0	(291)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모인 경우 민간시설을 포함한 시설 이용 비율과 친인척 이용 비율이 높고 비취업모인 경우 부모 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희망 돌봄 유형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최고 소득구간을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돌봄 비율이 감소하고 민간시설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소득 구간의 경우 기타 비율이 타 소득구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그룹이 베이비시터와 같은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국공립 이용 비율은 전체 평균 6.5%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상 유아의 실제 돌봄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7-15>와 같다. 3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0~2세 영아와 달리 응답자 특성에 따른 돌봄 유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설 이용률이 영아기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민간시설 이용률은 72.8%로 국공립시설 이용률 23.0%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3세~취학 전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23.0	72.8	1.4	0.2	2.6	100.0	(3,201)
거주지							
대도시	21.7	73.2	1.3	0.2	3.6	100.0	(1,317)
중소도시	20.6	75.2	1.4	0.2	2.6	100.0	(1,349)
농촌	32.2	65.9	1.4	0.1	0.4	100.0	(536)
연령							
30세 미만	19.5	77.8	0.9	-	1.8	100.0	(180)
30~34세	21.6	74.6	1.3	0.2	2.2	100.0	(792)
35~39세	23.5	72.4	1.3	0.2	2.7	100.0	(1,549)
40~44세	24.6	70.2	1.7	0.2	3.3	100.0	(587)
45~49세	23.0	72.4	2.3	-	2.3	100.0	(94)
교육수준							
고졸 이하	23.0	74.7	1.3	-	1.0	100.0	(853)
대졸	22.8	72.7	1.5	0.2	2.8	100.0	(2,157)
대학원졸	25.1	66.0	0.8	0.6	7.6	100.0	(192)

〈표 7-15〉 계속

구 분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0세~초등학생 자녀수							
1명	20.2	75.5	1.2	0.4	2.6	100.0	(738)
2명	22.1	73.6	1.3	0.1	2.8	100.0	(1,928)
3명 이상	30.1	66.0	1.9	-	2.0	100.0	(536)
취업 여부							
취업	24.9	71.7	0.4	0.3	2.7	100.0	(1,597)
비취업	21.1	73.9	2.4	0.1	2.6	100.0	(1,606)
가구소득							
60% 미만	28.6	69.8	1.6	-	-	100.0	(243)
60~80% 미만	22.4	74.6	2.5	-	0.6	100.0	(675)
80~100% 미만	23.3	73.5	1.9	0.3	1.1	100.0	(657)
100~120% 미만	20.2	76.6	1.0	0.1	2.1	100.0	(551)
120~140% 미만	23.0	74.5	0.5	-	2.0	100.0	(377)
140~160% 미만	26.0	68.5	1.3	-	4.3	100.0	(230)
160% 이상	22.5	67.1	0.2	0.6	9.5	100.0	(469)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돌봄 유형 선호와 실제 일치도 및 만족도

앞서 분석한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7-16〉, 〈표 7-17〉과 같다. 영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 이용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며 49.6%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82.7%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81.9%가 실제로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인척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4.7%만 실제로 친인척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0~2세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계	(명)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6.4	40.2	47.3	4.5	1.6	100.0	(2,198)
희망하는 곳(사람)							
국공립	16.7	49.6	30.0	2.8	0.9	100.0	(670)
민간시설	1.3	82.7	14.1	1.5	0.4	100.0	(475)
부모	1.7	11.4	81.9	3.6	1.3	100.0	(825)
친인척	4.0	28.0	40.7	24.7	2.7	100.0	(150)
기타	3.8	28.2	44.9	6.4	16.7	100.0	(78)

주: 1)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2)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36.5%로 영아기보다는 실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62.0%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시설을 희망하는 유아의 95.3%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이나 부모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타 유형을 희망하는 경우 34.6%는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의 경우 사례 수가 적은 다양한 유형의 돌봄이 통합된 것으로 기타 유형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7-17〉 3세~취학 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계	(명)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23.0	72.8	1.4	0.2	2.7	100.0	(3,202)
희망하는 곳 (사람)							
국공립	36.5	62.0	0.6	0.1	0.8	100.0	(1,701)
민간시설	2.6	95.3	0.8	-	1.4	100.0	(1,053)
부모	22.2	63.2	9.8	0.9	3.8	100.0	(234)
친인척	20.2	72.6	2.4	1.2	3.6	100.0	(84)
기타	15.4	49.2	0.8	-	34.6	100.0	(130)

주: 1)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2)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비해서 돌봄 희망유형과 실제 이용 유형의 일치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공립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일치도가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 7-18>, <표 7-19>와 같다. 영아기와 3세 이상 유아기의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2%, 5.5%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자신이 이용하는 돌봄 유형은 본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족 비율이 그리 높지 않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0~2세 영아의 경우, 실제 돌봄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만 있을 뿐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한다(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고 부모돌봄에 대한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6.4%,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60.8%로 조사되었다.

<표 7-18> 0~2세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전체	16.4	60.8	16.6	5.6	0.6	100.0	(2,199)
실제 돌봄 유형($\chi^2=60.1^{***}$)							
국공립 시설	18.3	68.9	9.3	3.1	0.4	100.0	(142)
민간시설	12.8	64.9	17.0	4.8	0.5	100.0	(883)
부모돌봄	17.0	58.6	17.0	6.9	0.5	100.0	(1,040)
친인척 돌봄	32.4	41.7	19.8	4.6	1.6	100.0	(98)
기타	34.5	46.5	13.7	2.6	2.7	100.0	(36)
거주지($\chi^2=4.6$)							
대도시	15.1	60.9	17.5	5.8	0.6	100.0	(998)
중소도시	17.3	60.8	15.8	5.7	0.4	100.0	(867)
농촌	17.6	60.9	15.7	4.9	0.9	100.0	(335)

〈표 7-18〉 계속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연령							
30세 미만	22.6	57.4	14.4	4.8	0.8	100.0	(369)
30~34세	16.4	60.2	16.9	6.2	0.2	100.0	(889)
35~39세	14.3	62.5	17.7	5.0	0.4	100.0	(736)
40~44세	13.2	62.6	15.3	7.4	1.5	100.0	(195)
45~49세	-	81.3	7.1	-	11.6	100.0	(11)
교육수준($\chi^2=8.4$)							
고졸 이하	18.2	59.1	16.2	5.8	0.8	100.0	(478)
대졸	15.7	61.5	16.5	5.9	0.4	100.0	(1,583)
대학원졸	18.5	59.5	18.3	2.3	1.5	100.0	(138)
0세~초등학생 자녀수($\chi^2=12.2$)							
1명	18.3	58.5	16.3	6.1	0.8	100.0	(925)
2명	14.2	62.6	16.9	5.8	0.5	100.0	(1,035)
3명 이상	18.2	62.3	16.1	3.4	-	100.0	(239)
취업 여부($\chi^2=4.96$)							
취업	17.0	62.2	14.8	5.2	0.8	100.0	(853)
비취업	16.0	60.0	17.7	5.9	0.4	100.0	(1,346)
가구소득							
60% 미만	18.2	58.1	18.6	4.5	0.6	100.0	(239)
60~80% 미만	16.3	62.3	15.7	5.2	0.4	100.0	(548)
80~100% 미만	13.3	61.5	17.1	7.9	0.3	100.0	(445)
100~120% 미만	13.9	63.4	18.1	4.3	0.4	100.0	(324)
120~140% 미만	17.4	59.6	16.6	5.9	0.5	100.0	(227)
140~160% 미만	20.8	60.1	11.0	7.4	0.7	100.0	(125)
160% 이상	19.8	57.8	16.3	4.5	1.5	100.0	(291)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영아기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영아기에는 실제 돌봄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만 있을 뿐 응답자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유아기에는 거주지, 취업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한 경우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실제 돌봄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3세~취학 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전체	14.9	63.5	16.1	5.0	0.5	100.0	(3,201)
실제 돌봄 유형							
국공립 시설	20.9	62.3	12.2	4.0	0.6	100.0	(737)
민간시설	12.9	64.2	17.5	5.0	0.3	100.0	(2,332)
부모돌봄	10.7	56.5	17.3	10.4	5.0	100.0	(44)
친인척 돌봄	-	72.2	27.8	-	-	100.0	(5)
기타	20.8	56.0	10.7	8.9	3.6	100.0	(85)
거주지($\chi^2=21.1^{**}$)							
대도시	12.0	65.9	16.2	5.2	0.7	100.0	(1,317)
중소도시	17.5	61.3	15.7	5.3	0.3	100.0	(1,349)
농촌	15.6	63.2	16.9	3.7	0.6	100.0	(536)
연령							
30세 미만	17.7	59.3	16.3	3.5	3.3	100.0	(180)
30~34세	16.0	63.0	15.8	5.2	0.1	100.0	(792)
35~39세	13.6	64.2	16.4	5.3	0.4	100.0	(1,549)
40~44세	16.5	63.5	15.3	4.1	0.6	100.0	(587)
45~49세	11.9	63.3	19.1	5.7	-	100.0	(94)
교육수준($\chi^2=5.9$)							
고졸 이하	15.8	63.9	14.6	5.0	0.7	100.0	(853)
고졸	14.2	63.6	16.8	4.9	0.5	100.0	(2,157)
대학원졸	18.4	60.3	14.8	6.0	0.5	100.0	(192)
0세~초등 학생 자녀수($\chi^2=4.6$)							
1명	15.4	62.7	15.3	6.2	0.5	100.0	(738)
2명	14.4	64.0	16.5	4.6	0.5	100.0	(1,928)
3명 이상	16.1	62.7	15.9	4.8	0.5	100.0	(536)
취업 여부($\chi^2=13.7^{**}$)							
취업	15.4	61.1	16.7	6.2	0.6	100.0	(1,597)
비취업	14.4	65.8	15.6	3.8	0.5	100.0	(1,606)
가구소득							
60% 미만	16.9	62.7	17.2	2.3	0.8	100.0	(243)
60~80% 미만	13.0	66.6	14.9	5.2	0.3	100.0	(675)
80~100% 미만	13.1	63.1	18.9	4.8	0.1	100.0	(657)
100~120% 미만	16.0	62.6	15.2	5.9	0.3	100.0	(551)
120~140% 미만	15.7	64.9	14.3	4.7	0.5	100.0	(377)
140~160% 미만	18.5	56.8	17.9	6.0	0.9	100.0	(230)
160% 이상	15.4	63.1	15.2	4.8	1.5	100.0	(469)

* p<0.05, ** p<0.01, *** p<0.001

추: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 4)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만족도 문항에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0~2세 영아기의 경우 본인 장시간 돌봄이 주된 불만족 이유로 조사되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장시간 돌봄이 주된 불만족 사유라고 응답한 경우의 77%는 현재 부모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로 조사되었다. 뒤를 이어 불만족 사유로 조사된 항목은 희망서비스 부재로 해당 항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0〉 0~2세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시설이용 비용부담	개별돌봄 비용부담	희망 서비스 부재	서비스 불만	본인 장시간 돌봄	짧은 시설돌봄 시간	기타	계 (%)
전체	5 (3.6)	13 (9.5)	17 (12.4)	14 (10.2)	79 (57.7)	7 (5.1)	2 (1.5)	137 (100.0)
아동 연령								
0세	-	6	2	1	36	-	-	45
1세	2	4	7	5	29	1	1	49
2세	3	3	9	7	14	6	1	43
실제 돌봄 유형								
국공립시설	-	-	2	1	-	2	1	6
민간시설	4	4	8	10	16	4	1	47
부모돌봄	1	8	5	1	61	-	-	76
친인척돌봄	-	-	2	2	1	1	-	6
기타	-	1	-	-	1	-	-	2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본인이 장시간 돌봐야 하는 것(22.6%)과 짧은 시설돌봄 시간(2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모두 양육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밖에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비해서 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시설 이용, 개별 돌봄 이용)은 26.5%로 주된 불만족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희망서비스 부재 때문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8%로 영아기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불만족 사례가 적어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7-21〉 3세~취학 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시설이용 비용부담	개별돌봄 비용부담	희망 서비스 부재	서비스 불만	본인 장시간 돌봄	짧은 시설돌봄 시간	기타	계 (%)
전체	28 (15.8)	19 (10.7)	28 (15.8)	20 (11.3)	40 (22.6)	39 (22.0)	3 (1.7)	177 (100.0)
아동 연령								
3세	4	5	7	2	16	12	1	47
4세	9	5	8	10	6	12	-	50
5세	8	7	9	5	9	12	2	52
6세이상 미취학	6	2	4	3	8	3	-	26
실제 돌봄 유형								
국공립시설	1	3	7	1	6	15	1	34
민간시설	25	15	17	18	25	23	2	125
부모돌봄	-	-	1	-	6	-	-	7
친인척돌봄	-	-	-	-	-	-	-	-
기타	2	1	3	1	3	1	-	1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초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돌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희망 돌봄 유형, 실제 돌봄 유형,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은 아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1. 주간 돌봄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곳·사람

〈표 7-22〉는 주간 돌봄을 위해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조사한 결과로, 1학년의 경우 48.6%가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당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설교육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1학년에 30.3%에서 3학년에 41.7%, 6학년 54.7%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의 경우 공공인프라 희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분석에서 공공인프라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복지관·주민센터·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사설교육기관은 사설 학원, 공부방, 방문교육 및 과외 등이 해당된다. 기타에는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이 포함된다.

〈표 7-22〉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별 희망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7.5	7.1	41.8	10.6	2.3	0.7	100.0	(5,021)
1학년	48.6	5.7	30.3	11.5	3.0	0.9	100.0	(880)
2학년	45.3	5.9	34.1	11.3	2.5	1.0	100.0	(886)
3학년	37.3	7.0	41.7	12.2	1.4	0.4	100.0	(810)
4학년	35.1	8.0	44.8	9.2	2.2	0.7	100.0	(852)
5학년	31.4	7.4	47.4	9.9	3.0	0.9	100.0	(822)
6학년	25.4	8.6	54.7	9.5	1.6	0.3	100.0	(771)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초등학교 1~3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23〉, 〈표 7-24〉이다. 1~3학년의 경우 희망하는 돌봄 유형은 교육수준,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취업 여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초등돌봄·방과후 이용, 사설교육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부

모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 부담이 증가하여 부모 돌봄 희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부모 돌봄 희망과 공공인프라 이용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23〉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희망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실교육 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3.9	6.2	35.2	11.7	2.3	0.8	100.0	(2,575)
거주지($\chi^2=13.6$)								
대도시	45.6	5.8	33.0	12.1	2.2	1.3	100.0	(1,076)
중소도시	42.0	6.7	36.8	11.6	2.4	0.5	100.0	(1,096)
농촌	44.4	5.7	37.0	10.8	2.1	-	100.0	(403)
연령								
30세 미만	58.7	2.9	22.3	7.3	6.5	2.4	100.0	(42)
30~34세	45.0	8.5	32.3	10.8	2.6	0.8	100.0	(263)
35~39세	46.4	5.6	34.8	10.5	1.7	0.9	100.0	(1,153)
40~44세	40.1	6.8	37.1	12.7	2.5	0.7	100.0	(867)
45~49세	41.8	4.4	36.0	14.9	3.0	-	100.0	(250)
교육수준($\chi^2=25.6^{**}$)								
고졸 이하	42.2	6.6	39.3	9.5	1.2	1.2	100.0	(829)
대졸	45.1	5.9	33.4	12.3	2.7	0.5	100.0	(1,605)
대학원졸	40.4	6.2	31.7	16.9	4.0	0.7	100.0	(140)
0세~초등학생 자녀수($\chi^2=26.2^{**}$)								
1명	41.2	5.9	33.8	15.6	2.6	1.0	100.0	(625)
2명	44.4	6.1	35.2	11.3	2.6	0.5	100.0	(1,486)
3명 이상	46.1	7.0	37.4	7.5	0.8	1.3	100.0	(465)
취업 여부($\chi^2=21.7^{**}$)								
취업	43.7	5.7	35.4	11.0	3.5	0.6	100.0	(1,364)
비취업	44.1	6.7	35.0	12.4	0.9	0.9	100.0	(1,211)
가구소득								
60% 미만	49.6	8.2	30.2	7.6	2.1	2.2	100.0	(189)
60~80% 미만	47.8	6.9	31.8	12.2	0.6	0.8	100.0	(458)
80~100% 미만	45.6	6.9	34.5	10.6	1.7	0.7	100.0	(533)
100~120% 미만	42.3	5.6	34.8	13.9	2.9	0.4	100.0	(461)
120~140% 미만	45.1	3.8	41.2	7.4	1.9	0.6	100.0	(341)
140~160% 미만	40.2	5.9	36.1	15.2	2.1	0.5	100.0	(205)
160% 이상	37.0	6.3	37.5	13.6	4.8	0.8	100.0	(388)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희망하는 돌봄 유형은 취업 여부에 따라서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부모 돌봄 희망과 사설교육기관 이용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친인척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가 비취업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표 7-24〉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희망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교육 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0.8	8.0	48.9	9.5	2.2	0.6	100.0	(2,442)
거주지($\chi^2=17.3$)								
대도시	29.5	6.4	50.4	9.8	3.0	1.0	100.0	(966)
중소도시	31.0	8.6	48.5	9.7	1.9	0.3	100.0	(1,092)
농촌	33.6	10.3	46.4	7.9	1.3	0.5	100.0	(384)
연령								
30세 미만	25.9	-	74.1	-	-	-	100.0	(6)
30~34세	30.4	9.8	48.1	8.1	3.5	-	100.0	(74)
35~39세	32.7	8.6	46.3	9.4	2.2	0.9	100.0	(663)
40~44세	28.9	7.9	50.6	10.0	2.2	0.3	100.0	(1,154)
45~49세	32.6	7.2	48.2	8.7	2.2	1.1	100.0	(546)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3	9.5	47.3	8.9	1.5	0.5	100.0	(869)
대졸	30.7	7.0	49.6	9.5	2.6	0.6	100.0	(1,449)
대학원졸	21.2	8.5	52.2	13.6	3.7	0.8	100.0	(124)
0세~초등학생 재취($\chi^2=11.1$)								
1명	30.0	8.0	49.0	9.5	2.7	0.8	100.0	(1,104)
2명	30.1	8.0	49.1	10.2	2.2	0.4	100.0	(1,022)
3명 이상	36.1	7.7	47.8	6.9	0.9	0.6	100.0	(317)
취업 여부($\chi^2=20.0^{***}$)								
취업	30.9	8.4	48.2	8.5	3.2	0.8	100.0	(1,423)
비취업	30.6	7.4	49.8	10.9	0.9	0.4	100.0	(1,020)
가구소득								
60% 미만	37.7	11.8	43.1	7.4	-	-	100.0	(138)
60~80% 미만	32.5	10.1	47.1	8.6	1.2	0.5	100.0	(355)
80~100% 미만	33.4	7.0	48.7	10.0	0.7	0.3	100.0	(483)
100~120% 미만	27.4	8.3	50.7	10.3	2.3	1.0	100.0	(461)
120~140% 미만	31.3	9.1	49.2	8.8	1.6	-	100.0	(359)
140~160% 미만	32.1	5.7	44.4	11.8	4.9	1.1	100.0	(214)
160% 이상	27.0	5.9	52.5	8.8	4.6	1.2	100.0	(43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간 돌봄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주간 돌봄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곳을 조사한 결과는 <표 7-25>와 같다. 평균적으로 초등돌봄·방과후를 이용하는 비율(41.8%)보다 사설교육기관 이용 비율(5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초등돌봄·방과후 이용 비율이 사설교육기관 이용 비율보다 높았으나 3학년부터는 사설교육기관 이용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초등돌봄·방과후 이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돌봄은 1~3학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나 4~6학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 돌봄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의 학습지도에 대한 수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25>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별 실제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교육 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1.8	2.2	52.3	2.7	0.3	0.7	100.0	(5,021)
1학년	55.5	2.0	38.5	3.4	0.2	0.3	100.0	(880)
2학년	53.1	1.7	42.0	2.5	0.1	0.6	100.0	(885)
3학년	42.2	2.8	52.5	1.8	0.2	0.4	100.0	(811)
4학년	38.6	2.2	55.5	2.5	0.6	0.6	100.0	(852)
5학년	32.3	2.4	61.1	2.9	0.2	1.0	100.0	(823)
6학년	26.4	2.2	66.8	3.4	0.1	1.2	100.0	(770)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7-26>과 같다. 전체적으로 초등돌봄·방과후 이용 비율은 50.5%이며 사설교육기관 이용 비율은 44.2%, 부모 돌봄 비율은 2.6%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모의 취업 여부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부모 돌봄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6〉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교육 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50.5	2.1	44.2	2.6	0.2	0.4	100.0	(2,575)
거주지								
대도시	53.3	1.9	42.8	1.3	0.2	0.4	100.0	(1,076)
중소도시	46.3	1.8	47.6	3.7	0.2	0.5	100.0	(1,096)
농촌	54.4	3.7	38.5	3.0	0.3	0.1	100.0	(403)
연령								
30세 미만	57.6	1.5	36.0	4.9	-	-	100.0	(42)
30~34세	51.1	3.6	41.5	3.8	-	-	100.0	(263)
35~39세	52.2	1.6	43.5	2.2	0.3	0.2	100.0	(1,153)
40~44세	47.9	1.5	47.3	2.6	0.2	0.5	100.0	(867)
45~49세	49.8	5.4	40.6	2.6	-	1.6	100.0	(250)
교육수준								
고졸 이하	49.9	4.0	41.9	3.5	0.2	0.6	100.0	(829)
대졸	51.0	1.2	45.1	2.2	0.2	0.3	100.0	(1,605)
대학원졸	48.0	1.5	47.7	2.0	-	0.7	100.0	(140)
0세~초등학생 자녀수								
1명	52.5	2.7	42.4	2.1	-	0.3	100.0	(625)
2명	48.9	1.6	46.5	2.3	0.3	0.4	100.0	(1,486)
3명 이상	52.9	3.2	39.1	4.2	-	0.6	100.0	(465)
취업 여부($\chi^2=24.2^{***}$)								
취업	50.5	2.6	44.4	1.5	0.4	0.7	100.0	(1,364)
비취업	50.5	1.6	44.0	3.8	-	0.2	100.0	(1,211)
가구소득								
60% 미만	62.7	5.7	27.6	3.3	-	0.7	100.0	(189)
60~80% 미만	55.0	2.2	37.3	5.1	0.1	0.2	100.0	(458)
80~100% 미만	50.0	2.9	44.2	2.6	-	0.4	100.0	(533)
100~120% 미만	48.5	1.2	47.3	2.4	-	0.7	100.0	(461)
120~140% 미만	50.8	1.6	46.1	0.6	0.6	0.3	100.0	(341)
140~160% 미만	45.9	0.3	50.6	3.1	-	-	100.0	(205)
160% 이상	44.3	1.9	51.6	1.0	0.6	0.6	100.0	(388)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4~6학년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학년과 마찬가지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7〉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교육 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2.7	2.3	61.0	2.9	0.3	0.9	100.0	(2,442)
거주지								
대도시	33.7	1.8	61.1	2.2	0.5	0.8	100.0	(966)
중소도시	29.4	1.8	64.1	3.4	0.2	1.1	100.0	(1,092)
농촌	39.4	5.0	51.8	3.0	0.1	0.7	100.0	(384)
연령								
30세 미만	42.3	-	57.7	-	-	-	100.0	(6)
30~34세	37.2	5.9	55.6	1.4	-	-	100.0	(74)
35~39세	34.1	2.4	59.5	2.3	0.5	1.1	100.0	(663)
40~44세	29.8	1.9	64.0	3.1	0.4	0.8	100.0	(1,154)
45~49세	36.1	2.5	57.1	3.4	-	1.0	100.0	(546)
교육수준								
고졸 이하	33.2	3.7	57.1	4.4	0.2	1.4	100.0	(869)
대졸	32.5	1.6	63.0	2.2	0.3	0.4	100.0	(1,449)
대학원졸	30.6	0.8	64.5	0.7	0.8	2.5	100.0	(124)
0세~초등학생 자녀수								
1명	30.3	2.1	63.2	3.3	0.5	0.6	100.0	(1,104)
2명	33.4	1.6	61.2	2.6	0.2	1.1	100.0	(1,022)
3명 이상	38.6	4.9	52.6	2.7	-	1.2	100.0	(317)
취업 여부($\chi^2=30.6^{***}$)								
취업	33.2	2.9	60.1	1.9	0.5	1.3	100.0	(1,423)
비취업	31.9	1.4	62.1	4.3	-	0.3	100.0	(1,020)
가구소득								
60% 미만	39.8	6.3	41.1	9.4	-	3.4	100.0	(138)
60~80% 미만	40.3	4.2	49.6	4.9	0.2	0.9	100.0	(355)
80~100% 미만	36.0	1.7	58.0	3.9	-	0.3	100.0	(483)
100~120% 미만	29.2	2.5	64.6	2.4	0.2	1.1	100.0	(461)
120~140% 미만	29.9	2.0	65.3	1.9	0.3	0.6	100.0	(359)
140~160% 미만	24.4	0.8	72.1	1.2	1.0	0.5	100.0	(214)
160% 이상	30.4	0.8	67.1	0.3	0.7	0.9	100.0	(43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모의 경우 초등돌봄·방과후 이용 비율이 높고 사설교육기관 이용 비율이 비취업모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사설교육기관 이용 비율이 61.0%로 저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돌봄 목적과 함께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3. 돌봄 유형 선호와 실제 일치도 및 만족도

앞서 분석한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7-28>, <표 7-29>와 같다.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75.6%로 돌봄 유형 중 일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사설교육기관 돌봄의 일치도는 71.0%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21.6%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24.8%로 조사되었다.

<표 7-28>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실제						계	(명)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교육 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50.5	2.1	44.2	2.6	0.2	0.4	100.0	(2,574)
희망하는 곳(사람)								
초등돌봄·방과후	75.6	0.6	21.6	1.7	0.1	0.4	100.0	(1,130)
공공인프라	41.5	20.8	35.2	1.9	-	0.6	100.0	(159)
사설교육기관	24.8	1.3	71.0	2.2	0.2	0.4	100.0	(907)
부모	41.7	1.0	49.3	7.3	0.7	-	100.0	(300)
친인척	39.0	-	61.0	-	-	-	100.0	(59)
기타	31.6	-	47.4	15.8	-	5.3	100.0	(19)

주: 1)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66.2%로 저학년보다 일치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설교육기관 이용에 대한 일치도는 81.4%로 돌봄 유형 중 일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29.6%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15.2%로 조사되었다.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보다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에 대한 일치도가 낮은 것은 고학년 대상의 초등돌봄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해된다.

〈표 7-29〉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실제						계	(명)
	초등돌봄·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교육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희망하는 곳 (사람)	32.6	2.3	61.0	2.9	0.3	0.9	100.0	(2,440)
초등돌봄·방과후	66.2	0.5	29.6	2.3	0.1	1.3	100.0	(751)
공공인프라	24.2	19.1	52.6	3.1	0.5	0.5	100.0	(194)
사설교육기관	15.2	0.4	81.4	2.3	0.1	0.6	100.0	(1,194)
부모	22.5	3.5	64.9	8.2	0.4	0.4	100.0	(231)
친인척	27.3	1.8	63.6	-	7.3	-	100.0	(55)
기타	20.0	-	53.3	13.3	-	13.3	100.0	(15)

주: 1)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아동용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 7-30〉, 〈표 7-31〉과 같다.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로 영유아기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학년의 경우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원 졸업의 경우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9.9%,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63.3%로 조사되었다.

〈표 7-30〉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전체	9.9	63.3	18.5	7.5	0.8	100.0	(2,575)
실제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10.7	63.6	17.6	7.2	0.8	100.0	(1,300)
공공인프라	26.1	60.7	9.5	3.6	-	100.0	(55)
시설교육기관	8.5	63.6	19.5	7.6	0.7	100.0	(1,138)
부모돌봄	2.3	66.6	19.6	8.9	2.5	100.0	(67)
친인척 돌봄	57.5	18.9	23.6	-	-	100.0	(5)
기타	-	9.7	37.8	40.4	12.1	100.0	(11)
거주지($\chi^2=10.1$)							
대도시	10.0	65.2	16.5	7.6	0.7	100.0	(1,076)
중소도시	9.7	60.8	21.1	7.5	0.9	100.0	(1,096)
농촌	10.4	65.2	16.4	7.0	1.0	100.0	(403)
연령							
30세 미만	11.4	69.9	9.9	7.3	1.5	100.0	(42)
30~34세	10.2	59.2	19.9	10.6	0.2	100.0	(263)
35~39세	10.0	65.3	16.6	7.2	1.0	100.0	(1,153)
40~44세	10.3	61.6	19.7	7.5	0.9	100.0	(867)
45~49세	7.9	63.4	22.8	5.4	0.5	100.0	(250)
교육수준($\chi^2=17.4^*$)							
고졸 이하	9.9	63.7	17.3	7.4	1.7	100.0	(829)
대졸	10.1	62.7	19.5	7.3	0.4	100.0	(1,605)
대학원졸	8.1	67.1	13.5	9.9	1.4	100.0	(140)
0세~초등학생 자녀수($\chi^2=15.5$)							
1명	10.7	61.6	20.7	6.4	0.6	100.0	(625)
2명	10.2	63.2	17.8	8.2	0.6	100.0	(1,486)
3명 이상	8.0	65.9	17.6	6.7	1.9	100.0	(465)
취업 여부($\chi^2=7.5$)							
취업	10.2	61.4	18.9	8.6	0.8	100.0	(1,364)
비취업	9.5	65.5	17.9	6.2	0.8	100.0	(1,211)
가구소득							
60% 미만	12.8	53.2	23.3	9.6	1.1	100.0	(189)
60~80% 미만	7.9	65.4	19.4	6.7	0.6	100.0	(458)
80~100% 미만	10.6	64.7	16.3	8.1	0.4	100.0	(533)
100~120% 미만	10.9	63.0	18.7	6.3	1.1	100.0	(461)
120~140% 미만	8.8	64.6	17.8	8.3	0.5	100.0	(341)
140~160% 미만	7.6	63.9	19.0	8.0	1.4	100.0	(205)
160% 이상	11.0	62.8	17.9	7.0	1.3	100.0	(388)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3%로 저학년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의 경우 교육수준,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한 경우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기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미취학의 경우에는 유아기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고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불만족이 전업모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31〉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전체	7.8	64.4	19.4	7.7	0.6	100.0	(2,442)
실제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8.2	64.5	20.0	6.8	0.5	100.0	(798)
공공인프라	24.0	65.5	8.8	1.7	-	100.0	(56)
사설교육기관	6.9	65.6	19.4	7.5	0.5	100.0	(1,489)
부모돌봄	9.8	49.0	23.5	16.7	0.9	100.0	(71)
친인척 돌봄	28.4	40.3	23.9	7.4	-	100.0	(8)
기타	2.6	37.6	4.5	42.5	12.9	100.0	(22)
거주지($\chi^2=10.0$)							
대도시	6.9	65.6	19.2	7.2	1.0	100.0	(966)
중소도시	8.5	63.5	20.0	7.5	0.4	100.0	(1,092)
농촌	8.2	64.1	17.8	9.6	0.3	100.0	(384)
연령							
30세 미만	32.8	41.4	16.4	9.5	-	100.0	(6)
30~34세	10.7	62.0	13.2	14.2	-	100.0	(74)
35~39세	9.5	62.3	19.4	8.3	0.5	100.0	(663)
40~44세	7.4	65.6	19.3	7.0	0.7	100.0	(1,154)
45~49세	6.0	65.2	20.4	7.7	0.7	100.0	(546)
교육수준($\chi^2=19.3$)							
고졸 이하	8.1	62.4	18.8	10.1	0.6	100.0	(869)
대졸	7.6	64.7	20.3	6.6	0.7	100.0	(1,449)
대학원졸	8.2	75.4	12.1	4.3	-	100.0	(124)
0세~초등학생 자녀수($\chi^2=12.8$)							
1명	7.1	62.7	21.2	8.4	0.5	100.0	(1,104)
2명	8.7	66.4	17.5	7.0	0.5	100.0	(1,022)
3명 이상	7.4	64.1	19.1	7.9	1.5	100.0	(317)

〈표 7-31〉 계속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취업 여부($\chi^2=15.5^{**}$)							
취업	7.7	61.6	21.3	8.8	0.7	100.0	(1,423)
비취업	8.0	68.4	16.7	6.3	0.6	100.0	(1,020)
가구소득							
60% 미만	11.0	58.4	16.4	12.1	2.1	100.0	(138)
60~80% 미만	8.3	67.0	17.7	6.5	0.5	100.0	(355)
80~100% 미만	6.0	64.7	21.3	7.6	0.4	100.0	(483)
100~120% 미만	8.3	62.0	21.5	7.7	0.5	100.0	(461)
120~140% 미만	7.3	65.8	19.2	7.7	-	100.0	(359)
140~160% 미만	6.0	67.1	17.4	8.7	0.9	100.0	(214)
160% 이상	9.3	64.2	18.3	7.1	1.0	100.0	(43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만족도 문항에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7-32〉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비용부담	돌봄공백	희망 서비스 부재	서비스 불만	기타	계 (%)
전체	84 (39.1)	38 (17.7)	22 (10.2)	70 (32.6)	1 (0.5)	215 (100.0)
학년						
1학년	25	13	5	27	-	70
2학년	25	13	10	19	1	68
3학년	34	12	7	24	-	77
실제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36	26	9	34	-	105
공공인프라	1	-	-	1	-	2
시설교육기관	42	11	13	28	1	95
부모돌봄	2	-	-	6	-	8
친인척 돌봄	-	-	-	-	-	-
기타	3	1	-	1	-	5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1~3학년 돌봄의 경우 비용부담(39.1%)과 서비스 불만(32.9%)이 주된 불만족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서비스 부재(10.2%)에 대한 불만 사례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영유아기 시기와 달리 초등 시기에는 단순 돌봄 이외에 교육적 욕구에 따라서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족은 사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나타나 일부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주된 불만족의 원인은 저학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용부담(40.5%)과 서비스 불만(3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비용부담에 따른 불만족 비율이 저학년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33〉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비용부담	돌봄공백	희망 서비스 부재	서비스 불만	기타	계 (%)
전체	83 (40.5)	36 (17.5)	19 (9.3)	66 (32.2)	1 (0.5)	205 (100.0)
학년						
4학년	33	14	9	25	-	81
5학년	20	11	8	17	1	57
6학년	30	11	2	23	-	66
실제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20	12	5	22	-	59
공공인프라	1	-	-	-	-	1
시설교육기관	53	21	12	34	-	120
부모돌봄	5	-	1	6	-	12
친인척 돌봄	-	-	-	1	-	1
기타	4	3	1	3	1	12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는 영유아기와 달리 서비스 불만과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시기에 돌봄공백으로 인한 불만 비율이 18%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4절 자녀 양육비

1.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시기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이 적당한지 질문한 결과,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14.7%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보다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높고,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낮으나,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나 혼인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45~49세의 경우 대학졸업 이후 취업이나 혼인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책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때까지 책임지는 게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부양책임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 자녀수에 대한 일관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현존 자녀수가 1명인 경우 혼인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취업한 경우 대학졸업 이후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양책임 기간을 길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34〉 기혼 여성(15~49세)의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 라도	계	(명)
전체(2015)	10.4	62.4	17.2	8.8	1.2	100.0	(10,994)
전체(2018)	14.7	59.2	17.4	7.1	1.6	100.0	(11,205)
거주지($\chi^2=23.2^{**}$)							
대도시	14.3	60.5	16.1	7.3	1.9	100.0	(4,802)
중소도시	14.6	58.8	18.5	6.8	1.4	100.0	(4,802)
농촌	16.7	56.3	18.2	7.6	1.3	100.0	(1,602)
연령($\chi^2=235.7^{***}$)							
30세 미만	23.5	53.0	14.9	5.8	2.8	100.0	(571)
30~34세	16.5	56.7	16.0	8.9	1.9	100.0	(1,541)
35~39세	18.0	60.0	13.9	6.7	1.3	100.0	(2,643)
40~44세	15.9	60.7	15.9	6.0	1.5	100.0	(2,861)
45~49세	9.2	59.3	22.2	7.8	1.4	100.0	(3,592)
교육수준($\chi^2=48.8^{***}$)							
고졸 이하	16.8	55.6	18.8	7.1	1.7	100.0	(4,189)
대졸	13.6	61.4	16.6	7.1	1.4	100.0	(6,485)
대학원졸	12.5	59.4	17.0	8.5	2.6	100.0	(533)
현존 자녀수($\chi^2=94.4^{***}$)							
0명	20.7	57.9	13.6	6.4	1.4	100.0	(773)
1명	14.3	56.1	17.9	9.4	2.4	100.0	(2,973)
2명	13.6	61.1	17.8	6.4	1.2	100.0	(5,980)
3명 이상	17.3	58.3	17.1	5.9	1.4	100.0	(1,480)
취업 여부($\chi^2=33.5^{***}$)							
취업	13.4	58.9	18.5	7.6	1.6	100.0	(6,559)
비취업	16.5	59.6	15.9	6.4	1.5	100.0	(4,648)
가구소득($\chi^2=187.7^{***}$)							
60% 미만	23.0	52.4	16.3	6.6	1.6	100.0	(1,123)
60~80% 미만	18.2	56.8	17.0	6.4	1.6	100.0	(1,834)
80~100% 미만	16.8	59.2	16.7	6.0	1.3	100.0	(2,073)
100~120% 미만	14.2	60.7	16.5	7.2	1.5	100.0	(1,878)
120~140% 미만	12.2	61.2	17.7	7.8	1.1	100.0	(1,468)
140~160% 미만	10.7	63.1	17.4	7.5	1.3	100.0	(992)
160% 이상	8.6	60.2	20.1	8.7	2.3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녀별로 지난 3개월간 직접 지출한 월평균 비용을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공교육비(등록금,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돌봄 비용(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용돈 등)이다. 본 항목에 대하여 조사 대상 자녀수가 1명인 가구, 2명인 가구, 3명인 가구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가구는 148건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양육비는 73만 3000원으로 2015년 조사 당시보다 8만 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가구의 경우 기타항목의 지출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사교육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총 양육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교육 비용과 돌봄 비용이 농촌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 거주자의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은 각각 12만 3000원, 1만 6000원인 반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각각 23만 6000원, 8만 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연령이 많을수록 사교육과 공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돌봄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로 이해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모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용과 기타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교육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5〉 1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 원, 명)

구 분	유치원·어린이집	공교육	사교육	돌봄	기타	총액	(명)
전체(2015)	3.3	5.9	18.5	4.7	32.4	64.8	(2,693)
전체(2018)	4.3	5.7	20.6	6.0	36.7	73.3	(2,982)
거주지							
대도시	4.8	6.7	23.6	8.7	37.8	81.6	(1,443)
중소도시	4.2	5.1	19.6	4.0	35.4	68.2	(1,163)
농촌	2.6	4.1	12.3	1.6	36.3	56.9	(377)
연령							
30세 미만	3.4	0.1	2.1	4.1	36.9	46.5	(267)
30~34세	5.4	0.4	6.8	9.7	38.5	60.8	(661)
35~39세	7.9	1.5	17.6	8.8	36.1	71.9	(757)
40~44세	2.9	6.1	34.8	4.9	34.8	83.6	(636)
45~49세	0.8	17.7	31.7	0.7	37.3	88.2	(662)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	5.5	17.7	1.3	32.6	60.2	(927)
대졸	4.8	5.9	21.4	7.3	38.2	77.5	(1,880)
대학원졸	5.9	5.3	27.3	16.1	42.7	97.3	(174)
취업 여부							
취업	4.5	6.1	23.0	10.0	37.3	80.8	(1,650)
비취업	4.1	5.2	17.7	1.0	35.9	63.9	(1,333)
가구소득							
60% 미만	2.3	3.9	9.2	1.0	27.8	43.8	(386)
60~80% 미만	4.2	2.9	12.1	1.3	31.9	52.5	(559)
80~100% 미만	4.5	5.0	15.8	2.0	34.7	61.9	(576)
100~120% 미만	4.4	7.3	23.2	4.4	36.8	76.2	(445)
120~140% 미만	4.3	6.4	26.3	7.5	40.7	85.2	(343)
140~160% 미만	4.0	7.4	31.1	9.6	41.6	92.7	(241)
160% 이상	5.8	8.8	35.1	20.5	48.0	118.2	(43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137만 6000원으로 2015년에 조사된 128만 6000원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68만 8000원으로 자녀가 1명인 가구의 1인당 총 양육 비용보다 약 4만 5000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양육 비용의 경향은 자녀가 1명인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6〉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 원, 명)

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	사교육	돌봄	기타	총액	(명)
전체(2015)	4.1	22.4	43.3	2.3	56.5	128.6	(6,172)
전체(2018)	5.2	20.3	45.8	3.2	63.1	137.6	(5,967)
거주지							
대도시	6.0	22.1	53.7	4.8	61.9	148.5	(2,501)
중소도시	4.9	20.0	43.0	2.2	64.1	134.2	(2,669)
농촌	3.7	15.8	30.0	1.7	63.7	114.9	(795)
연령							
30세 미만	11.7	0.7	9.0	4.6	54.9	80.9	(150)
30~34세	13.6	1.4	16.7	8.3	56.0	96.0	(558)
35~39세	11.5	4.1	40.0	6.4	52.5	114.5	(1,367)
40~44세	3.2	16.1	64.5	2.4	58.7	144.9	(1,642)
45~49세	0.3	39.2	45.3	0.5	75.1	160.5	(2,249)
교육수준							
고졸 이하	2.8	23.0	30.8	0.9	61.6	119.0	(2,277)
대졸	6.6	18.6	53.8	4.0	63.8	146.9	(3,424)
대학원졸	7.3	19.3	69.9	13.4	67.6	177.3	(265)
취업 여부							
취업	4.3	22.7	47.0	4.8	65.2	144.1	(3,554)
비취업	6.5	16.7	43.9	0.9	60.1	128.1	(2,412)
가구소득							
60% 미만	3.1	8.2	18.2	0.1	45.7	75.3	(469)
60~80% 미만	6.1	12.1	24.5	0.3	51.1	94.0	(912)
80~100% 미만	5.7	17.0	35.8	0.9	57.0	116.4	(1,062)
100~120% 미만	5.5	19.5	45.1	1.8	61.9	133.8	(1,059)
120~140% 미만	4.4	24.0	49.7	3.7	67.6	149.4	(823)
140~160% 미만	4.5	27.0	59.3	4.9	71.0	166.7	(550)
160% 이상	5.4	30.3	76.1	9.5	80.6	201.9	(1,08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가 3명인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161만 9000원으로 2015년에 조사된 152만 9000원보다 9만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54만 원으로 자녀가 1명인 가구의 1인당 총 양육 비용보다 약 19만 3000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양육 비용 경향은 자녀가 1명인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녀 양육비에서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용돈 등과 같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 공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전체 양육비 총액의 약 48%로 자녀가 1명인 경우(35.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37〉 3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 원, 명)

구 분	유치원·어린이집	공교육	사교육	돌봄	기타	총액	(명)
전체(2015)	4.9	26.6	48.9	2.3	70.3	152.9	(1,256)
전체(2018)	5.3	24.1	54.2	2.3	76.1	161.9	(1,329)
거주지							
대도시	6.8	25.8	65.3	4.0	75.0	177.0	(446)
중소도시	5.2	23.8	54.4	1.7	76.3	161.3	(600)
농촌	2.9	22.1	36.2	0.9	77.3	139.4	(281)
연령							
30세 미만	11.3	0.7	17.9	2.8	67.4	100.1	(16)
30~34세	14.7	3.4	27.0	6.4	69.8	121.3	(93)
35~39세	10.7	5.8	48.6	4.9	64.9	134.8	(319)
40~44세	4.1	22.1	69.7	2.0	76.8	174.7	(408)
45~49세	0.6	42.5	51.3	0.0	84.3	178.8	(489)
교육수준							
고졸 이하	3.5	25.5	41.3	0.8	72.9	144.0	(654)
대졸	6.7	23.1	64.9	3.2	79.0	176.9	(631)
대학원졸	10.8	16.9	94.1	11.3	82.3	215.3	(43)
취업 여부							
취업	4.1	28.1	56.5	3.4	76.8	168.7	(772)
비취업	6.9	18.6	51.1	0.8	75.2	152.5	(555)
가구소득							
60% 미만	3.4	11.8	18.6	0.3	50.4	84.5	(112)
60~80% 미만	7.7	11.8	31.0	0.5	60.8	111.8	(186)
80~100% 미만	5.1	19.0	40.5	0.5	70.2	135.2	(270)
100~120% 미만	5.4	23.5	55.5	1.7	75.2	161.3	(227)
120~140% 미만	5.0	25.8	63.8	2.9	78.4	175.9	(180)
140~160% 미만	2.6	36.2	71.0	2.4	83.0	195.2	(131)
160% 이상	6.0	39.0	89.4	7.0	104.1	245.4	(22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절 경력단절

경력단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주로 ‘여성’을 붙여 경력단절여성으로 많이 쓰이며, 연구나 목적에 따라 달리 쓰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일·가정양립 지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비취업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으로 보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비율을 전체 기혼 여성(15~54세)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으로 계산하고 있다(통계청, 2017). 그리고 기혼 여성 취업자 중에서도 과거에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 경력단절 경험이라고 보고 있다(통계청, 2017). 즉 여기에서는 취업 중단의 이유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는 경제활동 중단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취업 희망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는 법의 목적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 희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원래 하던 일에서 벗어난 경우를 경력단절로 보았다. 자발적으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직위 등에 있어서 열악해지기 때문이다(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2010).

1. 첫째 자녀 임신 후 경력단절

첫째 자녀 임신 직전에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 중 34.2%는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조사 시점까지) 하던 일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50.3%였고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 경우가 15.5%로, 65.8%가 하던 일을 그만두었거나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단위 : %, 명)

구 분	하던 일을 계속했음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34.2	15.5	50.3	100.0	(5,905)
현재 연령($\chi^2=17.1^{***}$)					
30세 미만	27.1	14.8	58.2	100.0	(250)
30~34세	37.1	14.4	48.5	100.0	(906)
35~39세	36.6	15.2	48.2	100.0	(1,585)
40~44세	32.9	16.2	50.9	100.0	(1,551)
45~49세	32.7	15.8	51.5	100.0	(1,614)
현존 자녀수($\chi^2=687.5^{***}$)					
1명	31.6	33.5	35.0	100.0	(1,815)
2명	36.6	7.6	55.8	100.0	(3,347)
3명 이상	30.0	7.2	62.8	100.0	(743)

* p<0.05, ** p<0.01, *** p<0.001

주: 1)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현재(조사 시점)까지 경력단절 경험임.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30세 미만인 경우 첫째 자녀 임신 이후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현재 30대인 경우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가 없으므로 조사 시점까지의 경험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자녀가 어느 정도 큰 이후 취업한 경우가 포함되어서일 수 있다.

경제활동 특성별로는 당시 직종이 관리직·전문직인 경우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직장 유형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경력단절이 높은 기회비용을 야기시키거나 직장의 일·가정양립이 잘되는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하던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8-2〉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단위: %, 명)

구 분	하던 일을 계속했음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34.2	15.5	50.3	100.0	(5,905)
당시 직종($\chi^2=123.6^{***}$)					
관리직·전문직	39.3	17.3	43.4	100.0	(1,979)
사무직	35.6	12.2	52.1	100.0	(2,468)
서비스직	26.5	17.9	55.6	100.0	(622)
판매직	20.2	22.6	57.2	100.0	(380)
기타	26.8	16.4	56.9	100.0	(456)
당시 종사상지위($\chi^2=326.1^{***}$)					
비임금근로자	55.8	13.4	30.8	100.0	(472)
상용근로자	36.7	13.9	49.4	100.0	(4,432)
임시일용근로자	13.0	23.5	63.5	100.0	(1,001)
당시 직장 유형($\chi^2=834.0^{***}$)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73.1	6.0	20.8	100.0	(834)
민간 대기업	45.2	11.6	43.2	100.0	(922)
민간 중소기업	21.8	17.7	60.5	100.0	(2,824)
개인사업체	28.5	19.6	52.0	100.0	(1,32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첫째 자녀 임신 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시기는 임신을 알고난 후 출산하기 전까지가 81.3%로 매우 많았고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이 끝났을 즈음인 출산 후 4~15개월이 9.4%, 출산 후 16개월 이후가 5.2%, 출산 후 3개월 이내가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인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두는 경우가 약간 많았고 사무직인 경우 출산 후 4~15개월에 그만두는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이는 사무직인 경우 상대적으로 휴가나 휴직 사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은 앞서 일하기 어려운 특성 등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신·일용근로자인 경우 93.6%가 임신을 알고난 후 출산하기 전까지 그만두는 반면 상용근로자는 77.4%만이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11.6%는 출산 후 4~15개월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상용근로자인 경우 임신·일용근로자에 비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 유형별로는 민간 대기업이 다른 직장 유형에 비해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출산 후 4~15개월에 그만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별로는 3자녀 이상인 경우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8-3〉 첫째 자녀 임신 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
(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현존 자녀수별 경력단절 시기

(단위: %, 명)

구 분	임신을 알고난 후 출산하기 전까지	출산~출산 후 3개월	출산 후 4~15개월	출산 후 16개월 이후	계	(명)
전체	81.3	4.1	9.4	5.2	100.0	(3,884)
당시 직종($\chi^2=70.0^{***}$)						
관리직·전문직	80.5	4.0	9.6	5.9	100.0	(1,200)
사무직	76.9	5.2	12.2	5.7	100.0	(1,589)
서비스직	86.1	2.7	6.5	4.7	100.0	(457)
판매직	90.4	3.4	2.9	3.3	100.0	(303)
기타	90.6	2.0	4.9	2.5	100.0	(334)
당시 종사상지위($\chi^2=126.3^{***}$)						
비임금근로자	82.0	2.8	6.4	8.8	100.0	(208)
상용근로자	77.4	4.8	11.6	6.1	100.0	(2,804)
임시일용근로자	93.6	2.3	2.8	1.3	100.0	(871)
당시 직장 유형($\chi^2=103.6^{***}$)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76.0	7.3	10.3	6.4	100.0	(224)
민간 대기업	69.5	4.3	16.5	9.7	100.0	(505)
민간 중소기업	81.1	4.3	9.7	4.8	100.0	(2,208)
개인사업체	89.3	2.9	4.5	3.3	100.0	(947)
현존 자녀수($\chi^2=92.6^{***}$)						
1명	75.5	4.1	10.6	9.8	100.0	(1,242)
2명	83.1	4.3	9.3	3.2	100.0	(2,122)
3명 이상	88.1	3.2	6.5	2.2	100.0	(52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경력단절 이유로는 ‘육아 때문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도 9.3%로 나타나 56% 정도가 자녀 양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도 1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입이 너무 적거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거나 직장 폐업 등과 같은 직장 문제인 경우는 10.6%였다. 해고나 퇴사권유, 인사상 불이익은 2.9%로 나타났다.

〈표 8-4〉 첫째 자녀 임신 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
(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단위: %, 명)

구 분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말길 곳이 없어서	육아 때문에	가족 반대로	건강상 어려움 때문에	직장 문제로 ¹⁾	해고, 퇴사권유, 인사상 불이익	기타	계	(명)
전체	6.1	9.3	46.5	2.6	19.1	10.6	2.9	2.9	100.0	(3,884)
당시 직종($\chi^2=73.1^{***}$)										
관리직·전문직	4.5	9.6	48.2	1.6	19.6	11.2	2.1	3.2	100.0	(1,200)
사무직	6.5	10.0	46.4	3.4	17.4	8.6	4.2	3.5	100.0	(1,589)
서비스직	7.1	8.1	45.2	1.9	21.5	12.5	1.5	2.2	100.0	(457)
판매직	9.7	7.9	46.7	2.9	17.0	13.2	1.5	1.1	100.0	(303)
기타	5.4	8.2	41.9	3.2	23.3	13.5	2.2	2.3	100.0	(334)
당시 종사상지위($\chi^2=50.2^{***}$)										
비임금근로자	5.1	6.6	55.4	-	18.4	14.2	-	0.3	100.0	(208)
상용근로자	5.9	10.5	45.3	2.8	18.4	10.5	3.4	3.3	100.0	(2,804)
임시일용근로자	6.9	6.3	48.1	2.6	21.4	10.3	1.8	2.5	100.0	(871)
당시 직장 유형($\chi^2=65.6^{***}$)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2.5	10.3	48.9	1.5	17.0	9.0	6.1	4.7	100.0	(224)
민간 대기업	5.7	9.5	49.3	4.1	14.6	9.8	4.2	2.8	100.0	(505)
민간 중소기업	6.4	10.6	44.2	2.6	19.5	10.8	2.9	3.1	100.0	(2,208)
개인사업체	6.3	6.1	49.6	2.2	20.9	11.2	1.3	2.3	100.0	(947)

* p<0.05, ** p<0.01, *** p<0.001

주: 1) 직장문제는 '수입이 너무 적어서',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직장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장래성이 없어서',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이 포함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둘째 자녀 임신 후 경력단절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의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을 보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조사 시점까지)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53.9%였고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는 응답이 23.6%,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2.5%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와 비교해 보면 경력단절 경험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미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들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고연령층일수록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수별로는 두 명인 경우 세 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으며,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셋째 자녀가 없으므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이후 취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5〉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단위 : %, 명)

구 분	하던 일을 계속했음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53.9	23.6	22.5	100.0	(1,954)
현재 연령($\chi^2=41.4^{***}$)					
30세 미만	69.0	10.9	20.1	100.0	(34)
30~34세	63.1	13.4	23.5	100.0	(209)
35~39세	56.3	18.9	24.8	100.0	(548)
40~44세	53.3	25.1	21.6	100.0	(554)
45~49세	48.2	30.7	21.1	100.0	(609)
현존 자녀수($\chi^2=35.5^{***}$)					
2명	53.2	25.9	20.8	100.0	(1,630)
3명 이상	57.0	11.9	31.1	100.0	(324)

* p<0.05, ** p<0.01, *** p<0.001

주: 1) 셋째 자녀가 없다면 현재까지 경력단절 경험임.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경제활동 특성별로는 당시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이었던 경우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당시 비임금근로자였던 경우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가장 적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거나 다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당시 직장 유형별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인 경우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85.8%로 매우 많았고 민간 중소기업인 경우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이는 첫째 자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가정양립의 용이성 때문이거나 기회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6〉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단위: %, 명)

구 분	하던 일을 계속했음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53.9	23.6	22.5	100.0	(1,954)
당시 직종($\chi^2=34.7^{***}$)					
관리직·전문직	56.3	24.2	19.5	100.0	(733)
사무직	56.3	18.6	25.1	100.0	(735)
서비스직	45.3	32.4	22.3	100.0	(189)
판매직	39.7	33.0	27.3	100.0	(126)
기타	52.9	25.9	21.2	100.0	(171)
당시 종사상지위($\chi^2=143.9^{***}$)					
비임금근로자	63.8	18.4	17.8	100.0	(313)
상용근로자	57.5	20.1	22.4	100.0	(1,383)
임시일용근로자	22.4	48.7	28.9	100.0	(258)
당시 직장 유형($\chi^2=295.9^{***}$)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85.8	7.4	6.8	100.0	(455)
민간 대기업	55.7	16.7	27.6	100.0	(313)
민간 중소기업	35.8	33.1	31.1	100.0	(667)
개인사업체	47.9	29.8	22.2	100.0	(51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둘째 자녀 임신 후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시기는 임신을 알고난 후 출산하기 전까지가 55.5%, 출산 후 16개월 이후가 20.8%, 출산 후 4~15개월이 16.3%, 출산 후 3개월 이내가 7.4%로 나타났다. 당시 직종별로는 판매직이나 기타인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다. 당시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출산 후 16개월 이후에 그만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당시 직장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체인 경우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고 민간 대기업인 경우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둔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민간 대기업인 경우 출산 후 4~15개월에 그만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수별로는 세 명 이상인 경우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둔 비율이 높았고 두 명인 경우에는 출산 후 16개월 이후에 그만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7〉 둘째 자녀 임신 후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 (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 및 현존 자녀수별 경력단절 시기

(단위: %, 명)

구 분	임신을 알고난 후 출산하기 전까지	출산 후 3개월 이내	출산 후 4~15개월	출산 후 16개월 이후	계	(명)
전체	55.5	7.4	16.3	20.8	100.0	(901)
당시 직종($\chi^2=25.3^*$)						
관리직·전문직	56.8	8.8	14.0	20.4	100.0	(321)
사무직	50.0	9.4	20.4	20.2	100.0	(321)
서비스직	52.9	4.4	19.4	23.4	100.0	(103)
판매직	69.7	1.7	10.6	18.0	100.0	(76)
기타	62.5	2.5	10.5	24.4	100.0	(80)
당시 종사상지위($\chi^2=69.4^{***}$)						
비임금근로자	58.2	2.4	11.2	28.2	100.0	(114)
상용근로자	47.4	8.9	21.3	22.5	100.0	(588)
임시일용근로자	77.9	5.8	4.5	11.8	100.0	(200)
당시 직장 유형($\chi^2=84.4^{***}$)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41.0	15.7	15.2	28.1	100.0	(65)
민간 대기업	29.5	9.8	34.7	26.0	100.0	(139)
민간 중소기업	58.2	7.6	15.8	18.4	100.0	(428)
개인사업체	68.2	3.7	7.9	20.2	100.0	(270)
현존 자녀수($\chi^2=26.0^{***}$)						
2명	52.4	7.9	16.4	23.3	100.0	(762)
3명 이상	72.9	4.6	15.5	7.1	100.0	(13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둘째 자녀 임신 후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는 ‘육아 때문에’가 59.8%로 가장 많았고 ‘아이를 맡

길 곳이 없어서'가 11.0%로, 70.8%가량이 육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직장의 수입이 적거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문제인 경우가 11.7%, 건강상 어려움이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8〉 둘째 자녀 임신 후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단위: %, 명)

구 분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육아 때문에	가족 반대로	건강상 어려움 때문에	직장 문제로 ¹⁾	해고, 퇴사권유, 인사상 불이익	기타	계	(명)
전체	2.7	11.0	59.8	0.7	8.2	11.7	2.6	3.1	100.0	(901)
당시 직종										
관리직·전문직	1.4	12.4	58.3	0.8	7.4	14.9	1.5	3.4	100.0	(321)
사무직	3.3	11.8	64.4	0.7	5.8	7.3	4.0	2.8	100.0	(321)
서비스직	3.5	5.6	56.6	-	12.3	17.1	1.9	3.0	100.0	(103)
판매직	3.0	7.1	61.8	1.8	9.5	14.3	-	2.5	100.0	(76)
기타	4.4	13.5	49.8	0.7	15.1	7.6	4.4	4.4	100.0	(80)
당시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6.6	5.8	48.9	2.2	9.4	24.4	-	2.6	100.0	(114)
상용근로자	2.3	12.5	62.2	0.7	6.8	8.8	3.2	3.5	100.0	(588)
임시일용근로자	1.6	9.9	59.0	-	11.9	13.1	2.2	2.2	100.0	(200)
당시 직장 유형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1.6	13.4	66.3	-	2.0	7.5	3.8	5.4	100.0	(65)
민간 대기업	1.9	13.6	63.1	-	2.5	10.7	4.1	4.0	100.0	(139)
민간 중소기업	2.1	10.2	61.2	0.9	9.6	10.2	3.1	2.7	100.0	(428)
개인사업체	4.4	10.5	54.4	0.9	10.5	15.9	0.7	2.8	100.0	(270)

주: 1) 직장문제는 '수입이 너무 적어서',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직장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장래성이 없어서',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이 포함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실태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

중 40.0%만이 첫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최근 코호트일수록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자녀를 2001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25.1%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50%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두 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기혼 여성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88.2%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17.0%에 비해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일·가정양립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회사 분위기 등 사용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일수도 있다.

〈표 8-9〉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첫째 자녀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사용	미사용	계	(명)
전체	40.0	60.0	100.0	(5,433)
첫째 출생코호트($\chi^2=211.6^{***}$)				
2000년까지	25.1	74.9	100.0	(1,209)
2001~2005년	34.5	65.5	100.0	(988)
2006~2010년	43.1	56.9	100.0	(1,261)
2011년 이후	50.0	50.0	100.0	(1,975)
둘째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여부($\chi^2=2516.6^{***}$)				
비경력단절	88.2	11.8	100.0	(1,758)
경력단절	17.0	83.0	100.0	(3,675)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질문에서 '사용 중'과 '사용'인 경우는 사용으로, '미사용'과 '해당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인 경우 미사용으로 계산하였음.

3) 경력단절 여부는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한 경우 비경력단절로,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인 경우 경력단절로 보았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11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 자녀 임신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을 보면, 직종이 사무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낮았다. 당시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6.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당시 직장 유형별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높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 사용 비율이 13.2%로 매우 낮았다.

〈표 8-10〉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첫째 자녀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2011. 1. 1. 이후 출생아 대상)

(단위: %, 명)

구 분	사용	미사용	계	(명)
전체	50.0	50.0	100.0	(1,975)
당시 직종($\chi^2=130.1^{***}$)				
관리직·전문직	49.2	50.8	100.0	(754)
사무직	61.1	38.9	100.0	(844)
서비스직	26.0	74.0	100.0	(194)
판매직	19.5	80.5	100.0	(93)
기타	34.8	65.2	100.0	(90)
당시 종사상지위($\chi^2=280.8^{***}$)				
상용근로자	58.2	41.8	100.0	(1,661)
임시·일용근로자	6.6	93.4	100.0	(314)
당시 직장 유형($\chi^2=367.6^{***}$)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78.7	21.3	100.0	(332)
민간 대기업	72.8	27.2	100.0	(395)
민간 중소기업	41.0	59.0	100.0	(982)
개인사업체	13.2	86.8	100.0	(266)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질문에서 '사용 중'과 '사용'인 경우는 사용으로, '미사용'과 '해당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인 경우 미사용으로 계산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 중에서는 64.4%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첫째 자녀에 비해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첫째

자녀 이후로 일을 그만둔 경우는 빠지고 둘째 자녀 임신 직전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첫째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경우로, 상대적으로 일·가정양립 여건이 좋은 직장이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자녀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첫째 자녀와 마찬가지로 최근 코호트 일수록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이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50.8%이지만 2011년 이후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비율이 70.3%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에는 38.2%만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반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88.7%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경력단절 여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8-11〉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둘째 자녀 출산 전후휴가 사용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사용	미사용	계	(명)
전체	64.4	35.6	100.0	(1,640)
둘째 출생코호트($\chi^2=33.2^{***}$)				
2000년까지	50.8	49.2	100.0	(169)
2001~2005년	56.5	43.5	100.0	(300)
2006~2010년	65.3	34.7	100.0	(430)
2011년 이후	70.3	29.7	100.0	(741)
셋째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여부($\chi^2=456.3^{***}$)				
비경력단절	88.7	11.3	100.0	(853)
경력단절	38.2	61.8	100.0	(788)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질문에서 '사용 중'과 '사용'인 경우는 사용으로, '미사용'과 '해당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인 경우 미사용으로 계산하였음.

3) 경력단절 여부는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한 경우 비경력단절로,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인 경우 경력단절로 보았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11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기혼 여성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을 보면, 첫째 자녀와 마찬가지로 경향이 나타났다.

당시 직종이 사무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낮았으며 당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당시 직장 유형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인 경우 90% 이상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22.1%만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2〉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둘째 자녀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2011. 1. 1. 이후 출생아 대상)
(단위: %, 명)

구 분	사용	미사용	계	(명)
전체	70.3	29.7	100.0	(741)
당시 직종($\chi^2=38.8^{***}$)				
관리직·전문직	68.8	31.2	100.0	(295)
사무직	78.4	21.6	100.0	(332)
서비스직	48.5	51.5	100.0	(55)
판매직	31.5	68.5	100.0	(20)
기타	63.1	36.9	100.0	(38)
당시 종사상지위($\chi^2=167.1^{***}$)				
상용근로자	78.7	21.3	100.0	(645)
임시·일용근로자	13.8	86.2	100.0	(96)
당시 직장 유형($\chi^2=179.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91.6	8.4	100.0	(187)
민간 대기업	90.8	9.2	100.0	(164)
민간 중소기업	58.2	41.8	100.0	(314)
개인사업체	22.1	77.9	100.0	(75)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질문에서 '사용 중'과 '사용'인 경우는 사용으로, '미사용'과 '해당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인 경우 미사용으로 계산하였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육아휴직 사용 실태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 중 21.4%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경

향은 자녀 출생코호트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2001년 이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36.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육아휴직 사용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48.5%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에는 8.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첫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경험

(단위: %, 명)

구 분	사용	미사용	계	(명)
전체	21.4	78.6	100.0	(5,433)
첫째 출생코호트($\chi^2=566.1^{***}$)				
2000년까지	5.3	94.7	100.0	(1,209)
2001~2005년	8.3	91.7	100.0	(988)
2006~2010년	23.1	76.9	100.0	(1,261)
2011년 이후	36.7	63.3	100.0	(1,975)
둘째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여부($\chi^2=1131.0^{***}$)				
비경력단절	48.5	51.5	100.0	(1,758)
경력단절	8.5	91.5	100.0	(3,675)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육아휴직 사용 여부 질문에서 '사용 중'과 '사용'인 경우는 사용으로, '미사용'과 '해당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인 경우 미사용으로 계산하였음.

3) 경력단절 여부는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한 경우 비경력단절로,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인 경우 경력단절로 보았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11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경향을 보면, 당시 직종이 사무직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판매직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0.5%로 가장 낮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당시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8%로 거의 대부분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43.3%가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장 유형별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은 61% 정도가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반면 개인사업체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4.6%로 매우 낮았고 민간 중소기업도 27.2%로 낮은 편이었다.

〈표 8-14〉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첫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경험(2011. 1. 1. 이후 출생아 대상)

(단위 : %, 명)

구 분	사용	미사용	계	(명)
전체	36.7	63.3	100.0	(1,975)
당시 직종($\chi^2=88.8^{***}$)				
관리직·전문직	34.4	65.6	100.0	(754)
사무직	46.6	53.4	100.0	(844)
서비스직	21.6	78.4	100.0	(194)
판매직	10.5	89.5	100.0	(93)
기타	24.2	75.8	100.0	(90)
당시 종사상지위($\chi^2=195.7^{***}$)				
상용근로자	43.3	56.7	100.0	(1,661)
임시일용근로자	1.8	98.2	100.0	(314)
당시 직장 유형($\chi^2=347.0^{***}$)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61.4	38.6	100.0	(332)
민간 대기업	61.3	38.7	100.0	(395)
민간 중소기업	27.2	72.8	100.0	(982)
개인사업체	4.6	95.4	100.0	(266)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육아휴직 사용 여부 질문에서 '사용 중'과 '사용'인 경우는 사용으로, '미사용'과 '해당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인 경우 미사용으로 계산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35.7%로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첫째 자녀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자녀 이후 일을 그만둔 경우는 빠지고 둘째 자녀 임신 직전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생코호트별로는 2001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

용 비율이 7.3%인 것에 비해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50.9%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그리고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에는 17.5%만이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52.6%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5〉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경험

(단위: %, 명)

구 분	사용	미사용	계	(명)
전체	35.7	64.3	100.0	(1,640)
둘째 출생코호트($\chi^2=174.5^{***}$)				
2000년까지	7.3	92.7	100.0	(169)
2001~2005년	18.6	81.4	100.0	(300)
2006~2010년	32.9	67.1	100.0	(430)
2011년 이후	50.9	49.1	100.0	(741)
셋째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여부($\chi^2=219.2^{***}$)				
비경력단절	52.6	47.4	100.0	(853)
경력단절	17.5	82.5	100.0	(788)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중상장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육아휴직 사용 여부 질문에서 '사용 중'과 '사용'인 경우는 사용으로, '미사용'과 '해당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인 경우 미사용으로 계산하였음.

3) 경력단절 여부는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한 경우 비경력단절로,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인 경우 경력단절로 보았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11년 이후에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로 육아휴직 사용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면, 첫째 자녀와 마찬가지로 사무직인 경우, 상용근로자인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민간 대기업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았고 판매직인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개인사업체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낮았다.

〈표 8-16〉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
특성별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 경험(2011. 1. 1. 이후 출생아 대상)

(단위 : %, 명)

구 분	사용	미사용	계	(명)
전체	50.9	49.1	100.0	(741)
당시 직종($\chi^2=23.6^{***}$)				
관리직·전문직	48.6	51.4	100.0	(295)
사무직	57.4	42.6	100.0	(332)
서비스직	30.8	69.2	100.0	(55)
판매직	19.8	80.2	100.0	(20)
기타	56.7	43.3	100.0	(38)
당시 종사상지위($\chi^2=94.7^{***}$)				
상용근로자	57.7	42.3	100.0	(645)
임시일용근로자	4.5	95.5	100.0	(96)
당시 직장 유형($\chi^2=169.1^{***}$)				
정부가관 및 공공기관	75.6	24.4	100.0	(187)
민간 대기업	72.7	27.3	100.0	(164)
민간 중소기업	35.5	64.5	100.0	(314)
개인사업체	5.2	94.8	100.0	(75)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육아휴직 사용 여부 질문에서 '사용 중'과 '사용'인 경우는 사용으로, '미사용'과 '해당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인 경우 미사용으로 계산하였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일·가정양립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이러한 제도가 경력단절을 막거나 줄이는 데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제3절 일·가정양립 관련 태도

1. 시간제 근로 여부와 이유

현재 취업 중인 기혼 여성 중 69.2%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

었고, 30.8%는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35~39세인 경우,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8-17〉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주당 40시간 근로 여부

(단위: %, 명)

구 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	계	(명)
전체	69.2	30.8	100.0	(6,559)
거주지($\chi^2=2.5$)				
대도시	69.4	30.6	100.0	(2,768)
중소도시	68.4	31.6	100.0	(2,800)
농촌	71.1	28.9	100.0	(992)
연령($\chi^2=22.9^{***}$)				
30세 미만	71.3	28.7	100.0	(258)
30~34세	71.6	28.4	100.0	(800)
35~39세	65.2	34.8	100.0	(1,368)
40~44세	67.4	32.6	100.0	(1,719)
45~49세	71.7	28.3	100.0	(2,414)
교육수준($\chi^2=10.1^{**}$)				
고졸 이하	71.6	28.4	100.0	(2,432)
대졸 이상	67.8	32.2	100.0	(4,127)
현존 자녀수($\chi^2=52.8^{***}$)				
0명	83.6	16.4	100.0	(485)
1명	68.8	31.2	100.0	(1,651)
2명	68.1	31.9	100.0	(3,568)
3명 이상	66.5	33.5	100.0	(855)
가구소득($\chi^2=223.6^{***}$)				
60% 미만	63.3	36.7	100.0	(455)
60~80% 미만	52.8	47.2	100.0	(610)
80~100% 미만	58.5	41.5	100.0	(1,061)
100~120% 미만	70.1	29.9	100.0	(1,164)
120~140% 미만	75.0	25.0	100.0	(1,125)
140~160% 미만	73.9	26.1	100.0	(746)
160% 이상	78.4	21.6	100.0	(1,399)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기혼 여성에게 전일제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육아나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11.0%, 여가를 즐기기 위해가 10.1%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40시간 미만 일하지만 전일제라는 응답이 2.2%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기타 응답에는 방과후교사나 학원 등 직업이나 일의 특성 상 주 40시간 미만 근로한다는 응답과 부모나 장애 자녀 등 가족 간병이나 돌봄으로 인해,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중이어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시기인 40세 미만인 경우 육아나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인 45~49세인 경우 ‘여가를 즐기기 위해’나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와 같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 육아나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고졸 이하인 경우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8-18〉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기혼 여성(15~49세)의 전일제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집안일이 많아서	육아 /자녀 교육	건강상 이유	여가 즐기기 위해	전일제 직장 구직 힘들	40시간 미만 전일제	기타	계	(명)
전체	5.2	63.3	4.7	10.1	11.0	2.2	3.6	100.0	(2,020)
거주지($\chi^2=10.6$)									
대도시	4.3	64.1	3.9	10.7	10.7	2.4	3.9	100.0	(848)
중소도시	5.4	62.3	5.4	9.9	11.6	2.3	3.2	100.0	(885)
농촌	7.5	63.6	5.1	8.8	9.9	1.2	3.8	100.0	(287)
연령($\chi^2=377.9^{***}$)									
30세 미만	1.9	76.4	2.2	7.7	4.0	4.1	3.6	100.0	(74)
30~34세	1.2	83.9	1.6	4.1	4.3	3.0	1.9	100.0	(227)
35~39세	1.4	85.5	1.2	2.9	5.0	1.7	2.4	100.0	(476)
40~44세	4.0	65.8	5.4	8.7	10.5	2.2	3.5	100.0	(560)
45~49세	10.6	37.4	8.0	18.5	18.5	2.0	5.0	100.0	(682)

〈표 8-18〉 계속

구 분	집안일이 많아서	육아 /자녀 교육	건강상 이유	여가 즐기기 위해	전일제 직장 구직 힘듦	40시간 미만 전일제	기타	계	(명)
교육수준($\chi^2=121.4^{***}$)									
고졸 이하	9.5	51.6	8.7	9.0	16.0	1.7	3.5	100.0	(691)
대졸 이상	3.0	69.3	2.7	10.6	8.3	2.4	3.6	100.0	(1,328)
현존 자녀수($\chi^2=227.2^{***}$)									
0명	1.9	3.2	20.2	33.2	19.7	2.5	19.3	100.0	(79)
1명	2.0	69.5	4.3	8.9	9.8	2.4	3.0	100.0	(516)
2명	6.3	62.3	4.6	10.3	11.7	2.0	2.8	100.0	(1,138)
3명 이상	7.6	72.7	1.7	5.1	7.4	2.3	3.1	100.0	(287)
가구소득($\chi^2=172.0^{***}$)									
60% 미만	5.7	45.8	13.1	3.7	24.8	-	6.9	100.0	(167)
60~80% 미만	4.2	61.2	6.2	4.9	19.2	1.6	2.8	100.0	(288)
80~100% 미만	4.6	68.7	4.2	7.8	10.5	1.4	2.7	100.0	(440)
100~120% 미만	6.1	67.1	3.9	8.7	8.9	2.8	2.4	100.0	(348)
120~140% 미만	4.2	63.4	4.3	14.7	5.2	2.7	5.5	100.0	(281)
140~160% 미만	4.8	64.3	2.0	14.7	7.0	3.2	4.0	100.0	(194)
160% 이상	7.0	61.7	2.7	16.1	6.3	3.2	3.0	100.0	(302)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 응답에는 '집안일이 많아서', '학업 병행을 위해',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가 포함되며, '40시간 미만 전일제'는 당초 기타 응답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응답 사례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로 카테고리를 만들었음.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육아나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응답과 집안일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나 건강상 이유,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와 같은 자녀 양육교육, 집안일 이외의 사유가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건강상 이유나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 일·가정양립의 곤란 정도

취업한 기혼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움 13.7%, 대체로 어려움 41.4%, 별로 어려움 없음 40.1%, 전혀 어려움 없음 4.8%로 나타나 어렵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으며 2015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8-19〉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전혀 어려움 없음	계	(명)
전체(2015)	10.2	43.6	41.2	5.0	100.0	(6,219)
전체(2018)	13.7	41.4	40.1	4.8	100.0	(6,559)
거주지($\chi^2=1.9$)						
대도시	14.0	41.2	39.8	5.1	100.0	(2,768)
중소도시	13.7	41.4	40.2	4.8	100.0	(2,800)
농촌	13.2	42.0	40.7	4.1	100.0	(992)
연령($\chi^2=344.8^{***}$)						
30세 미만	18.2	37.7	36.5	7.7	100.0	(258)
30~34세	19.7	45.4	30.6	4.3	100.0	(800)
35~39세	18.1	49.9	28.9	3.2	100.0	(1,368)
40~44세	14.5	44.2	38.0	3.2	100.0	(1,719)
45~49세	8.2	33.6	51.5	6.7	100.0	(2,414)
교육수준($\chi^2=11.8^{**}$)						
고졸 이하	13.0	39.5	42.8	4.7	100.0	(2,432)
대졸 이상	14.1	42.5	38.5	4.9	100.0	(4,127)
현존 자녀수($\chi^2=298.1^{***}$)						
0명	5.0	23.0	55.2	16.8	100.0	(485)
1명	14.5	43.2	38.2	4.1	100.0	(1,651)
2명	13.2	41.9	40.9	4.0	100.0	(3,568)
3명 이상	19.2	46.2	32.0	2.7	100.0	(855)
가구소득($\chi^2=59.1^{***}$)						
60% 미만	16.1	37.0	38.9	8.0	100.0	(455)
60~80% 미만	19.9	36.5	40.5	3.0	100.0	(610)
80~100% 미만	14.2	44.1	37.6	4.1	100.0	(1,061)
100~120% 미만	13.2	42.4	40.2	4.2	100.0	(1,164)
120~140% 미만	11.8	44.8	38.5	4.9	100.0	(1,125)
140~160% 미만	12.1	39.8	43.7	4.4	100.0	(746)
160% 이상	12.7	40.2	41.4	5.7	100.0	(1,399)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령대별로는 자녀가 어릴 것으로 예상되는 30대인 경우 매우 어렵다거나 대체로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45~49세인 경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취업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별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일·가정양립이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직장 유형이 민간 대기업인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가정양립 어려움 정도가 낮았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직장 유형이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도 일·가정양립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8-20〉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전혀 어려움 없음	계	(명)
전체	13.7	41.4	40.1	4.8	100.0	(6,559)
직종($\chi^2=37.8^*$)						
관리직·전문직·군인	13.8	41.9	38.5	5.8	100.0	(2,054)
사무직	13.2	44.3	38.0	4.5	100.0	(1,667)
서비스직	14.8	39.7	41.0	4.6	100.0	(1,168)
판매직	14.1	39.5	42.9	3.6	100.0	(734)
농림어업	20.5	41.2	32.5	5.8	100.0	(106)
기능원	12.2	33.4	50.7	3.8	100.0	(149)
장치기계직	14.0	39.6	40.7	5.6	100.0	(96)
단순노무직	11.5	39.6	44.9	4.1	100.0	(585)
종사상지위($\chi^2=58.6^{***}$)						
비임금근로자	14.7	40.1	39.7	5.5	100.0	(1,31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6	45.3	33.6	4.6	100.0	(2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3.7	34.9	44.3	7.1	100.0	(618)
무급가족종사자	15.1	44.5	36.7	3.7	100.0	(455)
임금근로자	13.5	41.7	40.2	4.6	100.0	(5,249)
상용근로자	14.3	44.0	37.2	4.5	100.0	(3,037)
임시근로자	11.6	38.6	44.9	4.9	100.0	(1,786)
일용근로자	15.0	38.6	41.9	4.6	100.0	(426)

〈표 8-20〉 계속

구 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전혀 어려움 없음	계	(명)
주당 근로시간($\chi^2=59.7^{***}$)						
40시간 이상	15.0	43.2	37.5	4.4	100.0	(4,539)
40시간 미만	10.9	37.4	45.9	5.8	100.0	(2,020)
직장 유형($\chi^2=34.8^{***}$)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12.5	43.5	38.6	5.4	100.0	(1,003)
민간 대기업	19.0	43.7	34.0	3.4	100.0	(623)
민간 중소기업	13.1	42.4	40.0	4.5	100.0	(2,512)
개인사업체	13.5	38.8	42.5	5.2	100.0	(2,410)

* p<0.05, ** p<0.01, *** p<0.001

주: 1) 직장 유형에 '기타' 11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기간

취업한 기혼 여성이 일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기간은 '자녀 출산이나 양육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가 81.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는 자녀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8%,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3.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출산이나 양육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저연령층인 경우 자녀를 임신하기 전까지나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자녀가 초등학교 일정 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와 같이 자녀와 관련된 기간을 응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약간 많았다. 이는 고연령층인 경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 임신이나 출산하기 전까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8-21〉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기간

(단위: %, 명)

구 분	출산 양육과 관계없이	임신 전	출산 전	자녀 초등 X학년 진학 전	자녀 대학교 진학	자녀 대학교 졸업	자녀 취업	자녀 결혼	기타	계	(명)
전체	81.6	1.1	0.7	2.5	1.9	3.8	1.7	3.3	3.3	100.0	(6,559)
거주지($\chi^2=21.2$)											
대도시	80.7	1.1	0.9	2.8	2.2	3.8	1.4	3.5	3.6	100.0	(2,768)
중소도시	81.3	1.0	0.6	2.3	1.7	4.1	2.1	3.4	3.5	100.0	(2,800)
농촌	84.7	1.1	0.6	2.1	1.7	3.4	1.5	2.7	2.2	100.0	(992)
연령($\chi^2=499.89^{***}$)											
30세 미만	77.4	7.6	4.1	4.5	1.6	0.4	0.5	0.4	3.7	100.0	(258)
30~34세	76.8	2.9	3.0	5.9	0.9	2.6	1.0	2.3	4.7	100.0	(800)
35~39세	77.6	1.5	0.9	5.1	2.3	3.5	1.3	3.6	4.1	100.0	(1,368)
40~44세	83.3	0.2	0.1	1.5	2.8	3.8	1.8	2.7	3.7	100.0	(1,719)
45~49세	84.5	0.1	0.0	0.4	1.4	4.8	2.3	4.2	2.1	100.0	(2,414)
교육수준($\chi^2=50.0^{***}$)											
고졸 이하	82.9	0.8	0.3	1.6	1.1	4.7	2.0	3.5	3.1	100.0	(2,432)
대졸 이상	80.8	1.2	1.0	3.0	2.4	3.3	1.5	3.2	3.5	100.0	(4,127)
현존 자녀수($\chi^2=761.7^{***}$)											
0명	78.0	9.6	6.8	0.6	0.7	-	-	1.8	2.5	100.0	(485)
1명	78.9	1.4	0.8	4.3	2.0	3.1	1.1	3.8	4.6	100.0	(1,651)
2명	83.1	-	0.1	2.1	2.1	4.7	2.1	3.2	2.6	100.0	(3,568)
3명 이상	82.1	-	-	1.9	1.6	3.9	2.4	3.9	4.2	100.0	(855)
가구소득($\chi^2=102.8^{**}$)											
60% 미만	87.0	0.7	0.7	1.0	0.5	3.3	1.6	2.5	2.7	100.0	(455)
60~80% 미만	79.4	2.2	1.0	2.0	1.5	5.2	2.0	2.4	4.3	100.0	(610)
80~100% 미만	80.6	2.4	0.9	2.6	1.7	3.9	1.6	3.6	2.6	100.0	(1,061)
100~120% 미만	81.9	1.0	1.0	2.3	1.6	2.9	2.3	2.6	4.5	100.0	(1,164)
120~140% 미만	80.8	0.8	0.7	2.6	3.1	3.3	1.6	4.1	2.9	100.0	(1,125)
140~160% 미만	79.3	0.3	0.6	2.9	2.2	5.7	1.6	3.5	3.8	100.0	(746)
160% 이상	83.0	0.4	0.4	3.0	1.8	3.6	1.5	3.6	2.8	100.0	(1,399)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자녀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 유치원 갈 때까지,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까지,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까지,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기타 등이 해당됨.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한 기혼 여성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민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일정 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 일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표 8-22〉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기간

(단위: %, 명)

구 분	출산 양육과 관계없이	임신 전	출산 전	자녀 초등 X학년 진학 전	자녀 대학교 진학	자녀 대학교 졸업	자녀 취업	자녀 결혼	기타	계	(명)
전체	81.6	1.1	0.7	2.5	1.9	3.8	1.7	3.3	3.3	100.0	(6,559)
직종											
관리직·전문직·군인	81.2	1.5	0.7	2.4	2.4	3.7	1.5	2.8	3.6	100.0	(2,054)
사무직	80.6	0.7	0.9	3.5	1.9	3.4	1.2	3.9	3.9	100.0	(1,667)
서비스직	80.6	0.9	0.8	2.1	2.1	5.2	2.3	2.8	3.2	100.0	(1,168)
판매직	81.8	1.0	1.1	2.0	1.6	4.4	2.1	2.8	3.1	100.0	(734)
농림어업	90.3	0.5	-	-	-	3.8	1.1	3.6	0.8	100.0	(106)
기능원	87.4	1.3	-	0.7	-	2.4	1.4	5.5	1.2	100.0	(149)
장차기계직	87.2	0.6	1.1	3.0	1.1	1.8	-	4.5	0.8	100.0	(96)
단순노무직	83.1	0.8	-	2.2	1.3	3.0	3.0	4.3	2.4	100.0	(585)
종사상지위($\chi^2=73.1^{**}$)											
비임금근로자	83.2	0.9	0.8	1.5	1.4	4.0	1.8	3.9	2.5	100.0	(1,31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81.6	1.6	0.4	1.9	2.8	3.3	1.8	4.4	2.1	100.0	(23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4.4	0.6	1.0	1.6	1.5	3.1	0.9	4.2	2.7	100.0	(618)
무급가족종사자	82.3	1.0	0.8	1.2	0.5	5.6	2.9	3.2	2.5	100.0	(455)
임금근로자	81.2	1.1	0.7	2.8	2.0	3.8	1.7	3.2	3.5	100.0	(5,249)
상용근로자	80.6	0.8	0.9	2.9	2.0	3.9	1.6	3.5	3.7	100.0	(3,037)
임시근로자	82.2	1.6	0.5	2.5	2.4	3.2	2.0	3.0	2.7	100.0	(1,786)
일용근로자	80.3	0.8	0.2	2.8	1.1	6.0	1.6	1.5	5.8	100.0	(426)
주당 근로시간($\chi^2=23.7^{**}$)											
40시간 미만	81.7	0.9	0.8	2.2	2.0	4.0	1.8	3.7	3.1	100.0	(4,539)
40시간 이상	81.2	1.5	0.5	3.3	1.8	3.5	1.7	2.6	3.9	100.0	(2,020)
직장 유형($\chi^2=110.5^{***}$)											
정부기관·공공기관	86.4	0.1	0.1	0.7	1.1	4.0	1.4	2.9	3.4	100.0	(1,003)
민간 대기업	78.3	1.0	1.4	6.6	2.3	3.8	0.9	1.8	3.8	100.0	(623)
민간 중소기업	80.4	1.5	0.7	2.7	2.4	3.3	2.0	3.6	3.4	100.0	(2,512)
개인사업체	81.6	1.0	0.9	2.0	1.6	4.4	1.9	3.6	3.0	100.0	(2,410)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자녀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 유치원 갈 때까지,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까지,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까지,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기타 등이 해당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일에 대한 만족도

취업한 기혼 여성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는 0.8%에 불과하였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10.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만족에 가까운 응답이 63.6%로 불만족에 가까운 응답 1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인 경우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인 경우에도 불만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23〉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계	(명)
전체	0.8	2.6	7.4	25.5	31.2	21.6	10.8	100.0	(6,559)
거주지($\chi^2=13.8$)									
대도시	0.9	2.6	7.2	24.2	31.1	22.7	11.3	100.0	(2,768)
중소도시	0.6	2.7	7.7	26.0	31.8	20.5	10.7	100.0	(2,800)
농촌	1.2	2.7	7.4	27.8	30.1	21.3	9.4	100.0	(992)
연령($\chi^2=42.5^*$)									
30세 미만	1.1	3.5	11.1	23.4	34.2	17.9	8.8	100.0	(258)
30~34세	0.7	2.4	7.5	24.4	32.7	22.1	10.2	100.0	(800)
35~39세	0.8	3.3	8.7	24.3	30.9	21.8	10.2	100.0	(1,368)
40~44세	0.8	2.8	7.8	23.4	31.3	22.8	11.1	100.0	(1,719)
45~49세	1.0	2.1	6.0	28.4	30.6	20.7	11.2	100.0	(2,414)
교육수준($\chi^2=193.2^{***}$)									
고졸 이하	1.1	3.6	8.5	33.2	29.2	16.6	7.8	100.0	(2,432)
대졸 이상	0.7	2.1	6.8	21.0	32.5	24.5	12.5	100.0	(4,127)
현존 자녀수($\chi^2=41.3^{**}$)									
0명	0.6	1.5	9.0	20.7	35.9	23.7	8.6	100.0	(485)
1명	0.7	3.1	6.6	24.8	30.5	23.8	10.6	100.0	(1,651)
2명	0.9	2.5	7.5	25.5	31.3	20.8	11.6	100.0	(3,568)
3명 이상	1.1	3.2	7.7	30.1	29.9	19.2	8.7	100.0	(855)
가구소득($\chi^2=281.5^{***}$)									
60% 미만	2.7	3.7	11.8	29.5	30.4	17.6	4.4	100.0	(455)
60~80% 미만	1.4	3.9	10.4	33.7	26.9	15.7	7.9	100.0	(610)
80~100% 미만	1.1	2.8	8.7	29.9	31.2	18.2	8.1	100.0	(1,061)
100~120% 미만	0.6	3.0	7.4	28.3	32.0	19.0	9.8	100.0	(1,164)
120~140% 미만	0.8	2.4	6.0	26.2	32.8	20.9	11.0	100.0	(1,125)
140~160% 미만	0.3	2.7	6.2	20.6	32.3	23.1	14.9	100.0	(746)
160% 이상	0.4	1.5	5.5	17.3	31.0	29.8	14.5	100.0	(1,399)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만족 응답 비율이 약간 낮아졌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 비율도 높았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별로는 관리직·전문직·군인인 경우, 사무직인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와 일용근로자인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직장 유형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인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나 직장 유형인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8-24〉 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계	(명)
전체	0.8	2.6	7.4	25.5	31.2	21.6	10.8	100.0	(6,559)
직종($\chi^2=413.2^{***}$)									
관리직·전문직·군인	0.6	1.7	5.2	17.8	31.3	27.9	15.6	100.0	(2,054)
사무직	0.7	2.1	5.9	23.5	33.3	23.9	10.7	100.0	(1,667)
서비스직	1.5	4.5	9.2	29.1	28.5	18.2	9.0	100.0	(1,168)
판매직	0.9	2.5	9.6	32.0	34.3	15.0	5.8	100.0	(734)
농림어업	3.4	4.2	10.8	38.2	25.0	13.1	5.1	100.0	(106)
기능원	-	3.5	6.0	31.2	32.7	14.4	12.3	100.0	(149)
장치기계직	0.6	3.2	7.7	40.0	26.9	14.4	7.3	100.0	(96)
단순노무직	0.8	3.4	13.1	37.2	28.2	12.3	5.1	100.0	(585)
종사상지위($\chi^2=273.4^{***}$)									
비임금근로자	1.3	3.4	9.0	26.4	27.9	19.9	12.2	100.0	(1,31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8	2.7	6.1	21.8	31.6	24.0	13.1	100.0	(2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4	2.4	7.0	20.3	30.3	21.3	18.1	100.0	(618)
무급가족종사자	2.7	5.0	13.2	36.9	22.7	15.7	3.8	100.0	(455)
임금근로자	0.7	2.5	7.0	25.3	32.1	22.0	10.4	100.0	(5,249)
상용근로자	0.7	2.3	6.0	22.1	32.4	25.2	11.3	100.0	(3,037)
임시근로자	0.6	2.1	7.6	28.8	33.0	18.1	9.7	100.0	(1,786)
일용근로자	1.2	5.1	12.1	33.4	25.7	15.7	6.6	100.0	(426)

〈표 8-24〉 계속

구 분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계	(명)
주당 근로시간($\chi^2=26.6^{***}$)									
40시간 미만	1.0	2.9	7.0	24.9	32.0	22.2	10.0	100.0	(4,539)
40시간 이상	0.5	2.1	8.3	26.9	29.5	20.0	12.6	100.0	(2,020)
직장 유형($\chi^2=208.8^{***}$)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0.4	1.6	4.4	14.5	30.2	33.5	15.3	100.0	(1,003)
민간 대기업	1.0	2.8	6.7	24.5	31.2	24.1	9.8	100.0	(623)
민간 중소기업	0.9	2.6	7.6	27.7	33.8	18.7	8.9	100.0	(2,512)
개인사업체	0.9	3.1	8.8	28.0	29.1	19.0	11.1	100.0	(2,41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절 취업 의향

1.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비취업 기혼 여성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육아 때문이 60.0%로 가장 많았고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11.1%, 가사 때문이 5.4%,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연령층일수록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고연령층일수록 육아 이외의 응답인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나 건강상 이유, 일하고 싶지 않아서와 같은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나 건강상 이유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육아 외에 건강상 어려움이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

자리가 없어서 등과 같은 응답이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인 경우 일하고 싶지 않아서나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8-25〉 비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가사	육아	가족 돌봄	가족 반대	건강상 어려움	적당한 일자리 없음	근처에 일자리 없음	교육, 기술, 경험 부족	일할 필요 없음	일하고 싶지 않음	다니던 직장 휴·폐업 등	기타	계	(명)
전체	5.4	60.0	1.4	1.8	7.4	11.1	2.4	1.4	1.5	5.0	1.5	1.1	100.0	(4,648)
거주지($\chi^2=49.9^{***}$)														
대도시	6.5	60.5	1.3	1.3	7.3	9.2	2.1	1.3	1.8	5.4	1.8	1.5	100.0	(2,035)
중소도시	4.4	58.8	1.6	2.2	7.7	13.0	2.4	1.4	1.7	4.9	1.2	0.8	100.0	(2,003)
농촌	5.0	61.9	0.9	2.2	7.0	11.5	3.4	1.2	0.4	4.2	1.3	0.8	100.0	(611)
연령($\chi^2=1451.2^{***}$)														
30세 미만	0.7	83.5	-	2.0	1.9	3.8	1.3	1.6	-	1.6	1.6	2.1	100.0	(312)
30~34세	1.4	85.2	0.2	1.1	2.1	3.5	0.9	0.4	0.4	3.5	0.1	1.3	100.0	(740)
35~39세	2.7	81.1	0.6	1.1	2.8	5.1	1.3	0.7	0.8	2.5	0.3	1.2	100.0	(1,275)
40~44세	7.5	56.6	1.6	1.7	8.4	11.8	2.7	1.2	1.2	4.5	1.7	1.1	100.0	(1,142)
45~49세	10.0	18.4	3.0	3.1	16.3	23.8	4.5	2.8	3.8	10.3	3.4	0.5	100.0	(1,178)
교육수준($\chi^2=219.0^{***}$)														
고졸 이하	6.4	48.4	1.8	2.5	12.5	13.9	3.2	1.4	1.3	5.1	2.2	1.3	100.0	(1,758)
대졸 이상	4.8	67.1	1.1	1.4	4.3	9.4	1.9	1.3	1.7	5.0	1.0	0.9	100.0	(2,890)
현재 자녀수($\chi^2=802.8^{***}$)														
0명	3.7	8.3	0.8	6.5	19.5	18.7	2.8	3.1	2.3	19.1	3.6	11.5	100.0	(289)
1명	2.6	72.6	1.3	1.1	5.0	8.4	1.4	1.1	1.7	3.7	0.7	0.6	100.0	(1,323)
2명	6.7	58.2	1.6	1.5	7.5	12.0	3.0	1.3	1.6	4.5	1.8	0.3	100.0	(2,412)
3명 이상	7.0	63.9	1.0	2.3	6.7	9.9	1.9	1.2	0.7	3.7	1.1	0.5	100.0	(625)
가구소득($\chi^2=407.6^{***}$)														
60% 미만	2.5	53.4	2.6	0.7	15.0	11.4	3.1	1.8	0.6	3.8	3.5	1.5	100.0	(669)
60~80% 미만	3.7	69.8	0.8	1.6	6.3	8.3	2.1	0.9	0.6	4.3	0.7	1.1	100.0	(1,225)
80~100% 미만	5.3	64.4	0.7	1.2	6.3	11.0	2.5	1.5	0.6	3.7	1.5	1.2	100.0	(1,012)
100~120% 미만	5.9	58.5	1.4	2.2	7.1	12.5	1.8	1.8	1.3	4.5	1.5	1.5	100.0	(714)
120~140% 미만	7.3	51.3	2.5	3.4	7.0	15.1	2.6	2.1	1.9	5.5	0.5	1.0	100.0	(343)
140~160% 미만	9.0	50.1	2.8	2.5	4.5	10.8	3.6	1.6	3.5	10.0	1.5	-	100.0	(246)
160% 이상	10.3	47.4	0.9	3.1	4.1	13.5	2.2	0.3	6.7	10.2	1.2	-	100.0	(437)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향후 취업 의향

비취업 기혼 여성 중 74.6%는 향후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자의 경우 향후 취업 의향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취업 의향이 약간 낮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취업 의향이 높았으며 대졸 이상인 경우 취업 의향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향후 취업 의향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취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8-26〉 비취업 기혼 여성(15~49세)의 향후 취업 의향

(단위: %, 명)

구 분	취업의향 있음	취업의향 없음	계	(명)
전체	74.6	25.4	100.0	(4,648)
거주지($\chi^2=10.6^{**}$)				
대도시	72.3	27.7	100.0	(2,035)
중소도시	76.1	23.9	100.0	(2,003)
농촌	77.5	22.5	100.0	(611)
연령($\chi^2=267.1^{***}$)				
30세 미만	89.3	10.7	100.0	(312)
30~34세	86.4	13.6	100.0	(740)
35~39세	80.1	19.9	100.0	(1,275)
40~44세	73.1	26.9	100.0	(1,142)
45~49세	58.7	41.3	100.0	(1,178)
교육수준($\chi^2=12.8^{**}$)				
고졸 이하	71.7	28.3	100.0	(1,758)
대졸 이상	76.4	23.6	100.0	(2,890)
현존 자녀수($\chi^2=12.3^{**}$)				
0명	72.3	27.7	100.0	(289)
1명	78.0	22.0	100.0	(1,323)
2명	73.6	26.4	100.0	(2,412)
3명 이상	72.0	28.0	100.0	(625)
가구소득($\chi^2=187.0^{***}$)				
60%미만	80.3	19.7	100.0	(669)
60~80% 미만	82.1	17.9	100.0	(1,225)
80~100% 미만	79.4	20.6	100.0	(1,012)
100~120% 미만	68.4	31.6	100.0	(714)
120~140% 미만	69.8	30.2	100.0	(343)
140~160% 미만	57.5	42.5	100.0	(246)
160% 이상	57.2	42.8	100.0	(437)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가 33.2%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24.0%,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27〉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15~49세)의 취업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 분	현재 돈 버는 사람 없음	남편 수입으로 부족	자녀 양육 교육비 부담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	자아 실현	본인의 경제적 독립	노후 대책	기타	계	(명)
전체	2.2	23.4	33.2	4.5	24.0	5.4	7.0	0.2	100.0	(3,467)
거주지										
대도시	2.5	22.6	31.7	4.8	25.8	5.6	6.7	0.3	100.0	(1,471)
중소도시	2.0	23.0	34.0	4.2	23.6	5.5	7.6	0.2	100.0	(1,523)
농촌	2.2	27.2	35.4	4.8	19.7	4.6	6.0	0.1	100.0	(473)
연령										
30세 미만	1.8	31.0	31.3	5.2	23.4	5.4	1.1	0.9	100.0	(279)
30~34세	0.3	28.1	35.0	5.4	24.6	4.4	1.9	0.3	100.0	(639)
35~39세	1.2	24.9	38.9	3.2	22.7	4.9	4.1	0.2	100.0	(1,022)
40~44세	2.2	20.3	35.6	4.2	24.4	5.5	7.6	0.1	100.0	(835)
45~49세	5.6	17.6	21.0	5.9	25.1	6.9	17.6	0.2	100.0	(691)
교육수준($\chi^2=166.5^{***}$)										
고졸 이하	4.3	29.4	33.6	4.2	14.2	4.9	9.4	0.1	100.0	(1,259)
대졸 이상	1.1	20.0	33.0	4.8	29.6	5.7	5.6	0.3	100.0	(2,207)
현존 자녀수										
0명	2.1	24.1	10.3	9.2	38.7	6.4	8.6	0.5	100.0	(209)
1명	3.0	23.0	30.9	4.8	26.6	5.3	6.2	0.3	100.0	(1,032)
2명	1.8	22.7	35.6	3.9	22.5	5.7	7.6	0.1	100.0	(1,777)
3명 이상	2.2	26.8	39.7	4.4	16.8	3.6	6.0	0.5	100.0	(450)
가구소득										
60% 미만	12.6	42.9	24.2	2.0	12.0	2.2	3.7	0.5	100.0	(537)
60~80% 미만	0.6	32.6	38.1	3.7	15.5	5.3	4.2	-	100.0	(1,005)
80~100% 미만	0.1	18.9	41.6	5.0	21.3	4.9	8.0	0.1	100.0	(804)
100~120% 미만	0.3	12.1	33.1	4.2	32.8	8.2	8.7	0.5	100.0	(488)
120~140% 미만	-	7.4	28.8	4.6	35.8	6.5	16.6	0.4	100.0	(240)
140~160% 미만	-	8.6	32.9	13.3	34.9	3.7	6.6	-	100.0	(141)
160% 이상	-	5.4	10.7	7.4	57.5	8.4	10.1	0.4	100.0	(250)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희망 이유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졸 이상인 경우 자아실현을 위한 목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졸 이하인 경우 남편의 수입만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비취업자 중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그 시기는 자녀 출산이나 양육과 상관없이 취직이 될 때가 25.8%,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때 즈음이 11.4%, 유치원에 갈 때 즈음이 7.6%, 초등학교 일정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이 29.9%, 중학교 일정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이 13.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인 경우 농촌지역에 비해 자녀가 조금 더 성장한 이후에 취업하기를 희망했으며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인 경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였기 때문에 출산이나 양육과 상관없이 취직이 될 때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즉시 취업하기를,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일정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에 취업하기를 상대적으로 더 원하고 있었다.

〈표 8-28〉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15~49세)의 취업 희망 시기
(단위: %, 명)

구 분	출산·양육 관계없이	자녀 어린이집 갈 때	자녀 유치원 갈 때	자녀 초등학교 X학년 진학	자녀 중학교 X학년 진학	자녀 고등학교 X학년 진학	자녀 대학 진학	기타	계	(명)
전체	25.8	11.4	7.6	29.9	13.1	3.8	5.0	3.5	100.0	(3,467)
거주지($\chi^2=40.9^{***}$)										
대도시	22.5	11.2	7.7	30.5	14.2	4.0	5.9	4.1	100.0	(1,471)
중소도시	28.5	11.0	6.8	28.6	13.1	3.8	5.1	3.2	100.0	(1,523)
농촌	27.2	13.3	9.9	32.4	10.0	2.9	1.7	2.7	100.0	(473)
연령($\chi^2=1320.1^{***}$)										
30세 미만	16.2	33.0	15.8	26.8	4.8	-	1.1	2.3	100.0	(279)
30~34세	14.3	24.2	14.6	37.8	6.8	0.7	0.6	1.0	100.0	(639)
35~39세	15.1	10.3	9.6	43.5	16.2	2.4	1.6	1.4	100.0	(1,022)
40~44세	28.0	5.1	2.8	26.6	19.5	6.6	8.2	3.2	100.0	(835)
45~49세	53.3	-	0.5	7.9	10.1	6.7	11.6	9.8	100.0	(691)
교육수준($\chi^2=110.4^{***}$)										
고졸 이하	34.0	10.3	4.9	25.6	11.2	4.3	4.5	5.2	100.0	(1,259)
대졸 이상	21.1	12.0	9.1	32.4	14.2	3.5	5.2	2.5	100.0	(2,207)

〈표 8-28〉 계속

구 분	출산양육 관계없이	자녀 어린이집 갈 때	자녀 유치원 갈 때	자녀 초등학교 X학년 진학	자녀 중학교 X학년 진학	자녀 고등학교 X학년 진학	자녀 대학 진학	기타	계	(명)
현존 자녀수($\chi^2=324.9^{***}$)										
0명	52.8	22.2	6.6	7.5	1.5	-	1.1	8.3	100.0	(209)
1명	19.1	17.4	11.9	29.7	11.7	3.5	4.0	2.5	100.0	(1,032)
2명	27.2	7.0	5.8	30.4	15.0	4.4	6.4	3.9	100.0	(1,777)
3명 이상	22.9	10.1	5.0	38.8	14.2	3.6	3.4	2.0	100.0	(450)
가구소득($\chi^2=268.1^{***}$)										
60% 미만	34.3	14.7	8.2	25.2	6.3	3.0	1.9	6.3	100.0	(537)
60~80% 미만	23.2	15.3	9.0	32.6	13.2	2.3	2.5	1.9	100.0	(1,005)
80~100% 미만	24.5	11.4	8.5	32.2	13.4	3.0	3.8	3.2	100.0	(804)
100~120% 미만	22.9	7.0	6.9	31.4	16.8	4.1	7.2	3.8	100.0	(488)
120~140% 미만	24.5	6.3	3.7	28.6	19.0	6.0	8.0	3.9	100.0	(240)
140~160% 미만	31.3	5.1	5.5	25.1	12.1	8.3	10.7	1.9	100.0	(141)
160% 이상	25.5	5.9	3.4	23.7	14.0	8.1	14.8	4.7	100.0	(250)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 바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자녀가 많아질수록 취업 희망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춰지고 있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인 경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제5절 일 형태와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기혼 여성의 이상적인 직장 형태와 적정 자녀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41.7%가 시간제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응답했고 19.5%는 시간제이면서 1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은 전일제이면서 자녀 1명을 두는 것 10.9%, 전일제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 9.6%, 비취업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시간제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인 것과 시간제이면서 자녀 1명을 두

는 것이 그다음 많은 응답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지만, 2018년에 전반적으로 시간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반면 전일제에 대한 선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9〉 기혼 여성(15~49세)의 이상적인 직장 형태와 적정 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시간제			비취업			계	(명)
	무자녀	1명	2명+	무자녀	1명	2명+	무자녀	1명	2명+		
전체(2015)	5.5	14.9	15.4	0.6	15.8	37.2	0.2	1.0	9.3	100.0	(11,009)
전체(2018)	7.3	10.9	9.6	1.2	19.5	41.7	0.4	1.5	8.0	100.0	(11,207)
거주지($\chi^2=74.4^{***}$)											
대도시	8.7	11.6	8.4	1.3	20.3	39.9	0.3	1.5	8.1	100.0	(4,802)
중소도시	6.6	10.7	10.6	1.2	19.6	42.0	0.4	1.4	7.6	100.0	(4,802)
농촌	4.9	9.1	10.2	1.4	16.9	46.4	0.4	1.6	9.1	100.0	(1,602)
연령($\chi^2=144.0^{***}$)											
30세 미만	10.0	13.2	7.8	0.9	25.2	35.4	-	1.2	6.4	100.0	(571)
30~34세	9.0	13.2	7.7	1.4	21.8	37.5	0.5	1.7	7.2	100.0	(1,541)
35~39세	7.4	11.9	8.1	1.0	21.3	41.2	0.2	1.7	7.2	100.0	(2,643)
40~44세	6.7	9.6	9.4	1.4	18.7	44.1	0.4	1.0	8.6	100.0	(2,861)
45~49세	6.4	9.7	11.8	1.3	17.0	43.0	0.4	1.6	8.8	100.0	(3,592)
교육수준($\chi^2=43.2^{***}$)											
고졸 이하	7.3	9.4	9.5	1.5	18.4	42.3	0.3	1.6	9.6	100.0	(4,189)
대졸 이상	7.2	11.7	9.6	1.1	20.2	41.3	0.4	1.4	7.1	100.0	(7,018)
현존 자녀수($\chi^2=1514.3^{***}$)											
0명	14.6	15.0	5.2	2.1	26.7	27.8	0.7	2.0	5.9	100.0	(773)
1명	7.0	18.7	5.4	1.3	34.0	24.5	0.3	3.4	5.4	100.0	(2,973)
2명	6.8	7.2	12.1	1.0	13.6	49.7	0.3	0.7	8.6	100.0	(5,980)
3명 이상	5.9	7.6	10.2	1.7	10.6	50.9	0.7	0.2	12.1	100.0	(1,480)
취업 여부($\chi^2=265.5^{***}$)											
취업	7.4	12.1	12.6	1.1	17.3	41.5	0.3	1.1	6.6	100.0	(6,559)
비취업	7.1	9.1	5.4	1.5	22.6	42.0	0.4	1.9	10.1	100.0	(4,648)
가구소득($\chi^2=158.5^{***}$)											
60% 미만	8.4	10.7	8.1	1.8	20.6	40.3	0.6	1.7	7.9	100.0	(1,123)
60~80% 미만	7.7	9.8	7.4	1.4	20.9	41.4	0.5	1.7	9.2	100.0	(1,834)
80~100% 미만	6.1	10.1	6.9	1.4	22.3	43.1	0.2	1.8	8.0	100.0	(2,073)
100~120% 미만	7.5	10.3	8.6	1.4	19.4	42.5	0.2	1.6	8.5	100.0	(1,878)
120~140% 미만	6.8	13.1	11.6	1.1	16.9	42.5	0.5	1.0	6.6	100.0	(1,468)
140~160% 미만	6.4	11.7	11.9	0.6	20.0	40.8	0.4	0.7	7.5	100.0	(992)
160% 이상	8.1	11.0	13.8	0.9	16.3	40.3	0.2	1.3	8.0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별로는 농촌인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시간제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시간제나 전일제, 비취업 상관 없이 2명 이상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저연령층일수록 전일제 무자녀나 1자녀, 시간제 1자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시간제이든 전일제이든 비취업이든 2자녀 이상을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녀가 적을수록 무자녀나 한 자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전일제 1명이나 전일제 2명 이상에 대한 응답이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현재 비취업인 경우에는 시간제 1명이나 비취업 2명 이상에 대한 응답이 취업중인 경우에 비해 약간 많았다.

제1절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필요성

기혼 여성에게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25.1%, 대체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38.6%로 63.7%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28.4%,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1%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32.5%)에 비해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저출산 현상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금 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매우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농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일수록 매우 영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취업한 경우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매우 영향 있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대체로 증가하였다.

〈표 9-1〉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생각

(단위: %, 명)

구 분	매우 영향 있음	대체로 영향 있음	별로 영향 없음	전혀 영향 없음	모름	계	(명)
전체(2015)	17.0	45.1	30.3	4.0	3.5	100.0	(11,009)
전체(2018)	25.1	38.6	28.4	4.1	3.8	100.0	(11,207)
거주지($\chi^2=18.2^{**}$)							
대도시	26.4	38.2	27.8	4.2	3.4	100.0	(4,802)
중소도시	24.6	39.1	28.5	3.7	4.1	100.0	(4,802)
농촌	22.8	38.1	29.8	4.8	4.5	100.0	(1,602)
연령($\chi^2=171.2^{***}$)							
25세 미만	16.0	41.8	33.9	4.5	3.8	100.0	(81)
25~29세	17.8	39.0	33.6	4.9	4.7	100.0	(490)
30~34세	17.6	38.3	34.5	4.8	4.8	100.0	(1,541)
35~39세	21.8	38.4	31.4	4.4	4.0	100.0	(2,643)
40~44세	28.0	38.6	26.4	3.8	3.2	100.0	(2,861)
45~49세	29.7	38.6	24.3	3.7	3.7	100.0	(3,592)
교육수준($\chi^2=167.7^{***}$)							
중졸 이하	13.1	34.4	36.0	5.9	10.7	100.0	(230)
고졸	22.0	37.4	31.5	4.3	4.9	100.0	(3,960)
대졸	26.6	39.3	27.1	3.9	3.2	100.0	(6,485)
대학원졸	36.6	40.4	18.2	3.2	1.5	100.0	(533)
혼인상태($\chi^2=33.1^{***}$)							
유배우	25.5	38.6	28.2	3.9	3.8	100.0	(10,630)
사별	27.5	35.9	27.1	6.8	2.8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17.0	38.2	32.4	7.1	5.3	100.0	(466)
취업 여부($\chi^2=68.8^{***}$)							
취업	27.6	38.3	26.1	4.2	3.7	100.0	(6,559)
비취업	21.6	38.9	31.6	3.9	4.0	100.0	(4,648)
가구소득($\chi^2=171.3^{***}$)							
60% 미만	20.4	35.7	32.0	5.6	6.4	100.0	(1,123)
60~80% 미만	21.7	36.8	32.4	4.8	4.3	100.0	(1,834)
80~100% 미만	21.4	40.3	30.4	4.2	3.6	100.0	(2,073)
100~120% 미만	24.9	39.7	27.8	3.5	4.1	100.0	(1,878)
120~140% 미만	26.7	40.3	25.6	3.7	3.7	100.0	(1,468)
140~160% 미만	29.4	40.0	23.2	4.2	3.1	100.0	(992)
160% 이상	32.4	36.8	25.5	3.0	2.3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기혼 여성 중 42.4%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8.0%는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90.4%

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9-2〉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	(명)
전체	42.4	48.0	8.8	0.8	100.0	(11,207)
거주지($\chi^2=2.9$)						
대도시	41.8	48.2	9.1	0.9	100.0	(4,802)
중소도시	42.5	48.2	8.5	0.8	100.0	(4,802)
농촌	43.8	47.1	8.4	0.7	100.0	(1,602)
연령($\chi^2=116.5^{***}$)						
25세 미만	49.9	41.7	5.6	2.8	100.0	(81)
25~29세	54.3	40.6	4.6	0.5	100.0	(490)
30~34세	50.1	41.8	7.6	0.6	100.0	(1,541)
35~39세	43.6	46.9	8.7	0.8	100.0	(2,643)
40~44세	40.9	48.6	9.8	0.7	100.0	(2,861)
45~49세	37.6	52.2	9.1	1.1	100.0	(3,592)
교육수준($\chi^2=17.0^*$)						
중졸 이하	39.1	45.7	14.8	0.5	100.0	(230)
고졸	42.2	47.6	9.4	0.8	100.0	(3,960)
대졸	42.5	48.5	8.1	0.9	100.0	(6,485)
대학원졸	43.7	46.1	9.2	1.0	100.0	(533)
혼인상태($\chi^2=15.9^*$)						
유배우	42.7	47.9	8.7	0.8	100.0	(10,630)
사별	35.4	54.6	8.4	1.6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38.3	48.8	10.9	2.0	100.0	(466)
취업 여부($\chi^2=3.1$)						
취업	41.7	48.6	8.8	0.8	100.0	(6,559)
비취업	43.4	47.1	8.7	0.8	100.0	(4,648)
가구소득($\chi^2=42.2^{**}$)						
60% 미만	42.8	46.4	9.8	1.1	100.0	(1,123)
60~80% 미만	47.0	44.2	7.9	0.9	100.0	(1,834)
80~100% 미만	43.3	47.7	8.4	0.6	100.0	(2,073)
100~120% 미만	41.6	49.3	8.1	0.9	100.0	(1,878)
120~140% 미만	42.4	49.2	7.8	0.6	100.0	(1,468)
140~160% 미만	38.3	50.4	10.4	0.9	100.0	(992)
160% 이상	39.5	49.7	10.0	0.8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고연령층인 경우 저연령층에 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간 적고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간 많아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낮았고 혼인 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사별인 경우에 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간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이나 취업 여부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혼 여성의 38.8%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인 97.1%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간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집단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집단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 가구소득별로는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와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은 지원 정도에 대해 저연령층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동의의 세기가 세졌다. 저연령층인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이기 때문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 때문에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9-3〉 국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별로 지원할 필요 없다	전혀 지원할 필요 없다	모르겠음	계	(명)
전체(2015)	35.0	61.4	2.8	0.5	0.3	100.0	(11,009)
전체(2018)	38.8	58.3	2.2	0.4	0.4	100.0	(11,207)
거주지($\chi^2=14.6$)							
대도시	38.4	58.6	2.3	0.4	0.2	100.0	(4,802)
중소도시	38.4	58.3	2.4	0.4	0.4	100.0	(4,802)
농촌	41.0	56.9	1.4	0.1	0.5	100.0	(1,602)
연령($\chi^2=244.9^{***}$)							
25세 미만	55.5	44.5	-	-	-	100.0	(81)
25~29세	53.5	45.2	0.9	0.2	0.2	100.0	(490)
30~34세	48.1	50.2	1.2	0.3	0.2	100.0	(1,541)
35~39세	42.5	55.6	1.4	0.1	0.3	100.0	(2,643)
40~44세	36.3	60.8	2.2	0.4	0.4	100.0	(2,861)
45~49세	31.7	63.8	3.5	0.6	0.5	100.0	(3,592)
교육수준							
중졸 이하	38.5	55.6	2.8	-	3.0	100.0	(230)
고졸	37.7	58.7	2.8	0.4	0.4	100.0	(3,960)
대졸	39.3	58.3	1.8	0.4	0.2	100.0	(6,485)
대학원졸	41.5	55.5	2.4	0.2	0.4	100.0	(533)
혼인상태							
유배우	39.1	58.1	2.1	0.4	0.3	100.0	(10,630)
사별	28.0	66.7	2.6	1.2	1.5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35.5	59.7	3.6	0.2	1.0	100.0	(466)
취업 여부($\chi^2=3.2$)							
취업	38.3	58.7	2.3	0.4	0.3	100.0	(6,559)
비취업	39.6	57.7	2.0	0.3	0.4	100.0	(4,648)
가구소득($\chi^2=72.7^{***}$)							
60% 미만	42.0	53.8	2.9	0.4	0.9	100.0	(1,123)
60~80% 미만	43.8	54.0	1.6	0.3	0.3	100.0	(1,834)
80~100% 미만	38.8	58.5	2.0	0.3	0.4	100.0	(2,073)
100~120% 미만	38.7	58.5	2.4	0.2	0.1	100.0	(1,878)
120~140% 미만	36.4	60.2	2.4	0.6	0.4	100.0	(1,468)
140~160% 미만	36.7	60.9	1.8	0.1	0.4	100.0	(992)
160% 이상	34.9	61.9	2.4	0.6	0.2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욕구

1. 가장 필요한 결혼 정책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혼집 마련이 39.3%로 가장 많았고 청년고용 안정화 20.8%, 청년실업문제 해소 20.5%, 결혼으로 인한 직장 불이익 제거 12.1%, 장시간 근로 등 직장문화 개선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나 청년고용안정화와 같은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저연령층일수록 신혼집 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일 경우 본인의 결혼 경험에 비추어 응답하는 경향이, 고연령층일 경우 자녀의 결혼 정책을 기대하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신혼집 마련 지원과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으로 인한 직장 불이익 제거나 장시간 근로 등 직장문화 개선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일·가정양립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9-4〉 가장 필요한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생각

(단위: %, 명)

구 분	청년실업 문제 해소	청년고용 안정화	신혼집 마련지원	결혼으로 인한 직장 불이익 제거	장시간 근로 등 직장문화 개선	기타	계	(명)
전체	20.5	20.8	39.3	12.1	6.9	0.3	100.0	(10,133)
거주지($\chi^2=8.8$)								
대도시	20.5	20.5	39.3	12.8	6.6	0.3	100.0	(4,322)
중소도시	20.8	21.0	38.9	11.8	7.3	0.3	100.0	(4,354)
농촌	19.6	21.6	40.9	10.9	6.8	0.2	100.0	(1,457)

〈표 9-4〉 계속

구 분	청년실업 문제 해소	청년고용 안정화	신혼집 마련지원	결혼으로 인한 직장 불이익 제거	장시간 근로 등 직장문화 개선	기타	계	(명)
연령($\chi^2=670.9^{***}$)								
25세 미만	18.7	11.0	55.1	8.5	6.7	-	100.0	(74)
25~29세	10.2	12.7	53.5	16.0	7.4	0.2	100.0	(465)
30~34세	10.1	14.4	54.1	13.0	8.0	0.4	100.0	(1,415)
35~39세	14.6	17.8	43.1	15.0	8.9	0.6	100.0	(2,393)
40~44세	21.8	23.1	35.1	12.2	7.4	0.3	100.0	(2,561)
45~49세	30.0	25.5	31.0	8.9	4.5	0.1	100.0	(3,225)
교육수준($\chi^2=69.4^{***}$)								
중졸 이하	22.9	18.3	44.6	7.7	6.0	0.5	100.0	(195)
고졸	22.9	20.3	40.6	10.2	5.9	0.2	100.0	(3,558)
대졸	19.4	21.0	38.8	13.0	7.5	0.3	100.0	(5,902)
대학원졸	15.8	24.2	34.6	16.2	8.4	0.8	100.0	(478)
혼인상태($\chi^2=12.3$)								
유배우	20.4	20.9	39.3	12.1	7.0	0.3	100.0	(9,626)
사별	31.6	18.3	32.9	12.0	5.2	-	100.0	(100)
이혼·별거·미혼모	21.4	20.2	41.4	11.6	5.4	-	100.0	(406)
취업 여부($\chi^2=9.9$)								
취업	20.8	21.6	38.4	11.8	7.1	0.4	100.0	(5,926)
비취업	20.2	19.8	40.6	12.5	6.7	0.2	100.0	(4,206)
가구소득($\chi^2=81.0$)								
60% 미만	20.2	19.4	43.4	11.5	5.5	-	100.0	(1,001)
60~80% 미만	17.1	19.5	44.0	12.5	6.7	0.3	100.0	(1,674)
80~100% 미만	19.7	20.0	41.5	10.8	7.7	0.4	100.0	(1,886)
100~120% 미만	21.3	21.0	39.3	11.4	6.7	0.3	100.0	(1,708)
120~140% 미만	20.7	20.6	37.9	13.1	7.2	0.3	100.0	(1,344)
140~160% 미만	23.5	23.8	33.2	12.1	6.7	0.6	100.0	(880)
160% 이상	22.6	22.5	34.1	13.4	7.1	0.3	100.0	(1,638)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이 15.3%로 가장 많았고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해소’가 각각 14.8%였다. 이 외에는 ‘경기 활성화(고용안정)’가 8.6%, ‘교육체계 개편’

7.0%, ‘공교육 강화’ 6.6%, ‘노동시장 변화’ 5.7%, ‘양성평등 구현’ 5.0%,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4.7%, ‘복지수준의 향상’ 4.2%,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3.7%, ‘사교육비 경감’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5〉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기존 여성(15~49세)의 의견(1순위)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계	(명)
전체	5.0	4.7	6.6	7.0	5.7	2.3	8.6	0.7	14.8	3.7	2.9	15.3	14.8	3.5	4.2	0.1	100.0	(11,207)
거주지($\chi^2=32.6$)																		
대도시	5.3	4.9	6.9	6.8	5.1	2.4	8.5	0.6	15.7	3.8	2.9	14.8	14.6	3.5	4.2	0.1	100.0	(4,802)
중소도시	5.2	4.6	6.3	7.2	6.2	2.3	8.8	0.7	13.9	3.8	3.2	15.6	14.5	3.3	4.2	0.1	100.0	(4,802)
농촌	3.8	4.7	6.7	7.4	6.1	2.2	7.9	0.8	15.0	3.4	2.2	15.9	15.8	4.1	3.9	-	100.0	(1,602)
연령($\chi^2=729.5^{***}$)																		
25세 미만	-	3.8	4.4	3.9	1.0	1.7	8.5	4.5	13.5	4.1	5.3	21.1	18.8	1.8	7.6	-	100.0	(81)
25~29세	3.2	4.0	2.5	4.5	3.4	2.3	5.4	1.2	16.7	3.0	5.3	18.0	24.3	2.8	3.1	0.4	100.0	(490)
30~34세	3.1	2.3	3.7	4.5	4.2	3.7	6.1	0.9	23.0	2.7	4.5	18.8	17.6	1.8	3.0	-	100.0	(1,541)
35~39세	4.1	3.7	6.9	5.5	4.0	2.5	7.1	0.6	18.6	2.9	3.5	17.9	15.5	3.2	3.9	0.1	100.0	(2,643)
40~44세	5.4	5.0	7.9	7.6	5.7	1.9	9.1	0.4	13.3	4.5	2.5	14.8	13.3	3.8	4.6	0.2	100.0	(2,861)
45~49세	6.5	6.4	7.1	9.2	8.2	2.0	10.7	0.7	9.5	4.3	1.7	11.7	12.7	4.5	4.6	0.0	100.0	(3,592)
교육수준($\chi^2=306.2^{***}$)																		
중졸 이하	4.9	4.1	6.5	7.8	9.1	1.8	5.3	4.1	7.6	2.0	3.7	12.9	22.5	3.0	4.8	-	100.0	(230)
고졸	4.0	6.0	6.6	8.1	6.3	2.2	9.1	0.9	11.1	3.1	1.6	14.9	17.1	4.6	4.4	0.1	100.0	(3,960)
대졸	5.4	4.1	6.6	6.5	5.3	2.4	8.2	0.5	16.9	4.2	3.5	15.7	13.5	3.0	4.1	0.2	100.0	(6,485)
대학원졸	8.1	3.1	6.5	5.9	5.2	2.8	10.3	0.1	20.3	4.4	4.6	14.3	9.8	2.0	2.7	-	100.0	(533)
혼인상태($\chi^2=80.1^{***}$)																		
유배우	5.0	4.6	6.6	7.1	5.6	2.3	8.6	0.6	15.1	3.8	3.0	15.5	14.6	3.5	4.1	0.1	100.0	(10,630)
사별	7.0	8.3	5.3	6.1	10.9	4.6	12.2	2.8	4.3	4.8	2.4	8.9	12.7	6.1	3.7	-	100.0	(111)
이혼·별거·미혼모	4.1	6.5	5.8	6.8	8.2	2.8	7.4	1.3	10.8	2.5	1.1	12.3	19.4	4.4	6.7	-	100.0	(466)
취업 여부($\chi^2=21.3$)																		
취업	5.4	4.8	6.5	7.0	6.0	2.6	8.7	0.6	14.7	3.8	3.0	14.5	14.6	3.4	4.3	0.1	100.0	(6,559)
비취업	4.5	4.6	6.7	7.0	5.4	2.0	8.3	0.7	15.0	3.7	2.7	16.4	14.9	3.8	4.0	0.2	100.0	(4,648)
가구소득($\chi^2=239.2^{***}$)																		
60% 미만	3.7	5.2	5.8	6.3	7.1	2.3	8.0	1.8	11.4	2.8	1.9	14.8	19.4	4.1	5.4	-	100.0	(1,123)
60~80% 미만	3.6	4.0	6.0	6.2	5.8	2.4	8.5	0.8	15.1	3.4	2.7	15.5	18.1	3.9	3.9	0.1	100.0	(1,834)
80~100% 미만	4.7	5.1	6.3	7.4	5.7	2.9	8.0	0.4	13.7	3.9	3.2	16.9	15.0	3.2	3.6	0.1	100.0	(2,073)
100~120% 미만	4.6	4.8	6.5	6.7	5.1	2.9	9.0	0.6	15.2	4.0	2.9	15.2	13.9	4.1	4.3	0.2	100.0	(1,878)
120~140% 미만	4.7	5.2	7.0	7.0	5.6	1.9	8.0	0.6	15.8	3.3	3.3	14.4	15.2	3.1	5.0	0.1	100.0	(1,468)
140~160% 미만	5.9	4.9	7.6	8.9	5.9	1.2	7.6	0.2	15.0	3.8	2.8	14.5	13.0	4.1	4.6	-	100.0	(992)
160% 이상	7.7	4.2	7.1	7.3	5.6	2.1	10.2	0.5	16.7	4.6	3.1	14.8	9.7	2.7	3.5	0.2	100.0	(1,836)

* p<0.05, ** p<0.01, *** p<0.001

주: ① 양성평등 구현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 공교육 강화 ④ 교육체계 개편(졸업 후 취업, 선취업 후 교육) ⑤ 노동시장 변화(학벌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⑥ 주택시장 안정 ⑦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⑧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⑨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⑩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⑪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⑫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⑬ 자녀 양육 비용 부담 해소 ⑭ 사교육비 경감 ⑮ 복지수준의 향상 ⑯ 기타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인 경우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이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해소와 같은 직접적인 자녀 양육 관련 여건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고연령층인 경우 교육체계 개편이나 공교육 강화,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양성평등 구현 등과 같은 좀 더 거시적인 시스템이나 사회문화 변화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은 양육 비용 해소에 대한 욕구가 특히 높았으며 고학력층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특히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양육 비용 부담 해소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별인 경우 경기활성화나 노동시장 변화, 학벌위주 사회문화 타파 등과 같은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인 경우 양육 비용 부담 해소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3절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주요 결혼·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하여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 여부 및 이용 시 도움 정도, 그리고 인지 시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고려하여, 정책 영역을 결혼 지원, 임신·출산 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돌봄 지원,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혼 지원 정책은 주거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지원이나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과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이 포함되었고 임신·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포함되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돌봄 관련 정책으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교

육비 지원,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생 방과 후돌봄 지원이 포함되었다.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으로는 출산전후휴가제도와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여성, 남성)가 포함되었다.

1.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및 중요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및 중요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4년 이후에 결혼(초혼)한 경우에 한해 분석하였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의 경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와 주택 자체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8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한 경험에 있는 경우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중요도 또한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6〉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단위: %, 점, 명)

구 분	인지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중요도 평균	(명)
신혼부부 전세 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85.2	(1,485)	4.5	(264)	4.7	(1,263)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83.0	(1,485)	4.4	(34)	4.6	(1,230)

주 : 1) 초혼 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경우에만 분석함.

2) 도움 정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이용한 경험에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도움받지 못함' 1점, '별로 도움받지 못함' 2점, '보통' 3점, '다소 도움' 4점, '매우 도움'을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3) 중요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다소 중요' 4점, '매우 중요'를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83.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에 있는 경우 도움 정도는 4.4점(5점 만점), 중

요도는 4.6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 지원 정책 중에서는 자금에 대한 대출 지원 정책이 주택 지원 정책보다는 인지율과 도움 정도, 중요도에서 약간 더 점수가 높았다.

2.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및 중요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임신·출산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99.9%로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가 알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4.2점으로 나타났고 중요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인지율은 88.4%로 나타났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는 4.3점(5점 만점), 중요도는 4.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을 비교해보면 정책 대상이 보편적인 임신·출산 비용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정책 대상이 제한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도움 정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중요도는 다시 임신·출산 비용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표 9-7〉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단위: %, 점, 명)

구 분	인지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중요도 평균	(명)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99.9	(1,784)	4.2	(1,779)	4.8	(1,78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88.4	(1,784)	4.3	(483)	4.5	(1,570)

주: 1)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에 한하여 분석함.

2) 도움 정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도움받지 못함' 1점, '별로 도움받지 못함' 2점, '보통' 3점, '다소 도움' 4점, '매우 도움'을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3) 중요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다소 중요' 4점, '매우 중요'를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3. 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및 중요도

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과 도움 정도,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미이용 시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인지율이 93.1%로 매우 높으며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4.0점으로 ‘다소 도움’ 정도로 나타났다. 중요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97.0%로 매우 높았고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는 4.4점(5점 만점), 중요도는 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비에 대해서는 93.6%가 알고 있었고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는 4.3점(5점 만점), 중요도는 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과 같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90.5%로 나타났고 이용자의 도움 정도는 4.6점(5점 만점), 중요도는 4.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89.6%, 이용자의 도움 정도는 4.3점(5점 만점), 중요도는 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 및 초등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인지율이 대체로 높았으나 그중에서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다. 도움 정도와 중요도는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고 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9-8〉 보육교육 및 초등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단위: %, 점, 명)

구 분	인지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중요도 평균	(명)
양육수당 지원	93.1	(11,207)	4.0	(4,533)	4.5	(10,414)
보육료 지원	97.0	(11,207)	4.4	(5,884)	4.6	(10,867)
유아교육비 지원	93.6	(11,207)	4.3	(3,822)	4.6	(10,483)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90.5	(11,207)	4.6	(1,522)	4.7	(10,120)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89.6	(11,207)	4.3	(1,516)	4.6	(10,031)

주: 1) 도움 정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도움받지 못함' 1점, '별로 도움받지 못함' 2점, '보통' 3점, '다소 도움' 4점, '매우 도움'을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2) 중요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다소 중요' 4점, '매우 중요'를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4.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및 중요도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이 98.5%, 도움 정도는 4.7점(5점 만점), 중요도는 4.8점(5점 만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인지율이 98.3%, 도움 정도와 중요도가 각각 4.8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에게 남성에게 대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중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도움받은 정도는 배우자가 해당 정책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의미한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96.1%, 도움 정도는 4.4점(5점 만점), 중요도는 4.7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배우자)의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이 95.6%, 도움 정도와 중요도는 4.6점(5점 만점)으로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주요 일·가

정양립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모두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와 중요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이용하는 제도 중 비교적 단기간인 출산전후휴가보다는 휴직을 하면서 장기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9〉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단위: %, 점, 명)

구 분	인지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중요도 평균	(명)
출산전후휴가	98.5	(11,207)	4.7	(2,314)	4.8	(11,034)
육아휴직	98.3	(11,207)	4.8	(1,385)	4.8	(11,007)
배우자출산휴가	96.1	(11,207)	4.4	(1,588)	4.7	(10,763)
남성 육아휴직	95.6	(11,207)	4.6	(131)	4.6	(10,696)

주: 1)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의 도움 정도는 미혼모인 경우 질문하지 않았으며 이혼이나 별거, 사별한 경우에는 출산 당시 배우자를 기준으로 질문함.

2) 도움 정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도움받지 못함' 1점, '별로 도움받지 못함' 2점, '보통' 3점, '다소 도움' 4점, '매우 도움'을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3) 중요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다소 중요' 4점, '매우 중요'를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제 3 부

미혼 남녀 대상 조사 결과

제10장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제11장 이성교제 및 결혼

제12장 자녀 및 가족에 대한 태도

제13장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제1절 미혼 남녀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미혼 남녀는 20~44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미혼 남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혼 남성의 거주지는 대도시가 47.3%, 중소도시 38.2%, 농촌 14.6%였고 미혼 여성은 대도시가 50.9%, 중소도시 37.6%, 농촌 11.4%였다. 연령은 미혼 남성의 경우 20대가 59.4%, 30대가 30.4%, 40~44세가 10.3%였고 미혼 여성은 20대가 66.1%, 30대가 26.7%, 40~44세 7.2%였다.

교육수준은 미혼 남성은 고졸 이하가 53.3%였으나 미혼 여성은 대졸 이상이 67.2%였고 교육상태가 재학 중인 경우는 미혼 남성은 20.0%, 미혼 여성은 18.8%였다. 미혼 남성 중 종교가 없는 비율은 69.9%였고 미혼 여성은 종교가 없는 경우가 66.6%였다. 미혼 남성 중 취업자는 61.5%였고 미혼 여성 중 취업자는 67.8%였다. 취업자의 직종은 미혼 남성은 사무종사자(19.1%)와 관리자 및 전문가(17.6%), 서비스종사자(16.2%),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3.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3.5%)가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미혼 여성은 관리자 및 전문가가 36.1%, 사무종사자가 35.7%로 이 두 직종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표 10-1〉 미혼 남녀(20~44세)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5년			
	미혼 남성	미혼 여성	계	(명)	미혼 남성	미혼 여성	계	(명)
미혼 남녀 전체	100.0 (1,140)	100.0 (1,324)	100.0	(2,464)	100.0 (1,096)	100.0 (1,287)	100.0	(2,383)
거주지								
대도시	47.3	50.9	49.2	(1,213)	49.0	53.0	51.2	(1,219)
중소도시	38.2	37.6	37.9	(933)	36.6	36.0	36.3	(864)
농촌	14.6	11.4	12.9	(318)	14.4	11.0	12.6	(300)
연령								
20~24세	30.8	36.0	33.6	(827)	33.3	40.1	37.0	(881)
25~29세	28.6	30.1	29.4	(724)	26.0	29.3	27.8	(662)
30~34세	17.0	15.5	16.2	(398)	20.2	17.7	18.8	(448)
35~39세	13.4	11.2	12.2	(302)	12.4	8.3	10.2	(243)
40~44세	10.3	7.2	8.6	(213)	8.0	4.6	6.2	(147)
교육수준								
고졸 이하	53.3	32.8	42.3	(1,042)	52.2	34.0	42.3	(1,009)
대졸 이상	46.7	67.2	57.7	(1,422)	47.8	66.0	57.7	(1,374)
교육상태								
졸업	66.7	76.2	71.8	(1,769)	65.3	74.1	70.1	(1,670)
재학	20.0	18.8	19.4	(478)	20.2	20.5	20.4	(485)
수료, 중퇴, 휴학	13.3	5.0	8.8	(217)	14.5	5.4	9.6	(228)
종교								
없음	69.9	66.6	68.2	(1,679)	65.2	61.0	62.9	(1,500)
불교	7.9	8.7	8.3	(205)	12.9	13.2	13.0	(311)
개신교	15.1	17.2	16.2	(399)	15.1	17.7	16.5	(394)
천주교	6.6	7.1	6.9	(169)	6.7	7.8	7.3	(173)
기타	0.6	0.3	0.5	(11)	0.2	0.3	0.3	(6)
취업 여부								
취업	61.5	67.8	64.9	(1,598)	59.5	63.4	61.6	(1,467)
비취업	38.5	32.2	35.1	(866)	40.5	36.6	38.4	(915)
취업자의 직종	100.0 (701)	100.0 (897)	100.0	(1,598)				
관리자 및 전문가	17.6	36.1	28.0	(448)	13.8	40.8	28.8	(423)
사무종사자	19.1	35.7	28.4	(455)	23.7	35.6	30.3	(445)
서비스종사자	16.2	16.6	16.5	(263)	15.8	13.0	14.3	(210)
판매종사자	8.2	7.0	7.5	(120)	10.1	6.5	8.1	(119)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3.5	1.6	6.8	(109)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7	0.8	6.4	(103)				
단순노무종사자	9.0	2.0	5.1	(81)	36.6	4.1	18.5	(272)
기타	2.7	0.2	1.3	(21)				

주: 1) 기타 직종에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군인이 포함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미혼 남녀의 주거 특성

1. 현재 주거 특성

미혼 남성의 경우 72.7%가, 미혼 여성은 78.8%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동거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표 10-2〉 미혼 남녀(20~44세)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거	비동거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81.4	18.6	100.0	(1,072)
미혼 남성 전체(2018)	72.7	27.3	100.0	(1,140)
연령($\chi^2=151.0^{***}$)				
20~24세	89.6	10.4	100.0	(351)
25~29세	79.4	20.6	100.0	(325)
30~34세	67.1	32.9	100.0	(194)
35~39세	49.7	50.3	100.0	(153)
40~44세	43.3	56.7	100.0	(117)
미혼 여성 전체(2015)	81.3	18.7	100.0	(1,270)
미혼 여성 전체(2018)	78.8	21.2	100.0	(1,324)
연령($\chi^2=167.4^{***}$)				
20~24세	92.1	7.9	100.0	(477)
25~29세	82.5	17.5	100.0	(399)
30~34세	73.2	26.8	100.0	(205)
35~39세	54.9	45.1	100.0	(149)
40~44세	46.1	53.9	100.0	(9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 남성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4.8%, 단독주택 27.9%, 다세대주택 15.4%, 기타 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혼 여성도 아파트 58.2%, 단독주택 22.1%, 다세대주택 15.2%, 기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3〉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 남녀(20~44세)의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27.9	54.8	15.4	2.0	100.0	(311)
연령						
30세 미만	34.6	44.5	18.3	2.6	100.0	(104)
30~34세	23.2	61.1	14.0	1.8	100.0	(64)
35~39세	28.5	61.2	8.7	1.7	100.0	(77)
40세 이상	21.1	57.3	20.1	1.5	100.0	(66)
미혼 여성 전체	22.1	58.2	15.2	4.5	100.0	(281)
연령						
30세 미만	34.9	43.2	14.6	7.3	100.0	(107)
30~34세	20.6	61.1	18.3	-	100.0	(55)
35~39세	11.9	61.7	23.4	3.0	100.0	(67)
40세 이상	10.4	82.0	2.5	5.1	100.0	(51)

주: 1) 기타에는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가 포함되나 2018년 결과에서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 남성의 주택 점유 형태는 보증부 월세가 35.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자가 29.8%, 무상 20.5%, 전세 10.8%, 기타 3.4%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도 미혼 남성과 마찬가지로 보증부 월세가 35.3%로 가장 많았고 자가 25.7%, 전세 23.0%, 무상 15.2%, 기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4〉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 남녀(20~44세)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상	기타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29.8	10.8	35.5	20.5	3.4	100.0	(311)
연령							
30세 미만	15.1	11.6	37.6	30.8	4.9	100.0	(104)
30~34세	34.5	12.5	31.3	17.8	3.9	100.0	(64)
35~39세	35.1	12.3	39.2	10.6	2.8	100.0	(77)
40세 이상	42.0	6.4	31.7	18.4	1.5	100.0	(66)
미혼 여성 전체	25.7	23.0	35.3	15.2	0.8	100.0	(281)
연령							
30세 미만	11.4	18.6	46.0	23.4	0.7	100.0	(107)
30~34세	22.8	24.1	36.8	14.8	1.6	100.0	(55)
35~39세	35.9	29.3	24.5	9.2	1.1	100.0	(67)
40세 이상	45.1	23.1	25.6	6.2	-	100.0	(5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부모와의 분거 경험

미혼 남성의 57.1%와 미혼 여성의 48.6%는 군복무를 제외하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3개월 이상 떨어져 살아 본 경험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부모와의 분거 경험 비율이 높았고 미혼 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부모와의 분거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10-5〉 미혼 남녀(20~44세)의 부모와 3개월 이상 떨어져 살아 본 경험(군복무 제외)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7.1	42.9	100.0	(1,140)
연령($\chi^2=123.7^{***}$)				
20~24세	36.2	63.8	100.0	(351)
25~29세	54.6	45.4	100.0	(325)
30~34세	71.0	29.0	100.0	(194)
35~39세	76.3	23.7	100.0	(153)
40~44세	78.5	21.5	100.0	(117)
미혼 여성 전체	48.6	51.4	100.0	(1,324)
연령($\chi^2=96.9^{***}$)				
20~24세	32.6	67.4	100.0	(477)
25~29세	50.2	49.8	100.0	(399)
30~34세	60.2	39.8	100.0	(205)
35~39세	65.1	34.9	100.0	(149)
40~44세	71.4	28.6	100.0	(9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성이 처음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3개월 이상 떨어져 살기 시작한 연령은 24세 이상이 32.3%, 19세 29.1%, 20~23세 21.5%, 18세 이하 17.1% 순이었다. 미혼 여성은 만 19세가 33.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20~23세 27.0%, 24세 이상 20.5%, 18세 이하 19.4% 순으로 나타나 미혼 남성에 비해 처음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분거하는 연령이 약간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6〉 미혼 남녀(20~44세)가 처음으로 부모와 3개월 이상 떨어져 살기 시작한 연령

(단위: %, 명, 세)

구 분	18세 이하	19세	20~23세	24세 이상	계	(명)	평균
미혼 남성 전체	17.1	29.1	21.5	32.3	100.0	(651)	21.65
연령($\chi^2=114.1^{***}$)							
20~24세	28.9	39.6	29.2	2.3	100.0	(127)	18.66
25~29세	15.7	34.1	27.2	23.1	100.0	(178)	20.50
30~34세	16.9	27.2	16.2	39.8	100.0	(137)	22.01
35~39세	9.2	17.3	21.1	52.4	100.0	(116)	23.95
40~44세	13.7	22.7	8.7	54.8	100.0	(92)	24.56
미혼 여성 전체	19.4	33.2	27.0	20.5	100.0	(644)	20.81
연령($\chi^2=94.4^{***}$)							
20~24세	34.2	37.9	27.4	0.5	100.0	(155)	18.16
25~29세	16.8	36.5	28.1	18.6	100.0	(200)	20.44
30~34세	11.6	32.6	31.1	24.7	100.0	(123)	21.52
35~39세	13.9	26.2	26.2	33.7	100.0	(97)	22.86
40~44세	15.1	23.4	16.4	45.2	100.0	(68)	23.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성의 경우 부모와 처음으로 떨어져 살게 된 이유는 학업때문인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고 직장 때문인 경우가 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도 미혼 남성과 마찬가지로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직장 때문이라는 응답 25.3% 순이었다. 미혼 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의 경우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이유가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저연령층인 경우 고연령층에 비해 학업때문이라는 응답이, 고연령층인 경우 저연령층에 비해 직장때문이라는 응답과 자유롭게 쉬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7〉 미혼 남녀(20~44세)가 처음으로 부모와 3개월 이상 떨어져 살게 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학업 때문에	취업준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유롭고 싶어서	집안사정 때문에	기타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0.5	5.8	31.3	6.1	5.5	0.8	100.0	(651)
연령($\chi^2=106.4^{***}$)								
20~24세	68.9	5.3	9.2	6.9	9.3	0.4	100.0	(127)
25~29세	62.3	4.5	24.5	4.4	3.2	1.2	100.0	(178)
30~34세	54.7	5.7	32.2	2.7	4.7	-	100.0	(137)
35~39세	29.0	7.9	47.7	10.0	5.4	-	100.0	(116)
40~44세	23.4	6.5	52.6	8.3	6.2	3.0	100.0	(92)
미혼 여성 전체	56.6	4.7	25.3	6.4	6.5	0.6	100.0	(644)
연령								
20~24세	68.7	1.8	12.3	6.9	9.8	0.5	100.0	(155)
25~29세	63.6	4.5	16.9	6.4	8.0	0.6	100.0	(200)
30~34세	58.0	7.5	24.7	6.0	2.4	1.3	100.0	(123)
35~39세	37.1	5.7	48.7	6.4	2.1	-	100.0	(97)
40~44세	33.4	5.7	47.1	5.7	8.1	-	100.0	(68)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미혼 남녀의 경제적 특성

미혼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300만 원 미만인 26.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00만 원 이상 20.8%, 50만 원 미만 20.6%, 50만~100만 원 미만 16.9%, 100만~200만 원 미만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고 100만~200만 원 미만이 23.6%, 50만 원 미만이 18.8%, 50만~100만 원 미만이 16.5%, 300만 원 이상이 11.9%의 순으로 나타나 미혼 남성에 비해 300만 원 이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혼 남녀 모두 연령이 많을수록,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다.

〈표 10-8〉 미혼 남녀(20~44세)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구 분	50만 원 미만	50만~100 만 원 미만	100만~200 만 원 미만	200만~300 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20.6	16.9	15.0	26.8	20.8	100.0	(1,139)
연령($\chi^2=368.9^{***}$)							
20~24세	34.3	35.4	16.8	10.1	3.3	100.0	(351)
25~29세	21.3	12.8	18.7	32.9	14.4	100.0	(325)
30~34세	13.5	3.6	12.3	38.3	32.2	100.0	(192)
35~39세	7.3	5.3	10.7	35.7	40.9	100.0	(153)
40~44세	6.3	9.3	9.0	29.9	45.6	100.0	(117)
취업 여부($\chi^2=819.9^{***}$)							
취업	1.0	4.7	18.1	42.5	33.6	100.0	(700)
비취업	51.7	36.2	10.0	1.9	0.3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	18.8	16.5	23.6	29.1	11.9	100.0	(1,324)
연령($\chi^2=395.5^{***}$)							
20~24세	30.4	31.8	24.6	12.4	0.9	100.0	(477)
25~29세	14.0	10.0	27.9	38.8	9.3	100.0	(399)
30~34세	10.8	8.8	16.5	45.6	18.3	100.0	(205)
35~39세	11.6	1.5	22.9	32.8	31.2	100.0	(149)
40~44세	9.4	7.9	17.4	30.7	34.6	100.0	(95)
취업 여부($\chi^2=908.3^{***}$)							
취업	1.3	7.3	31.1	42.7	17.5	100.0	(897)
비취업	55.5	35.8	8.0	0.4	0.2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성의 월평균 지출은 100만~200만 원 미만이 36.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50만~100만 원 미만 24.4%, 200만 원 이상 19.8%, 50만 원 미만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은 월평균 지출이 100만~200만 원 미만이 43.4%, 50만~100만 원 미만이 28.2%, 50만 원 미만이 16.9%, 200만 원 이상이 11.4%의 순으로 나타나 미혼 남성에 비해 월평균 100만~200만 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높고 200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 비율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연령과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9〉 미혼 남녀(20~44세)의 월평균 지출

(단위: %, 명)

구 분	50만 원 미만	50만~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19.5	24.4	36.3	19.8	100.0	(1,140)
연령($\chi^2=325.4^{***}$)						
20~24세	35.5	40.2	18.5	5.8	100.0	(351)
25~29세	21.2	21.5	45.4	11.9	100.0	(325)
30~34세	10.5	15.2	47.4	26.8	100.0	(194)
35~39세	3.3	13.2	46.2	37.3	100.0	(153)
40~44세	2.9	14.5	33.3	49.4	100.0	(117)
부모동거 여부($\chi^2=174.9^{***}$)						
동거	26.3	28.2	32.5	12.9	100.0	(829)
비동거	1.5	14.0	46.4	38.2	100.0	(311)
미혼 여성 전체	16.9	28.2	43.4	11.4	100.0	(1,324)
연령($\chi^2=356.5^{***}$)						
20~24세	32.1	41.8	23.3	2.8	100.0	(477)
25~29세	11.1	30.2	50.7	8.0	100.0	(399)
30~34세	6.5	16.6	58.0	19.0	100.0	(205)
35~39세	3.7	9.5	60.8	26.0	100.0	(149)
40~44세	8.0	6.9	55.1	30.0	100.0	(95)
부모동거 여부($\chi^2=150.6^{***}$)						
동거	20.8	32.2	39.3	7.7	100.0	(1,043)
비동거	2.5	13.4	58.7	25.4	100.0	(28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성의 31.5%는 재산이 없었으며 재산이 500만 원 미만이 11.6%, 500만~2000만 원 미만 17.3%, 2000만~5000만 원 미만 15.4%, 5000만 원 이상 24.2%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26.0%가 재산이 없었으며 재산 500만 원 미만이 13.5%, 500만 원~2000만 원 미만이 20.8%, 2000만~5000만 원 미만이 21.4%, 5000만 원 이상이 18.4%로 나타나 미혼 남성에 비해 재산이 없는 비율은 적었고 재산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많은 비율도 적었다.

미혼 남녀 모두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 중인 경우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았다.

〈표 10-10〉 미혼 남녀(20~44세)의 재산 규모

(단위: %, 명)

구 분	없음	500만 원 미만	500만~ 2000만 원 미만	2000만~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31.5	11.6	17.3	15.4	24.2	100.0	(1,136)
연령($\chi^2=535.2^{***}$)							
20~24세	60.4	20.4	11.6	6.1	1.4	100.0	(351)
25~29세	28.6	13.4	27.3	19.3	11.5	100.0	(325)
30~34세	15.4	4.1	19.8	24.2	36.5	100.0	(192)
35~39세	10.2	5.1	12.3	19.1	53.3	100.0	(151)
40~44세	7.1	0.8	9.0	13.2	69.8	100.0	(117)
취업 여부($\chi^2=477.6^{***}$)							
취업	9.2	10.2	22.1	23.1	35.4	100.0	(698)
비취업	67.2	13.8	9.6	3.1	6.4	100.0	(438)
미혼 여성 전체	26.0	13.5	20.8	21.4	18.4	100.0	(1,324)
연령($\chi^2=710.6^{***}$)							
20~24세	53.5	24.0	16.6	4.4	1.5	100.0	(477)
25~29세	14.1	11.5	32.8	30.6	11.1	100.0	(399)
30~34세	11.2	3.9	18.6	36.4	29.8	100.0	(205)
35~39세	3.8	3.6	13.0	29.1	50.5	100.0	(149)
40~44세	4.8	5.0	8.5	23.3	58.4	100.0	(95)
취업 여부($\chi^2=404.6^{***}$)							
취업	10.3	12.3	25.0	27.7	24.7	100.0	(897)
비취업	59.0	16.0	11.9	8.0	5.1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성의 82.8%와 미혼 여성의 85.8%는 부채가 없었고 미혼 남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부채가 없는 비율이 감소하고 부채 규모가 증가하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모두 비취업 중인 경우 부채가 없는 비율이 높았다.

〈표 10-11〉 미혼 남녀(20~44세)의 부채 규모

(단위: %, 명)

구 분	없음	5000만 원 미만	500만~ 2000만 원 미만	2000만~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82.8	3.4	2.9	4.1	6.8	100.0	(1,138)
연령($\chi^2=114.1^{***}$)							
20~24세	95.0	1.8	2.1	0.9	0.1	100.0	(351)
25~29세	83.0	4.6	4.0	4.7	3.7	100.0	(325)
30~34세	78.1	3.2	2.4	2.8	13.4	100.0	(194)
35~39세	73.8	3.8	1.8	7.7	12.9	100.0	(153)
40~44세	64.5	4.5	4.2	9.8	17.0	100.0	(116)
취업 여부($\chi^2=52.5^{***}$)							
취업	76.6	4.0	3.7	5.6	10.1	100.0	(701)
비취업	92.6	2.4	1.6	1.8	1.6	100.0	(437)
미혼 여성 전체	85.8	2.6	3.2	2.9	5.4	100.0	(1,324)
연령							
20~24세	93.6	2.8	1.9	1.1	0.6	100.0	(477)
25~29세	86.4	3.0	5.6	3.3	1.6	100.0	(399)
30~34세	81.9	3.4	2.7	6.1	5.9	100.0	(205)
35~39세	75.8	1.0	1.6	2.3	19.3	100.0	(149)
40~44세	68.3	1.4	3.3	4.5	22.5	100.0	(95)
취업 여부($\chi^2=27.8^{***}$)							
취업	82.9	2.6	3.9	3.2	7.4	100.0	(897)
비취업	91.9	2.7	1.8	2.4	1.2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성의 61.3%, 미혼 여성의 63.9%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약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혼 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취업한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10-12〉 미혼 남녀(20~44세)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 도움 받고 있음	경제적 도움 받지 않고 있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78.5	21.5	100.0	(1,072)
미혼 남성 전체(2018)	61.3	38.7	100.0	(1,140)
연령($\chi^2=267.1^{***}$)				
20~24세	87.7	12.3	100.0	(351)
25~29세	68.8	31.2	100.0	(325)
30~34세	50.7	49.3	100.0	(194)
35~39세	29.9	70.1	100.0	(153)
40~44세	20.1	79.9	100.0	(117)
취업 여부($\chi^2=271.4^{***}$)				
취업	42.5	57.5	100.0	(701)
비취업	91.4	8.6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2015)	83.1	16.9	100.0	(1,270)
미혼 여성 전체(2018)	63.9	36.1	100.0	(1,324)
연령($\chi^2=237.9^{***}$)				
20~24세	86.1	13.9	100.0	(477)
25~29세	64.7	35.3	100.0	(399)
30~34세	50.4	49.6	100.0	(205)
35~39세	35.0	65.0	100.0	(149)
40~44세	24.5	75.5	100.0	(95)
취업 여부($\chi^2=178.2^{***}$)				
취업	51.8	48.2	100.0	(897)
비취업	89.5	10.5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절 이성교제

1. 이성교제 여부

20~44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현재 교제 중인 이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미혼 남성 중 25.8%가 교제 상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미혼 여성 중에서는 31.8%가 이성교제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은 25~29세에서 이성교제 상대가 있는 경우가 32.1%로 가장 높았고, 여성 역시 25~29세에서 교제 상대가 있는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제하는 이성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하면 이성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취업을 하면 연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거나 직업이 있는 이성인 교제 상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이제는 결혼뿐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도 취업이 중요한 조건인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결혼 의향에 따라서 이성교제 상대 유무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이성교제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7%이고, 여성은 이보다 높은 51.3%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경우 이성교제 상대가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1〉 미혼 남녀(20~44세)의 이성교제 여부

(단위: %, 명)

구 분	이성교제 상대 있음	이성교제 상대 없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25.8	74.2	100.0	(1,140)
거주지($\chi^2=0.3$)				
대도시	25.8	74.2	100.0	(539)
중소도시	25.1	74.9	100.0	(435)
농촌	27.3	72.7	100.0	(166)
연령($\chi^2=17.0^{**}$)				
20~24세	21.8	78.2	100.0	(351)
25~29세	32.1	67.9	100.0	(325)
30~34세	29.6	70.4	100.0	(194)
35~39세	23.9	76.1	100.0	(153)
40~44세	16.3	83.7	100.0	(117)
교육수준($\chi^2=7.5^)$				
고졸 이하	23.3	76.7	100.0	(312)
대학 재학	21.5	78.5	100.0	(295)
대졸 이상	29.5	70.5	100.0	(533)
취업 여부($\chi^2=22.2^{***}$)				
취업	30.6	69.4	100.0	(701)
비취업	18.1	81.9	100.0	(439)
결혼 의향($\chi^2=84.3^{***}$)				
있음	35.7	64.3	100.0	(670)
없음/모르겠음	11.6	88.4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31.8	68.2	100.0	(1,324)
거주지($\chi^2=0.9$)				
대도시	30.6	69.4	100.0	(675)
중소도시	33.1	66.9	100.0	(498)
농촌	32.6	67.4	100.0	(152)
연령($\chi^2=31.2^{***}$)				
20~24세	31.9	68.1	100.0	(477)
25~29세	37.8	62.2	100.0	(399)
30~34세	36.0	64.0	100.0	(205)
35~39세	20.9	79.1	100.0	(149)
40~44세	13.5	86.5	100.0	(95)
교육수준($\chi^2=8.0^)$				
고졸 이하	30.0	70.0	100.0	(182)
대학 재학	24.8	75.2	100.0	(253)
대졸 이상	34.1	65.9	100.0	(890)
취업 여부($\chi^2=5.9^)$				
취업	33.9	66.1	100.0	(897)
비취업	27.3	72.7	100.0	(427)
결혼 의향($\chi^2=192.4^{***}$)				
있음	51.3	48.7	100.0	(601)
없음/모르겠음	15.6	84.4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이성교제 상대를 알게 된 계기

앞선 문항에서 이성교제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미혼 남녀(남성 294명, 여성 421명)를 대상으로 교제 상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 구분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카이제곱 값을 제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차이를 확인하기보다는 비율만을 가지고 전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미혼 남녀 모두 ‘친구나 형제자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교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남성은 36.2%, 여성은 3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학교에서’ 알게 된 경우로 남성은 전체의 24.2%, 여성은 20.3%가 학교에서 교제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그다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 및 일 관계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으로 남성은 14.8%, 여성은 14.6%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개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나 직장 등 일상이나 주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성을 알게 된 계기 중 ‘길거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라는 응답 비율도 남성은 9.9%, 여성은 6.9%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만나거나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에 살아서’ 등 다양한 계기로 이성교제 상대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2〉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20~44세)의 교제 상대 알게 된 계기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24.2	14.8	2.7	7.1	36.2	2.3	0.3	9.9	0.9	1.6	100.0	(294)
거주지												
대도시	26.4	15.5	2.6	7.3	35.3	2.5	-	7.3	1.6	1.5	100.0	(139)
중소도시	26.2	13.0	1.8	7.6	33.3	2.9	-	13.2	-	2.0	100.0	(109)
농촌	12.4	17.0	5.1	5.2	46.1	-	2.2	10.0	1.1	1.1	100.0	(45)
연령												
20~24세	43.5	3.9	1.1	8.4	29.6	1.1	-	5.9	2.0	4.5	100.0	(76)
25~29세	25.8	14.8	3.2	2.7	40.2	-	-	12.2	1.1	-	100.0	(104)
30~34세	9.2	21.6	6.6	5.1	34.4	6.4	-	16.7	-	-	100.0	(57)
35~39세	7.7	17.1	-	13.2	55.0	-	-	3.5	-	3.5	100.0	(36)
40~44세	14.4	33.4	-	20.4	10.3	11.1	5.1	5.1	-	-	100.0	(19)
교육수준												
고졸 이하	5.4	21.2	2.4	1.4	48.4	1.6	1.4	12.3	1.4	4.4	100.0	(73)
대학 재학	49.2	0.8	1.4	8.6	29.4	1.4	-	5.8	1.8	1.6	100.0	(64)
대졸 이상	22.7	17.5	3.4	9.1	33.3	2.9	-	10.4	0.3	0.3	100.0	(157)
취업 여부												
취업	15.9	19.1	2.2	7.7	40.6	2.7	0.5	9.5	0.7	1.1	100.0	(214)
비취업	46.6	3.2	3.9	5.4	24.3	1.1	-	11.0	1.4	2.9	100.0	(79)
결혼 의향												
있음	24.4	15.1	3.3	8.7	34.6	1.9	0.4	9.8	0.7	1.2	100.0	(239)
없음/모르겠음	23.2	13.6	-	-	43.4	3.9	-	10.4	1.9	3.5	100.0	(54)
미혼 여성 전체	20.3	14.6	6.2	9.4	37.7	1.8	-	6.9	1.1	2.1	100.0	(421)
거주지												
대도시	17.7	11.6	7.0	10.6	40.8	1.4	-	6.9	1.1	2.9	100.0	(206)
중소도시	24.0	14.4	2.9	9.7	35.9	2.3	-	7.9	1.4	1.4	100.0	(165)
농촌	18.7	28.0	13.9	2.7	30.7	1.5	-	3.6	-	0.9	100.0	(49)
연령												
20~24세	33.0	11.9	7.3	7.2	28.3	-	-	7.3	2.1	2.9	100.0	(152)
25~29세	22.4	11.5	4.7	8.7	45.2	2.2	-	2.6	0.9	1.8	100.0	(151)
30~34세	1.9	12.8	4.3	13.6	49.3	2.2	-	13.8	-	2.2	100.0	(74)
35~39세	-	36.4	15.2	12.8	22.8	8.2	-	4.6	-	-	100.0	(31)
40~44세	-	42.7	-	10.2	29.0	-	-	18.1	-	-	100.0	(13)
교육수준												
고졸 이하	5.0	31.8	5.7	8.1	39.5	-	-	8.3	1.6	-	100.0	(54)
대학 재학	54.0	2.1	8.3	5.0	19.6	-	-	3.6	3.6	3.8	100.0	(63)
대졸 이상	16.1	14.2	5.8	10.5	41.1	2.5	-	7.3	0.5	2.1	100.0	(303)
취업 여부												
취업	15.4	16.2	5.2	9.6	41.6	1.9	-	7.3	1.0	1.8	100.0	(304)
비취업	33.2	10.5	8.8	8.7	27.4	1.4	-	5.8	1.3	3.0	100.0	(116)
결혼 의향												
있음	21.5	14.2	5.5	7.3	38.6	2.4	-	6.9	0.7	2.9	100.0	(308)
없음/모르겠음	17.0	15.9	8.1	14.9	35.2	-	-	6.9	2.0	-	100.0	(113)

주: 1) ① 학교에서 ② 직장 및 일 관계로 ③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 살면서 ④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⑤ 친구나 형제자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⑥ 선을 봐서(친척이나 상사의 소개 포함) ⑦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⑧ 길거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⑨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⑩ 기타 및 잘 모름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게 된 계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적 간단하게 두 집단을 나누어 보았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와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성교제 상대를 학교, 일, 친구관계, 다양한 활동 및 여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는 미혼 남성이 59.6%, 미혼 여성이 58.4%로 과반수가 자연스럽게 상대를 알게 된 경우이고, 나머지는 소개나 선, 결혼 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나거나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 교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라 만남의 계기에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경우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 등’ 보다 많았는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 집단에서는 그와 반대로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 등’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남성의 35~39세 집단과 여성의 30~34세 집단에서도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 등’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소개나 선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연령에 따라서 이성교제 상대를 만나는 계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개로 만나는 경우가 30~34세까지 높아지다가 그 후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각 연령 집단마다 다양한 비율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3〉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20~44세)의 교제 상대 알게 된 계기(두 집단)

(단위: %, 명)

구 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 등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9.6	40.4	100.0	(294)
거주지($\chi^2=1.6$)				
대도시	60.7	39.3	100.0	(139)
중소도시	61.9	38.1	100.0	(109)
농촌	50.7	49.3	100.0	(45)
연령($\chi^2=7.1$)				
20~24세	64.8	35.2	100.0	(76)
25~29세	59.8	40.2	100.0	(104)
30~34세	59.2	40.8	100.0	(57)
35~39세	41.5	58.5	100.0	(36)
40~44세	73.4	26.6	100.0	(19)
교육수준($\chi^2=9.3^*$)				
고졸 이하	44.3	55.7	100.0	(73)
대학 재학	67.6	32.4	100.0	(64)
대졸 이상	63.4	36.6	100.0	(157)
취업 여부($\chi^2=6.3^*$)				
취업	55.1	44.9	100.0	(214)
비취업	71.6	28.4	100.0	(79)
결혼 의향($\chi^2=3.1$)				
있음	62.0	38.0	100.0	(239)
없음/모르겠음	49.2	50.8	100.0	(54)
미혼 여성 전체	58.4	41.6	100.0	(421)
거주지($\chi^2=3.0$)				
대도시	54.9	45.1	100.0	(206)
중소도시	60.4	39.6	100.0	(165)
농촌	66.8	33.2	100.0	(49)
연령($\chi^2=17.0^{**}$)				
20~24세	68.7	31.3	100.0	(152)
25~29세	50.7	49.3	100.0	(151)
30~34세	46.4	53.6	100.0	(74)
35~39세	69.0	31.0	100.0	(31)
40~44세	71.0	29.0	100.0	(13)
교육수준($\chi^2=10.4^{**}$)				
고졸 이하	60.5	39.5	100.0	(54)
대학 재학	76.6	23.4	100.0	(63)
대졸 이상	54.3	45.7	100.0	(303)
취업 여부($\chi^2=6.3^*$)				
취업	54.7	45.3	100.0	(304)
비취업	68.2	31.8	100.0	(116)
결혼 의향($\chi^2=2.4$)				
있음	56.1	43.9	100.0	(308)
없음/모르겠음	64.8	35.2	100.0	(113)

* $p<0.05$, ** $p<0.01$, *** $p<0.001$

주: 1)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는 학교, 일, 친구관계, 다양한 활동, 여행 등을 통해 교제한 경우이고, '소개로 통해 알게 된 경우' 등은 소개나 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거나 기타에 해당함.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이성교제 상대와 결혼에 대한 생각

계속해서 현재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남성은 61.5%, 여성은 60.1%가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모두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20~24세 집단에서는 남녀 모두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남성 64.9%, 여성 54.4%)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24세는 아직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를 하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는 25~29세 그룹부터는 그 비율이 낮아지다가 남성은 40~44세 그룹에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도 25~29세 집단에서 낮아지다가 35~39세 집단은 46.4%로 40~44세 집단의 40.3%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보면, 남성 30~34세는 77.8%, 35~39세는 71.3%, 여성의 경우는 25~29세가 70.2%, 30~34세가 72.1%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30~39세, 여성은 25~34세가 결혼을 고려한 교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재학의 경우는 남녀 모두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 비율이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 그룹은 대학생의 응답인 만큼 연령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교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에서는 결혼 의향이 있는 집단의 남성은 73.4%, 여성은 77.2%가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해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4〉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20~44세)의 교제 상대와의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교제 상대와의 결혼 생각 있음	교제 상대와의 결혼 생각 없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1.5	38.5	100.0	(294)
거주지($\chi^2=1.2$)				
대도시	58.2	41.8	100.0	(139)
중소도시	65.4	34.6	100.0	(109)
농촌	62.0	38.0	100.0	(45)
연령($\chi^2=33.6^{***}$)				
20~24세	35.1	64.9	100.0	(76)
25~29세	69.0	31.0	100.0	(104)
30~34세	77.8	22.2	100.0	(57)
35~39세	71.3	28.7	100.0	(36)
40~44세	58.1	41.9	100.0	(19)
교육수준($\chi^2=12.7^{**}$)				
고졸 이하	60.1	39.9	100.0	(73)
대학 재학	43.7	56.3	100.0	(64)
대졸 이상	69.3	30.7	100.0	(157)
취업 여부($\chi^2=5.3^*$)				
취업	65.4	34.6	100.0	(214)
비취업	50.8	49.2	100.0	(79)
결혼 의향($\chi^2=76.5^{***}$)				
있음	73.4	26.6	100.0	(239)
없음/모르겠음	8.9	91.1	100.0	(54)
미혼 여성 전체	60.1	39.9	100.0	(421)
거주지($\chi^2=1.5$)				
대도시	58.0	42.0	100.0	(206)
중소도시	60.5	39.5	100.0	(165)
농촌	67.5	32.5	100.0	(49)
연령($\chi^2=24.6^{***}$)				
20~24세	45.6	54.4	100.0	(152)
25~29세	70.2	29.8	100.0	(151)
30~34세	72.1	27.9	100.0	(74)
35~39세	53.6	46.4	100.0	(31)
40~44세	59.7	40.3	100.0	(13)
교육수준($\chi^2=28.9^{***}$)				
고졸 이하	55.0	45.0	100.0	(54)
대학 재학	31.1	68.9	100.0	(63)
대졸 이상	67.0	33.0	100.0	(303)
취업 여부($\chi^2=5.6^*$)				
취업	63.6	36.4	100.0	(304)
비취업	50.9	49.1	100.0	(116)
결혼 의향($\chi^2=141.2^{***}$)				
있음	77.2	22.8	100.0	(308)
없음/모르겠음	13.4	86.6	100.0	(113)

* p<0.05, ** p<0.01, *** p<0.001

주: 1)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미혼 남녀의 생각을 알아보았다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남성 846명과 여성 904명을 대상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았다.

교제하는 이성이 없는 미혼 남성의 33.8%와 미혼 여성의 32.5%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20.1%와 여성의 26.2%는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12.2%와 여성의 20.6%는 ‘혼자만의 자유로움과 편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16.7%와 여성의 15.6%는 ‘지금은 일(또는 학업)에 열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와 ‘이성과 잘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취미나 오락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었다. ‘금전적 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9.7%, 여성은 1.5%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이성교제에 있어서 금전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경우는 ‘지금은 취미나 오락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0.9%로 매우 낮은 특성을 보였고, ‘금전적 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13.1%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은 44.3%가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모르겠다는 남성 중 ‘혼자만의 자유로움과 편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17.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외하고 비율로만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도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여성은 ‘혼자만의 자유로움과 편

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24.6%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11-5〉 교제 상대 없는 미혼 남녀(20~44세)가 이성교제 안 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20.1	16.7	2.5	12.2	33.8	3.9	9.7	1.2	100.0	(846)
거주지										
대도시	22.1	16.3	2.1	14.5	31.4	2.8	10.4	0.3	100.0	(400)
중소도시	18.0	19.3	2.6	10.5	32.8	4.7	9.6	2.6	100.0	(326)
농촌	18.6	11.1	3.3	9.4	44.5	5.2	7.8	-	100.0	(121)
연령										
20~24세	28.3	15.6	4.8	12.3	30.6	2.1	5.7	0.6	100.0	(274)
25~29세	19.3	24.4	2.2	13.2	24.9	4.8	10.7	0.4	100.0	(221)
30~34세	17.5	16.3	-	13.6	35.5	1.7	13.5	1.8	100.0	(136)
35~39세	15.0	12.8	1.1	7.6	44.6	6.4	11.2	1.1	100.0	(116)
40~44세	8.3	7.6	1.8	13.1	47.2	6.7	11.7	3.6	100.0	(98)
교육수준($\chi^2=47.1^{***}$)										
고졸 이하	17.6	13.4	0.9	11.2	34.4	7.7	13.1	1.7	100.0	(239)
대학 재학	27.2	17.7	5.7	10.7	29.8	1.9	6.2	0.8	100.0	(232)
대졸 이상	17.3	18.2	1.5	13.8	35.9	2.6	9.7	1.1	100.0	(375)
취업 여부($\chi^2=19.2^{**}$)										
취업	16.4	15.0	2.2	14.2	37.6	3.6	9.9	1.1	100.0	(487)
비취업	25.0	19.0	2.9	9.5	28.6	4.3	9.4	1.3	100.0	(360)
결혼 의향($\chi^2=64.8^{***}$)										
있음	15.4	17.9	2.5	7.6	44.3	2.9	7.5	1.9	100.0	(431)
없음/모르겠음	24.9	15.4	2.4	17.0	22.9	4.9	12.0	0.4	100.0	(415)
미혼 여성 전체	26.2	15.6	1.7	20.6	32.5	1.5	1.5	0.4	100.0	(904)
거주지										
대도시	25.2	15.5	1.7	22.1	31.9	1.1	1.9	0.6	100.0	(468)
중소도시	27.9	15.3	1.4	18.2	33.7	2.3	0.8	0.4	100.0	(333)
농촌	25.6	17.0	2.2	21.5	31.0	0.8	2.0	-	100.0	(102)
연령										
20~24세	35.1	20.1	2.2	17.7	23.3	1.0	0.7	-	100.0	(324)
25~29세	22.0	18.3	1.6	23.3	32.2	1.1	1.6	-	100.0	(248)
30~34세	19.8	11.8	3.1	23.8	35.2	3.4	1.9	1.1	100.0	(131)
35~39세	19.5	9.0	-	17.6	48.6	3.0	2.3	-	100.0	(118)
40~44세	23.7	5.3	-	23.3	42.1	-	2.4	3.2	100.0	(82)
교육수준										
고졸 이하	26.4	9.9	0.4	24.4	27.3	4.4	4.2	3.2	100.0	(127)
대학 재학	35.9	23.0	1.8	16.0	22.2	0.4	0.7	-	100.0	(190)
대졸 이상	23.0	14.5	1.9	21.3	36.9	1.2	1.1	-	100.0	(586)

〈표 11-5〉 계속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명)
취업 여부										
취업	23.4	14.0	1.5	22.7	35.7	1.3	1.3	-	100.0	(593)
비취업	31.5	18.6	1.9	16.7	26.3	1.8	1.8	1.3	100.0	(310)
결혼 의향										
있음	15.3	20.5	1.4	12.2	48.9	-	1.2	0.5	100.0	(293)
없음/모르겠음	31.5	13.3	1.8	24.6	24.6	2.2	1.6	0.4	100.0	(611)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② 지금은 일(또는 학업)에 열중하고 싶기 때문에 ③ 지금은 취미나 오락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④ 혼자만의 자유로움과 편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⑤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⑥ 이성과 잘 사귀기 못하기 때문에 ⑦ 금전적 부담 때문에 ⑧ 기타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선택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성교제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일이나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나 취미를 즐기기 위해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경우로 남성은 51.4%, 여성은 64.1%가 이러한 이유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거나 이성과 잘 사귀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가까운 이유에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48.6%, 여성이 35.9%로 나타났다.

이성교제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 미혼 여성의 거주지 특성의 경우만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의 모든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의 경우 선택적이지 않은 그 이외의 이유로 이성교제를 못하고 있는 비율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경우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 이성교제를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경우보다 선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이유로 이성교제를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남성의 집단은 30세 이상의 남성, 고졸 이하의 남성, 취업한 남성,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35~39세 여성, 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 집단만 필요에 의해 이성교제를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경우보다 선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이유로 이성교제를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여성 집단의 경우는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71.1%로 매우 높게 나타나났고, 이는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남성의 비율인 59.8%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여성은 비교적 선택적으로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11-6〉 교제 상대 없는 미혼 남녀(20~44세)의 이성교제 안 하는 주된 이유(두 집단)

(단위: %, 명)

구 분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안 함	선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이유로 못 함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1.4	48.6	100.0	(846)
거주지($\chi^2=6.0$)				
대도시	55.1	44.9	100.0	(400)
중소도시	50.3	49.7	100.0	(326)
농촌	42.4	57.6	100.0	(121)
연령($\chi^2=44.0^{***}$)				
20~24세	60.9	39.1	100.0	(274)
25~29세	59.1	40.9	100.0	(221)
30~34세	47.4	52.6	100.0	(136)
35~39세	36.6	63.4	100.0	(116)
40~44세	30.8	69.2	100.0	(98)
교육수준($\chi^2=15.6^{***}$)				
고졸 이하	43.1	56.9	100.0	(239)
대학 재학	61.3	38.7	100.0	(232)
대졸 이상	50.7	49.3	100.0	(375)
취업 여부($\chi^2=6.1$)				
취업	47.8	52.2	100.0	(487)
비취업	56.3	43.7	100.0	(360)
결혼 의향($\chi^2=22.7^{***}$)				
있음	43.4	56.6	100.0	(431)
없음/모르겠음	59.8	40.2	100.0	(415)

〈표 11-6〉 계속

구 분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안 함	선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이유로 못 함	계	(명)
미혼 여성 전체	64.1	35.9	100.0	(904)
거주지($\chi^2=0.6$)				
대도시	64.5	35.5	100.0	(468)
중소도시	62.8	37.2	100.0	(333)
농촌	66.3	33.7	100.0	(102)
연령($\chi^2=39.8^{***}$)				
20~24세	75.0	25.0	100.0	(324)
25~29세	65.2	34.8	100.0	(248)
30~34세	58.5	41.5	100.0	(131)
35~39세	46.2	53.8	100.0	(118)
40~44세	52.3	47.7	100.0	(82)
교육수준($\chi^2=17.0^{***}$)				
고졸 이하	61.1	38.9	100.0	(127)
대학 재학	76.7	23.3	100.0	(190)
대졸 이상	60.7	39.3	100.0	(586)
취업 여부($\chi^2=4.5$)				
취업	61.7	38.3	100.0	(593)
비취업	68.8	31.2	100.0	(310)
결혼 의향($\chi^2=40.6^{***}$)				
있음	49.4	50.6	100.0	(293)
없음/모르겠음	71.1	28.9	100.0	(611)

* $p<0.05$, ** $p<0.01$, *** $p<0.001$

주: 1)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성교제를 안 하는 경우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일, 학업에 열중, 혼자만의 시간이나 취미를 즐기 위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외에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거나, 이성 과 잘 사귀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이성교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운 것을 의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결혼에 대한 태도

1. 결혼의 필요성

미혼 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질문한 결과, 미혼 남성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 ‘하는 편이 좋다’ 36.4%,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39.2%, ‘하지 않는 게 낫다’ 6.6%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6.0%, ‘하는 편이 좋다’ 22.8%,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54.9%, ‘하지 않는 게 낫다’ 14.3%의 응

답분포를 보였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응답률이 남성은 50.5%로 절반을 넘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8.8%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남성에서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 응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치는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젠더 차이로만 보는 것보다는 청년층 전반에 걸쳐 혼인에 대한 부정 또는 유보적 태도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5년과 비교하면 미혼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들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약해졌는데, 긍정적 응답 비율은 20대 초반에서는 55.9%, 20대 후반 51.8%, 30대 초반 50.5%인데 반해, 3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36.7%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연령별 응답패턴은 여성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20대 후반 이후부터 각 연령집단에서 긍정적 답변이 37.2%, 24.5%, 19.7%, 16.8%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장 혼인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연령대부터 혼인에 대한 유보 또는 부정적 태도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남녀 결혼 태도의 연령분포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기피가 코호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혼인 적령기를 지나면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부정적 태도가 쌓여 가는 것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응답분포의 차이는 남성에게서만 나타났는데, ‘대학 재학 및 졸업 학력’에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다(58.1%). 그러나 학력에 따른 긍정적 응답의 선형적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 학력 집단에 혼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강한 20대 초반 연령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파트너 매칭 가능성 등 혼인시장과 관련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표 11-7〉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18.1	42.7	33.0	3.9	2.4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4.1	36.4	39.2	6.6	3.7	100.0	(1,140)
거주지($\chi^2=6.8$)							
대도시	13.0	35.8	42.0	5.8	3.4	100.0	(539)
중소도시	14.5	36.4	37.0	8.3	3.8	100.0	(435)
농촌	16.5	38.2	36.4	4.7	4.2	100.0	(166)
연령($\chi^2=40.1^{**}$)							
20~24세	13.9	42.0	33.5	6.2	4.4	100.0	(351)
25~29세	14.6	37.2	36.1	7.3	4.8	100.0	(325)
30~34세	15.8	34.7	43.2	4.2	2.1	100.0	(194)
35~39세	9.4	27.3	55.7	4.4	3.2	100.0	(153)
40~44세	16.4	32.1	37.4	12.6	1.5	100.0	(117)
교육수준($\chi^2=19.2^*$)							
고졸 이하	16.0	33.4	38.1	9.0	3.4	100.0	(312)
대학 재학	14.7	43.4	33.1	4.0	4.8	100.0	(295)
대졸 이상	12.6	34.2	43.3	6.6	3.2	100.0	(533)
취업 여부($\chi^2=7.3$)							
취업	14.6	35.0	39.3	7.9	3.2	100.0	(701)
비취업	13.3	38.7	39.1	4.5	4.5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2015)	7.7	32.0	52.4	5.7	2.3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6.0	22.8	54.9	14.3	2.0	100.0	(1,324)
거주지($\chi^2=6.2$)							
대도시	6.1	21.4	55.5	14.5	2.4	100.0	(675)
중소도시	5.5	22.7	55.7	14.5	1.7	100.0	(498)
농촌	6.9	29.6	49.6	12.3	1.6	100.0	(152)
연령($\chi^2=38.7^{**}$)							
20~24세	7.0	21.8	53.8	14.6	2.7	100.0	(477)
25~29세	7.3	29.9	48.4	12.4	1.9	100.0	(399)
30~34세	6.0	18.5	62.1	11.8	1.5	100.0	(205)
35~39세	2.3	17.4	61.5	16.9	1.8	100.0	(149)
40~44세	0.7	16.1	61.3	21.1	0.7	100.0	(95)
교육수준($\chi^2=15.4$)							
고졸 이하	3.7	17.3	58.0	19.1	2.0	100.0	(182)
대학 재학	7.5	17.8	57.8	14.7	2.1	100.0	(253)
대졸 이상	6.0	25.4	53.5	13.1	2.0	100.0	(890)
취업 여부($\chi^2=3.5$)							
취업	6.1	24.3	53.7	14.0	1.9	100.0	(897)
비취업	5.8	19.8	57.3	14.8	2.3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상적인 결혼 연령

남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는 30대 초반 연령을 꼽은 경우가 절반을 넘는 58.7%(30~31세 29.4%, 32~34세 29.3%)였으며, 35세 이상의 연령대를 선택한 경우도 28.7%에 이르렀다. 여성의 응답도 남성과 다소 비슷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30대 초반대 연령을 응답한 경우가 남성과 비슷한 수준인 57.1%로 나타났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혼인 이상 연령은 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 미혼자는 32~34세를 남성의 이상적 결혼 연령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9%인 반면 이와 같은 남성 응답은 29.3%에 그쳤고, 35세 이상을 응답한 경우도 여성은 36.1%였으나, 남성은 28.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많아질수록 남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한 예로 35세 이상이라고 한 응답이 20~24세의 경우는 남성 응답자의 15.3%, 여성은 20.0%에 그쳤지만, 40~44세의 경우에는 남성 42.5%, 여성은 64.2%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이상적 혼인 연령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남녀 모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상적 남성의 결혼 연령을 30대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연령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도 응답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상적 혼인 연령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녀 모두에서 이상적 혼인 연령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같은 교육수준 또는 취업상태에서도 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8〉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3.9	8.7	29.4	29.3	28.7	100.0	(1,140)
거주지($\chi^2=11.0$)							
대도시	4.1	8.3	31.2	25.0	31.3	100.0	(539)
중소도시	3.5	9.1	28.7	32.7	26.0	100.0	(435)
농촌	4.2	9.0	25.1	34.2	27.5	100.0	(166)
연령($\chi^2=121.6^{***}$)							
20~24세	5.9	15.0	40.8	23.1	15.3	100.0	(351)
25~29세	2.1	7.3	31.5	32.1	27.1	100.0	(325)
30~34세	1.2	6.0	19.9	36.3	36.6	100.0	(194)
35~39세	4.9	4.5	21.4	26.8	42.4	100.0	(153)
40~44세	6.0	4.2	15.4	31.9	42.5	100.0	(117)
교육수준($\chi^2=68.0^{***}$)							
고졸 이하	6.3	7.9	26.0	23.7	36.1	100.0	(312)
대학 재학	4.2	11.7	42.3	24.6	17.2	100.0	(295)
대졸 이상	2.3	7.6	24.2	35.2	30.7	100.0	(533)
취업 여부($\chi^2=18.8^{**}$)							
취업	3.3	7.7	26.5	30.0	32.6	100.0	(701)
비취업	4.8	10.4	34.1	28.2	22.6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	1.4	5.3	22.2	34.9	36.1	100.0	(1,324)
거주지($\chi^2=9.7$)							
대도시	.8	5.0	19.7	36.6	37.9	100.0	(675)
중소도시	1.8	5.7	24.2	34.2	34.0	100.0	(498)
농촌	2.2	5.8	27.0	29.7	35.4	100.0	(152)
연령($\chi^2=288.1^{***}$)							
20~24세	2.4	11.3	36.0	30.3	20.0	100.0	(477)
25~29세	0.5	2.8	20.5	48.4	27.7	100.0	(399)
30~34세	0.7	0.4	9.1	34.5	55.3	100.0	(205)
35~39세	0.9	2.8	6.5	24.2	65.7	100.0	(149)
40~44세	2.1	0.7	13.5	19.4	64.2	100.0	(95)
교육수준($\chi^2=69.5^{***}$)							
고졸 이하	2.7	7.0	26.2	25.1	39.1	100.0	(182)
대학 재학	2.2	10.0	33.3	33.8	20.5	100.0	(253)
대졸 이상	0.8	3.7	18.3	37.3	40.0	100.0	(890)
취업 여부($\chi^2=22.1^{***}$)							
취업	1.4	4.3	19.3	36.7	38.3	100.0	(897)
비취업	1.3	7.4	28.4	31.3	31.5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은 30~31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0.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28~29세(21.4%), 32~34세(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30~31세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남성과는 달리 32~34세(26.2%), 35세 이상(17.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에서도 미혼 여성들이 미혼 남성보다는 더 높은 연령을 이상적 혼인 연령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에서도 앞서 남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경향이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상태에 있을수록 남녀 모두에서 여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이 역시 자신의 상황과 여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을 연동하여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자신이 혼인을 미루는 이유가 이러한 응답분포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들의 응답이 남성들의 응답에 비해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앞서 남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에서보다 응답이 집중되는 양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여성의 이상적 혼인 연령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11-9〉 미혼 남녀(20~44세)의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16.1	21.4	40.8	13.4	8.3	100.0	(1,140)
거주지($\chi^2=12.2$)							
대도시	17.7	20.7	40.2	12.4	8.9	100.0	(539)
중소도시	13.6	22.7	42.8	12.3	8.6	100.0	(435)
농촌	17.3	20.2	37.1	19.7	5.6	100.0	(166)

〈표 11-9〉 계속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연령($\chi^2=51.4^{***}$)							
20~24세	20.7	24.5	42.5	8.6	3.8	100.0	(351)
25~29세	14.4	23.4	38.2	14.7	9.2	100.0	(325)
30~34세	11.4	18.7	44.8	17.6	7.4	100.0	(194)
35~39세	15.6	20.7	37.9	15.1	10.8	100.0	(153)
40~44세	15.4	11.9	39.8	15.1	17.7	100.0	(117)
교육수준($\chi^2=17.0^*$)							
고졸 이하	19.2	20.3	37.9	13.2	9.4	100.0	(312)
대학 재학	17.9	22.2	44.4	11.0	4.4	100.0	(295)
대졸 이상	13.2	21.6	40.4	14.9	9.8	100.0	(533)
취업 여부($\chi^2=7.9$)							
취업	14.9	21.6	40.0	13.6	10.0	100.0	(701)
비취업	18.0	21.1	42.0	13.2	5.6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	5.4	14.5	36.6	26.2	17.4	100.0	(1,324)
거주지($\chi^2=23.3^{**}$)							
대도시	3.7	12.8	35.5	27.6	20.4	100.0	(675)
중소도시	6.6	16.4	36.5	24.8	15.6	100.0	(498)
농촌	8.8	15.3	41.9	24.5	9.5	100.0	(152)
연령($\chi^2=230.3^{***}$)							
20~24세	11.2	22.0	40.4	15.8	10.6	100.0	(477)
25~29세	2.7	15.1	40.6	31.3	10.4	100.0	(399)
30~34세	0.7	6.5	27.3	41.5	24.0	100.0	(205)
35~39세	0.9	3.4	27.6	29.8	38.3	100.0	(149)
40~44세	4.7	8.5	35.0	18.8	33.0	100.0	(95)
교육수준($\chi^2=41.8^{***}$)							
고졸 이하	8.9	17.9	35.4	19.4	18.4	100.0	(182)
대학 재학	7.3	21.4	40.5	19.0	11.7	100.0	(253)
대졸 이상	4.1	11.8	35.7	29.6	18.8	100.0	(890)
취업 여부($\chi^2=5.5$)							
취업	5.2	13.7	35.4	27.5	18.2	100.0	(897)
비취업	5.7	16.2	39.1	23.4	15.5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결혼 의향

자신의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58.8%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그러한 응답 비율이 45.3%로 크게 낮았다. ‘결혼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지 않은 경우는 결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과

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음'과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음')와 유보의 경우('생각해 본 적 없음'과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낮은 것은 유보의 입장보다는 결혼 의사가 없는 적극적 거부의 성향에 더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매우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가장 많이 혼인하는 시기인 30~34세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65.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초반 연령대를 제외하고, 20대 후반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소위 혼인적령기라고 하는 혼인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응답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를 '혼인 단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앞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지나면서 혼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 취업상태에 있을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한 혼인의사는 다른 의미로는 '혼인 가능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혼 의향에 대한 질문은 자신이 혼인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앞서 혼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 혹은 견해를 묻는 '결혼의 필요성' 문항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일정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11-10〉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74.5	7.8	2.1	6.0	9.6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58.8	11.3	6.7	10.2	13.1	100.0	(1,140)
거주지($\chi^2=8.641$)							
대도시	56.2	12.1	6.8	11.1	13.8	100.0	(539)
중소도시	59.1	10.5	7.7	10.4	12.4	100.0	(435)
농촌	66.5	10.9	3.5	6.5	12.6	100.0	(166)
연령($\chi^2=70.8^{***}$)							
20~24세	61.1	5.7	8.3	13.0	11.9	100.0	(351)
25~29세	60.1	10.5	7.1	11.6	10.6	100.0	(325)
30~34세	65.0	9.5	4.3	6.2	14.9	100.0	(194)
35~39세	51.2	15.5	3.8	9.1	20.5	100.0	(153)
40~44세	47.7	27.7	8.0	5.7	10.8	100.0	(117)
교육수준($\chi^2=23.8^{**}$)							
고졸 이하	55.6	15.7	7.5	11.1	10.1	100.0	(312)
대학 재학	60.6	5.5	7.3	12.4	14.2	100.0	(295)
대졸 이상	59.7	11.9	5.8	8.3	14.2	100.0	(533)
취업 여부($\chi^2=11.3^*$)							
취업	60.6	11.6	7.0	7.8	13.0	100.0	(701)
비취업	55.8	10.8	6.2	14.0	13.2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2015)	64.7	8.8	5.1	7.7	13.8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45.3	15.4	10.2	11.3	17.8	100.0	(1,324)
거주지($\chi^2=4.9$)							
대도시	45.4	14.3	10.5	12.1	17.7	100.0	(675)
중소도시	43.7	17.3	10.1	10.3	18.6	100.0	(498)
농촌	50.8	13.9	9.1	10.6	15.6	100.0	(152)
연령($\chi^2=78.4^{***}$)							
20~24세	44.4	13.2	10.7	15.4	16.3	100.0	(477)
25~29세	55.7	12.9	10.2	7.9	13.4	100.0	(399)
30~34세	47.4	14.0	5.8	10.7	22.0	100.0	(205)
35~39세	31.6	24.7	10.9	6.9	25.9	100.0	(149)
40~44세	23.8	25.3	15.8	12.8	22.2	100.0	(95)
교육수준($\chi^2=29.1^{***}$)							
고졸 이하	33.7	18.0	13.0	12.5	22.9	100.0	(182)
대학 재학	39.6	17.3	10.4	17.1	15.6	100.0	(253)
대졸 이상	49.3	14.3	9.6	9.4	17.4	100.0	(890)
취업 여부($\chi^2=6.0$)							
취업	47.5	15.1	9.6	10.6	17.3	100.0	(897)
비취업	40.7	16.1	11.5	12.8	18.9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혼 남성의 응답은 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응답 50.5%와 결혼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8.8%로 두 응답 간 상대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8.8%만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에 비해 45.3%가 혼인의사를 밝혔다. 다시 말해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지만 자신은 결혼하겠다는 다소 이중적인 응답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의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정적 요인들을 감내하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혼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실제 자신의 선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혼인적령기를 지나면서 혼인을 단념하는 결정으로 더 쉽게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30대 후반을 지나면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혼인에 대한 부정적 의사는 앞으로 실제 혼인이행률을 낮추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배우자 조건

미혼 응답자들이 배우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았는데, 응답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성격(95.9%), 건강(95.1%),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91.1%), 일에 대한 협조(90.8%), 공통의 취미 유무(76.9%)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여성은 성격(98.3%), 가사·육아태도(97.9%), 건강(97.7%), 일에 대한 이해 협조(95.6%), 소득·재산 등 경제력(9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에 대한 고려가 여성 응답에서 남성 응답(53.0%)보다 크게 높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 혼인에서 남성의 경제력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표 11-11〉 미혼 남녀(20~44세)의 배우자 조건에 대한 태도(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 응답률)

(단위: %, 명)

구 분	학력	직업 (직종 및 직위)	경제력 (소득, 재산 등)	성격	외모 등 신체 조건	건강	공통의 취미 유무	일제 대한 이해 협조	가사· 육아 태도	가정 환경
미혼 남성 전체 (명)	31.0 (1,140)	49.9 (1,140)	53.0 (1,140)	95.9 (1,140)	62.4 (1,140)	95.1 (1,140)	76.9 (1,140)	90.8 (1,140)	91.1 (1,140)	75.1 (1,140)
거주지										
대도시	32.8	47.7	50.6	95.5	63.3	93.9	76.3	91.2	91.8	76.7
중소도시	30.5	53.1	57.5	96.9	61.4	96.2	78.7	90.1	91.1	73.3
농촌	26.4	49.1	49.0	94.6	62.3	96.0	73.9	91.6	88.8	74.5
연령										
20~24세	34.6	57.4	60.0	96.5	65.5	96.9	79.1	92.6	94.2	74.8
25~29세	33.2	53.7	56.5	97.6	64.9	97.6	78.8	93.9	90.2	77.4
30~34세	37.5	52.1	54.0	95.8	65.8	94.8	80.7	89.6	90.5	76.1
35~39세	16.3	33.9	38.8	95.5	56.4	93.7	70.0	89.0	90.8	72.3
40~44세	22.4	34.5	39.6	89.9	48.8	84.9	67.2	81.6	85.5	71.8
교육수준										
고졸 이하	19.5	39.7	46.3	94.5	52.0	92.0	74.3	88.0	89.3	70.3
대학 재학	40.2	61.6	60.9	96.9	68.8	97.9	76.1	92.4	95.1	77.7
대졸 이상	32.6	49.5	52.6	96.2	65.0	95.3	78.8	91.6	89.9	76.5
취업 여부										
취업	26.5	46.5	50.7	96.1	62.0	95.4	78.6	91.2	90.4	73.9
비취업	38.1	55.4	56.7	95.6	63.2	94.6	74.1	90.3	92.2	77.0
미혼 여성 전체 (명)	55.0 (1,324)	87.1 (1,324)	92.7 (1,324)	98.3 (1,324)	64.4 (1,324)	97.7 (1,324)	83.2 (1,324)	95.6 (1,324)	97.9 (1,324)	89.8 (1,324)
거주지										
대도시	58.4	88.3	92.8	98.5	65.2	98.2	82.5	96.0	98.3	90.2
중소도시	51.4	85.4	92.0	98.4	64.9	97.7	83.6	95.2	97.2	89.6
농촌	51.4	87.7	94.2	96.9	58.9	95.7	84.7	95.1	98.0	88.7
연령										
20~24세	56.2	88.5	92.8	99.1	66.8	98.0	83.0	97.9	99.2	87.6
25~29세	53.4	87.4	94.0	98.0	66.1	97.5	80.9	96.4	98.1	94.1
30~34세	56.1	88.2	95.6	97.1	65.2	99.2	83.7	92.4	97.2	87.9
35~39세	52.9	83.7	87.9	98.0	56.5	95.8	87.6	91.7	96.6	89.8
40~44세	55.9	82.1	87.4	97.9	55.3	96.7	85.2	93.9	93.9	86.6
교육수준										
고졸 이하	35.9	81.2	88.4	96.8	57.4	95.9	82.8	92.9	95.0	81.3
대학 재학	59.2	89.4	92.8	100.0	66.5	97.4	84.8	98.2	99.7	88.6
대졸 이상	57.7	87.7	93.5	98.1	65.2	98.1	82.7	95.4	97.9	91.9
취업 여부										
취업	55.3	86.7	93.0	98.4	64.6	98.1	83.7	96.0	98.0	90.7
비취업	54.3	88.1	91.9	97.9	63.9	96.8	81.9	94.8	97.6	87.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그 외 배우자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으로는 직종 및 직위 등 직업(남성 49.9%, 여성 87.1%), 학력(남성 31.0%, 여성 55.0%), 가정환경(남성 75.1%, 여성 89.8%) 등이 있었다. 이들 항목들은 모두가 다소 내용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력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혼 여성이 배우자 조건으로 경제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이 가계 경제를 책임진다는 전통적 의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세대의 열악한 경제상황 특히, 여성의 일자리 불안 등 여성의 부정적 경제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든 항목들에서 여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여성들이 혼인 이행과 배우자 선택에서 남성에 비해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미혼자의 혼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식의 필요성 정도에 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응답결과를 보면 미혼 남성 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의견이 14.5%, ‘대체로 찬성’은 44.2%로 전체적으로 58.7%가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전적으로 찬성’ 10.8%, ‘대체로 찬성’ 34.4%로 전체적으로 긍정적 태도가 45.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찬성의 응답 성향이 절반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지만, 적극적 찬성은 10%대의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혼인과 관련된 형식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실제의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1-12〉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14.5	44.2	32.3	9.1	100.0	(1,140)
거주지($\chi^2=12.6^*$)						
대도시	14.6	45.6	29.9	9.9	100.0	(539)
중소도시	11.8	43.4	35.5	9.2	100.0	(435)
농촌	20.9	41.8	31.2	6.1	100.0	(166)
연령($\chi^2=15.3$)						
20~24세	14.5	46.1	31.5	7.8	100.0	(351)
25~29세	16.8	43.6	31.1	8.5	100.0	(325)
30~34세	15.1	45.8	29.9	9.2	100.0	(194)
35~39세	13.5	37.5	40.2	8.9	100.0	(153)
40~44세	7.7	46.3	31.2	14.8	100.0	(117)
교육수준($\chi^2=1.2$)						
고졸 이하	15.6	42.5	32.4	9.5	100.0	(312)
대학 재학	14.6	45.6	31.2	8.5	100.0	(295)
대졸 이상	13.7	44.4	32.7	9.2	100.0	(533)
취업 여부($\chi^2=4.4$)						
취업	14.0	42.2	33.9	9.9	100.0	(701)
비취업	15.2	47.3	29.6	7.9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	10.8	34.4	40.4	14.4	100.0	(1,324)
거주지($\chi^2=7.201$)						
대도시	10.5	36.6	40.2	12.7	100.0	(675)
중소도시	11.1	30.7	41.3	17.0	100.0	(498)
농촌	11.2	36.4	38.6	13.8	100.0	(152)
연령($\chi^2=19.7$)						
20~24세	11.4	34.5	39.4	14.7	100.0	(477)
25~29세	12.2	39.1	36.5	12.3	100.0	(399)
30~34세	11.1	30.6	42.7	15.6	100.0	(205)
35~39세	5.5	29.1	50.8	14.6	100.0	(149)
40~44세	9.5	30.5	40.5	19.5	100.0	(95)
교육수준($\chi^2=2.7$)						
고졸 이하	9.9	31.2	41.6	17.3	100.0	(182)
대학 재학	10.5	32.9	41.4	15.2	100.0	(253)
대졸 이상	11.1	35.4	39.9	13.6	100.0	(890)
취업 여부($\chi^2=2.2$)						
취업	10.9	35.3	39.1	14.7	100.0	(897)
비취업	10.5	32.3	43.2	13.9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추측은 앞서의 기혼자들에 대한 질문 문항에서 실제 결혼식을 한 경우가 상당 수준으로 나타났고, 결혼식보다는 동거를 먼저 시작한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치태도를 넘어 실제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도 응답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결혼에 있어서 가치규범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선택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주거 마련과 관련하여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에 동의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미혼 남성 응답자에서는 이에 찬성하지 않는 응답이 전체의 70.2%를 차지하였고,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72.3%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오히려 남성보다 더 높은 부정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남성은 3.8%, 여성은 4.3%에 그쳐, 주택 마련을 남성의 책임으로만 보는 시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전통적인 성별 역할을 수용하지 않는 추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진 주거의 부담을 어느 한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신혼 주거 마련이 남성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의 응답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에서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에서의 응답률 차이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혼집 마련이 남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데 동의는 하지만, 남성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력과 취업 여부에 따른 응답에서는 다소 복잡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11-13〉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3.8	25.9	54.7	15.5	100.0	(1,140)
거주지($\chi^2=5.3$)						
대도시	4.1	23.3	57.5	15.1	100.0	(539)
중소도시	3.2	28.0	52.9	15.9	100.0	(435)
농촌	4.9	28.8	50.3	15.9	100.0	(166)
연령($\chi^2=25.6^*$)						
20~24세	2.3	21.9	55.7	20.1	100.0	(351)
25~29세	2.7	27.9	56.1	13.3	100.0	(325)
30~34세	3.9	30.0	52.1	14.0	100.0	(194)
35~39세	5.8	29.6	52.7	11.9	100.0	(153)
40~44세	8.9	21.1	55.2	14.8	100.0	(117)
교육수준($\chi^2=18.0^{**}$)						
고졸 이하	5.8	22.5	57.3	14.4	100.0	(312)
대학 재학	2.4	21.1	58.0	18.5	100.0	(295)
대졸 이상	3.6	30.6	51.4	14.5	100.0	(533)
취업 여부($\chi^2=9.2^*$)						
취업	4.9	27.5	52.7	14.8	100.0	(701)
비취업	2.1	23.4	57.9	16.5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	4.3	23.5	56.0	16.3	100.0	(1,324)
거주지($\chi^2=6.0$)						
대도시	4.2	25.5	55.9	14.4	100.0	(675)
중소도시	4.3	22.0	55.3	18.5	100.0	(498)
농촌	4.3	19.5	58.6	17.6	100.0	(152)
연령($\chi^2=17.8$)						
20~24세	4.9	20.1	54.8	20.1	100.0	(477)
25~29세	4.7	25.6	54.4	15.3	100.0	(399)
30~34세	2.3	23.0	60.0	14.7	100.0	(205)
35~39세	4.0	28.4	57.9	9.6	100.0	(149)
40~44세	3.5	24.7	56.9	14.9	100.0	(95)
교육수준($\chi^2=13.9^*$)						
고졸 이하	6.5	24.0	53.6	16.0	100.0	(182)
대학 재학	3.7	19.0	54.7	22.6	100.0	(253)
대졸 이상	3.9	24.7	56.9	14.5	100.0	(890)
취업 여부($\chi^2=7.9^*$)						
취업	4.5	24.6	56.5	14.4	100.0	(897)
비취업	3.8	21.0	55.0	20.2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학력별 응답분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고졸 이하의 학력집단에서 신혼주거 마련이 전적으로 남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이들이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낮은 경제적 계층을 고려하면 이들 집단에서 생각하는 신혼주거에 대한 비용 기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도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 취업을 한 경우에 신혼집 마련을 남성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취업한 남녀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취업 남성에게서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32.4%로 취업 여성의 29.1%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제적 여유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혼집 마련 책임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여유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 취업상태인 여성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신혼집 마련이 남성의 책임이라고 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취업: 29.1%, 비취업 24.8%). 그리고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오히려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취업: 14.4%, 비취업 20.2%). 이는 주거 마련과 관련한 태도 형성이 부부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수용, 주거에 대한 기대수준,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배우자에 대한 기대, 자신의 경제력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영향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미혼 남녀의 혼인에 대한 태도에서 마지막으로 ‘혼인신고는 함께 살아본 뒤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남성이 찬성하는 정도가 62.8%로, 여성은 69.9%로 여성에서 찬성의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일관되게 여성의 응답이 보여준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혼인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또한 혼인관계가 중단될 경우 여성에게 더 큰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표 11-14〉 ‘혼인신고는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17.0	45.8	28.1	9.1	100.0	(1,140)
거주지($\chi^2=3.2$)						
대도시	17.5	47.1	27.3	8.0	100.0	(539)
중소도시	15.7	45.9	28.5	9.9	100.0	(435)
농촌	18.7	41.5	29.8	10.0	100.0	(166)
연령($\chi^2=14.5$)						
20~24세	18.0	46.0	27.8	8.2	100.0	(351)
25~29세	17.8	47.5	25.4	9.4	100.0	(325)
30~34세	13.9	47.2	26.6	12.3	100.0	(194)
35~39세	21.3	39.3	31.5	7.9	100.0	(153)
40~44세	11.0	47.0	35.2	6.9	100.0	(117)
교육수준($\chi^2=4.3$)						
고졸 이하	19.2	42.1	29.1	9.5	100.0	(312)
대학 재학	14.9	47.3	29.8	8.0	100.0	(295)
대졸 이상	16.8	47.2	26.7	9.4	100.0	(533)
취업 여부($\chi^2=4.2$)						
취업	18.7	44.4	27.9	9.0	100.0	(701)
비취업	14.2	48.0	28.6	9.2	100.0	(439)
미혼 여성 전체	22.7	47.2	21.7	8.4	100.0	(1,324)
거주지($\chi^2=16.8^*$)						
대도시	22.1	49.3	22.5	6.1	100.0	(675)
중소도시	23.0	46.5	18.9	11.5	100.0	(498)
농촌	24.5	39.5	27.3	8.7	100.0	(152)
연령($\chi^2=26.4^*$)						
20~24세	23.6	52.5	18.3	5.7	100.0	(477)
25~29세	22.5	41.5	24.1	11.9	100.0	(399)
30~34세	24.3	47.6	21.0	7.0	100.0	(205)
35~39세	21.2	48.0	20.5	10.2	100.0	(149)
40~44세	18.4	42.0	31.8	7.7	100.0	(95)
교육수준($\chi^2=21.6^{**}$)						
고졸 이하	30.5	42.7	17.6	9.1	100.0	(182)
대학 재학	22.7	55.7	17.0	4.6	100.0	(253)
대졸 이상	21.2	45.6	23.8	9.4	100.0	(890)
취업 여부($\chi^2=5.4$)						
취업	23.8	45.0	22.6	8.7	100.0	(897)
비취업	20.6	51.8	19.8	7.8	100.0	(42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의 통계적 차이는 남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에게서는 그 차이가 다소 약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발견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동의의 경향이 더 강하였다. 이는 코호트 및 문화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12

자녀 및 가족에 대한 태도 <<

제1절 자녀에 대한 태도

1. 자녀의 필요성

미혼 남녀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남성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2%,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8.9%,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이 48.0%로 매우 높고, 그다음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8.8%,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 ‘모르겠다’는 비율은 3.7%로 나타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24세 집단에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7.7%로 비교적 높고 35~44세에서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나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연령 집단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생각에 차이를 보였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의 경우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6.5%로 매우 높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4.5%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성의 경우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높게 나타나

결혼 의향에 따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에 미혼 남성이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줄어들었고, 줄어든 비율만큼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불과 3년 사이지만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서도 결혼 의향에 따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4%로 매우 높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0%에 지나지 않아,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자녀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49.0%와 50.0%로 비슷하게 높았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37.1%만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해 거주지에 따른 차이가 도시와 농촌 사이에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여성의 변화는 남성의 변화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2015년 미혼 여성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매우 높고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로 나타나,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2018년도의 응답과 반대의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12-1〉 미혼 남녀(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임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39.9	40.6	17.5	1.9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33.6	34.2	28.9	3.3	100.0	(1,140)
거주지($\chi^2=11.7$)						
대도시	31.8	36.6	27.4	4.2	100.0	(539)
중소도시	34.6	30.1	32.7	2.5	100.0	(435)
농촌	36.7	37.4	23.5	2.4	100.0	(166)
연령($\chi^2=24.0^*$)						
20~24세	37.7	33.9	24.6	3.8	100.0	(351)
25~29세	34.6	34.1	27.5	3.9	100.0	(325)
30~34세	38.2	29.7	29.5	2.7	100.0	(194)
35~39세	23.7	35.1	38.0	3.1	100.0	(153)
40~44세	23.7	42.3	32.5	1.5	100.0	(117)
교육수준($\chi^2=9.4$)						
고졸 이하	35.0	32.0	29.7	3.3	100.0	(312)
대학 재학	34.9	35.9	24.0	5.2	100.0	(295)
대졸 이상	32.1	34.7	31.1	2.2	100.0	(533)
취업 여부($\chi^2=9.3^*$)						
취업	34.4	32.3	30.8	2.4	100.0	(701)
비취업	32.3	37.3	25.7	4.7	100.0	(439)
결혼 의향($\chi^2=171.1^{***}$)						
있음	46.5	34.5	17.8	1.2	100.0	(670)
없음/모르겠음	15.2	33.8	44.7	6.3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28.4	40.0	29.5	2.2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19.5	28.8	48.0	3.7	100.0	(1,324)
거주지($\chi^2=16.1^*$)						
대도시	17.7	29.7	49.0	3.7	100.0	(675)
중소도시	19.0	26.7	50.0	4.3	100.0	(498)
농촌	28.9	32.0	37.1	2.0	100.0	(152)
연령($\chi^2=16.6$)						
20~24세	16.4	28.9	51.2	3.5	100.0	(477)
25~29세	23.8	26.7	45.9	3.6	100.0	(399)
30~34세	23.7	27.3	44.9	4.0	100.0	(205)
35~39세	16.0	32.3	48.2	3.5	100.0	(149)
40~44세	12.5	35.1	47.4	5.0	100.0	(95)

〈표 12-1〉 계속

구 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임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	(명)
교육수준($\chi^2=12.3$)						
고졸 이하	20.0	24.0	52.7	3.3	100.0	(182)
대학 재학	14.0	29.5	54.0	2.5	100.0	(253)
대졸 이상	20.9	29.6	45.4	4.1	100.0	(890)
취업 여부($\chi^2=5.2$)						
취업	20.6	29.4	46.0	4.0	100.0	(897)
비취업	17.1	27.6	52.2	3.1	100.0	(427)
결혼 의향($\chi^2=240.0^{***}$)						
있음	34.5	35.1	28.2	2.1	100.0	(601)
없음/모르겠음	7.0	23.6	64.4	5.0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혼 남성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가 27.7%,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가 26.1%,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가 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가 19.7%, 그리고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및 기타’의 이유가 2.4%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636명 중 32.0%가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했고, 28.6%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으며, 15.4%는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및 기타’의 이유는 5.8%로 나타났다. 남성의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한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및 기타’의 이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 이유마다 고르게 응답이 분포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34.5%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이 동일 이유에 대해 25.1%의 응답 비율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12-2〉 미혼 남녀(20~44세)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및 기타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26.1	24.1	19.7	27.7	2.4	100.0	(329)
거주지							
대도시	25.5	23.7	19.1	30.0	1.7	100.0	(147)
중소도시	26.9	25.7	17.0	27.8	2.7	100.0	(142)
농촌	25.9	19.7	31.5	18.5	4.3	100.0	(39)
연령							
20~24세	34.2	18.0	23.0	23.8	1.0	100.0	(86)
25~29세	30.5	18.4	23.4	26.4	1.3	100.0	(89)
30~34세	17.6	33.7	14.5	29.9	4.4	100.0	(57)
35~39세	15.6	28.7	13.9	40.7	1.2	100.0	(58)
40~44세	26.5	29.7	20.0	16.5	7.2	100.0	(38)
교육수준							
고졸 이하	25.7	25.6	20.2	27.8	0.8	100.0	(93)
대학 재학	36.1	13.4	27.6	21.7	1.2	100.0	(71)
대졸 이상	22.1	27.8	16.0	30.2	3.9	100.0	(165)
취업 여부($\chi^2=5.1$)							
취업	23.4	27.4	19.1	27.3	2.8	100.0	(216)
비취업	31.4	17.6	20.7	28.4	1.8	100.0	(113)
결혼 의향($\chi^2=3.5$)							
있음	28.9	27.8	17.9	22.9	2.4	100.0	(119)
없음/모르겠음	24.6	21.9	20.7	30.4	2.4	100.0	(210)

〈표 12-2〉 계속

구 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및 기타	계	(명)
미혼 여성 전체	18.3	15.4	32.0	28.6	5.8	100.0	(636)
거주지($\chi^2=9.0$)							
대도시	16.3	13.1	32.7	30.5	7.4	100.0	(331)
중소도시	19.6	18.6	31.8	26.3	3.8	100.0	(249)
농촌	24.0	14.1	28.9	27.4	5.6	100.0	(56)
연령($\chi^2=17.2$)							
20~24세	14.1	17.0	33.2	28.5	7.2	100.0	(244)
25~29세	19.7	15.0	32.5	28.3	4.5	100.0	(183)
30~34세	22.1	6.6	34.6	29.1	7.6	100.0	(92)
35~39세	22.9	21.0	27.8	24.4	4.0	100.0	(72)
40~44세	19.5	16.7	24.7	36.2	2.9	100.0	(45)
교육수준($\chi^2=11.5$)							
고졸 이하	16.7	18.8	37.7	23.3	3.6	100.0	(96)
대학 재학	14.3	13.6	29.2	33.4	9.4	100.0	(136)
대졸 이상	20.0	15.1	31.5	28.2	5.1	100.0	(404)
취업 여부($\chi^2=4.0$)							
취업	19.4	16.0	32.8	26.4	5.4	100.0	(413)
비취업	16.2	14.1	30.5	32.7	6.6	100.0	(223)
결혼 의향($\chi^2=16.1^{**}$)							
있음	24.0	21.9	25.1	23.6	5.4	100.0	(170)
없음/모르겠음	16.2	13.0	34.5	30.4	6.0	100.0	(466)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이상자녀 및 희망자녀수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상자녀수의 평균은 남성이 1.88명, 여성은 1.83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8%,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6%였고, 여성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1%,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9%로 남성보다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재학 중인 여성인 경우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는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8%,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이 낮은 미혼 여성 집단인 만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16.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결혼 의향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혼 의향이 있는 집단이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집단과 비교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은 2명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3.2%,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4%인 반면,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미혼 여성은 1명에 응답한 비율이 25.1%, 2명은 50.3%으로 나타났고, 3명 이상은 4.5%에 불과했다. 그 대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8.4%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생각을 2015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의 미혼 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 평균은 1.96명, 여성의 경우는 1.98명으로 2018년보다 약간씩 높은 숫자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자녀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에 대한 비율은 증가하고, 2명과 3명 이상이라는 응답에 대한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줄어들고, 자녀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것을 2015년 결과와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2-3〉 미혼 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잘 모르겠음	계	(명)	평균
미혼 남성 전체(2015)	0.8	15.0	68.6	11.7	3.9	100.0	(1,096)	1.96
미혼 남성 전체(2018)	0.5	17.6	64.8	7.6	9.5	100.0	(1,140)	1.88
거주지								
대도시	0.5	17.1	64.0	7.5	10.9	100.0	(539)	1.88
중소도시	0.7	18.8	65.9	6.7	7.9	100.0	(435)	1.86
농촌	-	16.1	64.6	10.1	9.2	100.0	(166)	1.95

〈표 12-3〉 계속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잘 모르겠음	계	(명)	평균
연령								
20~24세	-	15.0	65.6	9.3	10.1	100.0	(351)	1.94
25~29세	0.3	16.4	65.5	7.4	10.3	100.0	(325)	1.90
30~34세	1.3	21.4	61.8	7.1	8.4	100.0	(194)	1.83
35~39세	-	21.4	61.2	6.5	10.8	100.0	(153)	1.84
40~44세	1.5	17.5	70.1	5.0	6.0	100.0	(117)	1.84
교육수준								
고졸 이하	0.4	19.4	64.1	6.2	9.8	100.0	(312)	1.84
대학 재학	0.4	14.1	67.0	9.0	9.4	100.0	(295)	1.94
대졸 이상	0.5	18.5	64.0	7.6	9.4	100.0	(533)	1.88
취업 여부								
취업	0.6	20.0	62.1	7.5	9.7	100.0	(701)	1.86
비취업	0.3	13.8	69.1	7.6	9.2	100.0	(439)	1.93
결혼 의향								
있음	0.2	12.6	72.0	9.7	5.5	100.0	(670)	1.98
없음/모르겠음	0.9	24.8	54.6	4.5	15.2	100.0	(470)	1.74
미혼 여성 전체(2015)	0.7	13.8	66.1	11.9	7.6	100.0	(1,287)	1.98
미혼 여성 전체(2018)	0.9	21.9	56.1	8.1	12.9	100.0	(1,324)	1.83
거주지($\chi^2=12.2$)								
대도시	0.9	23.8	57.0	6.5	11.9	100.0	(675)	1.79
중소도시	1.2	21.2	54.4	9.3	13.8	100.0	(498)	1.85
농촌	0.3	15.9	58.1	11.4	14.3	100.0	(152)	1.94
연령								
20~24세	0.9	16.1	59.4	8.9	14.7	100.0	(477)	1.90
25~29세	1.3	20.1	58.1	10.1	10.3	100.0	(399)	1.87
30~34세	0.7	26.9	55.6	4.3	12.5	100.0	(205)	1.73
35~39세	-	33.5	45.5	5.9	15.1	100.0	(149)	1.69
40~44세	1.4	30.2	49.3	7.6	11.5	100.0	(95)	1.76
교육수준($\chi^2=18.8$)								
고졸 이하	1.0	20.1	55.0	9.4	14.5	100.0	(182)	1.88
대학 재학	1.3	14.0	57.8	10.0	16.9	100.0	(253)	1.94
대졸 이상	0.8	24.6	55.9	7.3	11.4	100.0	(890)	1.79
취업 여부								
취업	0.7	23.6	55.9	7.5	12.3	100.0	(897)	1.81
비취업	1.5	18.4	56.7	9.3	14.0	100.0	(427)	1.87
결혼 의향($\chi^2=88.2^{***}$)								
있음	0.1	18.1	63.2	12.4	6.2	100.0	(601)	1.95
없음/모르겠음	1.6	25.1	50.3	4.5	18.4	100.0	(724)	1.72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평균은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건을 고려해 본인이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서는 2명 이하로 나타났지만, 희망자녀수는 미혼 남성 평균이 2.03명, 미혼 여성 평균이 1.87명으로 이상자녀수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취업 여부에 따라 희망자녀수에 차이를 보였는데,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한 경우 7.4%인 데 반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11.0%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의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가 0명(2.5%)이거나 1명(23.0%)인 경우, 그리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14.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모든 특성에 따라 희망자녀수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도시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8%로 대도시 거주 여성의 응답 비율인 13.6%와 중소도시 거주 여성의 응답 비율인 16.1%와 차이를 보인다. 평균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지역 거주 여성의 희망자녀수 평균은 2.12명인데 반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1.84명으로 나타나 도시일수록 희망하는 자녀수가 적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여성의 희망자녀수 평균이 1.87인 점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거주 미혼 여성의 희망자녀수는 2명 이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40~44세 집단에서 평균 1.46명으로 매우 낮은 희망자녀수를 볼 수 있다. 특히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한 응답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물학

적으로 출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여성의 결혼 의향에 따라서도 희망자녀수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경우는 희망자녀수가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을 생각하는 여성은 여건이 허락되면 자녀를 많이 낳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의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한 응답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남성은 평균 2.06명에서 2.03명으로, 여성은 1.97명에서 1.87명으로 남녀 모두 희망자녀수가 줄어 들었다. 특히 여성의 희망자녀수가 남성의 희망자녀수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희망에 대한 응답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희망이 출산 계획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결정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희망자녀수가 남성의 희망자녀수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2-4〉 미혼 남녀(20~44세)의 여건을 고려한 희망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미혼 남성 전체(2015)	0.3	15.1	62.8	16.7	5.1	100.0	(1,096)	2.06
미혼 남성 전체(2018)	1.2	16.0	57.5	16.5	8.8	100.0	(1,140)	2.03
거주지($\chi^2=4.4$)								
대도시	0.9	16.6	55.5	17.2	9.9	100.0	(539)	2.03
중소도시	1.6	15.5	60.3	15.3	7.3	100.0	(435)	2.02
농촌	1.3	15.4	56.6	17.7	8.9	100.0	(166)	2.06
연령								
20~24세	0.6	13.0	56.1	19.4	10.9	100.0	(351)	2.13
25~29세	1.4	12.7	61.3	15.2	9.4	100.0	(325)	2.04
30~34세	0.7	18.1	56.6	18.5	6.1	100.0	(194)	2.02
35~39세	2.1	21.8	53.6	13.5	8.9	100.0	(153)	1.92
40~44세	2.3	23.1	57.4	12.3	4.8	100.0	(117)	1.85
교육수준($\chi^2=7.3$)								
고졸 이하	1.6	17.9	57.5	15.0	8.0	100.0	(312)	1.99
대학 재학	1.1	11.9	58.0	18.9	10.1	100.0	(295)	2.13
대졸 이상	1.1	17.2	57.2	16.1	8.5	100.0	(533)	2.00

〈표 12-4〉 계속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취업 여부($\chi^2=11.7$)								
취업	1.7	17.9	56.7	16.4	7.4	100.0	(701)	1.99
비취업	0.5	13.0	58.8	16.8	11.0	100.0	(439)	2.09
결혼 의향($\chi^2=91.0^{***}$)								
있음	0.4	11.1	63.1	20.7	4.8	100.0	(670)	2.15
없음/모르겠음	2.5	23.0	49.5	10.7	14.4	100.0	(470)	1.83
미혼 여성 전체(2015)	1.3	18.0	56.1	15.3	9.3	100.0	(1,287)	1.97
미혼 여성 전체(2018)	4.4	22.3	44.6	15.6	13.1	100.0	(1,324)	1.87
거주지($\chi^2=16.8$)								
대도시	4.1	23.1	45.8	13.6	13.5	100.0	(675)	1.84
중소도시	5.6	23.2	41.7	16.1	13.4	100.0	(498)	1.84
농촌	1.7	16.2	48.7	22.8	10.6	100.0	(152)	2.12
연령($\chi^2=82.6^{***}$)								
20~24세	4.4	15.2	46.5	18.1	15.8	100.0	(477)	1.98
25~29세	4.9	20.0	47.3	17.8	10.1	100.0	(399)	1.93
30~34세	3.0	29.9	51.6	8.4	7.1	100.0	(205)	1.73
35~39세	2.8	30.4	34.1	16.8	15.9	100.0	(149)	1.83
40~44세	7.5	38.8	25.2	7.5	20.9	100.0	(95)	1.46
교육수준($\chi^2=31.6^{***}$)								
고졸 이하	3.2	20.9	42.3	18.5	15.2	100.0	(182)	2.02
대학 재학	4.4	13.1	43.2	20.9	18.4	100.0	(253)	2.04
대졸 이상	4.6	25.3	45.5	13.5	11.2	100.0	(890)	1.80
취업 여부($\chi^2=13.1$)								
취업	3.8	24.6	45.1	14.5	11.9	100.0	(897)	1.85
비취업	5.5	17.5	43.5	17.9	15.6	100.0	(427)	1.94
결혼 의향($\chi^2=179.2^{***}$)								
있음	1.0	17.3	52.4	24.8	4.5	100.0	(601)	2.14
없음/모르겠음	7.2	26.5	38.1	7.9	20.3	100.0	(724)	1.6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평균은 '모르겠음'에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희망하는 자녀수가 0명이라고 응답한 미혼 남녀를 제외하고 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아들이나 딸에 대한 선호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딸·아들에 대한 구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 남성은 67.1%이고 미혼 여성은 65.6%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35~44세 미혼 여성은 ‘딸·아들에 대한 구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2-5〉 자녀를 두고 싶다고 응답한 미혼 남녀(20~44세)의 딸·아들 구분 선호 여부
(단위: %, 명)

구 분	딸·아들 구별없이	딸·아들 구별해서	잘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71.5	28.3	0.2	100.0	(1,036)
미혼 남성 전체(2018)	67.1	30.7	2.2	100.0	(1,026)
거주지($\chi^2=7.1$)					
대도시	68.2	30.2	1.6	100.0	(481)
중소도시	63.8	32.9	3.3	100.0	(396)
농촌	72.3	26.7	1.0	100.0	(149)
연령					
20~24세	59.6	38.1	2.3	100.0	(311)
25~29세	64.4	33.8	1.9	100.0	(291)
30~34세	74.8	25.2	-	100.0	(180)
35~39세	73.7	22.5	3.8	100.0	(136)
40~44세	74.6	21.2	4.1	100.0	(109)
교육수준($\chi^2=2.6$)					
고졸 이하	64.3	33.0	2.6	100.0	(282)
대학 재학	65.9	31.4	2.7	100.0	(262)
대졸 이상	69.4	29.1	1.6	100.0	(482)
취업 여부($\chi^2=1.0$)					
취업	68.1	30.1	1.9	100.0	(637)
비취업	65.5	31.9	2.7	100.0	(389)
미혼 여성 전체(2015)	74.7	24.7	0.6	100.0	(1,151)
미혼 여성 전체(2018)	65.6	31.0	3.4	100.0	(1,093)
거주지($\chi^2=1.1$)					
대도시	66.3	30.2	3.5	100.0	(556)
중소도시	64.1	32.4	3.5	100.0	(404)
농촌	67.2	30.3	2.5	100.0	(133)
연령($\chi^2=37.3^{***}$)					
20~24세	58.5	37.3	4.2	100.0	(380)
25~29세	64.6	32.2	3.2	100.0	(339)
30~34세	63.2	33.4	3.3	100.0	(184)
35~39세	83.9	13.8	2.3	100.0	(121)
40~44세	83.9	14.2	1.9	100.0	(68)
교육수준($\chi^2=3.7$)					
고졸 이하	59.1	36.1	4.8	100.0	(148)
대학 재학	65.3	30.9	3.7	100.0	(195)
대졸 이상	66.9	30.0	3.0	100.0	(749)
취업 여부($\chi^2=2.3$)					
취업	66.9	30.0	3.0	100.0	(756)
비취업	62.5	33.2	4.3	100.0	(337)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과 비교해 미혼 남녀 모두 ‘딸·아들 구별 선호’에 대한 응답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아들을 선호했던 시대와 달리, 최근에 오히려 딸을 선호하거나 선호하는 성별이 없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2015년보다 구별한다는 응답이 증가했다고 해서 남아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딸·아들 구별 선호’에 응답한 미혼 남녀가 아들 몇 명, 딸 몇 명을 원하는지 추가 분석을 해본 결과, 딸에 대한 수만 응답한 비율은 19.3%, 아들에 대한 수만 응답한 경우는 2.4%, 그리고 딸과 아들의 수가 다르지만 결국 딸과 아들 모두에 수를 응답한 경우는 78.3%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뚜렷하게 한쪽 성별만 선호하는 경우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5년보다 자녀에 대한 성별 선호가 증가한 것은 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자녀에 대한 태도

미혼 남녀가 자녀라는 존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미혼 남성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2%,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대부분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6.3%로 남성의 7.8%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결혼 의향 유무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 집단도 찬성하는

쪽의 비율이 높기는 하였으나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은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우가 56.7%로 매우 높아,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의 28.9%와 차이를 보였다.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집단에서도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2.9%인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14.8%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 역시 결혼 의향 유무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해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의 경우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2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 의향이 있는 집단의 7.9%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의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미혼 남성의 응답 비율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15년 8.2%에서 2018년 16.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 여성 사이에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미혼 남성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44.8	49.2	5.3	0.7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45.2	45.8	7.8	1.1	100.0	(1,140)
거주지($\chi^2=7.1$)						
대도시	43.8	48.4	7.2	0.5	100.0	(539)
중소도시	47.2	42.3	8.8	1.7	100.0	(435)
농촌	44.7	46.4	7.1	1.8	100.0	(166)
연령						
20~24세	50.1	43.2	5.8	0.9	100.0	(351)
25~29세	46.1	43.7	9.1	1.1	100.0	(325)
30~34세	42.9	49.4	6.7	1.0	100.0	(194)
35~39세	42.6	44.7	11.0	1.8	100.0	(153)
40~44세	35.6	54.9	8.0	1.5	100.0	(117)

〈표 12-6〉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8.7$)						
고졸 이하	45.9	42.5	9.9	1.6	100.0	(312)
대학 재학	47.0	45.6	7.2	0.2	100.0	(295)
대졸 이상	43.9	47.8	6.9	1.4	100.0	(533)
취업 여부($\chi^2=4.8$)						
취업	43.6	47.2	7.7	1.6	100.0	(701)
비취업	47.9	43.6	8.1	0.5	100.0	(439)
결혼 의향($\chi^2=120.8^{***}$)						
있음	56.7	40.2	2.9	0.2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8.9	53.8	14.8	2.5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39.1	52.3	8.2	0.4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33.5	48.0	16.3	2.2	100.0	(1,324)
거주지($\chi^2=9.7$)						
대도시	31.5	49.2	17.3	2.0	100.0	(675)
중소도시	33.5	47.9	15.7	2.9	100.0	(498)
농촌	42.3	42.9	14.0	0.8	100.0	(152)
연령($\chi^2=13.3$)						
20~24세	29.5	51.1	16.3	3.1	100.0	(477)
25~29세	38.0	44.2	15.7	2.0	100.0	(399)
30~34세	35.6	44.6	18.4	1.4	100.0	(205)
35~39세	30.1	50.9	17.2	1.8	100.0	(149)
40~44세	35.4	50.6	13.2	0.7	100.0	(95)
교육수준($\chi^2=2.3$)						
고졸 이하	32.5	49.7	16.0	1.8	100.0	(182)
대학 재학	31.6	49.5	15.8	3.2	100.0	(253)
대졸 이상	34.3	47.2	16.5	2.0	100.0	(890)
취업 여부($\chi^2=1.7$)						
취업	33.0	48.5	16.6	1.9	100.0	(897)
비취업	34.6	46.9	15.7	2.8	100.0	(427)
결혼 의향($\chi^2=138.7^{***}$)						
있음	48.4	43.1	7.9	0.6	100.0	(601)
없음/모르겠음	21.1	52.1	23.3	3.5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내용은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라는 견해에 대한 태도이다. 이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의 38.4%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47.0%가 대체

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우가 22.1%,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는 48.7%로 나타나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이 견해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결혼 의향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해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대학 재학 중인 남성 집단에서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43.4%로,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혼 남성(35.3%)과 차이를 보였고,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0.5%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미혼 남성의 경우(4.5%)와 비교해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은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48.5%,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42.1%인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의 경우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4.1%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3.9%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은 9.0%인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은 17.7%로 나타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미혼 여성의 22.1%가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48.7%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4.9%로 남성의 12.6%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도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33.7%,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0.1%로 여성 전체 비율과 비교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33.5%,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도 6.6%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선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결혼 의

향, 특히 여성의 결혼 의향은 자녀에 대한 태도와 연관성에 있어 남성의 경우보다 더욱 밀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태도를 연도별 변화로 알아보면, 남성의 경우는 2015년과 비교해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찬성의 비율이 줄었으나 남성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및 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변화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12-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39.8	52.2	7.4	0.6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38.4	47.0	12.6	2.0	100.0	(1,140)
거주지($\chi^2=1.5$)						
대도시	38.6	47.4	12.5	1.5	100.0	(539)
중소도시	38.4	46.5	12.6	2.5	100.0	(435)
농촌	37.9	47.0	13.0	2.2	100.0	(166)
연령($\chi^2=17.7$)						
20~24세	45.1	43.1	10.6	1.2	100.0	(351)
25~29세	37.1	45.3	14.7	2.9	100.0	(325)
30~34세	37.5	49.3	11.9	1.3	100.0	(194)
35~39세	32.5	50.0	14.4	3.1	100.0	(153)
40~44세	31.2	55.4	11.9	1.5	100.0	(117)
교육수준($\chi^2=19.3^{**}$)						
고졸 이하	39.0	44.1	12.4	4.5	100.0	(312)
대학 재학	43.4	45.3	10.8	0.5	100.0	(295)
대졸 이상	35.3	49.6	13.7	1.3	100.0	(533)
취업 여부($\chi^2=0.9$)						
취업	37.7	47.2	13.0	2.2	100.0	(701)
비취업	39.6	46.7	12.0	1.7	100.0	(439)
결혼 의향($\chi^2=87.1^{***}$)						
있음	48.5	42.1	9.0	0.4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4.1	53.9	17.7	4.3	100.0	(470)

〈표 12-7〉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여성 전체(2015)	29.4	58.3	11.4	0.9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22.1	48.7	24.9	4.3	100.0	(1,324)
거주지($\chi^2=10.5$)						
대도시	20.5	52.4	22.9	4.2	100.0	(675)
중소도시	22.3	45.2	27.9	4.6	100.0	(498)
농촌	28.4	43.8	24.2	3.7	100.0	(152)
연령($\chi^2=15.5$)						
20~24세	19.4	47.3	28.4	4.9	100.0	(477)
25~29세	22.4	51.5	21.8	4.3	100.0	(399)
30~34세	28.8	43.7	25.0	2.6	100.0	(205)
35~39세	19.2	51.9	25.2	3.7	100.0	(149)
40~44세	24.0	50.3	20.2	5.4	100.0	(95)
교육수준($\chi^2=7.5$)						
고졸 이하	23.6	47.0	25.7	3.7	100.0	(182)
대학 재학	17.1	48.6	28.4	5.9	100.0	(253)
대졸 이상	23.2	49.1	23.8	3.9	100.0	(890)
취업 여부($\chi^2=4.3$)						
취업	23.1	49.4	23.4	4.1	100.0	(897)
비취업	19.9	47.4	28.1	4.6	100.0	(427)
결혼 의향($\chi^2=136.4^{***}$)						
있음	33.7	50.1	14.6	1.5	100.0	(601)
없음/모르겠음	12.4	47.6	33.5	6.6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미혼 남성이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는 19.5%,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는 35.9%, 그리고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33.6%,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11.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13.5%,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2.2%,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39.8%,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14.5%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5.4%로 반대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고, 여성은 반대로 이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54.3%로 찬성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12-8〉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19.5	35.9	33.6	11.0	100.0	(1,140)
거주지($\chi^2=2.1$)						
대도시	18.2	36.6	33.9	11.3	100.0	(539)
중소도시	19.8	35.9	33.3	11.1	100.0	(435)
농촌	22.8	33.3	33.7	10.1	100.0	(166)
연령($\chi^2=26.6^{**}$)						
20~24세	22.0	40.6	30.8	6.6	100.0	(351)
25~29세	17.2	36.0	33.2	13.5	100.0	(325)
30~34세	20.2	35.3	36.2	8.3	100.0	(194)
35~39세	16.1	28.2	38.8	17.0	100.0	(153)
40~44세	21.5	31.9	32.3	14.3	100.0	(117)
교육수준($\chi^2=33.5^{***}$)						
고졸 이하	23.0	37.2	25.2	14.7	100.0	(312)
대학 재학	19.9	42.5	30.7	6.9	100.0	(295)
대졸 이상	17.2	31.4	40.2	11.2	100.0	(533)
취업 여부($\chi^2=10.4^*$)						
취업	21.0	32.8	33.8	12.5	100.0	(701)
비취업	17.1	40.8	33.3	8.7	100.0	(439)
결혼 의향($\chi^2=75.4^{***}$)						
있음	26.2	37.5	29.5	6.7	100.0	(670)
없음/모르겠음	9.9	33.5	39.4	17.2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13.5	32.2	39.8	14.5	100.0	(1,324)
거주지($\chi^2=17.4^{**}$)						
대도시	12.3	32.5	40.7	14.5	100.0	(675)
중소도시	12.3	31.0	42.2	14.5	100.0	(498)
농촌	22.2	35.3	27.7	14.7	100.0	(152)
연령($\chi^2=20.5$)						
20~24세	12.5	35.4	36.9	15.2	100.0	(477)
25~29세	17.3	32.3	39.0	11.5	100.0	(399)
30~34세	11.5	32.7	41.7	14.1	100.0	(205)
35~39세	11.6	26.0	43.2	19.3	100.0	(149)
40~44세	9.5	25.0	48.0	17.5	100.0	(95)
교육수준($\chi^2=4.7$)						
고졸 이하	14.5	29.7	41.9	13.9	100.0	(182)
대학 재학	9.8	32.6	43.0	14.7	100.0	(253)
대졸 이상	14.3	32.7	38.4	14.6	100.0	(890)
취업 여부($\chi^2=1.7$)						
취업	14.2	31.7	40.0	14.1	100.0	(897)
비취업	11.8	33.5	39.4	15.3	100.0	(427)
결혼 의향($\chi^2=109.8^{***}$)						
있음	21.2	38.9	31.0	8.8	100.0	(601)
없음/모르겠음	7.0	26.7	47.1	19.2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성은 거주지 특성을 제외한 다른 특성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24세 미혼 남성 집단의 경우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6.6%이지만, 35~39세 미혼 남성은 17.0%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은 이 견해에 대해 26.2%가 '전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은 9.9%만이 '전적으로 찬성'해 결혼 의향 유무에 따라서도 자녀가 부모 노후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여성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사이에서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도시 거주 미혼 여성의 경우 12.3%인 데 반해 농촌 거주 미혼 여성의 경우는 22.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미혼 여성은 약 40%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농촌 거주 여성은 27.7%로 차이를 보였다. 농촌에는 과거 자녀를 생각하던 가치관이 도시와 비교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의 경우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비율이 1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경우는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21.2%로 높게 나타나는 등 결혼 의향 유무에 따른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자녀와 관련된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미혼 남녀에게 알아본 세 가지 견해 중에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가장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 주거나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부

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지만, 자녀가 노후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에 있어서 여성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여성이 찬성하지 않은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더 빨리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표 12-9〉 자녀 관련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미혼 남성	45.2	45.8	7.8	1.1	100.0	(1,140)
	미혼 여성	33.5	48.0	16.3	2.2	100.0	(1,324)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	미혼 남성	38.4	47.0	12.6	2.0	100.0	(1,140)
	미혼 여성	22.1	48.7	24.9	4.3	100.0	(1,324)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	미혼 남성	19.5	35.9	33.6	11.0	100.0	(1,140)
	미혼 여성	13.5	32.2	39.8	14.5	100.0	(1,32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가족에 대한 태도

1. 가족 내 부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

가족 내 부부의 역할에 대해 미혼 남녀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먼저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은 3.7%가 전적으로 찬성, 19.8%가 대체로 찬성, 55.8%가 별로 찬성하지 않음, 20.7%가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미혼 여성은 2.6%가 전적으로 찬성, 13.6%가 대체로 찬성, 46.7%는 별로 찬성하지 않음, 37.1%는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하였다. 이 견해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모든 특성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에게 비해 찬성하는 태도의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5~39세가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29세는 반대로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미혼 남성의 경우가 그 외의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의 경우가 이 견해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들은 거주지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연령에 따라서는 20~24세 집단의 미혼 여성이 이 견해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35~39세 미혼 여성 집단이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생 미혼 여성의 경우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51.3%로 고졸 이하의 여성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인 24.2%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견해에 대한 미혼 남성의 태도는 2015년과 비교해 2018년에 약간만 변화하고 매우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태도는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은 2015년 81.9%(별로 찬성하지 않음 54.0% + 전혀 찬성하지 않음 27.9%)에서 2018년 83.8%(별로 찬성하지 않음 46.7% + 전혀 찬성하지 않음 37.1%)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반대 의견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2015년 27.9%에서 2018년 37.1%로 변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2-10〉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2.8	21.4	57.9	17.9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3.7	19.8	55.8	20.7	100.0	(1,140)
거주지($\chi^2=17.4^{**}$)						
대도시	2.7	18.7	58.3	20.3	100.0	(539)
중소도시	3.2	19.6	54.0	23.1	100.0	(435)
농촌	8.3	23.6	52.3	15.8	100.0	(166)
연령($\chi^2=23.0^{*}$)						
20~24세	3.6	14.8	61.8	19.8	100.0	(351)
25~29세	2.8	20.0	51.5	25.7	100.0	(325)
30~34세	3.8	25.6	52.0	18.5	100.0	(194)
35~39세	6.0	20.1	58.8	15.2	100.0	(153)
40~44세	3.2	24.1	52.4	20.3	100.0	(117)
교육수준($\chi^2=26.8^{***}$)						
고졸 이하	3.6	28.5	48.9	19.0	100.0	(312)
대학 재학	2.2	14.2	62.2	21.5	100.0	(295)
대졸 이상	4.6	17.8	56.3	21.3	100.0	(533)
취업 여부($\chi^2=19.7^{***}$)						
취업	4.7	23.2	52.2	19.9	100.0	(701)
비취업	2.2	14.2	61.6	21.9	100.0	(439)
결혼 의향($\chi^2=24.8^{***}$)						
있음	4.4	23.6	55.0	17.0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8	14.4	56.9	26.0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1.9	16.3	54.0	27.9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2.6	13.6	46.7	37.1	100.0	(1,324)
거주지($\chi^2=8.4$)						
대도시	2.7	13.6	49.0	34.6	100.0	(675)
중소도시	2.2	12.4	44.4	41.1	100.0	(498)
농촌	3.7	17.3	43.7	35.3	100.0	(152)
연령($\chi^2=45.0^{***}$)						
20~24세	1.3	10.2	42.4	46.1	100.0	(477)
25~29세	4.1	14.9	48.3	32.8	100.0	(399)
30~34세	1.5	15.4	46.0	37.0	100.0	(205)
35~39세	5.2	17.1	55.1	22.7	100.0	(149)
40~44세	1.4	15.8	49.4	33.4	100.0	(95)
교육수준($\chi^2=62.1^{***}$)						
고졸 이하	6.2	24.6	45.0	24.2	100.0	(182)
대학 재학	1.0	7.3	40.4	51.3	100.0	(253)
대졸 이상	2.4	13.1	48.8	35.7	100.0	(890)
취업 여부($\chi^2=12.6^{**}$)						
취업	2.7	15.1	48.0	34.2	100.0	(897)
비취업	2.6	10.4	43.8	43.3	100.0	(427)

〈표 12-10〉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결혼 의향($\chi^2=50.4^{***}$)						
있음	3.8	17.0	51.9	27.3	100.0	(601)
없음/모르겠음	1.6	10.8	42.3	45.3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두 번째 가족 내 부부에 대한 역할에 대한 태도는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미혼 남성의 경우 별로 찬성하지 않은 55.5%와 전혀 찬성하지 않은 29.4%를 더하면 84.9%가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에게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이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적극 반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 연령에 따른 차이나 교육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국 찬성과 반대의 정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25~29세 미혼 남성의 경우 별로 찬성하지 않은 50.1%와 전혀 찬성하지 않은 35.2%를 더하면 85.3%가 반대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이 비율 분포를 35~39세 미혼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 연령 집단에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67.6%와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 18.5%로 25~29세 연령 집단의 분포와 반대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5~39세 미혼 남성의 반대 입장 비율은 86.1%로 25~29세 연령 집단의 85.3%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남성보다 반대의 입장에 해당하는 비율이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미혼 여성의 비율은 42.3%이고,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8.2%로 90.5%가 이 견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미혼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11.3%로 대학 재학이나 대졸 이상의 학력 여성보다 찬성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이 견해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55.6%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의 결혼 의향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1〉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2.4	17.6	55.3	24.7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2.0	13.1	55.5	29.4	100.0	(1,140)
거주지($\chi^2=13.0^*$)						
대도시	1.0	14.2	56.1	28.7	100.0	(539)
중소도시	2.0	12.1	54.1	31.8	100.0	(435)
농촌	4.9	12.3	57.1	25.6	100.0	(166)
연령($\chi^2=21.4^*$)						
20~24세	2.7	12.3	54.6	30.4	100.0	(351)
25~29세	2.3	12.4	50.1	35.2	100.0	(325)
30~34세	1.2	15.3	56.2	27.3	100.0	(194)
35~39세	0.8	13.1	67.6	18.5	100.0	(153)
40~44세	1.5	13.7	56.3	28.5	100.0	(117)
교육수준($\chi^2=17.5^{**}$)						
고졸 이하	1.3	18.6	57.3	22.8	100.0	(312)
대학 재학	2.4	10.7	55.7	31.3	100.0	(295)
대졸 이상	2.1	11.3	54.3	32.3	100.0	(533)
취업 여부($\chi^2=2.9$)						
취업	2.4	12.6	56.6	28.4	100.0	(701)
비취업	1.3	13.9	53.7	31.1	100.0	(439)
결혼 의향($\chi^2=6.3$)						
있음	1.8	14.2	57.2	26.8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2	11.6	53.0	33.2	100.0	(470)

〈표 12-11〉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여성 전체(2015)	2.0	11.7	51.5	34.8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1.4	8.0	42.3	48.2	100.0	(1,324)
거주지($\chi^2=3.0$)						
대도시	1.6	8.3	42.9	47.1	100.0	(675)
중소도시	0.9	7.9	41.1	50.2	100.0	(498)
농촌	2.0	7.5	43.9	46.6	100.0	(152)
연령($\chi^2=75.7^{***}$)						
20~24세	0.2	5.7	37.2	57.0	100.0	(477)
25~29세	3.7	9.8	38.1	48.4	100.0	(399)
30~34세	-	10.6	43.1	46.3	100.0	(205)
35~39세	2.0	8.1	62.5	27.4	100.0	(149)
40~44세	-	6.9	53.0	40.1	100.0	(95)
교육수준($\chi^2=31.3^{***}$)						
고졸 이하	1.2	11.3	53.5	33.9	100.0	(182)
대학 재학	0.3	4.5	36.2	59.0	100.0	(253)
대졸 이상	1.8	8.4	41.8	48.1	100.0	(890)
취업 여부($\chi^2=4.9$)						
취업	1.5	8.6	43.7	46.2	100.0	(897)
비취업	1.1	6.9	39.6	52.5	100.0	(427)
결혼 의향($\chi^2=44.5^{***}$)						
있음	2.7	9.8	48.1	39.3	100.0	(601)
없음/모르겠음	0.3	6.6	37.5	55.6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2015년과 비교해 반대하는 입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적극 반대하는 태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여전히 약간 높기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이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더욱 흐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 5.0%,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 39.4%,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 38.9%,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 16.7%로 나타났

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3.9%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27.9%가 대체로 찬성, 그리고 38.7%가 별로 찬성하지 않음, 29.5%가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하여 남성과 비교해 여성이 더욱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 25~29세 미혼 남성은 22.2%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35~39세 집단은 9.2%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로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의 경우 이 견해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20.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집단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한 미혼 여성의 태도는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38.7%,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29.5%로 남성과 비교해 적극 반대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미혼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경우가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향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에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35.5%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도 2015년보다 2018년에 찬성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 더욱 증가하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미혼 남녀의 가치관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2-12〉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11.0	48.4	35.2	5.3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5.0	39.4	38.9	16.7	100.0	(1,140)
거주지($\chi^2=9.1$)						
대도시	3.7	42.0	38.3	16.1	100.0	(539)
중소도시	5.5	36.7	39.1	18.8	100.0	(435)
농촌	8.0	38.3	40.5	13.1	100.0	(166)
연령($\chi^2=42.9^{***}$)						
20~24세	5.3	30.8	45.6	18.4	100.0	(351)
25~29세	4.0	36.5	37.2	22.2	100.0	(325)
30~34세	4.0	45.0	39.4	11.5	100.0	(194)
35~39세	7.0	49.2	34.6	9.2	100.0	(153)
40~44세	6.0	51.3	28.4	14.3	100.0	(117)
교육수준($\chi^2=11.2$)						
고졸 이하	4.6	45.9	35.7	13.8	100.0	(312)
대학 재학	4.5	33.8	42.0	19.7	100.0	(295)
대졸 이상	5.6	38.7	39.1	16.7	100.0	(533)
취업 여부($\chi^2=8.2^*$)						
취업	5.9	41.6	36.3	16.2	100.0	(701)
비취업	3.7	35.9	43.0	17.5	100.0	(439)
결혼 의향($\chi^2=11.5^{**}$)						
있음	4.1	41.8	40.0	14.1	100.0	(670)
없음/모르겠음	6.3	36.0	37.4	20.3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6.7	40.0	42.7	10.7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3.9	27.9	38.7	29.5	100.0	(1,324)
거주지($\chi^2=2.9$)						
대도시	4.2	28.8	38.7	28.2	100.0	(675)
중소도시	3.2	27.1	38.1	31.6	100.0	(498)
농촌	4.8	26.5	40.6	28.1	100.0	(152)
연령($\chi^2=52.9^{***}$)						
20~24세	2.2	23.0	36.9	37.9	100.0	(477)
25~29세	5.8	28.9	36.4	28.9	100.0	(399)
30~34세	3.8	35.3	35.3	25.7	100.0	(205)
35~39세	5.8	27.4	48.3	18.4	100.0	(149)
40~44세	1.4	33.4	49.8	15.5	100.0	(95)
교육수준($\chi^2=33.1^{***}$)						
고졸 이하	5.4	33.2	43.5	17.9	100.0	(182)
대학 재학	2.4	22.1	33.2	42.2	100.0	(253)
대졸 이상	4.0	28.5	39.3	28.2	100.0	(890)
취업 여부($\chi^2=10.9^*$)						
취업	4.7	28.8	39.5	27.0	100.0	(897)
비취업	2.3	26.1	37.0	34.7	100.0	(427)

〈표 12-12〉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결혼 의향($\chi^2=37.6^{***}$)						
있음	5.4	33.3	39.0	22.3	100.0	(601)
없음/모르겠음	2.6	23.5	38.4	35.5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 내 부부의 역할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아 본 내용은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태도이다. 미혼 남성은 22.3%가 전적으로 찬성, 46.8%가 대체로 찬성, 22.4%가 별로 찬성하지 않음, 8.4%는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4.3%,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46.1%,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16.5%,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은 13.1%로 남성과 여성이 이 견해에 대해 반대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혼 남성은 이 견해에 대해 연령이 많을수록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 보면, 적극 반대의 비율은 비슷했으나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취업한 경우에는 19.5%,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27.1%로 차이를 보였다.

미혼 여성 역시 연령이 많을수록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40~44세 집단에서는 다시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35~39세 집단에서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결혼 의향에 따른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경우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9.8%로 상대적으로 높고, 결혼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은 이 견

해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17.9%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선 견해들에서 젊은 미혼 남녀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약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어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견해가 더욱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기 보다는 영아기의 애착관계 형성 등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결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13〉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22.3	46.8	22.4	8.4	100.0	(1,140)
거주지($\chi^2=5.5$)						
대도시	21.2	47.5	24.3	7.0	100.0	(539)
중소도시	23.4	45.4	20.9	10.3	100.0	(435)
농촌	23.0	48.2	20.5	8.2	100.0	(166)
연령($\chi^2=51.6^{***}$)						
20~24세	18.7	40.0	30.5	10.8	100.0	(351)
25~29세	21.0	45.4	22.7	10.9	100.0	(325)
30~34세	21.8	53.5	21.4	3.4	100.0	(194)
35~39세	28.1	55.4	9.2	7.4	100.0	(153)
40~44세	29.9	48.8	16.8	4.5	100.0	(117)
교육수준($\chi^2=19.8^{**}$)						
고졸 이하	25.5	50.9	16.6	7.0	100.0	(312)
대학 재학	17.3	43.4	29.9	9.5	100.0	(295)
대졸 이상	23.3	46.3	21.8	8.7	100.0	(533)
취업 여부($\chi^2=9.3^*$)						
취업	22.7	49.1	19.5	8.7	100.0	(701)
비취업	21.7	43.2	27.1	8.0	100.0	(439)
결혼 의향($\chi^2=1.1$)						
있음	21.7	47.6	22.8	8.0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3.2	45.7	22.0	9.1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24.3	46.1	16.5	13.1	100.0	(1,324)
거주지($\chi^2=3.9$)						
대도시	23.1	47.9	16.3	12.7	100.0	(675)
중소도시	25.0	43.8	16.6	14.6	100.0	(498)
농촌	27.0	45.8	16.8	10.3	100.0	(152)

〈표 12-13〉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chi^2=62.2^{***}$)						
20~24세	18.7	42.6	20.4	18.3	100.0	(477)
25~29세	25.5	43.7	17.0	13.7	100.0	(399)
30~34세	29.8	53.8	7.3	9.1	100.0	(205)
35~39세	29.7	52.2	17.3	0.9	100.0	(149)
40~44세	26.9	48.0	12.8	12.3	100.0	(95)
교육수준($\chi^2=24.1^{***}$)						
고졸 이하	24.4	51.5	16.2	7.9	100.0	(182)
대학 재학	17.8	41.9	20.7	19.7	100.0	(253)
대졸 이상	26.1	46.2	15.3	12.3	100.0	(890)
취업 여부($\chi^2=15.3^{**}$)						
취업	25.8	47.9	14.9	11.4	100.0	(897)
비취업	21.1	42.4	19.9	16.7	100.0	(427)
결혼 의향($\chi^2=50.2^{***}$)						
있음	29.8	49.3	13.5	7.3	100.0	(601)
없음/모르겠음	19.7	43.5	18.9	17.9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금까지 살펴 본 가족 내 부부의 역할과 관련된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를 정리해 보면,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거나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와 같이 아내와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는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도 약간 남아 있고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보다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아직 보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졌다기 보다는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 둘만 생각했을 때의 성역할과 달리,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거나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등과 같은 자녀에게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 부부 역할과 관련된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는 성평등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남성보다는 역시 여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12-14〉 가족 내 부부의 역할 관련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혼 남성	3.7	19.8	55.8	20.7	100.0	(1,140)
	미혼 여성	2.6	13.6	46.7	37.1	100.0	(1,324)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미혼 남성	2.0	13.1	55.5	29.4	100.0	(1,140)
	미혼 여성	1.4	8.0	42.3	48.2	100.0	(1,324)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미혼 남성	19.5	35.9	33.6	11.0	100.0	(1,140)
	미혼 여성	6.7	40.0	42.7	10.7	100.0	(1,287)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미혼 남성	22.3	46.8	22.4	8.4	100.0	(1,140)
	미혼 여성	24.3	46.1	16.5	13.1	100.0	(1,32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족 관련 견해에 대한 태도

미혼 남녀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과 관련된 견해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은 57.7%가 대체로 찬성, 19.5%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17.2%가 전적으로 찬성하며, 53.3%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 남성 중 20~24세 집단은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6.7%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23.1%로 나타나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의 13.3%보다 높고,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결혼 의향이 있는 집단이 16.0%인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은 24.4%로 나타나 이 견해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남성보다는 반대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도 연령에 따라서 이 견해에 대해 차이를 보였는데, 20~24세 집단에서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20.4%이지만, 최근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인 30~34세 집단은 10.4%만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적극 찬성 비율은 35~39세에 다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4세 젊은 미혼 여성은 전적으로 찬성 20.4%, 대체로 찬성 59.6%로 80.0%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찬성하고 있어 동거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태도는 2015년과 비교해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미혼 여성의 찬성 태도에 대한 비율이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여성의 가치관 변화를 볼 수 있다.

〈표 12-15〉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11.5	56.6	25.9	6.0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9.5	57.7	19.0	3.7	100.0	(1,140)
거주지($\chi^2=2.8$)						
대도시	21.1	56.5	18.9	3.5	100.0	(539)
중소도시	18.2	58.5	19.7	3.6	100.0	(435)
농촌	17.5	59.9	17.6	5.0	100.0	(166)
연령($\chi^2=35.3^{***}$)						
20~24세	26.7	54.9	15.1	3.3	100.0	(351)
25~29세	16.5	59.3	18.8	5.4	100.0	(325)
30~34세	18.4	50.9	25.9	4.8	100.0	(194)
35~39세	15.9	64.8	17.8	1.5	100.0	(153)
40~44세	12.3	64.0	22.1	1.7	100.0	(117)

〈표 12-15〉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6.6$)						
고졸 이하	17.9	57.2	22.1	2.7	100.0	(312)
대학 재학	22.2	58.2	15.3	4.3	100.0	(295)
대졸 이상	18.9	57.8	19.3	4.0	100.0	(533)
취업 여부($\chi^2=2.3$)						
취업	18.9	56.8	20.5	3.8	100.0	(701)
비취업	20.4	59.3	16.8	3.6	100.0	(439)
결혼 의향($\chi^2=25.6^{***}$)						
있음	16.0	56.8	23.1	4.1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4.4	59.1	13.3	3.2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6.9	44.3	37.4	11.4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17.2	53.3	22.8	6.7	100.0	(1,324)
거주지($\chi^2=9.9$)						
대도시	17.0	54.4	23.7	4.9	100.0	(675)
중소도시	17.1	53.7	20.6	8.5	100.0	(498)
농촌	18.5	47.4	25.6	8.5	100.0	(152)
연령($\chi^2=40.8^{***}$)						
20~24세	20.4	59.6	15.6	4.4	100.0	(477)
25~29세	16.1	49.0	26.5	8.4	100.0	(399)
30~34세	10.4	52.3	28.3	9.0	100.0	(205)
35~39세	20.5	46.3	26.4	6.8	100.0	(149)
40~44세	15.7	53.4	25.1	5.8	100.0	(95)
교육수준($\chi^2=33.1^{***}$)						
고졸 이하	23.1	53.2	19.9	3.9	100.0	(182)
대학 재학	18.6	63.6	14.1	3.6	100.0	(253)
대졸 이상	15.6	50.4	25.8	8.1	100.0	(890)
취업 여부($\chi^2=11.8^{**}$)						
취업	16.9	50.9	25.4	6.9	100.0	(897)
비취업	17.9	58.5	17.3	6.3	100.0	(427)
결혼 의향($\chi^2=15.8^{**}$)						
있음	14.4	51.1	26.6	7.9	100.0	(601)
없음/모르겠음	19.6	55.2	19.6	5.7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금까지 결혼은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보다는 찬성의 비율이 낮지만 미혼 남성의 경우 56.5%가 찬성의 입장에 응답해 과반수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도 찬성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혼 여성은 반대하는 입장이 52.3%로 찬성과 반대로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남성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은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37.6%,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10.3%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의 경우는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16.5%이고,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46.3%로 결혼 의향이 있는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미혼 여성은 거주지 특성을 제외하고 모든 특성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을 보면, 30~34세 집단은 7.7%인데, 35~39세 집단은 15.8%로 30대 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 구간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20~24세 미혼 여성 집단에서는 미혼 여성 전체의 결과와 반대로 이 견해에 찬성하는 입장이 55.7%로 반대보다 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동거에 대한 개방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결혼 의향 유무에 따른 동거에 대한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견해는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찬성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12-16〉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6.2	43.9	38.4	11.5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1.8	44.7	34.7	8.7	100.0	(1,140)
거주지($\chi^2=2.7$)						
대도시	12.3	45.5	34.2	8.0	100.0	(539)
중소도시	11.9	43.7	35.8	8.6	100.0	(435)
농촌	10.2	44.6	33.7	11.5	100.0	(166)
연령($\chi^2=17.3$)						
20~24세	15.5	46.1	30.5	7.9	100.0	(351)
25~29세	10.0	43.5	38.8	7.7	100.0	(325)
30~34세	13.2	40.6	35.0	11.2	100.0	(194)
35~39세	7.7	50.3	34.6	7.4	100.0	(153)
40~44세	9.3	43.0	35.9	11.8	100.0	(117)
교육수준($\chi^2=3.3$)						
고졸 이하	11.2	46.4	34.0	8.5	100.0	(312)
대학 재학	14.1	45.0	32.5	8.4	100.0	(295)
대졸 이상	11.0	43.5	36.4	9.0	100.0	(533)
취업 여부($\chi^2=3.5$)						
취업	12.9	43.4	35.4	8.2	100.0	(701)
비취업	10.1	46.7	33.7	9.6	100.0	(439)
결혼 의향($\chi^2=24.5^{***}$)						
있음	8.6	43.6	37.6	10.3	100.0	(670)
없음/모르겠음	16.5	46.3	30.7	6.5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3.4	26.4	49.5	20.6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12.7	34.9	36.6	15.7	100.0	(1,324)
거주지($\chi^2=6.4$)						
대도시	12.7	33.4	39.1	14.7	100.0	(675)
중소도시	12.1	37.2	34.6	16.1	100.0	(498)
농촌	15.1	33.8	31.9	19.2	100.0	(152)
연령($\chi^2=41.5^{***}$)						
20~24세	14.7	41.0	33.3	11.1	100.0	(477)
25~29세	12.7	30.2	36.1	20.9	100.0	(399)
30~34세	7.7	27.1	46.2	18.9	100.0	(205)
35~39세	15.8	33.7	37.9	12.6	100.0	(149)
40~44세	9.1	42.5	32.9	15.5	100.0	(95)
교육수준($\chi^2=24.5^{***}$)						
고졸 이하	14.0	36.9	36.7	12.3	100.0	(182)
대학 재학	16.2	43.5	30.0	10.3	100.0	(253)
대졸 이상	11.5	32.0	38.5	18.0	100.0	(890)
취업 여부($\chi^2=10.6^*$)						
취업	11.7	32.9	38.2	17.1	100.0	(897)
비취업	15.0	39.0	33.2	12.8	100.0	(427)

〈표 12-16〉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결혼 의향($\chi^2=49.3^{***}$)						
있음	8.1	29.5	44.4	17.9	100.0	(601)
없음/모르겠음	16.6	39.4	30.1	13.9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17.3%,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8.9%인 데 반해 미혼 여성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9.2%,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은 비슷했지만 그 안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은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12.2%,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38.1%로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4.7%,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56.5%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거주지 특성을 제외하고 모든 특성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20~24세의 미혼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36.4%인 데 반해 40~44세 집단은 13.4%로 나타나 적극 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대체로 찬성의 비율이 연령 상승과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비율 전체는 비슷하게 유지된다.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을 보면, 결혼 의향이 있는 집단은 18.2%,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은 38.4%로 나타나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찬성의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이 결혼 후 출산이 과정처럼 이어지는 경향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2-17〉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5.6	41.8	40.3	12.2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7.3	45.7	28.1	8.9	100.0	(1,140)
거주지($\chi^2=3.5$)						
대도시	16.4	47.1	27.5	9.1	100.0	(539)
중소도시	19.6	43.5	28.6	8.3	100.0	(435)
농촌	14.6	47.1	28.4	9.8	100.0	(166)
연령($\chi^2=11.8$)						
20~24세	19.9	47.8	24.3	8.0	100.0	(351)
25~29세	17.2	46.3	27.5	9.0	100.0	(325)
30~34세	15.6	43.2	29.5	11.8	100.0	(194)
35~39세	17.1	40.7	34.3	7.9	100.0	(153)
40~44세	13.1	48.3	30.5	8.0	100.0	(117)
교육수준($\chi^2=13.4$)						
고졸 이하	13.3	46.3	30.3	10.1	100.0	(312)
대학 재학	20.5	49.5	21.3	8.6	100.0	(295)
대졸 이상	17.9	43.3	30.5	8.3	100.0	(533)
취업 여부($\chi^2=7.7$)						
취업	17.3	43.1	30.8	8.7	100.0	(701)
비취업	17.4	49.8	23.7	9.1	100.0	(439)
결혼 의향($\chi^2=115.7^{***}$)						
있음	12.2	38.1	37.5	12.2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4.7	56.5	14.6	4.2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11.1	49.8	30.7	8.4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29.2	49.2	17.5	4.1	100.0	(1,324)
거주지($\chi^2=9.3$)						
대도시	30.0	50.6	16.3	3.0	100.0	(675)
중소도시	29.7	46.5	19.0	4.8	100.0	(498)
농촌	23.9	51.8	17.5	6.8	100.0	(152)
연령($\chi^2=41.3^{***}$)						
20~24세	36.4	46.4	14.2	3.0	100.0	(477)
25~29세	30.3	45.8	18.4	5.5	100.0	(399)
30~34세	20.4	53.0	21.3	5.2	100.0	(205)
35~39세	25.4	52.3	18.1	4.2	100.0	(149)
40~44세	13.4	64.5	20.8	1.4	100.0	(95)

〈표 12-17〉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24.5^{***}$)						
고졸 이하	26.9	47.7	19.9	5.5	100.0	(182)
대학 재학	40.4	46.1	12.1	1.4	100.0	(253)
대졸 이상	26.5	50.4	18.5	4.6	100.0	(890)
취업 여부($\chi^2=14.5^{**}$)						
취업	27.2	48.5	19.6	4.8	100.0	(897)
비취업	33.5	50.8	13.1	2.6	100.0	(427)
결혼 의향($\chi^2=94.0^{***}$)						
있음	18.2	50.6	25.5	5.7	100.0	(601)
없음/모르겠음	38.4	48.1	10.8	2.8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거에 대한 견해에서는 미혼 남녀의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다. 미혼 남성의 43.9%가 별로 찬성하지 않았고, 31.1%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도 41.3%가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았으며, 34.9%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은 이 견해에 대해 강한 부정의 태도가 32.9%였고,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남성은 28.6%가 강한 부정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이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 여성 중 25~34세 집단은 이 견해에 대해 강한 부정의 태도를 가진 경우가 4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다른 집단과 비교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44.8%,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39.4%로 부정적인 태도가 매우 강했다.

2015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앞서 동거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매우 강하게 남아있고, 결혼이라는 과정 없이 출산이라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욱 많고 그 태도가 많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18〉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2.8	21.1	48.2	27.9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5.6	19.4	43.9	31.1	100.0	(1,140)
거주지($\chi^2=4.4$)						
대도시	6.1	19.4	41.4	33.1	100.0	(539)
중소도시	5.3	19.7	46.9	28.1	100.0	(435)
농촌	4.7	18.5	43.9	32.9	100.0	(166)
연령($\chi^2=24.9$)						
20~24세	5.7	14.9	44.2	35.2	100.0	(351)
25~29세	4.0	18.0	45.0	33.0	100.0	(325)
30~34세	4.7	21.0	45.0	29.3	100.0	(194)
35~39세	9.0	25.5	37.4	28.0	100.0	(153)
40~44세	6.9	26.1	46.0	20.9	100.0	(117)
교육수준($\chi^2=10.8$)						
고졸 이하	5.1	23.4	45.9	25.6	100.0	(312)
대학 재학	5.5	16.0	42.2	36.3	100.0	(295)
대졸 이상	5.9	19.0	43.6	31.5	100.0	(533)
취업 여부($\chi^2=5.1$)						
취업	6.7	20.0	43.3	29.9	100.0	(701)
비취업	3.8	18.4	44.8	33.0	100.0	(439)
결혼 의향($\chi^2=14.1^{**}$)						
있음	4.1	17.0	45.9	32.9	100.0	(670)
없음/모르겠음	7.7	22.8	40.9	28.6	100.0	(470)

〈표 12-18〉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여성 전체(2015)	3.0	13.9	48.9	34.2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5.0	18.8	41.3	34.9	100.0	(1,324)
거주지($\chi^2=8.4$)						
대도시	5.1	17.6	44.2	33.2	100.0	(675)
중소도시	4.3	20.9	37.4	37.3	100.0	(498)
농촌	7.0	17.3	40.9	34.8	100.0	(152)
연령($\chi^2=54.3^{***}$)						
20~24세	7.3	17.8	43.0	32.0	100.0	(477)
25~29세	2.4	15.5	40.4	41.7	100.0	(399)
30~34세	4.2	15.0	40.4	40.3	100.0	(205)
35~39세	7.4	24.0	43.1	25.5	100.0	(149)
40~44세	2.7	37.4	35.4	24.5	100.0	(95)
교육수준($\chi^2=18.6^{**}$)						
고졸 이하	4.5	19.4	40.5	35.6	100.0	(182)
대학 재학	9.6	21.0	41.9	27.6	100.0	(253)
대졸 이상	3.8	18.1	41.2	36.9	100.0	(890)
취업 여부($\chi^2=8.7^*$)						
취업	3.9	18.9	40.7	36.5	100.0	(897)
비취업	7.3	18.7	42.4	31.6	100.0	(427)
결혼 의향($\chi^2=38.8^{***}$)						
있음	3.4	12.4	44.8	39.4	100.0	(601)
없음/모르겠음	6.4	24.1	38.3	31.2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알아본 것은 이혼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이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라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은 16.8%가 전적으로 찬성, 47.7%가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을 보였다. 미혼 여성은 30.3%가 전적으로 찬성, 50.6%가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로 나타나 이 견해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은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4.8%로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의 11.2%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도 결혼 의향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집단은 20.8%,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 집단에서는 38.1%로 나타났다. 또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집단은 21.1% 비율을 보인 반면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 집단은 9.1%의 비율을 보여 결혼 의향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한 2015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혼 남성의 경우 큰 변화보다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높아진 정도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 비율이 2015년 20.3%에서 2018년 30.3%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생각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태도가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9〉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12.9	47.5	30.4	9.2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6.8	47.7	26.2	9.4	100.0	(1,140)
거주지($\chi^2=5.2$)						
대도시	18.0	46.9	27.5	7.7	100.0	(539)
중소도시	16.1	47.7	25.6	10.6	100.0	(435)
농촌	15.0	50.1	23.4	11.6	100.0	(166)
연령($\chi^2=17.0$)						
20~24세	15.7	42.6	31.9	9.7	100.0	(351)
25~29세	17.9	50.3	21.2	10.6	100.0	(325)
30~34세	15.1	51.6	24.6	8.8	100.0	(194)
35~39세	17.2	45.6	30.2	7.0	100.0	(153)
40~44세	19.6	51.6	19.9	8.8	100.0	(117)
교육수준($\chi^2=9.2$)						
고졸 이하	15.3	44.3	29.2	11.2	100.0	(312)
대학 재학	16.5	45.3	29.3	8.9	100.0	(295)
대졸 이상	17.9	50.9	22.7	8.5	100.0	(533)
취업 여부($\chi^2=0.3$)						
취업	17.0	47.3	26.0	9.6	100.0	(701)
비취업	16.5	48.2	26.3	8.9	100.0	(439)
결혼 의향($\chi^2=52.0^{***}$)						
있음	11.2	46.6	30.3	11.8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4.8	49.2	20.2	5.8	100.0	(470)

〈표 12-19〉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여성 전체(2015)	20.3	54.0	20.7	5.1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30.3	50.6	14.5	4.6	100.0	(1,324)
거주지($\chi^2=3.6$)						
대도시	30.7	50.7	14.6	4.0	100.0	(675)
중소도시	31.0	50.3	13.8	4.9	100.0	(498)
농촌	25.8	50.8	16.8	6.6	100.0	(152)
연령($\chi^2=30.6^{**}$)						
20~24세	30.7	49.8	16.1	3.4	100.0	(477)
25~29세	24.1	52.2	16.1	7.6	100.0	(399)
30~34세	34.2	51.8	8.8	5.2	100.0	(205)
35~39세	34.8	50.5	13.2	1.5	100.0	(149)
40~44세	38.7	45.0	14.2	2.1	100.0	(95)
교육수준($\chi^2=1.8$)						
고졸 이하	28.4	49.9	16.1	5.5	100.0	(182)
대학 재학	30.6	50.7	15.3	3.4	100.0	(253)
대졸 이상	30.6	50.7	13.9	4.8	100.0	(890)
취업 여부($\chi^2=3.2$)						
취업	31.3	50.4	13.5	4.8	100.0	(897)
비취업	28.2	50.9	16.6	4.3	100.0	(427)
결혼 의향($\chi^2=77.0^{***}$)						
있음	20.8	51.2	21.1	6.9	100.0	(601)
없음/모르겠음	38.1	50.1	9.1	2.8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혼 남녀는 부부간에 갈등이 크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태도를 더 많이 보였는데,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은 13.0%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5.2%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태도가 반대의 태도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4%,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0%로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 집단은 이 견해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

율이 14.9%,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9.9%였다. 하지만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 집단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나타나 결혼 의향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미혼 여성도 미혼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의향에 따라 이 견해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경우는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18.7%였으나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32.7%로 나타나 결혼 의향 유무에 따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혼에 대한 생각에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12-20〉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8.4	42.3	37.1	12.2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3.0	45.2	29.9	12.0	100.0	(1,140)
거주지($\chi^2=8.2$)						
대도시	13.5	47.4	29.3	9.7	100.0	(539)
중소도시	13.0	43.5	30.5	12.9	100.0	(435)
농촌	11.0	42.1	29.9	17.0	100.0	(166)
연령($\chi^2=13.4$)						
20~24세	12.5	40.1	35.9	11.5	100.0	(351)
25~29세	12.6	45.6	28.0	13.7	100.0	(325)
30~34세	15.5	47.2	25.1	12.3	100.0	(194)
35~39세	13.2	47.8	28.9	10.1	100.0	(153)
40~44세	11.0	52.2	26.2	10.7	100.0	(117)
교육수준($\chi^2=6.1$)						
고졸 이하	10.4	43.7	31.7	14.2	100.0	(312)
대학 재학	14.5	44.2	31.2	10.2	100.0	(295)
대졸 이상	13.7	46.5	28.1	11.7	100.0	(533)
취업 여부($\chi^2=0.9$)						
취업	13.6	44.9	29.7	11.7	100.0	(701)
비취업	11.9	45.5	30.2	12.4	100.0	(439)
결혼 의향($\chi^2=27.8^{***}$)						
있음	9.9	43.2	32.1	14.9	100.0	(670)
없음/모르겠음	17.4	48.0	26.8	7.8	100.0	(470)

〈표 12-20〉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여성 전체(2015)	14.6	57.5	24.2	3.7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26.4	51.0	19.1	3.6	100.0	(1,324)
거주지($\chi^2=5.9$)						
대도시	26.9	52.2	17.4	3.5	100.0	(675)
중소도시	26.3	50.2	20.6	2.9	100.0	(498)
농촌	24.4	48.2	21.2	6.2	100.0	(152)
연령($\chi^2=17.0$)						
20~24세	28.8	49.7	18.9	2.6	100.0	(477)
25~29세	22.0	50.1	23.4	4.5	100.0	(399)
30~34세	28.0	49.5	17.9	4.5	100.0	(205)
35~39세	27.2	57.6	12.8	2.4	100.0	(149)
40~44세	27.4	53.7	14.2	4.7	100.0	(95)
교육수준($\chi^2=14.2^*$)						
고졸 이하	22.3	45.3	26.3	6.1	100.0	(182)
대학 재학	29.1	52.9	15.3	2.7	100.0	(253)
대졸 이상	26.4	51.6	18.7	3.3	100.0	(890)
취업 여부($\chi^2=2.0$)						
취업	26.2	52.1	18.3	3.4	100.0	(897)
비취업	26.7	48.5	20.6	4.1	100.0	(427)
결혼 의향($\chi^2=36.3^{***}$)						
있음	18.7	54.3	22.6	4.5	100.0	(601)
없음/모르겠음	32.7	48.2	16.2	2.8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견해 역시 2015년보다는 2018년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적극 찬성 비율이 2015년 14.6%에서 2018년 26.4%로 큰 폭으로 상승해 결혼 및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집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중 하나로 생각된다.

이혼뿐 아니라 재혼에 대한 미혼 남녀의 생각도 알아보았다.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녀 모두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미혼 남성은 15.0%가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61.0%는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20.8%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59.6%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우가 21.1%,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가 62.9%로 84.0%가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 다른 중소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보다 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해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감소했고 이 둘을 더해 찬성하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2015년에 비해 2018년 미미하지만 오히려 찬성 입장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인구의 결혼 자체에 대한 의향이나 결혼 이행이 줄어드는 경향과 방향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21〉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11.7	66.8	18.9	2.7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5.0	61.0	19.6	4.4	100.0	(1,140)
거주지($\chi^2=7.3$)						
대도시	16.5	61.2	19.2	3.0	100.0	(539)
중소도시	14.5	60.2	19.6	5.7	100.0	(435)
농촌	11.2	62.6	20.8	5.3	100.0	(166)
연령($\chi^2=11.1$)						
20~24세	14.2	59.2	21.7	4.9	100.0	(351)
25~29세	14.7	60.9	20.2	4.2	100.0	(325)
30~34세	17.8	61.8	14.3	6.1	100.0	(194)
35~39세	15.1	59.5	21.4	4.0	100.0	(153)
40~44세	13.6	67.6	17.9	.8	100.0	(117)
교육수준($\chi^2=3.9$)						
고졸 이하	13.0	60.3	21.9	4.7	100.0	(312)
대학 재학	14.7	62.6	19.5	3.2	100.0	(295)
대졸 이상	16.3	60.6	18.3	4.8	100.0	(533)
취업 여부($\chi^2=2.7$)						
취업	15.0	60.9	19.0	5.1	100.0	(701)
비취업	15.0	61.3	20.6	3.2	100.0	(439)
결혼 의향($\chi^2=5.9$)						
있음	13.6	62.8	18.5	5.1	100.0	(670)
없음/모르겠음	16.9	58.5	21.2	3.3	100.0	(470)

〈표 12-21〉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여성 전체(2015)	17.6	64.7	16.2	1.6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20.8	59.6	16.0	3.6	100.0	(1,324)
거주지($\chi^2=13.5^*$)						
대도시	21.1	62.9	13.4	2.6	100.0	(675)
중소도시	21.3	55.5	19.0	4.2	100.0	(498)
농촌	18.1	58.3	17.5	6.1	100.0	(152)
연령($\chi^2=12.0$)						
20~24세	19.4	59.6	17.4	3.5	100.0	(477)
25~29세	19.3	61.3	14.5	4.8	100.0	(399)
30~34세	23.9	59.9	13.6	2.7	100.0	(205)
35~39세	25.7	57.6	15.3	1.4	100.0	(149)
40~44세	19.7	54.4	21.4	4.5	100.0	(95)
교육수준($\chi^2=12.8^*$)						
고졸 이하	19.0	52.9	23.6	4.5	100.0	(182)
대학 재학	19.0	60.2	17.7	3.1	100.0	(253)
대졸 이상	21.7	60.7	13.9	3.6	100.0	(890)
취업 여부($\chi^2=4.0$)						
취업	22.0	59.4	14.9	3.7	100.0	(897)
비취업	18.2	60.0	18.4	3.4	100.0	(427)
결혼 의향($\chi^2=7.3$)						
있음	17.8	63.1	15.4	3.7	100.0	(601)
없음/모르겠음	23.4	56.6	16.5	3.6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미혼 남성은 14.5%가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46.7%가 대체로 찬성하는 응답을 보였다. 미혼 여성은 19.8%가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55.5%가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2.9%로 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의 동일한 응답에 대한 16.2%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족

관이나 성역할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향이 결혼 의향이 있는 집단보다 결혼 의향이 없는 집단이 큰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견해는 과거 2015년과 비교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미혼 남성의 비율은 2015년 8.3%에서 2018년 14.5%로 상승하였고, 미혼 여성의 경우는 2015년 12.3%에서 2018년 19.8%로 변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양육이 여성에게 특화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표 12-22〉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8.3	51.7	36.0	4.1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4.5	46.7	31.8	6.9	100.0	(1,140)
거주지($\chi^2=9.4$)						
대도시	16.6	46.3	31.6	5.5	100.0	(539)
중소도시	13.4	48.0	30.2	8.4	100.0	(435)
농촌	10.8	44.8	36.6	7.8	100.0	(166)
연령($\chi^2=24.8^*$)						
20~24세	19.5	39.3	33.2	8.0	100.0	(351)
25~29세	15.5	47.8	29.4	7.2	100.0	(325)
30~34세	8.2	52.5	32.8	6.5	100.0	(194)
35~39세	14.1	46.0	34.1	5.8	100.0	(153)
40~44세	8.1	57.1	29.7	5.0	100.0	(117)
교육수준($\chi^2=10.2$)						
고졸 이하	11.8	45.9	35.3	6.9	100.0	(312)
대학 재학	19.6	44.7	28.5	7.3	100.0	(295)
대졸 이상	13.3	48.3	31.6	6.7	100.0	(533)
취업 여부($\chi^2=1.0$)						
취업	13.9	46.6	32.3	7.3	100.0	(701)
비취업	15.6	47.0	31.1	6.3	100.0	(439)
결혼 의향($\chi^2=3.8$)						
있음	14.0	45.0	34.0	7.1	100.0	(670)
없음/모르겠음	15.3	49.2	28.7	6.7	100.0	(470)

〈표 12-22〉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여성 전체(2015)	12.3	55.7	29.3	2.8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19.8	55.5	21.8	2.8	100.0	(1,324)
거주지($\chi^2=2.7$)						
대도시	20.5	55.1	21.7	2.6	100.0	(675)
중소도시	18.9	56.4	22.2	2.5	100.0	(498)
농촌	19.7	54.5	21.1	4.8	100.0	(152)
연령($\chi^2=14.5$)						
20~24세	22.5	54.8	20.1	2.6	100.0	(477)
25~29세	20.2	53.2	23.0	3.6	100.0	(399)
30~34세	16.1	54.1	27.6	2.2	100.0	(205)
35~39세	14.8	61.7	21.1	2.4	100.0	(149)
40~44세	20.7	62.2	14.6	2.4	100.0	(95)
교육수준($\chi^2=4.6$)						
고졸 이하	17.5	56.8	23.1	2.6	100.0	(182)
대학 재학	23.5	55.8	18.8	2.0	100.0	(253)
대졸 이상	19.3	55.2	22.4	3.1	100.0	(890)
취업 여부($\chi^2=4.8$)						
취업	18.5	56.9	21.5	3.2	100.0	(897)
비취업	22.7	52.7	22.6	2.1	100.0	(427)
결혼 의향($\chi^2=12.2^{**}$)						
있음	16.2	56.3	24.0	3.6	100.0	(601)
없음/모르겠음	22.9	54.9	20.1	2.2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관련된 태도의 마지막은 입양에 대한 견해이다.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녀는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미혼 남성의 16.3%는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44.4%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미혼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18.1%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48.4%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미혼 남성 중 20~24세 집단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2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40~44세 집단은 같은 응답에 대한 비율이 11.5%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남성의 경우에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서 20~24세 집단과 비슷한 집단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혼 여성은 결혼 의향에 따라 이 견해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은 이 견해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29.9%이지만,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21.0%로 차이를 보였다.

2015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남녀 모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하였다. 입양한 아이도 자신이 낳은 아이와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입양가족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12-2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13.1	46.8	30.8	9.2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6.3	44.4	28.5	10.8	100.0	(1,140)
거주지($\chi^2=8.2$)						
대도시	17.3	45.1	27.7	9.9	100.0	(539)
중소도시	17.2	44.5	28.0	10.3	100.0	(435)
농촌	10.8	42.0	32.3	15.0	100.0	(166)
연령($\chi^2=23.9^*$)						
20~24세	22.2	44.7	25.4	7.7	100.0	(351)
25~29세	15.2	47.2	26.4	11.2	100.0	(325)
30~34세	11.4	41.4	33.9	13.3	100.0	(194)
35~39세	14.7	42.4	31.0	11.9	100.0	(153)
40~44세	11.5	43.8	31.8	12.9	100.0	(117)
교육수준($\chi^2=24.3^{***}$)						
고졸 이하	15.4	38.9	32.5	13.1	100.0	(312)
대학 재학	22.5	46.9	24.6	6.0	100.0	(295)
대졸 이상	13.3	46.3	28.4	12.0	100.0	(533)

〈표 12-23〉 계속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취업 여부($\chi^2=15.9^{**}$)						
취업	15.1	41.5	30.5	12.9	100.0	(701)
비취업	18.2	49.2	25.3	7.3	100.0	(439)
결혼 의향($\chi^2=1.0$)						
있음	15.5	44.5	29.4	10.6	100.0	(670)
없음/모르겠음	17.3	44.4	27.3	11.0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14.6	47.9	30.1	7.5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18.1	48.4	25.0	8.4	100.0	(1,324)
거주지($\chi^2=5.3$)						
대도시	17.7	46.9	26.8	8.7	100.0	(675)
중소도시	17.6	51.1	23.8	7.5	100.0	(498)
농촌	21.6	46.8	21.5	10.1	100.0	(152)
연령($\chi^2=26.0^{*}$)						
20~24세	22.2	48.4	23.3	6.1	100.0	(477)
25~29세	16.0	47.3	27.5	9.2	100.0	(399)
30~34세	14.6	54.2	22.0	9.2	100.0	(205)
35~39세	11.6	46.4	31.4	10.5	100.0	(149)
40~44세	23.9	43.8	20.3	12.0	100.0	(95)
교육수준($\chi^2=31.2^{***}$)						
고졸 이하	23.1	39.9	28.5	8.5	100.0	(182)
대학 재학	24.1	53.7	19.0	3.2	100.0	(253)
대졸 이상	15.4	48.7	26.0	9.9	100.0	(890)
취업 여부($\chi^2=20.2^{***}$)						
취업	16.1	46.9	26.8	10.1	100.0	(897)
비취업	22.3	51.7	21.2	4.8	100.0	(427)
결혼 의향($\chi^2=18.3^{***}$)						
있음	16.5	47.3	29.9	6.2	100.0	(601)
없음/모르겠음	19.4	49.4	21.0	10.2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에 대해 미혼 남녀의 태도를 정리해 보면, 전통적인 가족 관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견해들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적극 찬성하는 비율보다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남아 있어 가족과 관련된 견해에 있어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특히, 결혼하지 않

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매우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24〉 가족 관련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미혼 남성	19.5	57.7	19.0	3.7	100.0	(1,140)
	미혼 여성	17.2	53.3	22.8	6.7	100.0	(1,324)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	미혼 남성	11.8	44.7	34.7	8.7	100.0	(1,140)
	미혼 여성	12.7	34.9	36.6	15.7	100.0	(1,324)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미혼 남성	17.3	45.7	28.1	8.9	100.0	(1,140)
	미혼 여성	11.1	49.8	30.7	8.4	100.0	(1,287)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미혼 남성	5.6	19.4	43.9	31.1	100.0	(1,140)
	미혼 여성	3.0	13.9	48.9	34.2	100.0	(1,287)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미혼 남성	16.8	47.7	26.2	9.4	100.0	(1,140)
	미혼 여성	30.3	50.6	14.5	4.6	100.0	(1,324)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미혼 남성	13.0	45.2	29.9	12.0	100.0	(1,140)
	미혼 여성	26.4	51.0	19.1	3.6	100.0	(1,324)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미혼 남성	15.0	61.0	19.6	4.4	100.0	(1,140)
	미혼 여성	20.8	59.6	16.0	3.6	100.0	(1,324)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미혼 남성	14.5	46.7	31.8	6.9	100.0	(1,140)
	미혼 여성	19.8	55.5	21.8	2.8	100.0	(1,324)
임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미혼 남성	16.3	44.4	28.5	10.8	100.0	(1,140)
	미혼 여성	18.1	48.4	25.0	8.4	100.0	(1,32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이상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태도

미혼 남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혼 남성은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고, 이러한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미혼 여성의 비율은 30.5%로 미혼 여성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은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한다’라

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응답은 미혼 남성의 결과에서는 29.3%로 두 번째로 많은 미혼 남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삶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삶이 1, 2위는 같았으나 그 순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일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성은 일은 그만두지 않는 것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다. 앞서 2살 미만의 아이를 엄마가 직접 기르는 것에 대한 견해에서는 남녀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면, 여성은 그 사이에서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남성은 여성이 잠시 일을 멈추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돌아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미혼 여성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은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14.3%)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혼 남성이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잘 모르겠다’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갖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12.8%로 나타나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는 없는 삶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 교육수준, 결혼 의향에 따라서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여성의 이상적인 삶으로 선택한 경우를 보면,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은 50.9%인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남성의 경우는 38.3%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2-25〉 이상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생각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3.9	6.2	29.3	45.7	3.3	11.7	100.0	(1,140)
거주지($\chi^2=8.7$)								
대도시	3.6	5.4	28.4	47.7	2.1	12.8	100.0	(539)
중소도시	4.3	7.3	29.4	43.6	4.2	11.2	100.0	(435)
농촌	3.7	5.7	31.7	44.7	4.6	9.7	100.0	(166)
연령($\chi^2=46.4^{**}$)								
20~24세	3.4	7.2	23.4	49.8	1.8	14.4	100.0	(351)
25~29세	4.5	7.3	30.7	41.2	3.7	12.6	100.0	(325)
30~34세	1.3	5.4	33.7	46.9	4.7	8.0	100.0	(194)
35~39세	4.2	6.0	40.3	39.2	1.7	8.6	100.0	(153)
40~44세	7.6	1.5	21.0	52.1	6.4	11.5	100.0	(117)
교육수준($\chi^2=25.9^{**}$)								
고졸 이하	4.4	6.1	24.7	51.5	3.0	10.3	100.0	(312)
대학 재학	3.5	6.3	26.2	46.9	1.1	16.0	100.0	(295)
대졸 이상	3.8	6.2	33.6	41.6	4.6	10.2	100.0	(533)
취업 여부($\chi^2=9.3$)								
취업	4.2	5.6	30.4	45.9	3.8	10.0	100.0	(701)
비취업	3.3	7.1	27.4	45.3	2.4	14.5	100.0	(439)
결혼 의향($\chi^2=73.3^{***}$)								
있음	1.3	4.2	32.6	50.9	3.0	8.1	100.0	(670)
없음/모르겠음	7.6	9.0	24.5	38.3	3.7	17.0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14.3	12.8	33.1	30.5	3.0	6.3	100.0	(1,324)
거주지($\chi^2=8.9$)								
대도시	14.8	13.4	33.0	29.0	3.7	6.1	100.0	(675)
중소도시	14.4	13.0	33.2	30.4	2.0	6.9	100.0	(498)
농촌	11.6	9.5	33.0	37.4	3.0	5.4	100.0	(152)
연령($\chi^2=48.2^{***}$)								
20~24세	15.0	16.8	31.4	28.0	2.5	6.3	100.0	(477)
25~29세	11.5	14.1	32.2	34.1	2.3	5.8	100.0	(399)
30~34세	11.6	11.4	40.7	27.6	5.1	3.6	100.0	(205)
35~39세	19.1	5.2	30.8	32.3	3.3	9.4	100.0	(149)
40~44세	20.7	2.1	32.5	31.5	3.3	9.9	100.0	(95)
교육수준($\chi^2=32.4^{***}$)								
고졸 이하	12.8	14.2	22.5	36.1	6.9	7.6	100.0	(182)
대학 재학	17.6	17.1	33.0	26.4	0.9	5.0	100.0	(253)
대졸 이상	13.7	11.3	35.3	30.5	2.8	6.5	100.0	(890)
취업 여부($\chi^2=3.3$)								
취업	14.0	12.7	32.2	31.5	3.4	6.2	100.0	(897)
비취업	14.9	13.0	34.9	28.4	2.2	6.6	100.0	(427)
결혼 의향($\chi^2=235.4^{***}$)								
있음	1.8	8.9	41.5	42.4	3.1	2.3	100.0	(601)
없음/모르겠음	24.7	16.0	26.1	20.6	2.9	9.7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 ②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갖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 ③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한다 ④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 ⑤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여 그 이후로 일을 하지 않는다 ⑥ 잘 모르겠다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여성은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42.4%,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41.5%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 전체 결과에서는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은 반대로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결혼 의향 유무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에 응답한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 항목을 여성의 이상적인 삶으로 선택한 경우는 1.8%에 불과했고, 결혼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 중에는 24.7%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가 36.1%인 데 반해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한다’가 22.5%로 더 작은 비율로 나타나 보수적인 성향의 여성의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전체의 결과에서와 다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제1절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필요성

1.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생각

미혼 남녀가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혼 남성은 매우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 대체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로 나타나 절반정도는 저출산 현상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매우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5%, 대체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6.4%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하지만 남성과 비슷한 비율로 저출산 현상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남성보다는 결혼 의향이 없는 남성이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도 결혼 의향 여부에 따라 남성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미혼 여성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7.4%이지만,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는 15.3%로 결혼 의향에 따라 이 견해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약간씩 상승하였다. 특히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상승하였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저출산 현상

은 심화되고 있지만, 미혼 남녀는 오히려 자신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거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현상의 심화만큼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표 13-1〉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생각

(단위: %, 명)

구 분	매우 관련(영향) 있음	대체로 관련(영향) 있음	별로 관련(영향) 없음	전혀 관련(영향) 없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15.9	37.1	32.2	8.3	6.5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14.3	35.6	30.1	10.9	9.1	100.0	(1,140)
거주지($\chi^2=10.8$)							
대도시	16.0	37.9	25.7	11.5	8.9	100.0	(539)
중소도시	13.2	33.0	33.7	10.5	9.7	100.0	(435)
농촌	11.9	34.8	35.0	10.0	8.3	100.0	(166)
연령($\chi^2=24.1$)							
20~24세	9.4	39.0	29.4	11.5	10.7	100.0	(351)
25~29세	17.3	35.0	29.3	10.1	8.4	100.0	(325)
30~34세	18.9	31.7	30.8	9.1	9.5	100.0	(194)
35~39세	11.0	30.8	33.5	14.6	10.0	100.0	(153)
40~44세	17.4	39.8	28.6	9.5	4.7	100.0	(117)
교육수준($\chi^2=15.8^*$)							
고졸 이하	11.3	33.3	31.3	13.8	10.3	100.0	(312)
대학 재학	14.2	41.7	26.0	8.0	10.2	100.0	(295)
대졸 이상	16.1	33.6	31.7	10.8	7.8	100.0	(533)
취업 여부($\chi^2=3.8$)							
취업	14.9	33.6	30.5	11.8	9.3	100.0	(701)
비취업	13.4	38.8	29.5	9.5	8.8	100.0	(439)
결혼 의향($\chi^2=22.6^{***}$)							
있음	17.1	36.6	29.5	8.0	8.9	100.0	(670)
없음/모르겠음	10.3	34.2	31.0	15.1	9.4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12.2	41.2	33.4	5.8	7.5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11.5	36.4	33.9	11.7	6.4	100.0	(1,324)
거주지($\chi^2=10.1$)							
대도시	12.4	34.7	36.3	10.1	6.5	100.0	(675)
중소도시	9.6	38.4	31.7	14.1	6.2	100.0	(498)
농촌	14.0	37.6	30.6	11.2	6.6	100.0	(152)

〈표 13-1〉 계속

구 분	매우 관련(영향) 있음	대체로 관련(영향) 있음	별로 관련(영향) 없음	전혀 관련(영향) 없음	모르겠음	계	(명)
연령($\chi^2=23.0$)							
20~24세	8.1	39.5	33.0	10.8	8.6	100.0	(477)
25~29세	13.7	36.8	33.0	10.7	5.8	100.0	(399)
30~34세	13.3	28.4	38.1	14.7	5.6	100.0	(205)
35~39세	12.8	37.8	31.6	13.9	3.9	100.0	(149)
40~44세	13.4	35.1	36.7	11.1	3.8	100.0	(95)
교육수준($\chi^2=5.8$)							
고졸 이하	9.8	35.2	36.2	12.5	6.3	100.0	(182)
대학 재학	11.3	39.3	32.4	8.8	8.1	100.0	(253)
대졸 이상	11.9	35.9	33.9	12.4	6.0	100.0	(890)
취업 여부($\chi^2=9.7$)							
취업	10.8	36.1	36.0	11.7	5.4	100.0	(897)
비취업	13.0	37.3	29.4	11.7	8.6	100.0	(427)
결혼 의향($\chi^2=22.0^{***}$)							
있음	12.6	39.1	35.3	7.4	5.6	100.0	(601)
없음/모르겠음	10.6	34.3	32.7	15.3	7.1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결혼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에 대한 태도

최근 출산 감소뿐 아니라 혼인을 감소 현상에 대해 결혼을 하고 싶은 미혼 인구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혼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미혼 남녀 모두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결혼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2.3%인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집단은 38.0%로 그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표 13-2〉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47.4	41.2	8.8	2.6	100.0	(1,140)
거주지($\chi^2=3.1$)						
대도시	48.6	41.2	7.8	2.4	100.0	(539)
중소도시	47.4	39.7	9.9	3.0	100.0	(435)
농촌	43.4	45.4	9.0	2.2	100.0	(166)
연령($\chi^2=19.5$)						
20~24세	47.1	43.5	6.9	2.5	100.0	(351)
25~29세	51.1	38.8	8.2	1.9	100.0	(325)
30~34세	46.5	44.1	8.4	1.0	100.0	(194)
35~39세	44.4	40.3	12.5	2.8	100.0	(153)
40~44세	43.6	37.4	11.8	7.2	100.0	(117)
교육수준($\chi^2=4.7$)						
고졸 이하	46.1	41.7	9.6	2.7	100.0	(312)
대학 재학	49.4	42.1	5.8	2.7	100.0	(295)
대졸 이상	47.2	40.4	9.9	2.5	100.0	(533)
취업 여부($\chi^2=0.6$)						
취업	46.9	41.2	9.2	2.8	100.0	(701)
비취업	48.2	41.3	8.2	2.3	100.0	(439)
결혼 의향($\chi^2=14.9$)						
있음	51.0	40.4	6.8	1.9	100.0	(670)
없음/모르겠음	42.4	42.4	11.6	3.6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44.5	43.7	10.7	1.2	100.0	(1,324)
거주지($\chi^2=2.2$)						
대도시	44.2	45.0	9.9	0.9	100.0	(675)
중소도시	44.2	42.7	11.7	1.5	100.0	(498)
농촌	46.8	41.3	10.7	1.2	100.0	(152)
연령						
20~24세	45.8	42.5	9.8	1.9	100.0	(477)
25~29세	48.9	44.3	6.9	-	100.0	(399)
30~34세	50.3	36.6	13.0	-	100.0	(205)
35~39세	33.0	50.6	14.6	1.8	100.0	(149)
40~44세	24.4	51.7	20.1	3.8	100.0	(95)
교육수준($\chi^2=5.3$)						
고졸 이하	41.0	46.2	11.0	1.8	100.0	(182)
대학 재학	47.4	39.5	11.2	1.9	100.0	(253)
대졸 이상	44.3	44.4	10.5	0.8	100.0	(890)
취업 여부($\chi^2=4.4$)						
취업	45.8	42.5	10.9	0.9	100.0	(897)
비취업	41.7	46.3	10.2	1.8	100.0	(427)
결혼 의향($\chi^2=48.6^{***}$)						
있음	52.3	41.7	5.7	0.3	100.0	(601)
없음/모르겠음	38.0	45.3	14.8	1.9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결혼 관련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남성은 신혼집 마련 지원이 33.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청년 고용 안정화가 27.5%, 청년 실업 문제 해소가 16.2%, 장시간 근로관행 등 직장문화 개선 및 기타가 11.8%,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가 10.8%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가 29.4%로 남성에게서는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던 부분이 여성에게서는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은 신혼집 마련 지원으로 22.1%, 청년 고용 안정화가 20.0%, 장시간 근로관행 등 직장문화 개선 및 기타가 14.8%, 청년 실업 문제 해소가 13.7%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고른 분포를 보였다.

남성은 35~39세 집단에서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가 4.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대신 장시간 근로관행 등 직장문화 개선 및 기타가 2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는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대신 35~39세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과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할 시기일 수 있어서 그러한 시기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결혼할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의 경우 신혼집 마련에 응답한 비율(25.8%)보다 청년 고용 안정화에 응답한 비율(31.6%)이 더 높아 전체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결혼을 위해 남성에게는 신혼집 마련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은 여성 전체 결과와 달리 '신혼집 마련 지원'이 28.1%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나타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녀 모두에게 최우선으로 나타난 필요한 정책은 '신혼집 마련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초년생 및 자산 축적의 시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인 미

혼 남녀에게 높은 집값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3-3〉 가장 필요한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생각

(단위: %, 명)

구 분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청년 고용 안정화 (비정규직 문제 등 해소)	신혼집 마련 지원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장시간 근로관행 등 직장문화 개선 및 기타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16.2	27.5	33.7	10.8	11.8	100.0	(1,010)
거주지($\chi^2=9.0$)							
대도시	16.0	28.0	31.5	11.8	12.7	100.0	(484)
중소도시	15.0	28.7	34.0	10.4	11.9	100.0	(379)
농촌	20.3	22.7	40.0	8.5	8.6	100.0	(147)
연령($\chi^2=49.5^{***}$)							
20~24세	23.2	28.5	28.9	11.5	7.9	100.0	(318)
25~29세	13.1	25.6	37.8	12.7	10.8	100.0	(293)
30~34세	14.1	20.2	41.8	10.6	13.4	100.0	(175)
35~39세	12.8	33.7	28.0	4.7	20.8	100.0	(129)
40~44세	11.3	34.8	30.0	11.1	12.8	100.0	(95)
교육수준($\chi^2=22.7^{**}$)							
고졸 이하	14.8	31.5	34.4	7.5	11.7	100.0	(274)
대학 재학	22.6	28.0	27.1	12.7	9.7	100.0	(270)
대졸 이상	13.4	24.8	37.1	11.6	13.1	100.0	(466)
취업 여부($\chi^2=34.5^{***}$)							
취업	12.0	28.0	36.6	9.1	14.3	100.0	(617)
비취업	22.9	26.7	29.1	13.4	7.9	100.0	(393)
결혼 의향($\chi^2=21.0^{***}$)							
있음	16.1	24.8	38.8	9.1	11.2	100.0	(612)
없음/모르겠음	16.4	31.6	25.8	13.4	12.8	100.0	(398)
미혼 여성 전체	13.7	20.0	22.1	29.4	14.8	100.0	(1,167)
거주지($\chi^2=7.4$)							
대도시	12.1	20.2	24.8	29.1	13.9	100.0	(601)
중소도시	15.5	20.0	18.9	29.3	16.3	100.0	(433)
농촌	15.1	19.0	20.9	31.0	14.0	100.0	(133)
연령($\chi^2=72.4^{***}$)							
20~24세	14.1	18.5	16.6	39.3	11.6	100.0	(421)
25~29세	15.4	18.2	26.0	24.4	16.0	100.0	(371)
30~34세	13.7	14.5	26.3	26.2	19.3	100.0	(178)
35~39세	9.5	23.9	28.2	21.1	17.3	100.0	(125)
40~44세	10.0	44.0	14.2	19.9	12.0	100.0	(73)

〈표 13-3〉 계속

구 분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청년 고용 안정화 (비정규직 등 해소)	신혼집 마련 지원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장시간 근로관행 등 직장문화 개선 및 기타	계	(명)
교육수준($\chi^2=55.3^{***}$)							
고졸 이하	13.3	27.7	22.4	28.5	8.1	100.0	(158)
대학 재학	15.9	16.1	12.1	45.4	10.5	100.0	(219)
대졸 이상	13.2	19.5	24.9	25.1	17.3	100.0	(790)
취업 여부($\chi^2=41.5^{***}$)							
취업	10.5	20.1	25.6	27.2	16.6	100.0	(792)
비취업	20.4	19.6	14.8	34.1	11.0	100.0	(375)
결혼 의향($\chi^2=25.3^{***}$)							
있음	11.4	18.6	28.1	26.8	15.3	100.0	(565)
없음/모르겠음	15.9	21.2	16.6	31.9	14.4	100.0	(60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태도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혼 남성의 4.2%가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기는 했지만, 남녀 모두 대부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모두 1.0% 미만으로 그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보다 남성은 필요없다는 비율이 아주 약간 증가했고, 여성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약간 증가했다. 하지만, 남녀 모두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비율은 감소하고,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3년 전에는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환경이었다면, 2015년 당시와 비교해 현재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정책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표 13-4〉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2015)	31.3	65.1	2.5	0.2	0.8	100.0	(1,096)
미혼 남성 전체(2018)	27.4	66.9	4.2	0.7	0.9	100.0	(1,140)
거주지							
대도시	28.5	64.9	5.1	0.4	1.1	100.0	(539)
중소도시	26.4	68.6	3.9	0.9	0.2	100.0	(435)
농촌	26.2	68.8	2.3	1.0	1.7	100.0	(166)
연령							
20~24세	27.1	66.8	4.4	0.7	1.0	100.0	(351)
25~29세	28.2	66.0	4.9	0.5	0.3	100.0	(325)
30~34세	23.5	71.6	3.2	0.3	1.4	100.0	(194)
35~39세	35.9	57.3	5.0	0.8	0.9	100.0	(153)
40~44세	20.9	74.1	2.7	1.5	0.8	100.0	(117)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3	62.6	6.2	0.5	0.3	100.0	(312)
대학 재학	26.0	68.0	4.4	0.9	0.6	100.0	(295)
대졸 이상	26.4	68.7	3.0	0.7	1.3	100.0	(533)
취업 여부							
취업	28.7	65.8	3.9	0.7	1.0	100.0	(701)
비취업	25.3	68.6	4.8	0.6	0.7	100.0	(439)
결혼 의향							
있음	26.6	69.0	3.4	0.3	0.6	100.0	(670)
없음/모르겠음	28.4	63.7	5.5	1.2	1.2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2015)	34.5	62.0	2.2	0.4	0.8	100.0	(1,287)
미혼 여성 전체(2018)	29.9	66.8	1.9	0.4	0.9	100.0	(1,324)
거주지							
대도시	30.7	66.3	1.8	0.1	1.1	100.0	(675)
중소도시	27.5	69.1	2.1	0.7	0.6	100.0	(498)
농촌	34.6	61.7	2.1	0.6	1.1	100.0	(152)
연령							
20~24세	32.1	64.9	1.5	0.4	1.2	100.0	(477)
25~29세	25.3	72.1	2.0	0.3	0.3	100.0	(399)
30~34세	37.6	60.8	.8	-	0.8	100.0	(205)
35~39세	30.0	66.8	2.3	0.9	-	100.0	(149)
40~44세	22.0	67.8	5.5	1.2	3.5	100.0	(95)
교육수준							
고졸 이하	29.9	64.9	2.7	1.0	1.6	100.0	(182)
대학 재학	34.1	62.6	2.2	0.3	0.8	100.0	(253)
대졸 이상	28.8	68.4	1.7	0.3	0.8	100.0	(890)
취업 여부							
취업	29.5	67.1	2.1	0.4	0.9	100.0	(897)
비취업	30.9	66.2	1.5	0.5	0.9	100.0	(427)
결혼 의향							
있음	31.1	67.5	0.8	-	0.7	100.0	(601)
없음/모르겠음	29.0	66.3	2.8	0.8	1.1	100.0	(724)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15년은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욕구

1.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중요도

미혼 남녀가 신혼부부 대상 자금 대출 방식의 주거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남녀 모두 60% 이상은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인지에 대해서는 연령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정책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결혼할 때 관심을 두고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취업을 했을 때 대출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취업 후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한 미혼 남녀의 인지도가 취업하지 않은 미혼 남녀의 인지도보다 높은 경향도 볼 수 있다.

〈표 13-5〉 미혼 남녀(20~44세)의 신혼부부 대상 자금 대출 방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4.9	35.1	100.0	(1,140)
거주지($\chi^2=1.4$)				
대도시	66.7	33.3	100.0	(539)
중소도시	63.0	37.0	100.0	(435)
농촌	64.3	35.7	100.0	(166)
연령($\chi^2=107.1^{***}$)				
20~24세	43.3	56.7	100.0	(351)
25~29세	71.7	28.3	100.0	(325)
30~34세	74.1	25.9	100.0	(194)
35~39세	80.1	19.9	100.0	(153)
40~44세	75.7	24.3	100.0	(117)

〈표 13-5〉 계속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교육수준($\chi^2=72.5^{***}$)				
고졸 이하	65.3	34.7	100.0	(312)
대학 재학	45.8	54.2	100.0	(295)
대졸 이상	75.3	24.7	100.0	(533)
취업 여부($\chi^2=37.4^{***}$)				
취업	71.7	28.3	100.0	(701)
비취업	54.0	46.0	100.0	(439)
결혼 의향($\chi^2=1.3$)				
있음	66.2	33.8	100.0	(670)
없음/모르겠음	63.0	37.0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64.2	35.8	100.0	(1,324)
거주지($\chi^2=0.7$)				
대도시	64.8	35.2	100.0	(675)
중소도시	62.9	37.1	100.0	(498)
농촌	65.6	34.4	100.0	(152)
연령($\chi^2=127.9^{***}$)				
20~24세	44.8	55.2	100.0	(477)
25~29세	70.9	29.1	100.0	(399)
30~34세	80.0	20.0	100.0	(205)
35~39세	78.9	21.1	100.0	(149)
40~44세	75.6	24.4	100.0	(95)
교육수준($\chi^2=77.6^{***}$)				
고졸 이하	62.0	38.0	100.0	(182)
대학 재학	41.0	59.0	100.0	(253)
대졸 이상	71.2	28.8	100.0	(890)
취업 여부($\chi^2=43.7^{***}$)				
취업	70.2	29.8	100.0	(897)
비취업	51.5	48.5	100.0	(427)
결혼 의향($\chi^2=5.5^*$)				
있음	67.6	32.4	100.0	(601)
없음/모르겠음	61.3	38.7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대출 방식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그 중요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혼 여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한 사례도 없어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표 13-6〉 미혼 남녀(20~44세)의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방식 주거 지원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8.9	31.5	7.4	1.8	0.2	0.3	100.0	(740)
거주지								
대도시	58.7	31.0	8.1	1.8	-	0.3	100.0	(359)
중소도시	56.2	33.5	7.8	1.8	0.3	0.3	100.0	(274)
농촌	66.4	27.6	3.7	1.9	0.5	-	100.0	(107)
연령								
20~24세	54.7	36.7	7.2	0.9	0.6	-	100.0	(152)
25~29세	60.7	29.5	7.6	1.0	0.2	0.9	100.0	(233)
30~34세	57.9	33.2	5.4	3.5	-	-	100.0	(143)
35~39세	62.3	27.2	9.3	1.3	-	-	100.0	(122)
40~44세	58.2	30.8	7.5	3.5	-	-	100.0	(89)
교육수준								
고졸 이하	63.9	25.1	9.1	1.6	0.3	-	100.0	(204)
대학 재학	54.4	37.0	7.5	1.0	-	-	100.0	(135)
대출 이상	57.8	32.8	6.4	2.2	0.2	0.5	100.0	(401)
취업 여부								
취업	61.7	29.0	7.0	2.2	0.1	-	100.0	(503)
비취업	52.9	36.8	8.2	0.9	0.4	0.9	100.0	(237)
결혼 의향								
있음	61.1	29.6	6.9	2.2	-	0.2	100.0	(444)
없음/모르겠음	55.5	34.3	8.0	1.3	0.5	0.4	100.0	(296)
미혼 여성 전체	57.5	34.7	7.0	0.6	-	0.2	100.0	(850)
거주지								
대도시	59.5	32.3	7.3	0.8	-	-	100.0	(437)
중소도시	53.3	38.1	7.8	0.5	-	0.4	100.0	(313)
농촌	62.1	34.1	2.9	0.5	-	0.5	100.0	(99)
연령								
20~24세	47.5	43.2	8.5	0.6	-	0.2	100.0	(214)
25~29세	53.3	40.1	6.1	0.5	-	-	100.0	(283)
30~34세	74.0	19.7	5.5	0.9	-	-	100.0	(164)
35~39세	63.3	27.8	8.9	-	-	-	100.0	(118)
40~44세	56.8	33.7	6.0	1.8	-	1.6	100.0	(72)
교육수준								
고졸 이하	66.5	25.8	6.4	1.3	-	-	100.0	(113)
대학 재학	48.3	45.2	6.0	-	-	0.4	100.0	(104)
대출 이상	57.4	34.5	7.2	0.6	-	0.2	100.0	(633)
취업 여부								
취업	58.3	33.6	7.0	0.9	-	0.3	100.0	(630)
비취업	55.3	37.9	6.8	-	-	-	100.0	(220)
결혼 의향								
있음	60.2	34.2	5.2	0.1	-	0.3	100.0	(406)
없음/모르겠음	55.1	35.1	8.6	1.1	-	0.1	100.0	(444)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대출 방식의 주거 지원과 달리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우선 이러한 주택 공급 방식의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성의 64.9%, 여성의 64.6%가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남성은 농촌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더욱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 방식 주거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상승하면서 더욱 인지하고 있는 경향과 취업한 경우에 더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표 13-7〉 미혼 남녀(20~44세)의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주택 공급 방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4.9	35.1	100.0	(1,140)
거주지($\chi^2=6.9$)				
대도시	68.6	31.4	100.0	(539)
중소도시	62.6	37.4	100.0	(435)
농촌	58.9	41.1	100.0	(166)
연령($\chi^2=99.1^{***}$)				
20~24세	44.6	55.4	100.0	(351)
25~29세	69.3	30.7	100.0	(325)
30~34세	73.1	26.9	100.0	(194)
35~39세	81.0	19.0	100.0	(153)
40~44세	78.7	21.3	100.0	(117)
교육수준($\chi^2=69.1^{***}$)				
고졸 이하	66.6	33.4	100.0	(312)
대학 재학	45.8	54.2	100.0	(295)
대졸 이상	74.4	25.6	100.0	(533)
취업 여부($\chi^2=35.2^{***}$)				
취업	71.5	28.5	100.0	(701)
비취업	54.3	45.7	100.0	(439)
결혼 의향($\chi^2=1.5$)				
있음	66.3	33.7	100.0	(670)
없음/모르겠음	62.8	37.2	100.0	(470)

〈표 13-7〉 계속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여성 전체	64.6	35.4	100.0	(1,324)
거주지($\chi^2=1.5$)				
대도시	65.6	34.4	100.0	(675)
중소도시	62.6	37.4	100.0	(498)
농촌	67.1	32.9	100.0	(152)
연령($\chi^2=83.8^{***}$)				
20~24세	49.1	50.9	100.0	(477)
25~29세	69.9	30.1	100.0	(399)
30~34세	79.1	20.9	100.0	(205)
35~39세	76.6	23.4	100.0	(149)
40~44세	70.6	29.4	100.0	(95)
교육수준($\chi^2=63.4^{***}$)				
고졸 이하	60.2	39.8	100.0	(182)
대학 재학	44.5	55.5	100.0	(253)
대졸 이상	71.3	28.7	100.0	(890)
취업 여부($\chi^2=37.9^{***}$)				
취업	70.3	29.7	100.0	(897)
비취업	52.8	47.2	100.0	(427)
결혼 의향($\chi^2=6.5^*$)				
있음	68.3	31.7	100.0	(601)
없음/모르겠음	61.6	38.4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주택 공급 방식 주거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미혼 남녀에게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남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대부분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남성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대출정책의 중요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한 사례도 없어 여성이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표 13-8〉 미혼 남녀(20~44세)의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주택 공급 방식 주거 지원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6.4	32.6	8.0	2.5	0.4	0.1	100.0	(739)
거주지								
대도시	52.8	33.9	9.6	3.4	0.4	-	100.0	(370)
중소도시	58.2	32.6	6.5	2.1	0.3	0.3	100.0	(272)
농촌	65.2	27.7	6.0	-	1.0	-	100.0	(98)
연령								
20~24세	53.9	35.0	8.8	1.8	0.6	-	100.0	(156)
25~29세	57.1	31.0	8.8	2.8	-	0.4	100.0	(226)
30~34세	54.3	35.7	7.3	1.8	1.0	-	100.0	(141)
35~39세	60.4	28.9	6.9	3.7	-	-	100.0	(124)
40~44세	56.9	32.5	7.2	2.3	1.1	-	100.0	(92)
교육수준								
고졸 이하	62.3	28.7	6.1	2.8	-	-	100.0	(208)
대학 재학	53.4	34.3	9.3	2.9	-	-	100.0	(135)
대졸 이상	54.3	34.0	8.5	2.1	0.8	0.2	100.0	(396)
취업 여부								
취업	58.8	30.8	7.4	2.4	0.5	0.2	100.0	(501)
비취업	51.4	36.3	9.2	2.7	0.4	-	100.0	(238)
결혼 의향								
있음	59.9	30.8	6.6	2.0	0.5	0.2	100.0	(444)
없음/모르겠음	51.2	35.2	10.1	3.2	0.3	-	100.0	(295)
미혼 여성 전체	56.2	34.6	8.4	0.6	-	0.3	100.0	(856)
거주지								
대도시	57.7	34.5	6.7	1.1	-	-	100.0	(442)
중소도시	52.6	35.3	11.3	-	-	0.8	100.0	(312)
농촌	60.3	32.8	6.9	-	-	-	100.0	(102)
연령								
20~24세	47.6	41.7	10.3	0.4	-	-	100.0	(234)
25~29세	55.3	39.2	4.6	0.5	-	0.4	100.0	(278)
30~34세	70.8	20.4	8.8	-	-	-	100.0	(162)
35~39세	60.1	28.8	11.1	-	-	-	100.0	(114)
40~44세	48.0	35.0	11.4	3.9	-	1.7	100.0	(67)
교육수준								
고졸 이하	60.3	29.1	10.6	-	-	-	100.0	(109)
대학 재학	48.8	41.0	10.1	-	-	-	100.0	(112)
대졸 이상	56.8	34.4	7.7	0.8	-	0.4	100.0	(634)
취업 여부								
취업	56.5	33.4	9.0	0.8	-	0.4	100.0	(630)
비취업	55.3	38.0	6.7	-	-	-	100.0	(226)
결혼 의향								
있음	58.6	34.5	6.3	-	-	0.6	100.0	(410)
없음/모르겠음	54.0	34.7	10.3	1.1	-	-	100.0	(446)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임신·출산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중요도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미혼 남녀가 알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성과 여성 사이 인지도의 차이가 있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미혼 남성은 43.8%가 알고 있었지만, 여성은 65.8%가 알고 있었다. 임신·출산기에 사용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결국 여성이 직접 사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에 따른 인지 여부 차이는 앞서 결혼 지원 정책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비슷하게,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시기와 정책 인지가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취업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미혼 남성은 다른 집단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 여성은 대학 재학 중인 집단이 모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대학 재학 중인 여성이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은 대학 재학 중인 여성 집단이 가장 낮은 연령대로 구성된 집단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 내에서 나타나는 특성별 차이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 보인다.

〈표 13-9〉 미혼 남녀(20~44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43.8	56.2	100.0	(1,140)
거주지($\chi^2=1.0$)				
대도시	42.3	57.7	100.0	(539)
중소도시	45.5	54.5	100.0	(435)
농촌	44.3	55.7	100.0	(166)
연령($\chi^2=24.7^{***}$)				
20~24세	34.8	65.2	100.0	(351)
25~29세	42.6	57.4	100.0	(325)
30~34세	47.7	52.3	100.0	(194)
35~39세	55.1	44.9	100.0	(153)
40~44세	52.7	47.3	100.0	(117)
교육수준($\chi^2=14.6^{**}$)				
고졸 이하	38.4	61.6	100.0	(312)
대학 재학	38.5	61.5	100.0	(295)
대졸 이상	49.8	50.2	100.0	(533)
취업 여부($\chi^2=4.4^*$)				
취업	46.2	53.8	100.0	(701)
비취업	39.9	60.1	100.0	(439)
결혼 의향($\chi^2=0.0$)				
있음	44.0	56.0	100.0	(670)
없음/모르겠음	43.4	56.6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65.8	34.2	100.0	(1,324)
거주지($\chi^2=3.8$)				
대도시	63.4	36.6	100.0	(675)
중소도시	68.6	31.4	100.0	(498)
농촌	67.4	32.6	100.0	(152)
연령($\chi^2=66.5^{***}$)				
20~24세	52.2	47.8	100.0	(477)
25~29세	69.7	30.3	100.0	(399)
30~34세	78.0	22.0	100.0	(205)
35~39세	78.1	21.9	100.0	(149)
40~44세	71.8	28.2	100.0	(95)
교육수준($\chi^2=42.2^{***}$)				
고졸 이하	62.7	37.3	100.0	(182)
대학 재학	49.3	50.7	100.0	(253)
대졸 이상	71.1	28.9	100.0	(890)
취업 여부($\chi^2=30.1^{***}$)				
취업	70.7	29.3	100.0	(897)
비취업	55.4	44.6	100.0	(427)
결혼 의향($\chi^2=3.7$)				
있음	68.6	31.4	100.0	(601)
없음/모르겠음	63.5	36.5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미혼 남녀에게 이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역시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비율로 확인해 보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미혼 여성 중 30~34세 집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 정책을 가까운 미래에 이용할 확률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아서 나타난 특성으로 보인다.

〈표 13-10〉 미혼 남녀(20~44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8.4	31.0	8.6	1.6	0.2	0.2	100.0	(499)
거주지								
대도시	55.5	33.2	8.7	2.6	-	-	100.0	(228)
중소도시	60.6	29.2	9.4	0.4	-	0.4	100.0	(198)
농촌	61.4	29.2	6.4	1.7	1.3	-	100.0	(73)
연령								
20~24세	53.6	34.9	9.3	1.6	-	0.7	100.0	(122)
25~29세	57.8	32.2	7.5	2.4	-	-	100.0	(139)
30~34세	64.1	23.9	10.6	1.4	-	-	100.0	(92)
35~39세	67.2	23.7	7.2	1.8	-	-	100.0	(84)
40~44세	48.6	41.3	8.5	-	1.6	-	100.0	(62)
교육수준								
고졸 이하	68.5	23.9	6.1	1.5	-	-	100.0	(120)
대학 재학	49.8	39.0	7.8	2.7	-	0.8	100.0	(114)
대졸 이상	57.5	30.8	10.1	1.2	0.4	-	100.0	(265)
취업 여부								
취업	61.3	28.8	7.9	1.6	0.3	-	100.0	(324)
비취업	53.0	35.1	9.8	1.6	-	0.5	100.0	(175)
결혼 의향								
있음	60.0	31.1	5.5	2.7	0.3	0.3	100.0	(295)
없음/모르겠음	56.0	30.9	13.1	-	-	-	100.0	(204)
미혼 여성 전체	64.6	28.0	6.9	0.3	0.1	0.1	100.0	(871)
거주지								
대도시	65.1	27.5	6.6	0.7	-	-	100.0	(427)
중소도시	64.0	29.0	6.5	-	0.2	0.2	100.0	(342)
농촌	64.5	26.3	9.1	-	-	-	100.0	(102)

〈표 13-10〉 계속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연령								
20~24세	61.9	30.3	7.3	-	0.3	0.3	100.0	(249)
25~29세	60.5	33.4	5.6	0.5	-	-	100.0	(278)
30~34세	78.5	16.0	4.5	1.0	-	-	100.0	(160)
35~39세	62.5	27.9	9.5	-	-	-	100.0	(116)
40~44세	62.4	25.5	12.1	-	-	-	100.0	(68)
교육수준								
고졸 이하	66.4	23.7	7.3	2.6	-	-	100.0	(114)
대학 재학	63.2	29.4	6.8	-	-	0.6	100.0	(125)
대졸 이상	64.6	28.5	6.8	-	0.1	-	100.0	(633)
취업 여부								
취업	65.6	27.3	6.6	0.5	-	-	100.0	(635)
비취업	62.1	29.7	7.6	-	0.3	0.3	100.0	(236)
결혼 의향								
있음	67.8	26.5	5.7	-	-	-	100.0	(412)
없음/모르겠음	61.8	29.3	7.9	0.6	0.2	0.2	100.0	(459)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 및 중요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미혼 남녀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먼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매우 높은 비율의 미혼 남녀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 중 고졸 이하 학력은 83.9%, 대졸 이상 학력은 90.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에 있어서 학력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도 역시 학력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 인지에 차이가 있었고, 취업을 한 여성은 92.4%가 인지하는 반면, 취업하지 않는 미혼 여성은 85.6%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있었다.

〈표 13-11〉 미혼 남녀(20~44세)의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86.4	13.6	100.0	(1,140)
거주지($\chi^2=2.6$)				
대도시	85.5	14.5	100.0	(539)
중소도시	86.0	14.0	100.0	(435)
농촌	90.5	9.5	100.0	(166)
연령($\chi^2=26.0^{***}$)				
20~24세	79.6	20.4	100.0	(351)
25~29세	87.1	12.9	100.0	(325)
30~34세	88.3	11.7	100.0	(194)
35~39세	92.8	7.2	100.0	(153)
40~44세	93.7	6.3	100.0	(117)
교육수준($\chi^2=18.4^{***}$)				
고졸 이하	83.9	16.1	100.0	(312)
대학 재학	80.9	19.1	100.0	(295)
대졸 이상	90.9	9.1	100.0	(533)
취업 여부($\chi^2=15.7^{***}$)				
취업	89.6	10.4	100.0	(701)
비취업	81.3	18.7	100.0	(439)
결혼 의향($\chi^2=8.0^{**}$)				
있음	88.8	11.2	100.0	(670)
없음/모르겠음	83.0	17.0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90.2	9.8	100.0	(1,324)
거주지($\chi^2=2.2$)				
대도시	91.4	8.6	100.0	(675)
중소도시	89.3	10.7	100.0	(498)
농촌	88.1	11.9	100.0	(152)
연령($\chi^2=16.1^{**}$)				
20~24세	86.1	13.9	100.0	(477)
25~29세	91.1	8.9	100.0	(399)
30~34세	93.7	6.3	100.0	(205)
35~39세	94.9	5.1	100.0	(149)
40~44세	92.3	7.7	100.0	(95)
교육수준($\chi^2=13.0^{**}$)				
고졸 이하	85.8	14.2	100.0	(182)
대학 재학	86.1	13.9	100.0	(253)
대졸 이상	92.3	7.7	100.0	(890)
취업 여부($\chi^2=15.8^{***}$)				
취업	92.4	7.6	100.0	(897)
비취업	85.6	14.4	100.0	(427)
결혼 의향($\chi^2=0.3$)				
있음	89.7	10.3	100.0	(601)
없음/모르겠음	90.7	9.3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미혼 남녀에게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는 대부분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상징적이게도 남성과 여성 모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한 사례도 없이 나타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매우 낮아 남녀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2〉 미혼 남녀(20~44세)의 출산전후휴가제도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75.1	21.5	2.9	0.3	-	0.2	100.0	(985)
거주지								
대도시	74.9	21.4	3.1	0.2	-	0.2	100.0	(461)
중소도시	75.3	21.0	3.2	0.5	-	-	100.0	(374)
농촌	75.2	22.8	1.4	0.3	-	0.3	100.0	(150)
연령								
20~24세	72.0	23.3	4.4	-	-	0.2	100.0	(279)
25~29세	75.2	20.8	3.0	0.6	-	0.4	100.0	(283)
30~34세	79.8	17.5	2.8	-	-	-	100.0	(171)
35~39세	79.3	18.7	2.0	-	-	-	100.0	(142)
40~44세	70.0	28.4	-	1.6	-	-	100.0	(110)
교육수준								
고졸 이하	72.4	24.3	3.1	0.2	-	-	100.0	(262)
대학 재학	72.4	24.0	3.6	-	-	-	100.0	(239)
대졸 이상	77.9	18.7	2.4	0.6	-	0.3	100.0	(484)
취업 여부								
취업	75.7	21.1	2.8	0.4	-	0.1	100.0	(628)
비취업	74.2	22.1	3.1	0.3	-	0.3	100.0	(357)
결혼 의향								
있음	77.7	20.3	1.8	0.2	-	-	100.0	(595)
없음/모르겠음	71.2	23.3	4.5	0.6	-	0.4	100.0	(390)
미혼 여성 전체	80.9	17.5	1.6	0.1	-	-	100.0	(1,195)
거주지								
대도시	81.1	17.2	1.7	-	-	-	100.0	(617)
중소도시	80.4	18.5	1.2	-	-	-	100.0	(445)
농촌	81.5	15.7	2.3	0.5	-	-	100.0	(134)
연령								
20~24세	82.1	16.1	1.8	-	-	-	100.0	(410)
25~29세	82.2	16.8	0.9	-	-	-	100.0	(363)
30~34세	86.9	12.2	0.8	-	-	-	100.0	(192)
35~39세	72.6	24.5	2.9	-	-	-	100.0	(141)
40~44세	69.2	27.2	2.8	0.8	-	-	100.0	(88)

〈표 13-12〉 계속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교육수준								
고졸 이하	80.6	17.2	1.7	0.5	-	-	100.0	(156)
대학 재학	83.1	15.0	1.9	-	-	-	100.0	(218)
대졸 이상	80.3	18.2	1.5	-	-	-	100.0	(821)
취업 여부								
취업	80.7	17.6	1.7	-	-	-	100.0	(830)
비취업	81.2	17.4	1.3	0.2	-	-	100.0	(365)
결혼 의향								
있음	85.9	13.1	1.0	-	-	-	100.0	(539)
없음/모르겠음	76.7	21.1	2.0	0.1	-	-	100.0	(656)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성이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미혼 남녀가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 보다는 약간 낮지만 미혼 남성의 78.4%, 미혼 여성의 83.8%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성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특히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미혼 남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였다. 20~24세 집단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66.7%였지만, 40~44세 집단은 알고 있는 비율이 92.8%로 매우 높아 연령 변화에 따라 인지 여부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13〉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78.4	21.6	100.0	(1,140)
거주지($\chi^2=1.5$)				
대도시	78.1	21.9	100.0	(539)
중소도시	77.5	22.5	100.0	(435)
농촌	81.7	18.3	100.0	(166)

〈표 13-13〉 계속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연령($\chi^2=52.9^{***}$)				
20~24세	66.7	33.3	100.0	(351)
25~29세	78.7	21.3	100.0	(325)
30~34세	86.2	13.8	100.0	(194)
35~39세	83.8	16.2	100.0	(153)
40~44세	92.8	7.2	100.0	(117)
교육수준($\chi^2=39.7^{***}$)				
고졸 이하	75.7	24.3	100.0	(312)
대학 재학	67.6	32.4	100.0	(295)
대졸 이상	86.0	14.0	100.0	(533)
취업 여부($\chi^2=22.7^{***}$)				
취업	83.0	17.0	100.0	(701)
비취업	71.1	28.9	100.0	(439)
결혼 의향($\chi^2=3.5$)				
있음	80.3	19.7	100.0	(670)
없음/모르겠음	75.7	24.3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83.8	16.2	100.0	(1,324)
거주지($\chi^2=1.5$)				
대도시	85.1	14.9	100.0	(675)
중소도시	82.7	17.3	100.0	(498)
농촌	81.9	18.1	100.0	(152)
연령($\chi^2=25.8^{***}$)				
20~24세	77.0	23.0	100.0	(477)
25~29세	87.8	12.2	100.0	(399)
30~34세	86.3	13.7	100.0	(205)
35~39세	89.9	10.1	100.0	(149)
40~44세	86.5	13.5	100.0	(95)
교육수준($\chi^2=13.4^{**}$)				
고졸 이하	77.4	22.6	100.0	(182)
대학 재학	79.4	20.6	100.0	(253)
대졸 이상	86.4	13.6	100.0	(890)
취업 여부($\chi^2=9.2^{**}$)				
취업	85.9	14.1	100.0	(897)
비취업	79.4	20.6	100.0	(427)
결혼 의향($\chi^2=0.2$)				
있음	83.4	16.6	100.0	(601)
없음/모르겠음	84.2	15.8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그 중요도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났는데,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특히, 남성의 40~44세 집단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남녀 모두 대부분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체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표 13-14〉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3.7	26.3	7.2	2.8	-	0.1	100.0	(894)
거주지								
대도시	63.6	25.7	7.3	3.3	-	-	100.0	(421)
중소도시	63.0	28.2	6.4	2.5	-	-	100.0	(337)
농촌	65.7	23.4	8.9	1.6	-	0.4	100.0	(136)
연령								
20~24세	65.6	26.6	6.7	0.9	-	0.2	100.0	(234)
25~29세	61.4	26.1	9.6	3.0	-	-	100.0	(256)
30~34세	65.7	25.8	6.6	1.9	-	-	100.0	(167)
35~39세	67.3	20.8	7.1	4.8	-	-	100.0	(128)
40~44세	57.9	33.2	3.8	5.2	-	-	100.0	(109)
교육수준								
고졸 이하	65.9	24.8	6.6	2.7	-	-	100.0	(236)
대학 재학	61.0	31.6	6.6	0.8	-	-	100.0	(200)
대졸 이상	63.7	24.8	7.8	3.6	-	0.1	100.0	(458)
취업 여부								
취업	63.8	25.6	7.7	2.9	-	0.1	100.0	(581)
비취업	63.5	27.6	6.3	2.5	-	-	100.0	(312)
결혼 의향								
있음	67.6	23.1	7.1	2.1	-	-	100.0	(538)
없음/모르겠음	57.8	31.1	7.3	3.7	-	0.1	100.0	(355)
미혼 여성 전체	72.9	22.0	4.7	0.4	0.1	-	100.0	(1,110)
거주지								
대도시	73.5	21.4	4.8	0.1	0.1	-	100.0	(574)
중소도시	72.1	23.2	4.1	0.7	-	-	100.0	(412)
농촌	72.7	20.6	6.1	0.6	-	-	100.0	(124)

〈표 13-14〉 계속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연령								
20~24세	74.8	21.3	3.4	0.2	0.2	-	100.0	(367)
25~29세	76.3	20.5	3.2	-	-	-	100.0	(350)
30~34세	75.6	18.7	4.9	0.8	-	-	100.0	(177)
35~39세	59.9	26.3	12.8	1.0	-	-	100.0	(134)
40~44세	64.7	31.4	3.0	0.9	-	-	100.0	(82)
교육수준								
고졸 이하	71.4	25.0	2.5	1.1	-	-	100.0	(141)
대학 재학	76.2	19.0	4.4	-	0.4	-	100.0	(201)
대졸 이상	72.3	22.2	5.2	0.3	-	-	100.0	(769)
취업 여부								
취업	73.3	20.7	5.6	0.5	-	-	100.0	(771)
비취업	71.9	24.9	2.7	0.2	0.3	-	100.0	(339)
결혼 의향								
있음	77.7	17.9	4.1	0.3	-	-	100.0	(501)
없음/모르겠음	68.9	25.3	5.2	0.5	0.1	-	100.0	(609)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는 여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미혼 남녀가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혼 남성의 89.5%, 미혼 여성의 93.4%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 특히 미혼 남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24세 미혼 남성은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83.8%인 데 반해, 40~44세는 94.9%가 인지하고 있어 그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졸 이하의 미혼 남성은 86.0% 인지하고 있지만, 대졸 이상 미혼 남성은 94.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학력 차이를 볼 수 있다.

여성도 특성에 따른 인지 여부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남성보다 작은 차이로 나타나서 여성 사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3-15〉 미혼 남녀(20~44세)의 여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89.5	10.5	100.0	(1,140)
거주지($\chi^2=6.4^*$)				
대도시	87.7	12.3	100.0	(539)
중소도시	89.8	10.2	100.0	(435)
농촌	94.7	5.3	100.0	(166)
연령($\chi^2=23.1^{***}$)				
20~24세	83.8	16.2	100.0	(351)
25~29세	89.5	10.5	100.0	(325)
30~34세	92.1	7.9	100.0	(194)
35~39세	95.2	4.8	100.0	(153)
40~44세	94.9	5.1	100.0	(117)
교육수준($\chi^2=28.0^{***}$)				
고졸 이하	86.0	14.0	100.0	(312)
대학 재학	84.1	15.9	100.0	(295)
대졸 이상	94.6	5.4	100.0	(533)
취업 여부($\chi^2=9.1^{**}$)				
취업	91.7	8.3	100.0	(701)
비취업	86.0	14.0	100.0	(439)
결혼 의향($\chi^2=7.0^{**}$)				
있음	91.6	8.4	100.0	(670)
없음/모르겠음	86.6	13.4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93.4	6.6	100.0	(1,324)
거주지($\chi^2=1.2$)				
대도시	93.7	6.3	100.0	(675)
중소도시	93.8	6.2	100.0	(498)
농촌	91.2	8.8	100.0	(152)
연령($\chi^2=14.0^{**}$)				
20~24세	90.4	9.6	100.0	(477)
25~29세	96.4	3.6	100.0	(399)
30~34세	94.8	5.2	100.0	(205)
35~39세	94.0	6.0	100.0	(149)
40~44세	92.3	7.7	100.0	(95)
교육수준($\chi^2=11.0^{**}$)				
고졸 이하	90.2	9.8	100.0	(182)
대학 재학	90.3	9.7	100.0	(253)
대졸 이상	95.0	5.0	100.0	(890)
취업 여부($\chi^2=9.5^{**}$)				
취업	94.9	5.1	100.0	(897)
비취업	90.3	9.7	100.0	(427)
결혼 의향($\chi^2=0$)				
있음	93.6	6.4	100.0	(601)
없음/모르겠음	93.3	6.7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여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이었다. 미혼 남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5.9%이고 여성은 82.4%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 또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없었다.

〈표 13-16〉 미혼 남녀(20~44세)의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75.9	20.8	2.7	0.5	-	0.1	100.0	(1,020)
거주지								
대도시	75.6	20.9	3.0	0.5	-	-	100.0	(472)
중소도시	76.8	20.3	2.4	0.5	-	-	100.0	(391)
농촌	74.8	21.7	2.2	0.6	-	0.6	100.0	(157)
연령								
20~24세	73.4	21.9	3.9	0.5	-	0.3	100.0	(294)
25~29세	75.8	21.7	2.0	0.6	-	-	100.0	(291)
30~34세	80.0	16.7	3.3	-	-	-	100.0	(178)
35~39세	77.2	19.9	2.9	-	-	-	100.0	(145)
40~44세	74.7	23.7	-	1.6	-	-	100.0	(111)
교육수준								
고졸 이하	77.8	19.2	2.6	0.2	-	0.2	100.0	(268)
대학 재학	70.4	26.3	2.6	0.6	-	-	100.0	(248)
대졸 이상	77.6	19.0	2.7	0.6	-	0.1	100.0	(504)
취업 여부								
취업	77.6	19.4	2.5	0.4	-	0.2	100.0	(643)
비취업	73.1	23.3	3.0	0.6	-	-	100.0	(378)
결혼 의향								
있음	79.5	18.0	2.1	0.3	-	0.1	100.0	(613)
없음/모르겠음	70.5	25.0	3.5	0.8	-	0.1	100.0	(407)
미혼 여성 전체	82.4	16.0	1.5	0.1	-	-	100.0	(1,237)
거주지								
대도시	82.8	15.6	1.6	-	-	-	100.0	(632)
중소도시	82.0	16.5	1.5	-	-	-	100.0	(467)
농촌	82.0	16.5	1.0	0.5	-	-	100.0	(138)
연령								
20~24세	82.4	15.8	1.8	-	-	-	100.0	(431)
25~29세	85.2	14.1	0.7	-	-	-	100.0	(384)
30~34세	85.8	13.4	0.8	-	-	-	100.0	(194)
35~39세	74.6	21.6	3.9	-	-	-	100.0	(140)
40~44세	75.2	22.7	1.3	0.8	-	-	100.0	(88)

〈표 13-16〉 계속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교육수준								
고졸 이하	81.0	14.4	4.2	0.4	-	-	100.0	(164)
대학 재학	83.4	14.8	1.8	-	-	-	100.0	(228)
대졸 이상	82.4	16.7	0.9	-	-	-	100.0	(845)
취업 여부								
취업	83.0	15.6	1.5	-	-	-	100.0	(852)
비취업	81.1	17.1	1.6	0.2	-	-	100.0	(386)
결혼 의향								
있음	87.1	11.6	1.3	-	-	-	100.0	(562)
없음/모르겠음	78.5	19.7	1.7	0.1	-	-	100.0	(675)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면, 미혼 남성의 77.3%, 미혼 여성의 8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미혼 남성은 연령에 따라 인지 여부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0~24세 미혼 남성 집단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6%인 데 반해 40~44세 집단은 90.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취업을 한 미혼 남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경향으로 특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을 한 미혼 여성의 경우 87.6%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취업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 집단에서는 79.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취업 여부에 따라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13-17〉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77.3	22.7	100.0	(1,140)
거주지($\chi^2=2.2$)				
대도시	77.5	22.5	100.0	(539)
중소도시	75.6	24.4	100.0	(435)
농촌	81.0	19.0	100.0	(166)
연령($\chi^2=58.7^{***}$)				
20~24세	64.6	35.4	100.0	(351)
25~29세	77.1	22.9	100.0	(325)
30~34세	87.2	12.8	100.0	(194)
35~39세	84.0	16.0	100.0	(153)
40~44세	90.9	9.1	100.0	(117)
교육수준($\chi^2=34.1^{***}$)				
고졸 이하	74.8	25.2	100.0	(312)
대학 재학	67.1	32.9	100.0	(295)
대졸 이상	84.4	15.6	100.0	(533)
취업 여부($\chi^2=14.6^{***}$)				
취업	81.1	18.9	100.0	(701)
비취업	71.3	28.7	100.0	(439)
결혼 의향($\chi^2=1.2$)				
있음	78.5	21.5	100.0	(670)
없음/모르겠음	75.6	24.4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85.0	15.0	100.0	(1,324)
거주지($\chi^2=0.3$)				
대도시	85.4	14.6	100.0	(675)
중소도시	84.4	15.6	100.0	(498)
농촌	85.0	15.0	100.0	(152)
연령($\chi^2=21.5^{***}$)				
20~24세	79.1	20.9	100.0	(477)
25~29세	88.7	11.3	100.0	(399)
30~34세	87.2	12.8	100.0	(205)
35~39세	89.8	10.2	100.0	(149)
40~44세	86.5	13.5	100.0	(95)
교육 수준($\chi^2=13.5^{**}$)				
고졸 이하	79.0	21.0	100.0	(182)
대학 재학	80.5	19.5	100.0	(253)
대졸 이상	87.5	12.5	100.0	(890)
취업 여부($\chi^2=15.4^{***}$)				
취업	87.6	12.4	100.0	(897)
비취업	79.4	20.6	100.0	(427)
결혼 의향($\chi^2=0.1$)				
있음	84.6	15.4	100.0	(601)
없음/모르겠음	85.3	14.7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그 중요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혼 남성은 61.4%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7.5%가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해 88.9%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은 72.7%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1.6%는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해 94.3%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3-18〉 미혼 남녀(20~44세)의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1.4	27.5	7.9	3.1	-	0.2	100.0	(881)
거주지								
대도시	61.1	26.8	7.8	4.3	-	-	100.0	(418)
중소도시	61.9	27.9	8.3	1.6	-	0.3	100.0	(329)
농촌	61.1	28.7	7.2	2.5	-	0.4	100.0	(134)
연령								
20~24세	65.2	24.6	7.4	2.2	-	0.6	100.0	(227)
25~29세	59.8	28.9	7.9	3.4	-	-	100.0	(251)
30~34세	62.2	27.6	9.8	0.4	-	-	100.0	(169)
35~39세	64.4	22.6	7.7	5.3	-	-	100.0	(128)
40~44세	52.1	35.8	6.4	5.6	-	-	100.0	(107)
교육수준								
고졸 이하	65.3	25.6	6.8	2.0	-	0.2	100.0	(233)
대학 재학	60.5	27.8	8.1	3.1	-	0.4	100.0	(198)
대졸 이상	59.7	28.3	8.4	3.6	-	-	100.0	(450)
취업 여부								
취업	60.6	27.9	8.5	2.9	-	0.1	100.0	(568)
비취업	62.9	26.7	6.8	3.3	-	0.3	100.0	(313)
결혼 의향								
있음	66.1	24.1	6.5	3.0	-	0.3	100.0	(526)
없음/모르겠음	54.5	32.4	10.0	3.1	-	-	100.0	(355)
미혼 여성 전체	72.7	21.6	5.3	0.3	0.1	-	100.0	(1,125)
거주지								
대도시	72.2	21.8	5.7	0.1	0.1	-	100.0	(576)
중소도시	73.5	22.0	4.2	0.3	-	-	100.0	(420)
농촌	72.2	20.0	7.3	0.5	-	-	100.0	(129)

〈표 13-18〉 계속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연령								
20~24세	74.9	20.3	4.3	0.2	0.2	-	100.0	(377)
25~29세	76.4	21.3	2.3	-	-	-	100.0	(354)
30~34세	75.4	18.6	5.3	0.8	-	-	100.0	(179)
35~39세	60.3	24.7	15.0	-	-	-	100.0	(134)
40~44세	61.1	30.9	7.1	0.9	-	-	100.0	(82)
교육수준								
고졸 이하	71.2	22.2	5.5	1.1	-	-	100.0	(143)
대학 재학	77.0	18.0	4.6	-	0.4	-	100.0	(203)
대졸 이상	71.8	22.5	5.5	0.2	-	-	100.0	(779)
취업 여부								
취업	73.1	20.6	6.0	0.3	-	-	100.0	(786)
비취업	71.7	24.0	3.8	0.2	0.3	-	100.0	(339)
결혼 의향								
있음	78.3	17.3	3.9	0.4	-	-	100.0	(508)
없음/모르겠음	68.1	25.2	6.5	0.1	0.1	-	100.0	(617)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중요도

미혼 남녀가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중 먼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알아보면, 미혼 남성의 62.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미혼 여성 중에서는 73.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대해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미혼 남성은 54.9%가 인지하고 있었고, 대졸 이상의 경우는 68.9%가 인지하고 있어 교육수준에 따라 이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도 교육수준에 따라 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 이하의 미혼 여성은 62.3%, 대졸 이상의 미혼 여성은 77.2%가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혼 여성은 취업을 한 경우 74.9%가 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69.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결혼 의향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3-19〉 미혼 남녀(20~44세)의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2.6	37.4	100.0	(1,140)
거주지($\chi^2=1.2$)				
대도시	64.0	36.0	100.0	(539)
중소도시	61.9	38.1	100.0	(435)
농촌	59.7	40.3	100.0	(166)
연령($\chi^2=5.4$)				
20~24세	59.3	40.7	100.0	(351)
25~29세	61.0	39.0	100.0	(325)
30~34세	63.7	36.3	100.0	(194)
35~39세	66.7	33.3	100.0	(153)
40~44세	69.4	30.6	100.0	(117)
교육수준($\chi^2=18.3^{***}$)				
고졸 이하	54.9	45.1	100.0	(312)
대학 재학	59.3	40.7	100.0	(295)
대졸 이상	68.9	31.1	100.0	(533)
취업 여부($\chi^2=0.4$)				
취업	63.3	36.7	100.0	(701)
비취업	61.4	38.6	100.0	(439)
결혼 의향($\chi^2=1.0$)				
있음	63.8	36.2	100.0	(670)
없음/모르겠음	60.8	39.2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73.1	26.9	100.0	(1,324)
거주지($\chi^2=0.7$)				
대도시	73.8	26.2	100.0	(675)
중소도시	72.8	27.2	100.0	(498)
농촌	70.5	29.5	100.0	(152)
연령($\chi^2=7.2$)				
20~24세	69.3	30.7	100.0	(477)
25~29세	74.4	25.6	100.0	(399)
30~34세	74.4	25.6	100.0	(205)
35~39세	74.5	25.5	100.0	(149)
40~44세	80.9	19.1	100.0	(95)
교육수준($\chi^2=24.5^{***}$)				
고졸 이하	62.3	37.7	100.0	(182)
대학 재학	66.4	33.6	100.0	(253)
대졸 이상	77.2	22.8	100.0	(890)

〈표 13-19〉 계속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취업 여부($\chi^2=5.0^*$)				
취업	74.9	25.1	100.0	(897)
비취업	69.2	30.8	100.0	(427)
결혼 의향($\chi^2=6.7^*$)				
있음	76.5	23.5	100.0	(601)
없음/모르겠음	70.2	29.8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그 중요도를 알아보면, 역시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기는 했지만,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합쳐 보면 남성의 93.6%, 여성의 95.1%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20〉 미혼 남녀(20~44세)의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9.9	23.7	4.9	0.8	0.2	0.5	100.0	(713)
거주지								
대도시	66.7	26.7	6.3	0.3	-	-	100.0	(345)
중소도시	72.2	20.5	4.6	1.0	0.3	1.4	100.0	(269)
농촌	75.1	22.0	0.5	1.7	0.6	-	100.0	(99)
연령								
20~24세	66.6	23.6	7.6	0.5	0.4	1.3	100.0	(208)
25~29세	67.1	27.1	4.8	1.0	-	-	100.0	(198)
30~34세	73.3	18.3	6.5	0.5	0.5	0.9	100.0	(123)
35~39세	79.7	19.1	1.3	-	-	-	100.0	(102)
40~44세	68.0	29.9	-	2.2	-	-	100.0	(81)

〈표 13-20〉 계속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교육수준								
고졸 이하	72.9	21.4	4.9	0.4	0.4	-	100.0	(171)
대학 재학	66.4	22.9	8.6	0.6	-	1.5	100.0	(175)
대졸 이상	70.2	25.2	3.0	1.0	0.2	0.3	100.0	(367)
취업 여부								
취업	73.0	22.2	4.0	0.7	0.1	-	100.0	(444)
비취업	64.9	26.2	6.2	0.9	0.3	1.4	100.0	(270)
결혼 의향								
있음	72.0	22.1	4.5	0.6	0.1	0.6	100.0	(427)
없음/모르겠음	66.8	26.2	5.3	0.9	0.3	0.4	100.0	(286)
미혼 여성 전체	73.3	21.8	4.4	0.5	0.1	-	100.0	(968)
거주지								
대도시	71.8	23.0	5.1	0.2	-	-	100.0	(498)
중소도시	73.7	21.6	3.8	0.6	0.2	-	100.0	(363)
농촌	79.1	16.6	2.8	1.5	-	-	100.0	(107)
연령								
20~24세	69.5	24.9	4.6	0.8	0.2	-	100.0	(330)
25~29세	73.9	22.0	4.1	-	-	-	100.0	(297)
30~34세	85.0	10.1	3.9	0.9	-	-	100.0	(152)
35~39세	70.3	22.3	7.5	-	-	-	100.0	(111)
40~44세	68.7	29.5	0.9	0.9	-	-	100.0	(77)
교육수준								
고졸 이하	68.9	28.6	1.9	0.6	-	-	100.0	(113)
대학 재학	69.4	24.8	5.1	0.7	-	-	100.0	(168)
대졸 이상	75.0	19.9	4.6	0.4	0.1	-	100.0	(687)
취업 여부								
취업	74.1	21.2	4.2	0.4	0.1	-	100.0	(672)
비취업	71.6	22.9	4.8	0.6	-	-	100.0	(295)
결혼 의향								
있음	74.7	21.8	2.9	0.5	0.2	-	100.0	(459)
없음/모르겠음	72.1	21.8	5.7	0.5	-	-	100.0	(508)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알아본 돌봄 정책은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다. 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치원 비용 지원에 대해 미혼 남성은 67.1%, 미혼 여성은 74.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 중 20~24세 집단은 56.4%만이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고, 35~39세 집단은 80.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집단에 따

라 인지 여부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 결혼 의향에 따라서도 이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에 차이를 보였다.

미혼 여성도 연령에 따라 이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24세 미혼 여성은 65.1%가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고, 40~44세 미혼 여성은 86.4%가 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연령 집단에 따라 인지 여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양육 및 보육비 지원 정책은 결혼 지원이나 임신 및 출산 지원보다 미혼 남녀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낮은 연령일수록 인지도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연령에 따른 인지 여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3-21〉 미혼 남녀(20~44세)의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7.1	32.9	100.0	(1,140)
거주지($\chi^2=3.0$)				
대도시	64.9	35.1	100.0	(539)
중소도시	68.2	31.8	100.0	(435)
농촌	71.6	28.4	100.0	(166)
연령($\chi^2=38.3^{***}$)				
20~24세	56.4	43.6	100.0	(351)
25~29세	65.5	34.5	100.0	(325)
30~34세	73.1	26.9	100.0	(194)
35~39세	80.5	19.5	100.0	(153)
40~44세	76.1	23.9	100.0	(117)
교육수준($\chi^2=15.5^{***}$)				
고졸 이하	64.1	35.9	100.0	(312)
대학 재학	60.2	39.8	100.0	(295)
대졸 이상	72.7	27.3	100.0	(533)
취업 여부($\chi^2=15.7^{***}$)				
취업	71.4	28.6	100.0	(701)
비취업	60.2	39.8	100.0	(439)
결혼 의향($\chi^2=8.7^{**}$)				
있음	70.5	29.5	100.0	(670)
없음/모르겠음	62.2	37.8	100.0	(470)

〈표 13-21〉 계속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여성 전체	74.7	25.3	100.0	(1,324)
거주지($\chi^2=2.9$)				
대도시	72.7	27.3	100.0	(675)
중소도시	77.0	23.0	100.0	(498)
농촌	76.2	23.8	100.0	(152)
연령($\chi^2=44.7^{***}$)				
20~24세	65.1	34.9	100.0	(477)
25~29세	77.1	22.9	100.0	(399)
30~34세	85.2	14.8	100.0	(205)
35~39세	77.1	22.9	100.0	(149)
40~44세	86.4	13.6	100.0	(95)
교육수준($\chi^2=33.9^{***}$)				
고졸 이하	74.0	26.0	100.0	(182)
대학 재학	60.7	39.3	100.0	(253)
대졸 이상	78.8	21.2	100.0	(890)
취업 여부($\chi^2=14.6^{***}$)				
취업	77.8	22.2	100.0	(897)
비취업	68.0	32.0	100.0	(427)
결혼 의향($\chi^2=8.1^{**}$)				
있음	78.4	21.6	100.0	(601)
없음/모르겠음	71.6	28.4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미혼 남녀를 중심으로 그 중요도에 대해 알아보면,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요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에는 남성 중 6.2%가 응답하였고, 여성 중에서는 4.1%가 응답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90.0% 이상으로 나타나 이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 보통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13-22〉 미혼 남녀(20~44세)의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68.1	24.5	6.2	0.9	0.2	0.1	100.0	(765)
거주지								
대도시	63.7	27.6	6.3	2.0	0.3	-	100.0	(350)
중소도시	71.6	21.5	6.6	-	-	0.3	100.0	(297)
농촌	71.9	23.0	4.6	-	0.5	-	100.0	(119)
연령								
20~24세	65.8	26.0	7.2	0.5	-	0.4	100.0	(198)
25~29세	67.0	25.9	4.4	2.1	0.5	-	100.0	(213)
30~34세	70.8	19.7	8.1	1.0	0.4	-	100.0	(142)
35~39세	71.8	21.8	6.4	-	-	-	100.0	(123)
40~44세	66.1	29.5	4.4	-	-	-	100.0	(89)
교육수준								
고졸 이하	71.8	23.8	4.1	-	0.3	-	100.0	(200)
대학 재학	64.3	26.0	7.3	1.9	-	0.5	100.0	(178)
대졸 이상	67.9	24.2	6.7	0.9	0.3	-	100.0	(387)
취업 여부								
취업	69.3	25.0	4.8	0.7	0.1	-	100.0	(501)
비취업	65.7	23.6	8.7	1.3	0.4	0.3	100.0	(264)
결혼 의향								
있음	70.4	23.4	5.0	1.0	0.1	0.2	100.0	(473)
없음/모르겠음	64.4	26.4	8.1	0.8	0.4	-	100.0	(292)
미혼 여성 전체	69.3	25.4	4.1	1.2	-	-	100.0	(989)
거주지								
대도시	66.7	25.1	6.1	2.0	-	-	100.0	(490)
중소도시	71.4	27.0	1.6	-	-	-	100.0	(383)
농촌	73.9	21.2	3.7	1.2	-	-	100.0	(116)
연령								
20~24세	69.6	26.2	3.7	0.4	-	-	100.0	(310)
25~29세	67.9	26.3	4.0	1.8	-	-	100.0	(307)
30~34세	74.8	20.6	2.8	1.8	-	-	100.0	(175)
35~39세	68.7	24.0	7.3	-	-	-	100.0	(115)
40~44세	63.3	31.1	4.0	1.6	-	-	100.0	(82)
교육수준								
고졸 이하	73.2	18.3	6.0	2.6	-	-	100.0	(134)
대학 재학	71.0	24.7	4.1	0.3	-	-	100.0	(153)
대졸 이상	68.3	26.9	3.7	1.1	-	-	100.0	(701)
취업 여부								
취업	70.4	24.3	3.7	1.6	-	-	100.0	(699)
비취업	66.8	28.1	4.9	0.2	-	-	100.0	(290)
결혼 의향								
있음	70.5	25.4	3.1	1.0	-	-	100.0	(471)
없음/모르겠음	68.3	25.4	5.0	1.3	-	-	100.0	(518)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이 정책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미혼 남성의 51.0%, 미혼 여성의 67.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돌봄 정책들과 비교해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미혼 남성은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45.2%로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혼 남성은 알고 있는 비율이 55.2%로 고졸의 미혼 남성과 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결혼 의향에 따른 이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은 이 정책에 70.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은 이 정책에 대해 65.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의향에 따라 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표 13-23〉 미혼 남녀(20~44세)의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1.0	49.0	100.0	(1,140)
거주지($\chi^2=0.3$)				
대도시	50.2	49.8	100.0	(539)
중소도시	51.9	48.1	100.0	(435)
농촌	50.9	49.1	100.0	(166)
연령($\chi^2=3.7$)				
20~24세	48.9	51.1	100.0	(351)
25~29세	53.5	46.5	100.0	(325)
30~34세	46.6	53.4	100.0	(194)
35~39세	54.0	46.0	100.0	(153)
40~44세	53.2	46.8	100.0	(117)
교육수준($\chi^2=84^*$)				
고졸 이하	45.2	54.8	100.0	(312)
대학 재학	49.3	50.7	100.0	(295)
대졸 이상	55.2	44.8	100.0	(533)

〈표 13-23〉 계속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취업 여부($\chi^2=1.1$)				
취업	52.3	47.7	100.0	(701)
비취업	48.9	51.1	100.0	(439)
결혼 의향($\chi^2=3.2$)				
있음	53.2	46.8	100.0	(670)
없음/모르겠음	47.8	52.2	100.0	(470)
미혼 여성 전체	67.7	32.3	100.0	(1,324)
거주지($\chi^2=4.4$)				
대도시	68.0	32.0	100.0	(675)
중소도시	65.3	34.7	100.0	(498)
농촌	74.4	25.6	100.0	(152)
연령($\chi^2=9.7$)				
20~24세	64.6	35.4	100.0	(477)
25~29세	68.6	31.4	100.0	(399)
30~34세	69.6	30.4	100.0	(205)
35~39세	65.2	34.8	100.0	(149)
40~44세	79.7	20.3	100.0	(95)
교육수준($\chi^2=4.8$)				
고졸 이하	63.0	37.0	100.0	(182)
대학 재학	64.3	35.7	100.0	(253)
대졸 이상	69.7	30.3	100.0	(890)
취업 여부($\chi^2=2.0$)				
취업	69.0	31.0	100.0	(897)
비취업	65.1	34.9	100.0	(427)
결혼 의향($\chi^2=4.4$)				
있음	70.7	29.3	100.0	(601)
없음/모르겠음	65.3	34.7	100.0	(7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보면, 다른 돌봄 정책보다 남성이 이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볼 수 있다.

미혼 남성의 58.9%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9.0%는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8.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2.6%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87.9%로 나타났다.

〈표 13-24〉 미혼 남녀(20~44세)의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 남성 전체	58.9	29.0	8.6	2.6	0.5	0.3	100.0	(581)
거주지								
대도시	55.3	32.4	8.7	3.1	0.4	-	100.0	(270)
중소도시	60.7	25.5	9.9	2.4	0.8	0.8	100.0	(226)
농촌	65.5	27.8	4.9	1.9	-	-	100.0	(85)
연령								
20~24세	54.2	30.1	11.0	3.2	1.0	0.5	100.0	(171)
25~29세	55.6	30.1	9.1	3.9	0.6	0.5	100.0	(174)
30~34세	57.5	34.8	6.3	1.5	-	-	100.0	(90)
35~39세	72.1	18.9	7.1	1.9	-	-	100.0	(82)
40~44세	65.6	28.1	6.2	-	-	-	100.0	(62)
교육수준								
고졸 이하	73.3	22.1	1.1	2.9	0.6	-	100.0	(141)
대학 재학	53.2	28.6	13.7	3.2	0.8	0.6	100.0	(146)
대졸 이상	54.8	32.6	9.8	2.2	0.3	0.3	100.0	(294)
취업 여부								
취업	61.4	28.5	7.8	2.3	-	-	100.0	(366)
비취업	54.6	29.9	10.1	3.2	1.3	0.8	100.0	(215)
결혼 의향								
있음	59.4	29.7	7.8	2.6	0.3	0.2	100.0	(356)
없음/모르겠음	58.1	28.1	9.9	2.8	0.8	0.4	100.0	(224)
미혼 여성 전체	65.5	27.1	5.9	1.4	0.1	0.1	100.0	(897)
거주지								
대도시	63.6	27.3	7.4	1.7	-	-	100.0	(459)
중소도시	67.8	26.9	4.2	0.8	-	0.2	100.0	(325)
농촌	66.2	26.3	5.1	2.1	0.4	-	100.0	(113)
연령								
20~24세	60.5	29.3	8.2	1.6	0.1	0.2	100.0	(308)
25~29세	62.3	29.5	7.2	1.0	-	-	100.0	(273)
30~34세	80.8	16.3	1.1	1.7	-	-	100.0	(143)
35~39세	66.6	25.9	6.7	0.8	-	-	100.0	(97)
40~44세	66.7	30.6	-	2.6	-	-	100.0	(76)
교육수준								
고졸 이하	70.9	23.1	4.9	0.6	0.4	-	100.0	(114)
대학 재학	60.0	29.5	9.0	1.0	-	0.5	100.0	(162)
대졸 이상	65.9	27.1	5.3	1.7	-	-	100.0	(620)
취업 여부								
취업	67.5	26.2	4.7	1.5	0.1	-	100.0	(619)
비취업	60.9	29.0	8.7	1.1	-	0.3	100.0	(278)
결혼 의향								
있음	65.9	28.0	4.6	1.3	-	0.2	100.0	(425)
없음/모르겠음	65.0	26.2	7.1	1.6	0.1	-	100.0	(472)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5%,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7.1%,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9%,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은 1.4%로 나타나 92.6%가 이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인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전후휴가제도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 모성보호제도는 미혼 남녀가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돌봄 정책 중에서는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주거 지원 정책은 64~65%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었다.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임신·출산 비용 지원 정책으로 특히 남성의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정책으로 유일했다.

〈표 13-2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신혼부부 대상 자금 대출 방식 주거 지원 정책	미혼 남성	64.9	35.1	100.0	(1,140)
	미혼 여성	64.2	35.8	100.0	(1,324)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주택 공급 방식 주거 지원 정책	미혼 남성	64.9	35.1	100.0	(1,140)
	미혼 여성	64.6	35.4	100.0	(1,324)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정책	미혼 남성	43.8	56.2	100.0	(1,140)
	미혼 여성	65.8	34.2	100.0	(1,324)
출산전후휴가제도	미혼 남성	86.4	13.6	100.0	(1,140)
	미혼 여성	90.2	9.8	100.0	(1,324)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미혼 남성	78.4	21.6	100.0	(1,140)
	미혼 여성	83.8	16.2	100.0	(1,324)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미혼 남성	89.5	10.5	100.0	(1,140)
	미혼 여성	93.4	6.6	100.0	(1,324)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미혼 남성	77.3	22.7	100.0	(1,140)
	미혼 여성	85.0	15.0	100.0	(1,324)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정책	미혼 남성	62.6	37.4	100.0	(1,140)
	미혼 여성	73.1	26.9	100.0	(1,324)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미혼 남성	67.1	32.9	100.0	(1,140)
	미혼 여성	74.7	25.3	100.0	(1,324)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	미혼 남성	51.0	49.0	100.0	(1,140)
	미혼 여성	67.7	32.3	100.0	(1,32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알아본 정책의 중요도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그 중요도 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제도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 남성이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 미혼 남성이 보통 수준으로 중요하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화적으로 사용에 제약이 있는 등 존재하는 제도를 남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배경으로 한 결과로 보인다.

〈표 13-26〉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 겠음	계	(명)
신혼부부 대상 자금 대출	미혼 남성	58.9	31.5	7.4	1.8	0.2	0.3	100.0	(740)
방식 주거 지원 정책	미혼 여성	57.5	34.7	7.0	0.6	-	0.2	100.0	(850)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미혼 남성	56.4	32.6	8.0	2.5	0.4	0.1	100.0	(739)
주택 공급 방식 주거 지원 정책	미혼 여성	56.2	34.6	8.4	0.6	-	0.3	100.0	(856)
임신·출산 비용 지원	미혼 남성	58.4	31.0	8.6	1.6	0.2	0.2	100.0	(499)
(국민행복카드) 정책	미혼 여성	64.6	28.0	6.9	0.3	0.1	0.1	100.0	(871)
출산전후휴가제도	미혼 남성	75.1	21.5	2.9	0.3	-	0.2	100.0	(985)
	미혼 여성	80.9	17.5	1.6	0.1	-	-	100.0	(1,195)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미혼 남성	63.7	26.3	7.2	2.8	-	0.1	100.0	(894)
	미혼 여성	72.9	22.0	4.7	0.4	0.1	-	100.0	(1,110)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미혼 남성	75.9	20.8	2.7	0.5	-	0.1	100.0	(1,020)
	미혼 여성	82.4	16.0	1.5	0.1	-	-	100.0	(1,237)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미혼 남성	61.4	27.5	7.9	3.1	-	0.2	100.0	(881)
	미혼 여성	72.7	21.6	5.3	0.3	0.1	-	100.0	(1,125)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정책	미혼 남성	69.9	23.7	4.9	0.8	0.2	0.5	100.0	(713)
	미혼 여성	73.3	21.8	4.4	0.5	0.1	-	100.0	(968)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미혼 남성	68.1	24.5	6.2	0.9	0.2	0.1	100.0	(765)
	미혼 여성	69.3	25.4	4.1	1.2	-	-	100.0	(989)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정책	미혼 남성	58.9	29.0	8.6	2.6	0.5	0.3	100.0	(581)
	미혼 여성	65.5	27.1	5.9	1.4	0.1	0.1	100.0	(89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 남녀가 대부분 사용해 보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 중요도를 생각해 본 결과이기는 하지만, 결혼,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부

결론부

제14장 결론

제1절 요약

본 조사는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태도(가치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로서 가임기(15~49세) 인구를 모집단으로 전국적으로 표본추출한 1만 2000가구 내 기혼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생애주기에 따라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및 정책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1. 결혼

조사 결과 여성들은 혼인 이전에 학업과 직업활동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에서조차도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나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정적 태도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 무자녀 부부 생활, 갈등 해결의 방안으로서의 이혼 선택, 자녀가 있는 가운데 이혼, 재혼 등을 수용하려는 인식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가족과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경우나 결혼식 이전에 동거생활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주거 부담이 최근 20년

사이에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신혼 초의 부담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성과 대출 등으로 인하여 신혼 이후에도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 남녀(20~44세)는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규범의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필요성, 의무 규범, 남성의 전적인 신혼주거 마련 책임, 혼인신고 전 동거 등에서 절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응답자가 전통적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여성들이 혼인관계에서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치관의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응답 성향들도 일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경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응답보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현실적 판단에서는 혼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적 혼인 시기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에서 자신의 연령이 반영된 결과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배우자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을 남성들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미혼 남녀의 이성교제 상황을 보면, 미혼 남성의 25.8%, 미혼 여성의 31.8%가 교제하고 있는 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가 이성교제를 하는 확률이 높았다.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는 ‘친구나 형제자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학교에서’ 알게 되거나 ‘직장 및 일 관계’ 또는 ‘길거리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이성과 60.0% 이상이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남녀 모두 30~34세에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반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

나지 못했기 때문에’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혼자만의 자유로움과 편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로 나타나 미혼 남녀가 결혼이 아닌 연애 관계에서도 자유로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결국 이성교제를 안 하는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안 하는 이유와 선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성교제를 안 하고 있는 비율(남성 51.4%, 여성 64.1%)이 높아서 결혼 단계가 아닌 이성교제 단계에서부터 여성은 선택적으로 교제를 피하고 있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2. 자녀 가치관

기혼 여성 중 약 17%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미혼 남녀에게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미혼 남성(28.9%)보다는 미혼 여성(48.0%)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적 혹은 수단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2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향후 출산을 중단한 이유는 현재 자녀수가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은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적인 규모보다는 자녀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녀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배우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평

균 2.16명이나 기대자녀수는 1.92명으로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혼 남성의 이상자녀수는 남성 1.88명, 미혼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1.83명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 간 차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학력층일수록, 취업 중인 경우에 더 커지고 있다.

무자녀 유배우 여성 중 약 28.9%가 향후 출산 의향이 없으며, 1자녀 유배우 여성 중 69.7%도 출산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의 이유는 주로 본인의 고연령과 난임이며, 1자녀를 두겠다는 이유는 주로 고연령, 자녀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등이다. 즉, 만혼으로 인한 만산이 적은 자녀수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미혼 여성은 자녀로 인해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녀 모두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관련된 가치관 중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 남녀가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 주거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녀가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지만, 자녀가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에 있어서 미혼 여성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적인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여성이 찬성하지 않은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내 부부의 역할과 관련된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에서는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거나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와 같이 아내와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는 평등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욱 강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거나 '2세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등과 같은 자녀에게 필요한 역할과 관련된 부부역할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에서도 전통적인 가족관과 다른 견해들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였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 남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 사이 연결고리가 강한 문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혼인관계 밖의 자녀에 대한 편견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임신과 출산

유배우 여성의 12.1%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유배우 여성 중 난임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52.1%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을 살펴보면,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36.1%)이 가장 컸고,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주된 이유는 신체적으로 힘들어서(24.1%)와 심리적 부담감(18.3%)이 가장 큰 이유였음에도 6.2%만이 상

답이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건강(reproductive health)의 중요한 지표인 산전관리와 산후관리의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기혼 여성은 임신을 하면 출산 전 검진을 받고 있다. 산전관리는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산전수진 여부와 함께 초진 시기도 중요하다. 평균 초진 시기는 5.4주로 나타났으나 최저소득층의 경우 5.8주로 기혼 여성의 특성에 따른 집단 중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산 후 관리는 모성건강, 특히 향후 출산을 위해 중요하다. 조사 대상 기혼 여성 중 산후 기간에 진찰(검진)을 받은 비율(산후수진율)은 94.7%로 산전수진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4. 자녀 양육

남편과의 가사, 육아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가사 분담과 육아 분담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48.0%, 61.1%로 조사되었다. 가사보다는 육아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실제 가사와 육아참여 시간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경우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투입되는 시간은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성역할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인식이 있으며, 특히 영아 돌봄에 대한 책임은 그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돌봄을 위해 희망하는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돌봄 유형

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 시설 이용에 대한 일치도는 0~2세 영아기와 3세~미취학 유아기에 각각 16.7%, 36.5%로 조사되어 영아기의 일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민간시설 이용에 대한 일치도는 각각 82.7%와 95.3%로 높게 조사되었다. 국공립 시설 이용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돌봄·방과후에 대한 일치도는 초등학교 1~3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 각각 75.6%, 66.2%로 영유아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돌봄·방과후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 돌봄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8%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영아기보다는 유아기에, 초등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의 경우, 취업모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와 초등 고학년의 돌봄 욕구가 단순 돌봄 이상의 학습적인 욕구가 반영된 데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불만족 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아기의 경우 ‘장시간 본인 돌봄’이 조사되었으며 유아기에는 이와 함께 ‘짧은 시설 돌봄 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에 장시간 시설 돌봄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초등 자녀의 경우,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서비스 비용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은 초등 고학년의 경우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은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 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책임 기간을 길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가구의 1인당 월 평균 양육비는 73만 3000원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

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에서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용돈 등과 같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 교육비는 전체 양육비 총액의 약 48%로 자녀가 1명인 경우(3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돌봄비용 및 교육비용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5. 기혼 여성의 일·가정양립

첫째 자녀 임신 당시 취업 중이던 기혼 여성의 50.3%가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자녀가 1명인 경우 조사 시점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으며, 15.5%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이 22.5%이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 비율은 23.6%로 전반적으로 첫째 자녀에 비해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줄어든다. 이는 이미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들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은 그 당시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민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경력단절 시기는 첫째 자녀의 경우 임신을 알고난 후 출산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만둔 경우가 81.3%로 가장 많았고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55.5%가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모두 판매직인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을 빨리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가정양립에 대한 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경우에 경력단절이 더욱 쉽게 발생하고 경력단절 시기도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고,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용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무직인 경우, 상용근로자인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거나 민간 대기업인 경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일·가정양립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이러한 제도가 경력단절을 막거나 줄이는 데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 취업 중인 기혼 여성의 55% 정도가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직장 유형이 민간 대기업인 경우 더 높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 압박 등의 측면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6. 정책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 모두 국가나 직장의 결혼·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 국가에서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결혼 정책에 대해서는 신혼집 마련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에 대해서는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이나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자녀 양육 비용 부담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결혼, 임신·출산, 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돌봄,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중요도는 모두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다. 인지도의 경우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도움 정도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중 전세 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과 임대 주택이나 행복주택 공급 두 정책은 인지도가 83~85%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도움 정도도 5점 만점에 4.4~4.5점, 중요도도 5점 만점에 4.6~4.7점으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서는 임신·출산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99.9%로 매우 높았고 중요도도 5점 만점 중 4.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비용 지원에 비해 인지율과 중요도가 약간 낮았다. 도움 정도는 4.2~4.3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지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97.0%로 가장 높았다. 도움 정도와 중요도는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고 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들은 인지율이 모두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움 정도와 중요도도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여성)이 가장 높았다.

미혼 남녀는 정부의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 정책 중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휴가제도,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 모성보호제도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주거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 남녀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정책으로 특히 남성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미혼 남녀는 모든 정책에 대해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그 중요도 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제도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 남성이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혼 남성이 보통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에 제약이 있는 등 존재하는 제도를 남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배경으로 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대부분 사용해 보지 않은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중요도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러한 정책 이용자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사회의 빠른 환경 변화는 과거에 당연시되고 있었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행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미혼남녀의 비혼화와 만혼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라는 개인 생애사적인 사건(event)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적어도 비자발적인 만혼과 비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출산은 법률혼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만혼화와 비혼화는 결국 저출산 현상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기혼 여성 대상 조사 결과 자녀 출산과 양육은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고연령,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상자녀수는 2.16명으로 2015년 조사 결과(2.25명)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조사 결과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는 이상자녀수에 0.41명이 미치지 못했으며, 향후 출산

까지 고려하여도(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에 0.24명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청년층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고용,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 성평등적 문화, 가족친화적이면서 양성평등적인 직장문화의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수행된 조사의 결과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된 학술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제언

1. 조사의 명칭 및 조사 내용

본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출산력’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이 있었다. ‘출산력’은 ‘fertility’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된 용어이며, 1968년 조사에 처음 해당 명칭을 사용한 이후 1985년 조사부터는 해당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력이라는 명칭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조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변경 시에는 어떠한 명칭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용어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우선 출산 혹은 출산력은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학술적인 용어로서 대체용어로 꼽히는 출생은 출산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대체용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기보다는 학술적 용어 이용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출산력은 한 개인이나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갖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학술적 용어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출산력(fertility)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율(fertility rate)과 출생률(birth rate)로 측정되어 분모에 여성 또는 총인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출산율’, ‘~출생률’로 구분되어 출산이라는 인구학적 사건이 노출되는 집단을 성 및 연령에 따라 세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력과 관련된 여러 특성이 핵심 지표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사 명칭이 내용상 정합성이 있으며 오히려 명칭을 변경할 경우, 이러한 지표 산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출산력임을 고려할 때 명칭 변경은 자료 활용 시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출산력이라는 용어가 인구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임은 분명하나 일반인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안적 조사 명칭으로 전문가들은 이전에 수행된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출산이력(history of fertility) 조사’, ‘출산이력, 고용이력 조사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제시였다. 차기 조사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하여 본 조사가 갖고 있는 시계열의 의미를 다소 희석시키더라도 성인지적 관점과 가족의 다양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

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본 조사는 시계열 유지를 위해 많은 문항을 유지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실태조사에서 그치는 내용들이 있다. 향후 조사에서는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된 구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혼 남성의 육아휴직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현상에 관한 인식 문항에서도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항까지 확대하여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조사 내용은 시대의 변화와 출생 관련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대적 태도(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집안일은 공유하여야 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의 직장생활을 격려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아버지도 육아휴직 이용 등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변경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척도 구성을 위해서는 가부장적 태도(patriarchal attitude)와 성평등적 태도(egalitarian attitude)의 양극단에서부터 다양한 층위의 응답이 보기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었던 기존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관한 문항은 가족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에서 포함된 보편적인 문항이다.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 및 태도를 묻는 경우, 극단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문장들이 응답자의 변이를 극대화하여 양적분석에 활용되기 용이하며, 문항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경우 가치 및 태도의 시계열 변화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유지하였다. 즉, 학술적·정책적인 연구목적에 유용한지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및 다른 국가와의 일관된 비교를 위해 유지할 필요도 있다. 다만, 성역할 태도의 변

화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성평등 지향적 태도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여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향후 출산력조사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 동거, 출산 관련 인식·행동과 가족의 출산, 건강 관련 인식·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가족학,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력조사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해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항을 포함하거나 특정한 인구 집단(예컨대 비혼 부모)을 과대표집하며 부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정책적 문제들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조사 대상

통계청에서 출생통계를 공표하면서 합계출산율과 같은 인구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출산력조사에서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출산력조사는 가구조사라는 측면에서 시설 등이 제외됨에 따라 통계청의 수치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여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는 통계청에서 제시할 수 없는 인구의 특성별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다 정확한 합계출산율 산출을 위해 만 15~49세 기혼 여성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만 15~49세 여성으로 조사를 수행한다면 가임기 여성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조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지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가임기 여성 전체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기혼 및 미혼 남성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사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표본 가구 내 남성에게 대해 간략한 필수항목에 대해 아내 등의 다른 응답자를 통해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여성의 가임기는 15~49세 이나 실제 대부분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20세 이후라는 점, 청소년을 제외하는 것이 조사 대상에 대한 연구윤리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출산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 연령을 만 19세부터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조사는 선정된 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기혼 남녀(15~49세)와 미혼 남녀(15~49세)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조사 현장에서 실제 조사는 어려울 것이므로 표본 가구 수를 줄이고, 조사 항목을 간단히 하여 완전조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조사 방식을 선택할 경우 조사원 운용에서 보다 충분한 예산과 조사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조사 항목의 경우도 보다 필수적인 항목으로 한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집단별 조사율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치 작업을 조사하기 전에 치밀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사 방법

출산력조사는 통계청에서 추출한 조사구에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방문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구 내에서 조사 대상자를 만나고 실제로 이들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구 부재 중 방문 시 조사원의 연락처를 남기는 “부재중 알림장”을 활용하였다. 특

히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인 (1) 15~49세 기혼 여성 (2) 20~44세 미혼 남성 (3) 20~44세 미혼 여성이 조사구 내 어느 가구에 거주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 시 부재중인 가구는 재방문 안내장을 붙여 조사 대상자인지, 조사 참여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조사구 내 모든 부재중 가구에 “부재중 알림장”을 문 밖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부재중 스티커의 외부 부착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 말에는 별도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원 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가구방문면접조사의 한계를 바탕으로 통계청 승인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구방문면접조사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조사로 통계청 승인이 가능하다면, 혼용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차 방문 시 표본 가구들의 선호도에 따라 온라인 조사와 가구면접조사를 실시하되 온라인 조사를 선호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구면접조사가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특히 조사 방식이 혼용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도 있겠고, 온라인 조사는 충실성에 한계가 커서 실제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출산력조사는 1960년대부터 지속된 드문 시계열 자료로서 한국 사회의 출산 및 가족생활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유용성의 바탕에는 조사 방법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사환경의 악화, 조사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가구면접조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여 대국민 홍보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기타

출산력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가 끝난 다음 해부터 출산력조사를 활용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공개하고 학술대회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출산력조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 목적,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및 활용도에 대한 국민의 적극 협조 및 이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 사건(event)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3년 주기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구, 인식과 출산행위 및 파급효과, 그리고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많은 연구기관에서 관심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결혼,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출산력조사와 유사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다른 조사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 출산 등과 관련된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 관해 보다 정밀하고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오랜 기간 수행된 조사이며 그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출산력조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과연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학술적 목적과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 산출이라는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차기 조사를 위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차기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김상우. (2016). **저출산 대책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상호, 이삼식, 오윤섭, 고제이, 이소영, 천현숙, 오신휘, 최인선. (2017).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이병재, 박나영, 이봉주, 김태성,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백승호, 함선유, 김화선, 신유미.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성열. (1996). **인구경제론**. 서울: 박영사.
- 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201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2016~2020)**.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김익기, 최효진. (2013).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재선, 김영란, 송치선, 한진영, 손창균, 차지영, 이진숙, 임연규. (2017).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영란, 주재선, 김소영, 오현경, 김수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영란, 김소영. (2014). **제3차 가족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0). **2010년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01&conn_path=I2에서 2018. 5. 1. 인출.

통계청. (2016). **2016년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1&conn_path=I2에서 2018. 5. 1. 인출.

통계청. (2017. 12. 15.).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2018).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2018. 3. 21.). 2017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2&conn_path=I3에서 2018. 9. 13. 인출.

WHO. (2003). What is the efficacy/effectiveness of antenatal care and the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implications?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s Health Evidence Network (HEN). December 2003.

WHO 홈페이지(<https://www.who.int/reproductivehealth/topics/infertility/definitions/en/>)에서 2018. 10. 30. 인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14701호 (2017).

<2018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조사표>

1. 기혼 여성(15~49세)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만 15~49세 기혼여성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구, 보건 및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서 15~49세 기혼여성 조사와 20~44세 미혼남녀 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지역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표본추출 되었으며, 귀택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조사내용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사회조사팀
044-287-8264, 044-287-8166

조사구 번호 조사구특성

행정코드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구내 조사원표가구 일련번호		기혼여성		
												가구내 조사대상 기혼여성 총 수(명)	가구내 조사원표 기혼여성 일련번호	가구내 조사원표 기혼여성 가구원 번호

신주소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성 H.P.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장기출타 ③ 늦은귀가 ④ 사설 ⑤ 빈집 ⑥ 외국인 ⑦ 기러기 ⑧ 어린이집 ⑨ 응답거절 ⑩ 기타(미완) ⑪ 기타(제외)												
2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장기출타 ③ 늦은귀가 ④ 사설 ⑤ 빈집 ⑥ 외국인 ⑦ 기러기 ⑧ 어린이집 ⑨ 응답거절 ⑩ 기타(미완) ⑪ 기타(제외)												
3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장기출타 ③ 늦은귀가 ④ 사설 ⑤ 빈집 ⑥ 외국인 ⑦ 기러기 ⑧ 어린이집 ⑨ 응답거절 ⑩ 기타(미완) ⑪ 기타(제외)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454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이 닥(가구)에서 상주하고 있는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가구내 조식(밥)을 제공하는 사람(조식제공자)의 수

2. 가구내 조식(밥)을 제공받는 사람(조식수용자)의 수

3. 동거가족의 수

4. 동거가족의 수

구분	5-1. 가구원 이름	5-2. 가구원과의 관계	5-3. 성	5-4. 연령	5-5. 교육수준	5-6. 혼인상태	5-7. 직업	5-8. 종교	5-9. 국적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1									
2									
3									
4									
5									
6									
7									
8									
9									

조식제공자, 조식수용자의 비율,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관한 사항

5-1. 가구원 이름

5-2. 가구원과의 관계

5-3. 성

5-4. 연령

5-5. 교육수준

5-6. 혼인상태

5-7. 직업

5-8. 종교

5-9. 국적

구분	5-1. 가구원 이름	5-2. 가구원과의 관계	5-3. 성	5-4. 연령	5-5. 교육수준	5-6. 혼인상태	5-7. 직업	5-8. 종교	5-9. 국적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가정원장
21									
22									
23									
24									
25									
26									

가구의 일반특성

1.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 ③ 연립주택 | ④ 다세대 주택 |
|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 ⑥ 오피스텔 |
| ⑦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 ⑨ 판잣집, 빌라하우스 | ⑩ 기타(무엇: _____) |

--	--

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이며, 주택의 시가 혹은 임차비용은 얼마입니까?

- | 주택 점유형태 | 시가 혹은 임차 금액 |
|-----------------------------|-------------------------------|
| ① 자가 | ⇒ 시가 _____ 만원 |
| ② 전세(월세 없음) | ⇒ 전세보증금 _____ 만원 |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 보증금 _____ 만원, 월세 월 _____ 만원 |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 월세 월 _____ 만원 |
| ⑤ 사글세 | ⇒ 사글세 월 _____ 만원 |
| ⑥ 무상(관사, 사택 등) ⇒ (질문 4로 이동) | |

--

구입보증금

--	--	--	--	--	--	--	--	--	--

 만원
월세·사글세

--	--	--	--	--	--	--	--	--	--

 만원

2-1. (주택 점유형태 전세, 월세, 사글세인 경우)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임대주택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3. 현재 살고 계신 집을 구입 혹은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으셨습니까?

- ① 받았음 ② 받지 않았음

--

4. 가구원 중 누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조사원: 비동거 가구원(남편, 미혼자녀)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질문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

5. (지난 3개월 간)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 공제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 1)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	--	--	--	--	--	--	--	--	--

- 2) 계산·금융·개인연금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	--	--	--	--	--	--	--	--	--

- 3) 공적이전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	--	--	--	--	--	--	--	--	--

- 4) 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 등) 월평균 _____ 만원

--	--	--	--	--	--	--	--	--	--

총액 (CAPIT로 자동 계산)

월평균 _____ 만원

--	--	--	--	--	--	--	--	--	--

1. 결혼 전 거주지 관련 사항

- ## II. 결혼에 관한 태도

- | | | |
|----|--|--|
| 남자 | | |
| 여자 | | |

4. 가족에 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2)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①	②	③	④
6)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8)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길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III. 결혼 관련 사항

※조사원: ◆표시가 있는 문항은 이혼, 별거(이혼 전제), 사별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미혼모인 경우 <III-IV>를 질문하지 않고 “V. 결혼 정책 관련 사항”으로 이동합니다.

◆5. 현재 남편과 언제부터 함께 사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년			월
--	--	--	--	--	--	---	--	--	---

◆6.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① 혼인신고 하였음 (_____년 _____월)

② 혼인신고 하지 않았음

						년			월
--	--	--	--	--	--	---	--	--	---

◆7. 현재 남편과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① 결혼식 하였음 (_____년 _____월)

② 결혼식 하지 않았음

						년			월
--	--	--	--	--	--	---	--	--	---

◆8. 귀하께서는 언제부터를 현재 남편과 결혼생활을 시작한 시점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 ② 혼인신고를 한 시점 ③ 결혼식을 한 시점

CAP에서 자동입력

_____년 _____월

						년			월
--	--	--	--	--	--	---	--	--	---

45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조사원: 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 <질문 9>~<질문 10>은 직전 결혼을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9.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실제 함께 살, 결혼식, 혼인신고를 어떤 순서로 진행 하셨습니까?

- ① 함께 살 → 결혼식 → 혼인신고 ② 함께 살 → 혼인신고 → 결혼식
 ③ 결혼식 → 함께 살 → 혼인신고 ④ 결혼식 → 혼인신고 → 함께 살
 ⑤ 혼인신고 → 함께 살 → 결혼식 ⑥ 혼인신고 → 결혼식 → 함께 살
 ⑦ 함께 살 → 결혼식(혼인신고 안함) ⑧ 결혼식 → 함께 살(혼인신고 안함)
 ⑨ 함께 살 → 혼인신고(결혼식 안함) ⑩ 혼인신고 → 함께 살(결혼식 안함)
 ⑪ 함께 살(결혼식, 혼인신고 안함) ⑫ 기타

--	--

10. 귀하와 배우자는 지금까지 몇 번 결혼하셨습니다?

1) 본인 : _____ 번째

2) 남편 : _____ 번째

본인 번째 남편 번째

11. 다음은 귀하의 과거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원: 응답 여성이 한 번이라도 이혼, 별거(이혼 전제),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
1) 혼인시기	년 월	년 월	년 월
2) 혼인 종료시기	년 월	년 월	년 월
3) 혼인 종료 형태 ① 이혼 ② 별거(이혼 전제) ③ 사별			
4) 당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수	명	명	명
5) 당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 중 현재 같이 사는 자녀수	명	명	명

※ 네 번 이상인 경우 네 번째 결혼, 다섯 번째 결혼 등 이어서 질문

IV. 본인의 결혼 비용

※조사항: 미혼모를 제외하고 모두 질문하며,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12. 결혼 당시 본인이 지출한 결혼비용이 부담되었습니까?

- ① 매우 부담되었음 ② 부담되는 편이었음
③ 부담되지 않았음 ④ 전혀 부담되지 않았음

☐

13. 결혼 당시 주택을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미련하셨습니까?

- ① 자가 (구입 _____ 만원)
② 전세 (전세 보증금 _____ 만원)
③ 보증부월세(반전세) (보증금 _____ 만원, 월세 _____ 만원)
④ 월세 (월세 _____ 만원)
⑤ 사글세 (사글세 _____ 만원)
⑥ (시택/친정) 부모집에서 무상으로 거주 (같이 사는 경우도 포함)
⑦ 관사·사택(무상인 경우)
⑧ 기타 (무엇 : _____)

⇒(14번으로 이동)

☐

구입보증금

--	--	--	--	--	--	--	--	--	--

 만원
월세·사글세

--	--	--	--	--	--	--	--	--	--

 만원

13-1.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본인 또는 남편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 ① 예 (_____ 만원) ② 아니오

☐

--	--	--	--	--	--	--	--	--	--

 만원

V. 결혼 정책 관련 사항

14. 귀하는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 (질문 14-1로 이동) ② 다소 필요함 ⇒ (질문 14-1로 이동)
③ 별로 필요없음 ④ 전혀 필요없음

☐

14-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실업 문제 해소 ② 청년 고용 안정화(비정규직 문제 등 해소)
③ 신혼집 마련 지원 ④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⑤ 장시간 근로관행 등 직장문화 개선 ⑥ 기타 (무엇 : _____)

☐

※조사항: 15번 문항은 초혼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사람에게만 질문합니다.

15. 정부의 다음 결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15-1. 인지 여부		15-2. 이용 경험 (15-1. ①항목)		15-2-1. 도움 받은 정도 (15-2. ①항목)						15-3. 중요도 (15-2. ①항목)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받지 못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모르겠음
1)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세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2)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영역 2. 임신 · 출산 · 피임에 관한 사항

1.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1. 지금까지 총 몇 번 임신하셨습니다? (※현 임신과 과거 유산 및 사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
총 _____ 번 임신

※조사원: 임신 횟수가 "0"회인 경우 <질문 2>에 '0'으로 처리하고, <질문 5>로 이동합니다.

임신 횟수별로 임신 당시 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순위	1-1. 임신시기	1-2 임신중 변화는 없었 는지 여부	1-3 임신 방법	1-4. 임신 당시 태아수	1-5 임신 출생 여부 및 시기	1-6 임신 결과 ※1-6에서 '임신 중'인 경우 질문하지 않습니다	1-7. 빈궁임신중절 이유
		①원할 때 출생 했음	①자연 임신 임신 기술	①태아 ②태아 ③태아 이상 ④도움	① 임신출생 (시기: _____년 ____월) ②임신 중	①출생 (년 ____월, 어 ____월) ②나신 ③출생과 임신 동시기 발생 (출생: 년 ____월, 어 ____월) ④자연유산 ⑤임신중산중절	①원하는 만큼 자녀 출산 ②기술 조작 ③담부 건강상/자궁외임신 ④배아 이상 ⑤조산 발생 ⑥가정 문제 ⑦경제적 곤란 ⑧배아가 말아졌으므로 ⑨배아가 아물어졌으므로 ⑩합법종이여서 ⑪기타(무엇,)
첫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두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세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네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다섯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여섯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일곱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여덟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아홉 번째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코시인: <필요 1>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을 기입하십시오.

총 임신횟수 =	출생	+ 사산	+ 출생과 사산 등시 발생	+ 자연유산	+ 인공임신중절	+ 현 임신
회	회	회	회	회	회	회

- 2.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조사원: 분기(출가), 사망한 자녀를 모두 포함하되, 입양 자녀는 제외합니다.

앞의 임신력 사항에서 조사한 총 출생이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총 _____명,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상 명 아들 명 딸 명

3. 지금까지 출산한 자녀 중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총 _____명,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② 없다

총 명 아들 명 딸 명

4. 결혼 당시 몇 명의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었습니까?

(※조사원: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미혼도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 ① 총 _____명
② 생각해보기 않았음

총 명

5. 결혼 당시 자녀에 대해 선호하는 성별이 있었습니까?

(※조사원: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미혼도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 ① 남아 선호 ② 여아 선호
③ 선호 없었음 ④ 생각해보기 않았음

※조사원: ▲표시가 있는 문항은 미혼도, 이혼, 별거(이혼 전제), 사별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6.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현재 임신은 제외)

- ① 낳을 생각이다 (____명)
② 낳지 않을 생각이다 ⇒ (질문 6-2로 이동)
③ 생각중이다(모르겠음) ⇒ (질문 7로 이동)

총 명

◆6-1. (낳을 생각이라면) 딸 아들 구별해서입니까? 구별 없이입니까?

- ① 딸·아들 구별 없이
② 딸·아들 구별해서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 (질문 7로 이동)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명 아들 명 딸 명

◆6-2. (낳지 않을 생각이라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합니다.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88'로 기입합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순위 2순위

보 기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⑤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⑥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때문에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⑩ 아이가 행복하기 살기 힘든 사회여서
⑪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⑫ 본인 또는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⑬ 사·상권을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⑭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⑮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⑯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⑰ 아이가 많아서
⑱ 가정 내에서의 양육 및 가사가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⑲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⑳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외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㉑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㉒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㉓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㉔ 나이가 많아서
㉕ 기타(무엇: _____)

II.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7. 귀하께서는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③ 없어도 무관하다 ☐ ⇒ (질문 7-2로 이동)
 ④ 모르겠다 ☐ ⇒ (질문 8로 이동)

7-1.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문(대)를 잇기 위해서 ☐
 ②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원해서
 ③ 노후생활을 위해서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돈든하다, 율타리가 된다, 알보이지 않는다)
 ⑥ 주변 사람들이 자녀를 다 갖는 분위기여서
 ⑦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⑧ 기타(무엇:)

※조사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질문 7-1 응답 후 질문 8로 이동합니다.

7-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
 ②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⑤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⑥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⑦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⑧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
 ⑨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⑩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⑪ 기타(무엇:)

8.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상자녀수: 총 명
 ② 잘 모르겠다 ☐

9. 인생에서 추구해 볼 만한 목표의 실현과 자녀의 수가 관계가 있다면, 다음의 각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자녀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자녀수				자녀수와 관계없다
	0명	1명	2명	3명 이상	
1)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⑤	①	②	③	④
2)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	⑤	①	②	③	④
3)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⑤	①	②	③	④
4)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	⑤	①	②	③	④
5)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	⑤	①	②	③	④

10.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친성	대체로 친성	별로 친성 하지 않음	전혀 친성 하지 않음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III. 피임에 관한 사항

※조사원: 응답 여성이 미혼모이거나 이혼, 별거(이혼 전제) 혹은 사별한 경우에는 ♠표시가 있는 문항을 질문하지 않고 <영역 3. 산전·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합니다.

♠11.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피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15로 이동)

1

♠12.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현재 피임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13으로 이동)

--	--

※ 조사원: 【질문 12~1】 ~ 【질문 12~2】 는 현재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질문합니다.

♠12-1. 귀하와 배우자께서 현재 피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단산 ⇒ (질문 12-2로 이동) ② 출산연기
③ 기타(무엇:) ⇒ (질문 12-2로 이동)

--	--

♠12-1-1. 출산을 연기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태울 지킬 때문에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고상한 자태 불인정해서 ④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⑥ 출신으로 인한 직장 차별 때문에
⑦ 사회활동에 지강을 주어서 ⑧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⑨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⑩ 경제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⑪ 기타()

--	--

♠12-2. 귀하와 배우자께서 현재 사용 중인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경치
④ 사진 경구 피임약 ⑤ 사후 경구 피임약(응급 피임약) ⑥ 콘돔
⑦ 질살정제 ⑧ 월경주기법 ⑨ 질외사정법
⑩ 기타()

--	--

[illegible]

※ 조사원: <IV.난임(불임)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합니다.

※ 조사원 【질문 13】 ~ 【질문 14-1】 은 현재 피임을 중단한 경우에만 질문합니다.

◆13. 귀하와 배우자께서 사용해 본 피임방법 중 맨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난관수술 | ② 정관수술 | ③ 자궁내장치 |
| ④ 사전 경구 피임약 | ⑤ 사후 경구 피임약(응급 피임약) | ⑥ 콘돔 |
| ⑦ 질살정제 | ⑧ 월경주기법 | ⑨ 질외사정법 |
| ⑩ 기타() | | |

◆14. 피임을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를 갖기 위해서
② 피임중 임신이 되어서
③ 자궁내장치(IUD)가 자연 배출 되어서
④ 사용이 불편해서
⑤ 부작용 때문에
⑥ 일시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경기출장, 산후무월경 등)

⑦ 영구적으로 더이상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 ⇒ 14-1.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⑧ 기타(무엇:)
① 자궁적출
② 폐경
③ 양측나팔관 제거
④ 기타(무엇:)

※ 조사원 여기에서 질문을 종료하고 질문 16으로 이동합니다.

※ 조사원 【질문 15】 는 현 배우자와의 피임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질문합니다.

◆15. 귀하와 배우자께서 혼인 후 피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연분만 때문에
② 자녀를 위해서
③ 피임방법을 잘 몰라서
④ 일시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경기출장, 해외취업, 산후무월경 등)
⑤ 기타(무엇:)

※ 조사원 질문 16으로 이동합니다.

※ 조사원 【질문 16】 ~ 【질문 16-1】 은 현재 피임을 중단 혹은 현 배우자와의 피임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질문합니다.

◆16.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앞으로 피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 (질문 17로 이동)

◆16-1. (피임할 생각이 있는 경우)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난관수술 | ② 정관수술 | ③ 자궁내장치 |
| ④ 사전 경구 피임약 | ⑤ 사후 경구 피임약(응급 피임약) | ⑥ 콘돔 |
| ⑦ 질살정제 | ⑧ 월경주기법 | ⑨ 질외사정법 |
| ⑩ 난관이든 정관이든 불임수술 | ⑪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 |
| ⑫ 기타(무엇:) | | |

IV. 난임(불임)에 관한 사항

- ◆17.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임신 시도 후 최소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영역 3으로 이동)

10

- ◆ 18.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병원에서 난임(불임) 진단을 받았습니까?
- ① 받았다 ② 받지 않았다 ⇒ (영역 3으로 이동)

5

- ♣19. 난임(불임) 진단 결과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 | | |
|-----------|---------------|
| ① 부인에게만 | ② 남편에게만 |
| ③ 부부 모두에게 | ④ 부부 모두 원인 불명 |
- ⇒ (결론 20으로 이동)

11

- ♠19-1.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최대 두 가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부인 (최대 2가지)	① 나팔관(난관) 장애	② 폐관 장애	③ 열색채 이상		
	④ 자궁경관 요인	⑤ 자궁내막 요인	⑥ 조기 폐경		
	⑦ 습관성 유산	⑧ 기타(무양:)	⑨ 잘 모르겠다		
남편 (최대 2가지)	① 무정자증	② 희소정자증	③ 정자무력증		
	④ 열색채 이상	⑤ 기타(무양:)	⑥ 잘 모르겠다		

부인		
남편		

- ♠20.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그동안 난임(불임)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부인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21로 이동)
남편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21로 이동)

부인

- ♠ 20-1.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어디서 난임(불임) 치료를 받았습니까? 모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부인 ① 양방병원 ② 한방병원 ③ 기타(어디:)
남편 ① 양방병원 ② 한방병원 ③ 기타(어디:)

부인 ☐ ☐ ☐

남편 ☐ ☐ ☐

- ◆21.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그동안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각각 몇 회를 받았습니까?
① 있음 (인공수정 ____회, 체외수정 ____회) ⇒ (질문 21-1로 이동)
② 없음 ⇒ (질문 21-2로 이동)

인공수정

--	--

 채외수정

--	--

- ♠ 21-1.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시술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임신 후 출산 ② 현재 임신 중 ③ 임신 후 출산 실패
④ 임신 실패 ⑤ 현재 시술 중

--	--

- ♠ 21-1-1.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시술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②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때문에
③ 남편의 비협조와 무시 때문에 ④ 가족의 편견 때문에
⑤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⑥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⑦ 시간이 없어서 ⑧ 직장 때문에
⑨ 기타(무엇:)

--	--

◆ 21-1-2.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22로 이동)

☐

◆ 21-1-3.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경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②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③ 영구불임 판정을 받아서 ④ 심리적 부담 때문에
 ⑤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⑥ 가족의 비협조 때문에
 ⑦ 시간이 없어서 ⑧ 직장 때문에
 ⑨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⑩ 치료에 성공해서
 ⑪ 시술에 성공해서 ⑫ 자연임신이 되어서
 ⑬ 기타(무엇: _____)

⇒ (질문 22로 이동)

☐

◆ 21-2. (시술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②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③ 영구불임 판정을 받아서 ④ 심리적 부담 때문에
 ⑤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⑥ 가족의 비협조 때문에
 ⑦ 시간이 없어서 ⑧ 정보가 없어서
 ⑨ 직장 때문에 ⑩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⑪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⑫ 치료에 성공해서
 ⑬ 자연임신을 더 시도하려고
 ⑭ 기타(무엇: _____)

☐

◆ 22.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영역 3. 산전·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사원 201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현존자녀 유무를 확인하여 아래 해당란에 표시한 후 질문을 시작하되, 이 기간 중 태어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할 때에는 아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질문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존자녀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영역 4로 이동)

☐

• 조사대상아의
 인적사항:
 (가구원 번호: _____) ① 생년월일(양력): 20__년 ____월 (※월 단위까지 코딩)
 ② 만 연령: ____년 ____개월 (※조사 당일부터 계산하여 개월로 환산)
 ③ 이름: _____
 ④ ○○(이)의 출생순위: ____번째

①생년월 년 월
 ②만 연령 년 개월
 ③출생순위 번째

46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8. ○○(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산후조리원 ☐② 조산소 ☐③ 산부인과 ☐④ 산부인과 외 병·의원
☐⑤ 본인 집 ☐⑥ 친정 ☐⑦ 서댁
☐⑧ 기타(어디:)

※조산원, 질병, 재활치료, 건강이상 등의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한 기간은 산후조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9. ○○(이) 출산 후(6주 간)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으로 모두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도우미 비용,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시댁 부모님께 드린 돈 등 모두 포함)

총 _____ 만원

				만원
--	--	--	--	----

10. 정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10-1. 인지 여부		10-2. 이용 경험 (10-1. ①응답)		10-2-1. 도움 받은 정도 (10-2. ①~⑧응답)						10-3. 중요도 (10-1. ①~⑧응답)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받지 못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름	것 없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III. 수유에 관한 사항

11. ○○(이)에게 모유를 먹이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13으로 이동)

--

11-1. ○○(이)에게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모유를 먹이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2. ○○(이)에게 현재 모유를 먹고 계십니까?

- ① 예 ⇒ 12-1. 언제까지 모유수유를 할 계획입니까? 생후 _____개월(____주)

	개월			주
--	----	--	--	---

- ② 아니오 ⇒ 12-2. ○○(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언제입니까?
 생후 _____개월(____주)

	개월			주
--	----	--	--	---

13. ○○(이)의 현재까지 수유형태(모유, 조제분유, 보충식 등)를 각각 아기 월령별로 말씀해주십시오. (해당되는 수유형태 중복체크)

※조산원: ○○(이)의 출생 이후 수유상황을 매월별로 파악하여 아래에서 면호를 붙다 표기합니다.

※조산원 확인사항: 1) 조사대상 아이의 현재 월령: _____개월

2) 모유 수유 경험 여부 ① ○○(이)에게 모유를 먹인 적 있음 ②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음 _____

※조산원 확인사항: 작성 완료 후 모유수유 중단 주수여도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도록 함

구분	신생아기				월령별 구분															
	1주	2주	3주	4주	1-2개월	2-3개월	3-4개월	4-5개월	5-6개월	6-7개월	7-8개월	8-9개월	9-10개월	10-11개월	11-12개월	12-13개월	13-14개월	14-15개월	15-16개월	16-17개월
1.모유																				
2.인공유(분유)																				
3.이유식(보충식(이유식))																				
4.유유(생유유, 멸균유유)																				
5.유이식																				

470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II.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돌봄

※ 조사원: 동거 또는 비동거 중인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수를 파악하여 기입한 후, 해당 자녀수만큼 아래의 문항을 질문합니다. ◆ 취학 전 자녀수: _____명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없는 경우 <III.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으로 이동합니다.

취학 전 자녀수: _____명

6. ()배아기 이전에 일에서 잠들기 전까지 ()배아를 돌보는 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6.1. ()배아는 현재 만으로 몇 살입니까?
6.2. ()배아를 맡기()를 가장 희망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선택, 기준, 1개만)
6.3. ()배아를 실제 맡긴 사람()은 무엇입니까? (선택, 기준, 주된 순서대로 3가지까지 입력)
가장 주된 사람() 두 번째 주된 사람() 세 번째 주된 사람()

가장

사람

기타

① 공공일 지원자일 ② 가정, 민간 지원자일 ③ 본인 또는 남편 ④ 친정부모님 ⑤ 시부모님 19. 기타 ()

⑥ 기타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단체, 부모협약) ⑦ 기타 친인척 ⑧ 아이돌보미 ⑨ 아이돌보미 ⑩ 유괴()

⑪ 공공일유치원 ⑫ 사립 유치원 ⑬ 휴먼케어서비스 ⑭ 입양() ⑮ 입양()

⑯ 어린이집 지원() ⑰ 아동복지() ⑱ 기타 ⑲ 기타 ⑳ 없음

⑳ 기타 사립유치원 ㉑ 사립 유치원 ㉒ 휴먼케어서비스 ㉓ 입양() ㉔ 입양()

6.4. ()배아기 현재 돌봄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 (질문 6.5) ② 대체로 만족 ⇒ (질문 6.5) ③ 보통 ⇒ (질문 6.5)
④ 대체로 불만족 ⇒ (질문 6.4.1) ⑤ 매우 불만족 ⇒ (질문 6.4.1)

6.4.1.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설()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② 개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③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④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⑤ 문인이 돌봐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⑥ 시설()의 돌봄시간이 짧아서
기타 ()

6.5. 지난 1주일 동안 ()배아를 돌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3개만 응답해주세요. (주요를 제외한 응답만)
가장 주된 시설 및 서비스 두 번째 주된 시설 및 서비스 세 번째 주된 시설 및 서비스

시설 및 서비스

① 놀이대 ②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 ③ 그 외 아동복지 및 기타 공공 시설 ④ 기타 () ⑤ 없음

⑥ 도서관 ⑦ 도서관 ⑧ 도서관 ⑨ 도서관 ⑩ 도서관

⑪ 도서관 ⑫ 도서관 ⑬ 도서관 ⑭ 도서관 ⑮ 도서관

⑯ 도서관 ⑰ 도서관 ⑱ 도서관 ⑲ 도서관 ⑳ 도서관

㉑ 도서관 ㉒ 도서관 ㉓ 도서관 ㉔ 도서관 ㉕ 도서관

- 19 -

III.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 조사원: 동거 또는 비동거 중인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를 파악하여 기입한 후, 해당 자녀수만큼 아래의 문항을 질문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 _____명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 <IV. 자녀양육비>으로 이동합니다.

재학 중인 자녀수: _____명

7. ()배아의 방과후 돌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방학이 아닌 학기 중 방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7.1. ()배아는 현재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7.2. ()배아를 맡기()를 가장 희망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가정만)
7.3. ()배아를 맡기()를 실제 맡긴 사람()은 무엇입니까? (선택, 기준, 주된 순서대로 3가지까지 입력)
가장 주된 사람() 두 번째 주된 사람() 세 번째 주된 사람()

시설 및 프로그램

사람

기타

① 초등학교교실 ② 본인 또는 남편 ③ 친정부모님 ④ 시부모님 21. 기타 ()

⑤ 지역아동센터 ⑥ 친정부모님 ⑦ 기타 친인척 ⑧ 아이돌보미 ⑨ 아이돌보미 ⑩ 유괴()

⑪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⑫ 사립 유치원 ⑬ 휴먼케어서비스 ⑭ 입양() ⑮ 입양()

⑯ 사립 교육복지 ⑰ 아동복지() ⑱ 기타 ⑲ 기타 ⑳ 없음

⑳ 기타 사립유치원 ㉑ 사립 유치원 ㉒ 휴먼케어서비스 ㉓ 입양() ㉔ 입양()

7.4. ()배아의 방과후 돌봄 상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 (질문 8.1) ② 대체로 만족 ⇒ (질문 8.1) ③ 보통 ⇒ (질문 8.1)
④ 대체로 불만족 ⇒ (질문 7.4-1) ⑤ 매우 불만족 ⇒ (질문 7.4-1)

7.4.1.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부담 때문에 ② 돌봄 공백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③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④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

- 20 -

IV. 자녀양육비

8.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9. (지난 3개월 간) 귀댁의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자녀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원: 비동거 자녀일지라도 미혼 자녀는 모두 포함하여 질문합니다)

구분	첫째아 가구원번호: □□	둘째아 가구원번호: □□	셋째아 가구원번호: □□	넷째아 가구원번호: □□	다섯째 이상 중 막내 가구원번호: □□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 원	□□□□ 원	□□□□ 원	□□□□ 원	□□□□ 원
2) 공교육비(등록금, 방과후학 교 등)	□□□□ 원	□□□□ 원	□□□□ 원	□□□□ 원	□□□□ 원
3)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 외비 등)	□□□□ 원	□□□□ 원	□□□□ 원	□□□□ 원	□□□□ 원
4) 돌봄비용 1(찬청부모, 시부모)	□□□□ 원	□□□□ 원	□□□□ 원	□□□□ 원	□□□□ 원
5) 돌봄비용 2(기타 친인척)	□□□□ 원	□□□□ 원	□□□□ 원	□□□□ 원	□□□□ 원
6) 돌봄비용 3(비혈연)	□□□□ 원	□□□□ 원	□□□□ 원	□□□□ 원	□□□□ 원
7)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용 돈 등)	□□□□ 원	□□□□ 원	□□□□ 원	□□□□ 원	□□□□ 원
8) 총액 (CAPI 자동 계산)	□□□□ 원	□□□□ 원	□□□□ 원	□□□□ 원	□□□□ 원

10. 정부의 다음 보육·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10-1. 인지 여부		10-2. 이용 경험 (10-1, ①응답)		10-2-1. 도움 받은 정도 (10-2, ①응답)					10-3. 중요도 (10-1, ①응답)						
	알고 있음	모름	이용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받음	다소 도움 받음	보통	별로 도움 받지 못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름	
1)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72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영역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부인과 남편의 현재 취업 상태]

1. 다음은 귀하와 배우자의 현재 취업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 응답 여성과 배우자의 취업여부를 가구원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여 <질문 1-1> 해당 칸에 기입합니다. (부인은 CAP에서 자동 입력)
- 응답 여성이 미혼모이거나 이혼, 별거(이혼 전제) 혹은 사별한 경우 ▲남편의 현 취업은 질문하지 않는다.
- 응답 여성과 배우자 모두 비취업인 경우 각각에 대해 <질문 1-1>만 기입하고 <질문 6>으로 이동합니다.

구분 (근무시간과 소득은 직업이 여러 개인 경우 합산하여 응답)	부인의 현 취업	▲남편의 현 취업 남편 가구원 번호:
1-1. 취업 여부	☐ ① 취업 ☐ ② 실업 ☐ ③ 비경제활동 ⇒ <질문1-2>~<질문1-5>은 조사하지 않음	☐ ① 취업 ☐ ② 실업 ☐ ③ 비경제활동 ⇒ <질문1-2>~<질문1-5>은 조사하지 않음
1-2. 평소에 실제로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	주당 시간	주당 시간
1-3.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 조사원: - 응답 여성이 미혼모이거나 이혼, 별거(이혼 전제) 혹은 사별한 경우 ▲남편의 현 취업은 질문하지 않는다.
- 응답 여성 또는 남편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한다.

구분	부인의 현 취업	▲남편의 현 취업
1-4. 직종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⑧ 장직·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군인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⑧ 장직·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군인
1-5. 종사상 지위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7원으로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17원으로 ☐ ③ 무급가족종사자 ⇒ 17원으로 ☐ ④ 상용근로자 ☐ ⑤ 임시근로자 ☐ ⑥ 일용근로자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7원으로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17원으로 ☐ ③ 무급가족종사자 ⇒ 17원으로 ☐ ④ 상용근로자 ☐ ⑤ 임시근로자 ☐ ⑥ 일용근로자
1-6. 정규직 여부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1-7. 직장 유형	☐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투자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 ⑤ 민간 소기업(5~49인) ☐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 ⑦ 기타 ()	☐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투자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 ⑤ 민간 소기업(5~49인) ☐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 ⑦ 기타 ()
1-8. 현 직장에서의 취업(시작)시기	년 월	년 월

[부인이 현재 일을 하는 경우]

※조사원: <질문 2>부터 <질문 5>까지는 응답 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질문 8>로 이동합니다.

2. (현재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현재 전일제 근로를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안일이 많아서 ②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에
③ 건강상 이유 때문에 ④ 여가를 즐기 위해
⑤ 학업 병행을 위해 ⑥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기 위해
⑦ 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
⑧ 전직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사입부진, 조임중단, 노사분규 등 포함)
⑨ 기타(무엇인가)

--	--

3. 요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어려움 ② 대체로 어려움
③ 별로 어려움 없음 ④ 전혀 어려움 없음

9

4. 귀하께서는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illegibl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5

5. 귀하께서는 일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 ① 자녀 출신이나 양육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② 자녀를 임신하지 전까지
 ③ 자녀를 출신까지 전까지
 ④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까지
 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
 ⑥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⑦ 자녀가 중학교 ()학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⑧ 자녀가 고등학교 ()학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⑨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⑩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⑪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⑫ 자녀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⑬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⑭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⑮ 기타(연세:)

--	--

22

計

[부인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조사원: <질문 6>부터 <질문 7>까지는 응답 여성이 비취업 중인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6.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사 때문에 ② 육아 때문에
③ 부모 혹은 기타 가족 부양(돌봄) 때문에 ④ 가족의 반대 때문에
- ⑤ 건강상 어려움(심신장애) 때문에
⑥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나이, 전공, 경력 등과 원하는 근로조건 불일치)
⑦ 근지(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⑧ 교육, 기술, 경력이 부족해서
⑨ 일할 필요가 없어서 ⑩ 일하고 싶지 않아서
- ⑪ 다니던 직장, 휴업, 폐업, 사업부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⑫ 기타(무엇)

--	--

474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7.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8로 이동)

7-1.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우리 집에 돈은 별로 있는 사람이 없어서
- ②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
- ③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 ④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 ⑤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 ⑥ 가족들로부터 인정(존경)을 받기 위해서
- ⑦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 ⑧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 ⑨ 기타(무엇:)

7-2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취업을 한다면 언제쯤 취업하고 싶으십니까?

- ① 자녀 출산이나 양육과 생활일이 취직이 될 때
 ②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때 즈음
 ③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
 ④ 자녀가 중학교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
 ⑤ 자녀가 고등학교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
 ⑥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즈음
 ⑦ 자녀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즈음
 ⑧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 즈음
 ⑨ 자녀가 취업할 때 즈음
 ⑩ 자녀가 결혼할 때 즈음
 ⑪ 기타(무엇)

[현재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응답]

※조사원: <질문 8>부터 <질문 13>까지는 현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 여성을 대상으로 질문합니다.

8. 다음은 귀하의 결혼, 임신·출산 전후 근로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결혼 전후 근로상황 관련하여, 미혼모인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 재혼 이상인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조사항: 자녀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조사항 후 막내만 추가로 조사항여 최대 5명을 조사항한다.

- 결혼 직전 혹은 ○재가 임신 직전 기간에 대해 일한 적이 있는지 조사항여,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칼럼의 <설명문 8-2>부터 <설명문 8-9>는 조사항여 않습니다.
- 직업이 여러 개였던 경우에는 가장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질문한다.

구분	결혼 (미혼은 해당없음)	첫째 가구원번호 ()	둘째 가구원번호 ()	셋째 가구원번호 ()	넷째 가구원번호 ()	다섯째 이상 의 내 외 가 구 원 번호 ()
8-1. 결혼임신 직전 취업 상태 ① 일을 하고 있었음(취업) ② 일하고 있지 않았음 → <결혼 8-2> <임신 8-5>는 조사하지 않음	☐	☐	☐	☐	☐	☐
8-2. 직종						
① 관리직						
②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술원 및 관련기술종사자						
⑧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동종사자						
⑩ 군인						
8-3. 종사상지위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구분	결혼 (이혼 또는 해당없음)	첫째아 가구원번호 ()	둘째아 가구원번호 ()	셋째아 가구원번호 ()	넷째아 가구원번호 ()	다섯째 이상 중 막내아 가구원번호 ()
8-4. 직장유형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	☐	☐	☐	☐	☐	☐
8-5. 일 지속여부 <결혼> 첫지녀 임신 전까지 그 일을 계속 했습니까? <임신> 다음 자녀 임신 전까지 그 일을 계속 했습니까? ① 하던 일을 계속했다 ② 하던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 ③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	☐	☐	☐	☐	☐	☐
8-6. (오빠) 임신 직전 다니던 직장(예)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① 사용 중 ② 사용 ()개월 ③ 미사용 ④ 해당없음(회사에서 비계종, 자격요건 미충족, 직장근로자 아님)	해당없음	☐ 일	☐ 일	☐ 일	☐ 일	☐ 일
8-7. (오빠) 임신 직전 다니던 직장(예) 육아휴직 사용 여부 ① 사용 중 ② 사용 ()개월 ③ 미사용 ④ 해당없음(회사에서 비계종, 자격요건 미충족, 직장근로자 아님)	해당없음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8-8. (결혼) 임신 직전 하던 일을 그만둔 경우 8-5번 문항 ②번, ③번 응답 자녀) 그만둔 시기 <결혼> ① 결혼하면서 ② 결혼 후 ()개월 <임신> ① 임신을 알고 난 후 출산하기 전까지 ② 출산 후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8-9. (결혼) 임신 직전 하던 일을 그만둔 경우 8-5번 문항 ②번, ③번 응답 자녀) 그만둔 이유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②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③ 육아 때문에 ④ 가사(육아·재워) 때문에 ⑤ 부모 등 가족 부양(돌봄) 때문에 ⑥ 남편, 시댁 등 가족의 반대로 ⑦ 건강상 어려움 때문에 ⑧ 수입이 너무 적어서 ⑨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⑩ 직장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⑪ 장래상이 없어서 ⑫ 해고, 퇴사권유, 인사상 불이익(정보, 대기발령 등) 때문에 ⑬ 기타(무상:)	☐	☐	☐	☐	☐	☐

9. 여성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함께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수	일(직장)형태		
	전일제	시간제	일을 하지 않음
자녀를 전혀 두지 않음	①	②	③
자녀를 1명만 둔	④	⑤	⑥
자녀를 2명 이상 둔	⑦	⑧	⑨

10.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10-1. 인지 여부		10-2. 이용 경험 (10-1, ①~⑧)		10-2-1. 도움 받은 정도 (10-2, ①~⑧)				10-3. 중요도 (10-1, ①~⑧)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받지 못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1) 출산전후 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2) 육아휴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476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조사원: - 응답 여성이 미혼모인 경우에는 11-1. 인지 여부와 11-3. 중요도만 질문하고 11-2 이용 경험과 11-2-1 도움 정도는 질문하지 않는다. 이혼이나 별거(이혼 전제) 혹은 사별한 경우에는 출산 당시 배우자를 기준으로 질문한다.
- 이용 경험은 자녀 순위 상관 없이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이용 경험이 있으면 경험 있음으로 응답 한다.

11. 귀하께서는 남성도 다음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귀하의 배우자께서 다음의 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배우자의 제도 이용으로 인해 귀하는 얼마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또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남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11-1. 인지 여부		11-2. 이용 경험 (11-1. ①응답)		11-2-1. 도움 받은 정도 (11-2. ①응답)						11-3. 중요도 (11-1. ①응답)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받지 못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1) 배우자 출산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2) 육아휴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영역 6.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관련(영향)이 있다 ② 대체로 관련(영향)이 있다
③ 별로 관련(영향)이 없다 ④ 전혀 관련(영향)이 없다
⑤ 모르겠다

2.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⑤ 모르겠다

3.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합니다.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88'로 기입합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양성평등 구현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 공교육 강화
④ 교육체계 개편(초·중·고, 취업, 진학 후 교육)		
⑤ 노동시장 변화(학력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⑥ 주력시장 안정
⑦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⑧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⑨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⑩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⑪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⑫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⑬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⑭ 사교육비 경감	
⑮ 복지수준의 향상	⑯ 기타(무엇:)	77. 없음

1순위

2순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미혼 남녀(20~44세)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만 20~44세 미혼남녀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구, 보건 및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저장통계'로서 15~49세 기혼여성 조사와 20~44세 미혼남녀 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지역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표본추출 되었으며, 귀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조사내용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사회조사팀
044-287-8264, 044-287-8166

조사구 번호 조사구특성

--	--	--	--

행정코드번호	거처 번호	가구번호	조사구내 조사원표가구 일련번호	미혼자		
				가구내 조사대상 미혼남녀 총 수(명)	가구내 조사원표 미혼남녀 일련번호	가구내 조사원표 미혼남녀 가구원 번호

신주소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H.P.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월 __일 __시	① 완료 ② 장기출타 ③ 늦은귀가 ④ 시설 ⑤ 빈집 ⑥ 외국인 ⑦ 기러기 ⑧ 어린이집 ⑨ 응답거절 ⑩ 기타(미완) ⑪ 기타(제외)				
2	__월 __일 __시	① 완료 ② 장기출타 ③ 늦은귀가 ④ 시설 ⑤ 빈집 ⑥ 외국인 ⑦ 기러기 ⑧ 어린이집 ⑨ 응답거절 ⑩ 기타(미완) ⑪ 기타(제외)				
3	__월 __일 __시	① 완료 ② 장기출타 ③ 늦은귀가 ④ 시설 ⑤ 빈집 ⑥ 외국인 ⑦ 기러기 ⑧ 어린이집 ⑨ 응답거절 ⑩ 기타(미완) ⑪ 기타(제외)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일반 특성

1.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되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 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⑥ 오피스텔
⑦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⑨ 관산실, 미련하우스 ⑩ 기타(무엇: _____)

--	--

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이며, 주택의 시가 혹은 임차비용은 얼마입니까?

주변 점유형태	시가 혹은 일차 금액
① 자가	→ 시가 _____ 만원
② 전세(월세 없음)	→ 전세보증금 _____ 만원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_____ 만원, 월세 월 _____ 만원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월세 월 _____ 만원
⑤ 사글세	→ 사글세 월 _____ 만원
⑥ 두상(관사, 사택 등) → (절문 4로 이동)	

구입보충금								만원
월세·자금세								만원

3. 현재 살고 계신 집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자가인 경우 소유자, 전세나 월세 등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계약자)이며, 공동 명의인 경우 해당되는 사람 모두 선택)

- ① 본인 ② 부모님
③ 조부모님 ④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⑤ 기타()

4. 현재 살고 계신 집 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선택)

- ① 있다 ② 없다

5

5. 귀하는 부모(및 보호자)로부터 3개월 이상 떨어져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군복무는 제외)

- ① 예 ⇒ (질문 51로 이동) ② 아니오 ⇒ (질문 6으로 이동)

1

5-1. 귀하가 처음 부모(및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살기 시작한 당시는 몇 살이었으며, 떨어져 살게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1) 당시 만연령

2) 떨어져 살게된 지역

- ① 부모(및 보호자)와 같은 시군구 ② 부모(및 보호자)와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③ 부모(및 보호자)와 다른 시도 ④ 부모(및 보호자)와 다른 국가



$\frac{1}{2}$

11

5-2. 귀하가 처음 부모(및 보호자)와 떨어져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 때문에 ② 취업준비 때문에 ③ 직장 때문에
④ 자유롭고 싶어서 ⑤ 집안사정 때문에 ⑥ 기타()

1

6. (지난 3개월 간) 귀하의 월평균 소득(세금 공제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1)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만원
--	--	--	--	--	--	--	----

2)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만원
--	--	--	--	--	--	--	----

3) 공적이전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만원
--	--	--	--	--	--	--	----

4) 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 등) 월평균 _____ 만원

							만원
--	--	--	--	--	--	--	----

총액 (CAPS로 자동 계산) 월평균 _____ 만원

							만원
--	--	--	--	--	--	--	----

7. 귀하는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생활비, 주거비, 교육비)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

8. (지난 3개월 간) 귀하의 월평균 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만원
--	--	--	--	--	--	----

9. 귀하의 재산(동산+부동산)은 얼마입니까?

총 _____ 만원

							만원
--	--	--	--	--	--	--	----

10. 귀하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총 _____ 만원

							만원
--	--	--	--	--	--	--	----

영역 1. 교육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 조사원: 가구원 정보를 참고하여 응답자의 교육정도과 교육상태를 기입합니다. (CAPI에서 자동 입력)

1) 교육정도 : 무었: 2) 교육상태 : 무었: 1) 2)

1. 귀하가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입학시기와 졸업(수료, 중퇴)시기는 언제 입니까?

입학시기 : 년 월 졸업·중퇴·수료시기 : 년 월입학 년 월
졸업 년 월
중퇴·수료

2. 귀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다닌 모든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총 수학기간(다닌 기간)은 몇 년입니까? 입대 등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학기간 : 년 개월년 개월

3. 귀하는 현재 취업 중입니까? 비취업 중입니까? (CAPI 가구원 정보에서 자동으로 가져오기)

① 취업 중 ⇒ (질문 3-2로)

② 비취업 중(실업)

③ 비취업 중(비경제활동)

3-1. 귀하는 지금까지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취업 경험 있음

② 취업 경험 없음 ⇒ (질문 4로)

3-2. 귀하가 지금까지 이직한 회수는 총 몇 회입니까?

총 회회3-3. 귀하가 지금까지 취업했던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총 취업기간: 년 개월년 개월

3-4. 다음은 귀하의 취업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 - 응답자가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합니다.

- <질문 3-2>에서 이직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3-4-3. 최초의 경제활동>도 질문합니다.

구분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질문 3에서 "①취업 중"에 응답한 경우)	현재 비취업 중인 경우 (※질문 3에서 "②~③비취업 중" 그리고 3-1에서 "①취업 경험 있음"에 응답한 경우)	3-4-3.최초의 경제활동 (※질문 3-2에서 이직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3-4-1.현재의 경제활동	3-4-2.마지막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여 시기	년 월	년 월	년 월
직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482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구분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질문 3에서 "①취업 중"에 응답한 경우)	현재 비취업 중인 경우 (※질문 3에서 "②~④비취업중" 그리고 3-1에서 "①취업 경험 있음"에 응답한 경우)	3-4-3.최초의 경제활동 (※질문 3-2에서 이직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3-4-1.현재의 경제활동	3-4-2.마지막 경제활동	
직장유형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자(5인 미만) ⑦ 기타 () ☐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자(5인 미만) ⑦ 기타 () ☐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자(5인 미만) ⑦ 기타 () ☐
종사상지위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 가족종사자 ④ 상용직 ⑤ 임시직 ⑥ 일용직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 가족종사자 ④ 상용직 ⑤ 임시직 ⑥ 일용직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 가족종사자 ④ 상용직 ⑤ 임시직 ⑥ 일용직 ☐
정규직 여부 (※종사상지위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에만 적용)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주당 근로시간	주당 시간	주당 시간	주당 시간
경제활동 종단시기	년 월		년 월
경제활동 종단 이유	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② 정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인해 ③ 계약기간이 끝나서 ④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⑤ 일이 일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⑥ 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 ⑦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⑧ 건강 문제로 인해 ⑨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⑩ 직장내 괴롭힘 등 괴롭힘이 이뤄워서 ⑪ 퇴직 때문에 ⑫ 군입대 때문에 ⑬ 다른 일차리로 옮기기로 해서 ☐ ☐ ⑭ 기타 ☐		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② 정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인해 ③ 계약기간이 끝나서 ④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⑤ 일이 일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⑥ 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 ⑦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⑧ 건강 문제로 인해 ⑨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⑩ 직장내 괴롭힘 등 괴롭힘이 이뤄워서 ⑪ 퇴직 때문에 ⑫ 군입대 때문에 ⑬ 다른 일차리로 옮기기로 해서 ☐ ☐ ⑭ 기타 ☐

4. 귀하가 직업(또는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명예·명성 ② 안정성 ③ 수입
 ④ 적성·흥미 ⑤ 보람·자아성취 ⑥ 발전성·장래성
 ⑦ 용이성(하기에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일) ⑧ 시간적 여유
 ⑨ 직장의 복지 ⑩ 기타() ⑪ 잘 모르겠다

영역 2. 이성교제 및 결혼에 관한 사항

1. 귀하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질문 1-1로 이동)

② 아니오 ⇒ (질문 1-2로 이동)

☐

1-1.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언제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까?

_____년 _____월

--	--	--	--	--	--	--

1-1-1.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서
 ② 직장 및 일 관계로
 ③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에서
 ④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⑤ 친구나 형제자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⑥ 선을 봐서(전척이나 상사의 소개 포함)
 ⑦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⑧ 길거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⑨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⑩ 기타 (자세하: _____)
 ⑪ 잘 모름

☐

1-1-2.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1-2번 응답 후 질문 2로 이동)

☐

1-2. 귀하가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② 지금은 일(또는 학업)에 열중하고 싶기 때문에
 ③ 지금은 취미나 오락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④ 혼자만의 자유로움과 편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⑤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⑥ 이성과 잘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⑦ 금전적 부담 때문에
 ⑧ 기타 (_____)

☐

2.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⑤ 모르겠다

☐

3.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남자: 만 _____세

2) 여자: 만 _____세

남자		
여자		

484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4.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4-1. 귀하가 결혼한다면 몇 세에 할 계획입니까?
 ②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만 _____ 세
 ③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세

5. 귀하는 다음의 배우자 조건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학력	①	②	③	④
2) 직업(직종 및 직위)	①	②	③	④
3) 경제력(소득, 재산 등)	①	②	③	④
4) 성격	①	②	③	④
5)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①	②	③	④
6) 건강	①	②	③	④
7) 공통의 취미 유무	①	②	③	④
8)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	①	②	③	④
9)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	①	②	③	④
10) 가정환경	①	②	③	④

6. 귀하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역	보 기
경제적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⑥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장제 또는 권고 퇴직,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사회적	⑧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⑨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가치관	⑩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⑫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⑬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와 자기개발을 위해) ⑭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따당한 사람이 없어서) ⑮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⑯ 결혼을 하면 용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가족	⑰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여자가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⑱ 장예(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기타	⑲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⑳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㉑ 기타(무엇:)

7. 귀하는 결혼에 관한 다음의 견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혼인신고는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영역 3.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

1. 귀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함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임
③ 없어도 무관함
④ 모르겠음

1-1.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②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⑤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⑥ 기타(무엇:_____)

2.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상자녀수: _____명
② 잘 모르겠다

이상자녀수 명

3. 귀하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으십니까?

- ① 희망자녀수: _____명 ⇒ 0명인 경우 질문 4로, 1명 이상인 경우 질문 31로 이동
② 모르겠음 ⇒ (질문 4로 이동)

희망자녀수 명

3-1. (자녀를 둔다면) 딸·아들 구별없이 입니까? 구별해서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별없이
② 딸·아들 구별해서(아들 _____명, 딸 _____명)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무엇:_____)

아들(명) 딸(명)

4.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3)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5. 가족 내 부부의 역할과 관련한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을	전혀 찬성하지 않을
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6. 가족에 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을	전혀 찬성하지 않을
1)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2)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①	②	③	④
6)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8)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이상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다음의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
- ②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갖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
- ③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 한다
- ④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
- ⑤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여 그 이후로 일을 하지 않는다
- ⑥ 잘 모르겠다

--

영역 4.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관련(영향)이 있음 ② 대체로 관련(영향)이 있음
③ 별로 관련(영향)이 없음 ④ 전혀 관련(영향)이 없음
⑤ 모르겠음

1

2. 귀하는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 (질문 2-1로 이동) ② 다소 필요함 ⇒ (질문 2-1로 이동)
③ 별로 필요없음 ④ 전혀 필요없음

1

- 2-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실업 문제 해소 ② 청년 고용 안정화(미정규직 문제 등 해소)
- ③ 신혼집 마련 지원 ④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 ⑤ 장시간 근로관행 등 직장문화 개선 ⑥ 기타 (무엇:)

1

- 3.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함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음
⑤ 모르겠음

11

4. 다음은 정부에서 결혼 및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인지여부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4.1.		4.2 중요도						
	인지 여부		(주조사항: 4-10에서 10에 응답한 경우만)						
	알고 있을	모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름	것됨
1)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세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2)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3)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구 고용안정카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4)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5)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6)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7)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8)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9) 양육·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유치원비용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10)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illegible]

5.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양성평등 구현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 공교육 강화
④ 교육체계 개편(졸업 후 취업, 선취업 후 교육)		
⑤ 노동시장 변화(학력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⑥ 주택시장 안정	
⑦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⑧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⑨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⑩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⑪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⑫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⑬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⑭ 사교육비 경감	
⑮ 복지수준의 향상	⑯ 기타(무엇:)	77. 없음

1순위		
2순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